전시가요곡

200곡집



1954

조선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

전시가요곡

200곡집



1954

조선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

머 릿 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호하는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의 간고한 시련 속에서 조선 인민은 미제국주의 무력 침공자들을 타승하고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것은 전체 조선 인민이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옳바른 령도와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지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유와 통일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는 고상한 애국주의적 정신으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한 결과이다.

우리 작곡가들도 전체 인민들과 함께 三년간에 걸친 가렬한 전쟁속에서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쟁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총력량을 창작사업에 경주 하였다.

그리하여 수백편의 가곡들을 창작하여 전선의 병사들과 후방 인민들을 전쟁 승리에로 고무 격려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오늘 우리는 그중 200곡을 선택하여 이 가곡집을 출판 한다.

이 가곡들은 조국해방 전쟁을 빛나게 승리한 영웅적 조선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완수의 길에 총궐기한 인민들을 고무 격려하는데 또한 크게 이바지할 것을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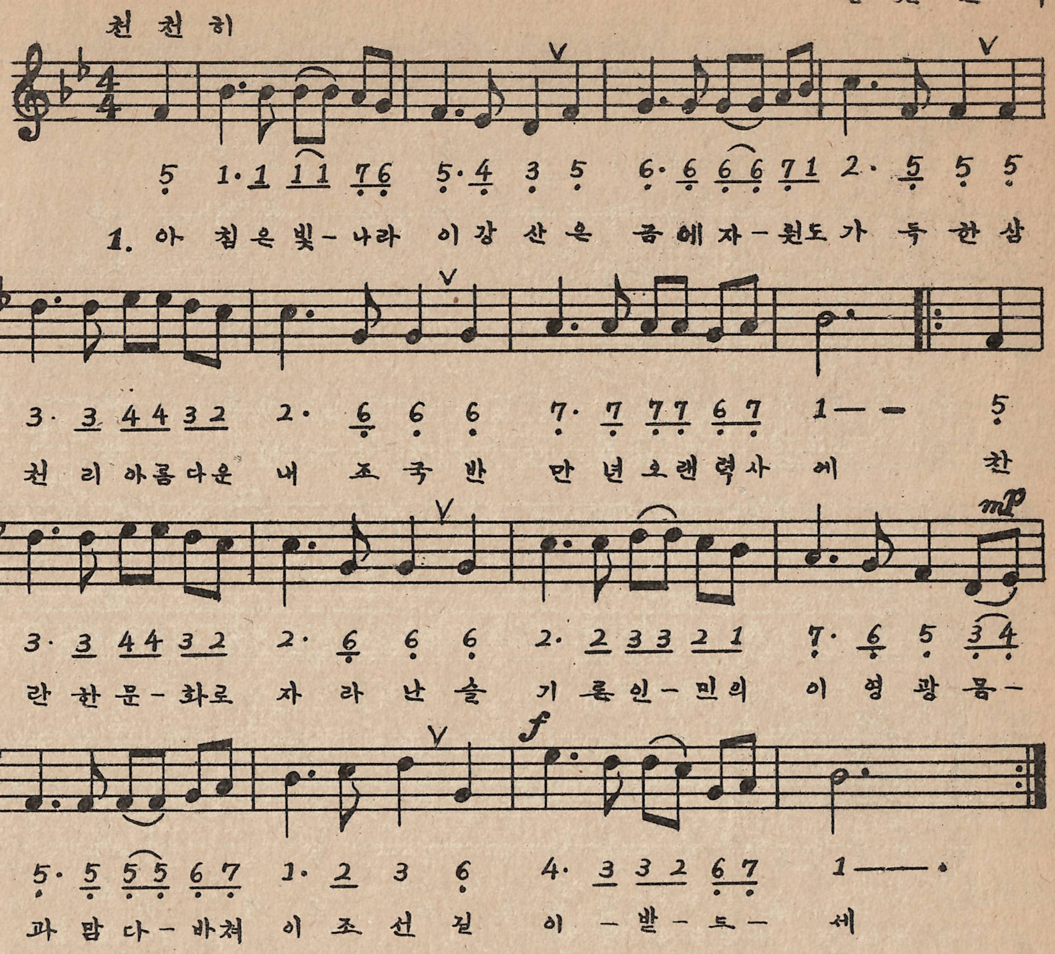
차　례

가 요 편

동 요 편

애 국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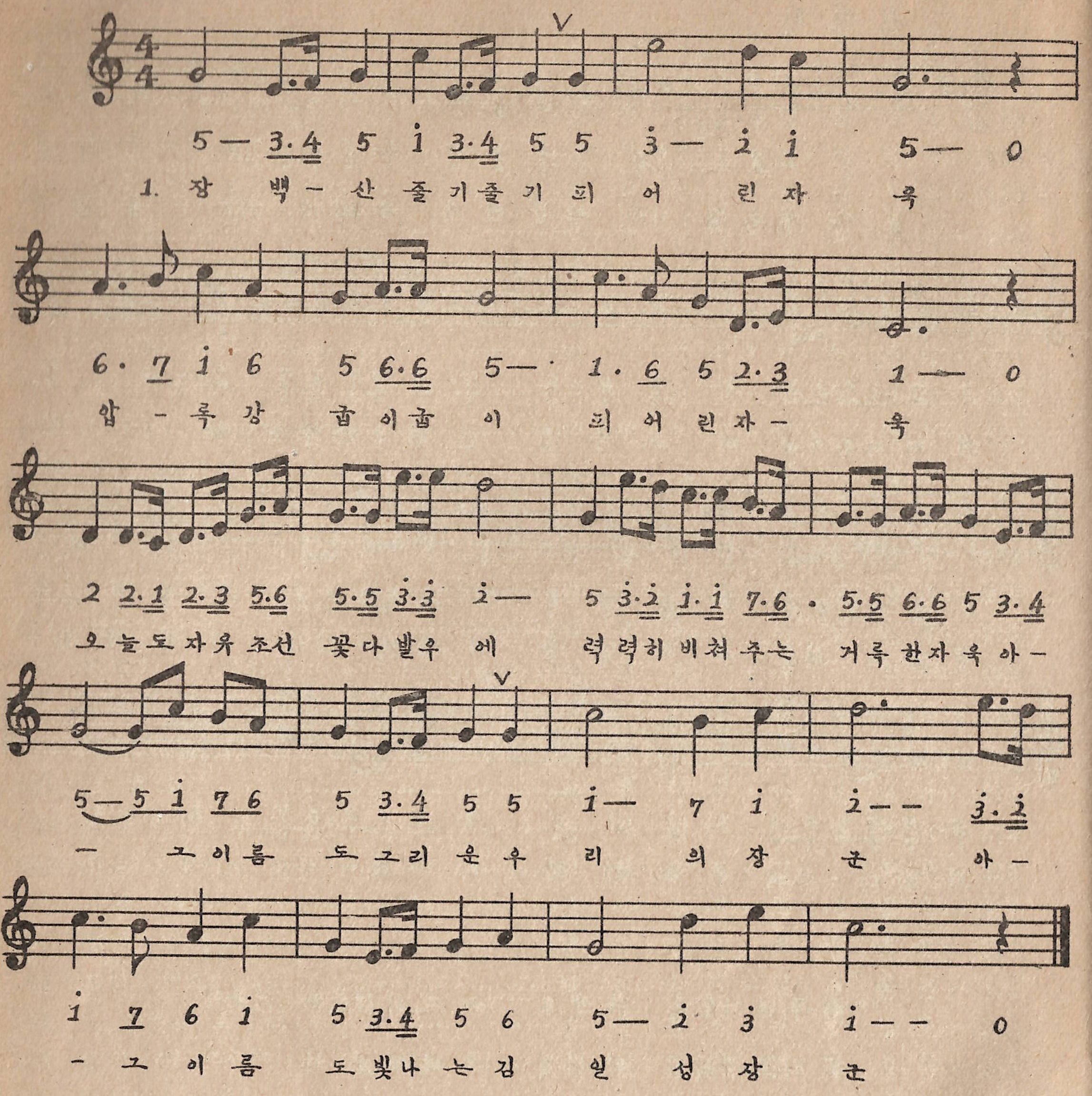
박 세 영 시
김 원 균 곡



2\. 백두산기상을 다안고 근로의정신은 깃들어
진리로뭉쳐진 억센뜻 온세계 앞서 나가리
‖: 솟는힘 노도로 내밀어 인민의뜻으로 선나라
한없이부강하는 이조선 길 이 빛 내 세 :‖

김일성장군의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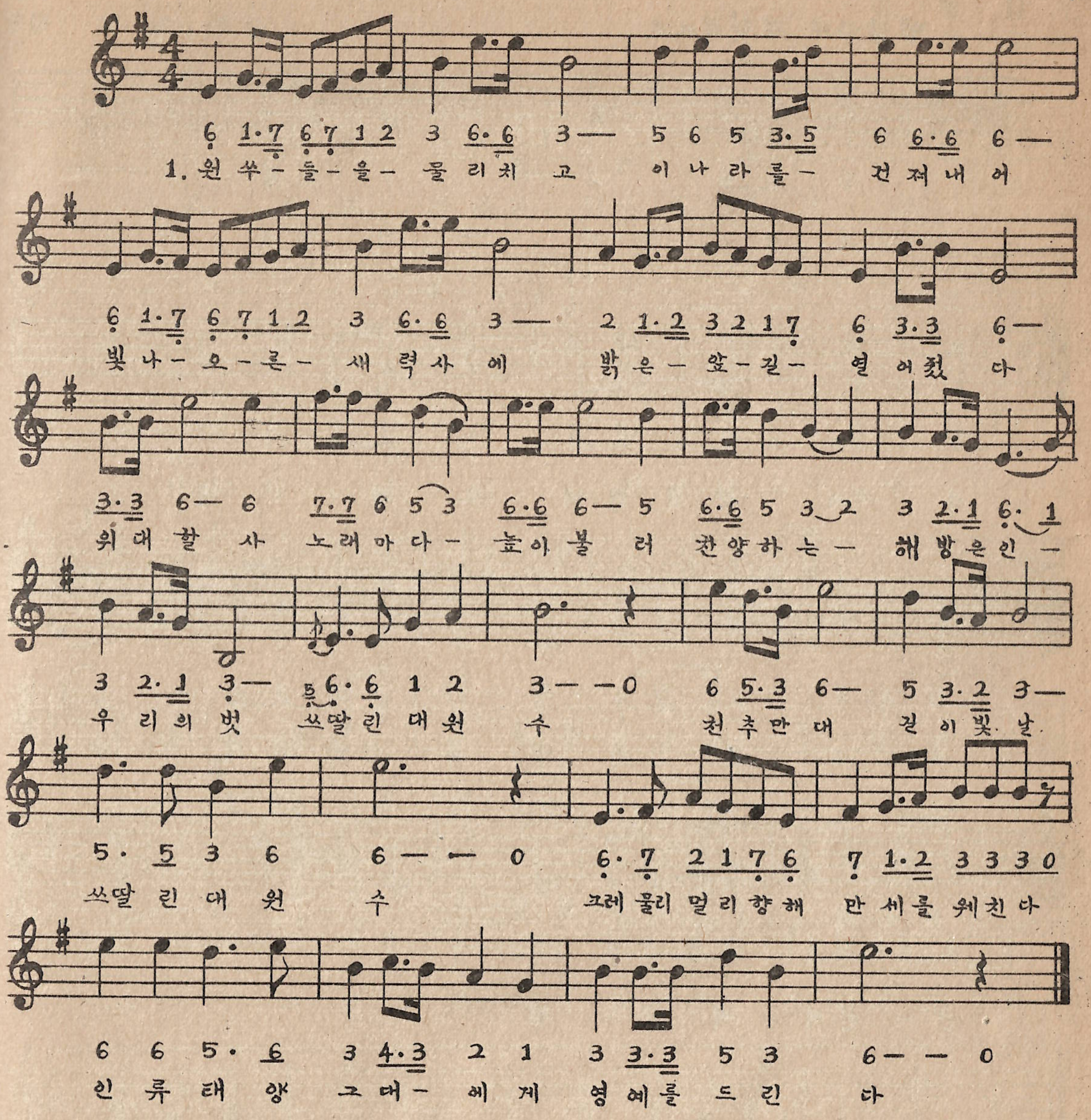
리 찬 시
김 원 균 곡



2\.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이름도 그리운 우리의장군
아 그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쓰딸린대원수의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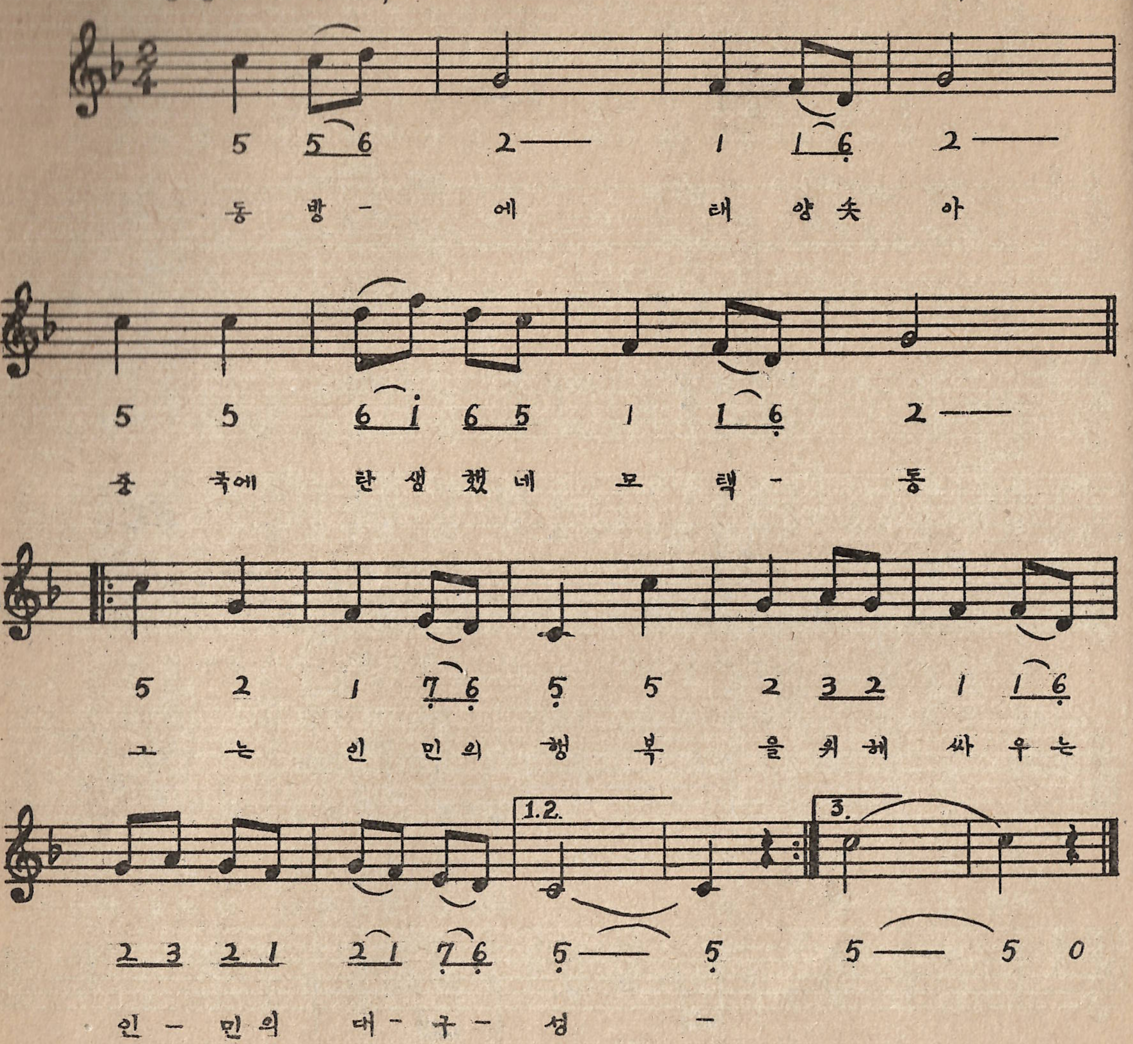
홍 철 민 시
리 면 상 곡



2\. 오 각별빛 찬란한땅 삼천리의 이강토
위대하신 그대이름 넓고넓게 울려간다
영명할사 만백성이 한결같이 떠받드는
이나라의 해방은인 쓰딸린대원수
후손만대 길이떨칠 쓰딸린대원수

동 방 홍

명랑하게 정렬적으로 　　　　　　　　　　　　　하 록 정 　편곡



동 방 에 　태 양 　솟 아

중 국 에 　탄생 했 네 　모 택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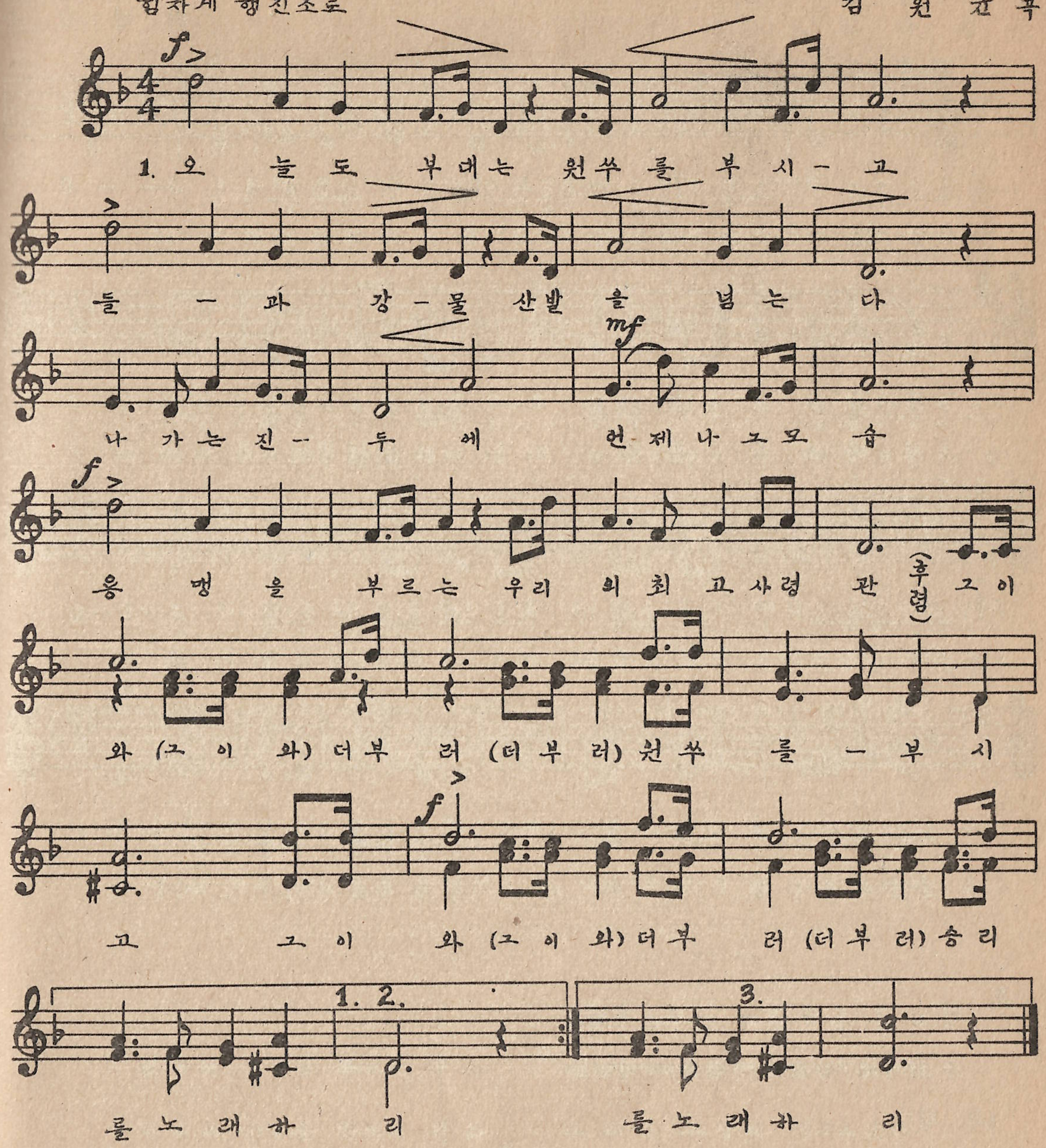
그 는 인 민 의 　행 복 을 　위 해

싸 우 는 　인 민 의 　대 구 성

우 리 의 최 고 사 령 관

김 북 원 시
김 원 균 곡

힘차게 행진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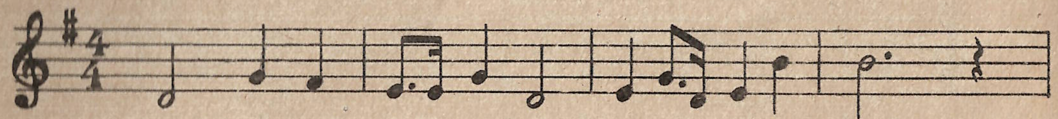


2. 이 밤 도 전 우 들 　산 발 에 싸 우 며
동 트 는 고 지 에 　군 기 를 날 린 다
피 끓는 가 슴 들 　우 러 러 서 면
승 리 를 말 하 는 우 리 의 최 고 사 령 관
(후 　렴)

3. 용 감 한 인 민 군 　미 제 를 물 리 쳐
승 리 한 그 날 엔 　자 유 론 내 조 국
끝 없 이 번 영 할 　그 날 을 위 하 여
받 들 어 나 가 자 우 리 의 최 고 사 령 관
(후 　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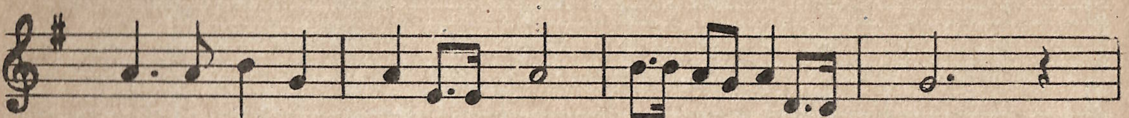
조국보위의 노래

조 령 출 시
리 면 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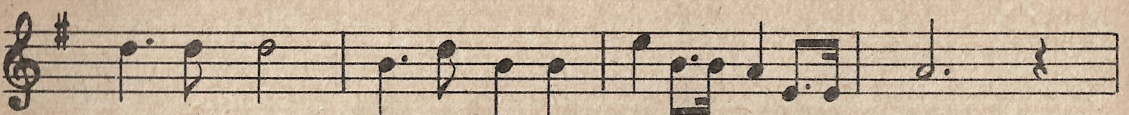


5— 1 7 6·6 1 5— 6 1·5 6 3 3— — 0

1. 가 슴 에 끓는피를 조국에바치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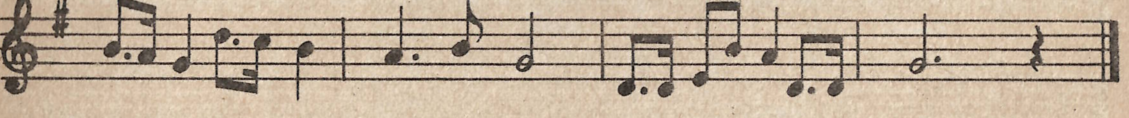


2· 2 3 1 2 6·6 2— 3·3 2 1 2 5·5 1— — 0

영 예 로 운 별 빛 — 이 머리 위에 빛난— 다



(후렴) 5· 5 5— 3· 5 3 3 6 3·3 2 6·6 2— —0

나 가 자 인 민 군 대 용 감 한 전 사 들 아



3·2 1 5·4 3 2· 3 1— 5·5 6 3 2 5·5 1— —0

인민의조국을 지 키 자 목 숨 으 로 지 키 — 자

2. 정의의 총칼앞에 원쑤를 무찔러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라
(후 렴)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3. 우리의 부모형제 우리가 사는곳
제국주의 침략에 한치인들 밟히랴
(후 렴)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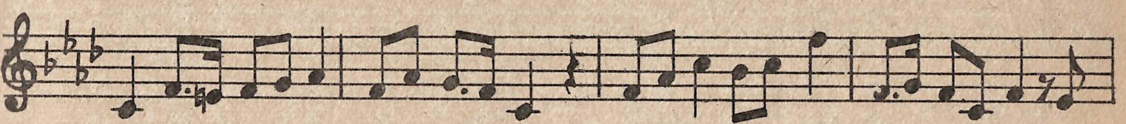
섬멸의 노래

석 광 히 시
김 옥 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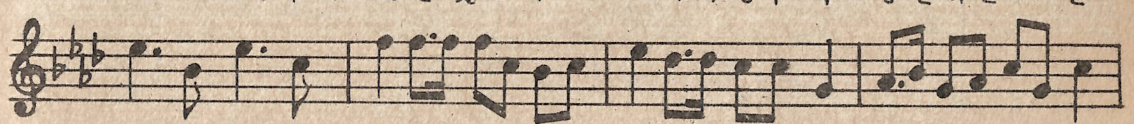


3 6· #5 6 7 1 6 1 7·6 3 0 0 6 7 1 7 1 2 1·7 1 3 3—

1. 가렬한전투의 저기저언덕 피흘린동지를 잊지말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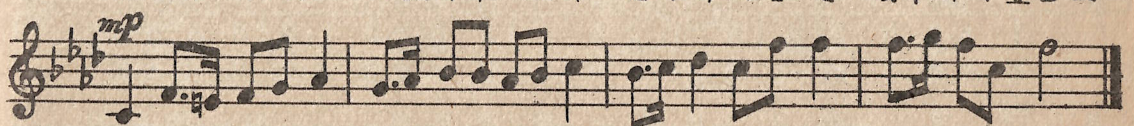


3 6· #5 6 7 1 6 1 7·6 3 0 6 1 3 2 3 6 6·7 6 3 6 0 5

쓰러진전우의 원한씻으려 나가자동무여 섬멸의길로 만



5· 2 5· 3 6 6·6 6 3 2 3 5 4·4 3 3 7 1·2 7 1 3 7 3

세 만 세 만 세높이부—르며 원쑤의화점 을 짓부시며앞으로



3 6· #5 6 7 1 7·1 2 2 1 2 3 2·3 4 3 6 6 6 7 6 3 6—

원쑤의화점을 짓부시며앞으로 나가자동무여 결전의길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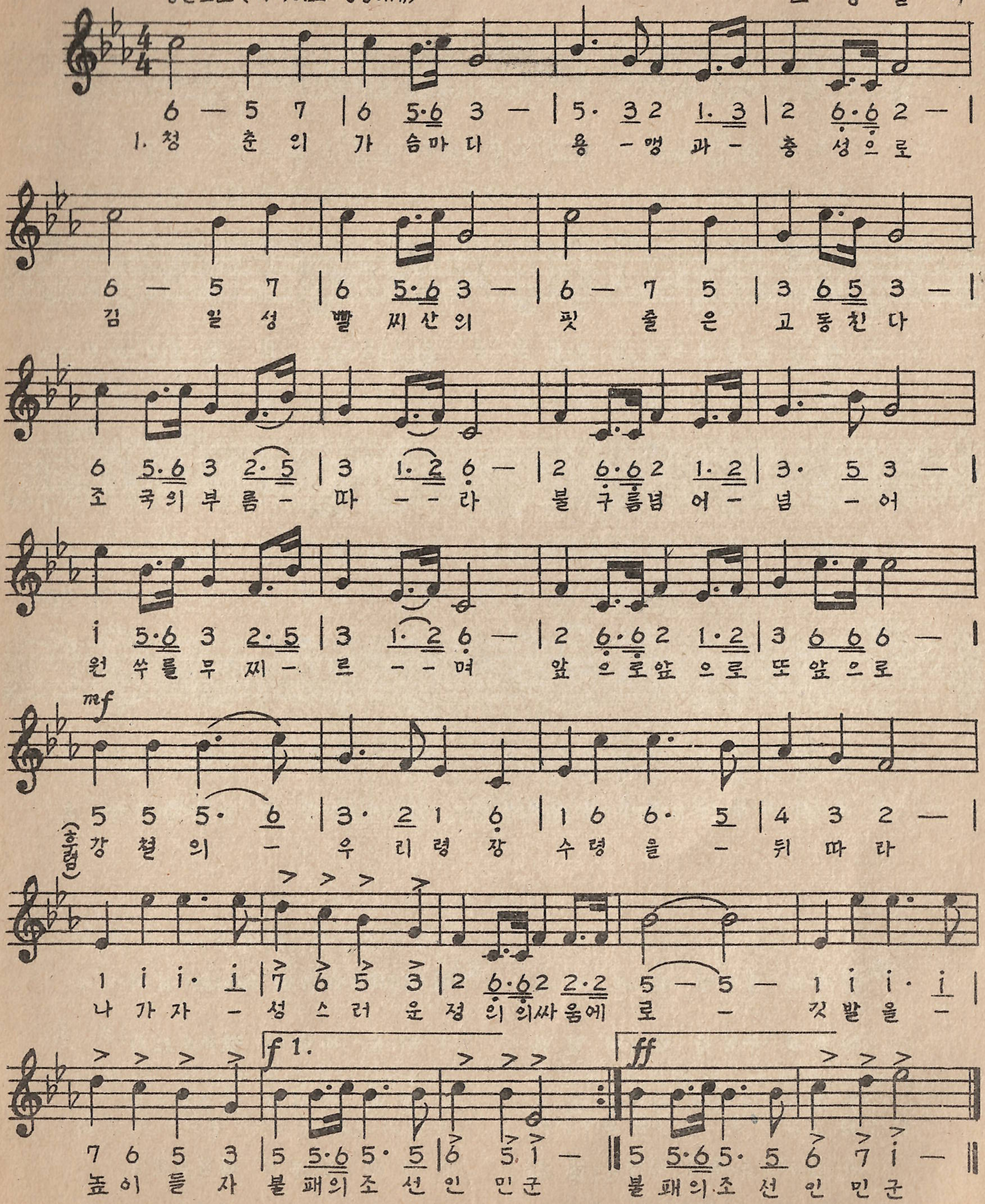
2. 원쑤의 불구멍 몸으로 막은
전우의 죽엄을 헛되게 말라
구령은 내렸다 탄우를 뚫고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3. 피로서 승리해 가는이길이
그리운 고향에 뻗치고있다
수령께 맹서한 붉은맘으로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길로

조선인민군군가

홍순철 시
모영일 곡

행진조로 (씩씩하고 명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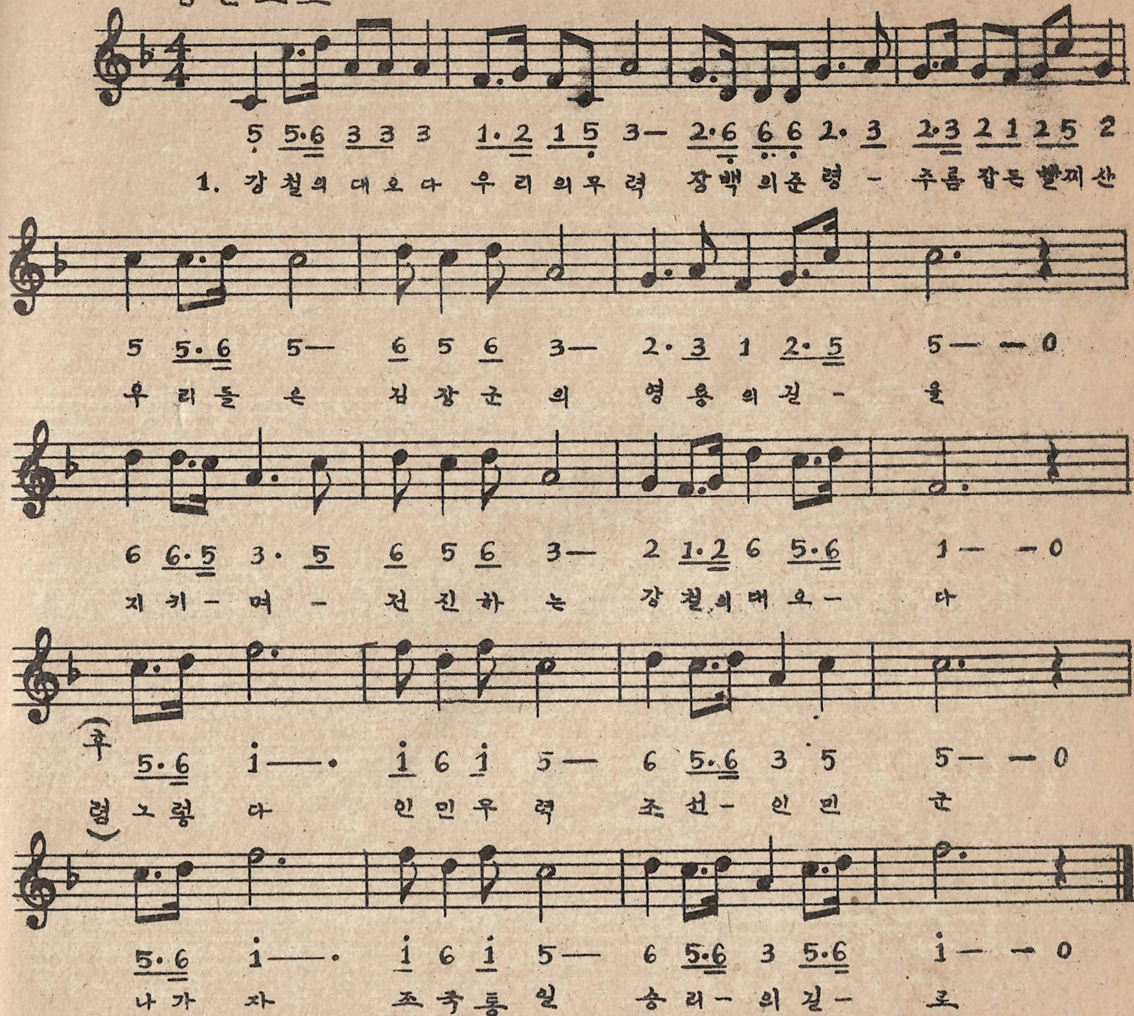


2. 영예로 아로새긴 군기를 휘날리며
억만의 돌격대로 평화를 지켜간다
인민의 품은원한 천백배 보복하여
백승을 떨치면서 앞으로 또앞으로
—(후렴)—

강철의 대오는 전진한다

리문섭 시
김원균 곡

행진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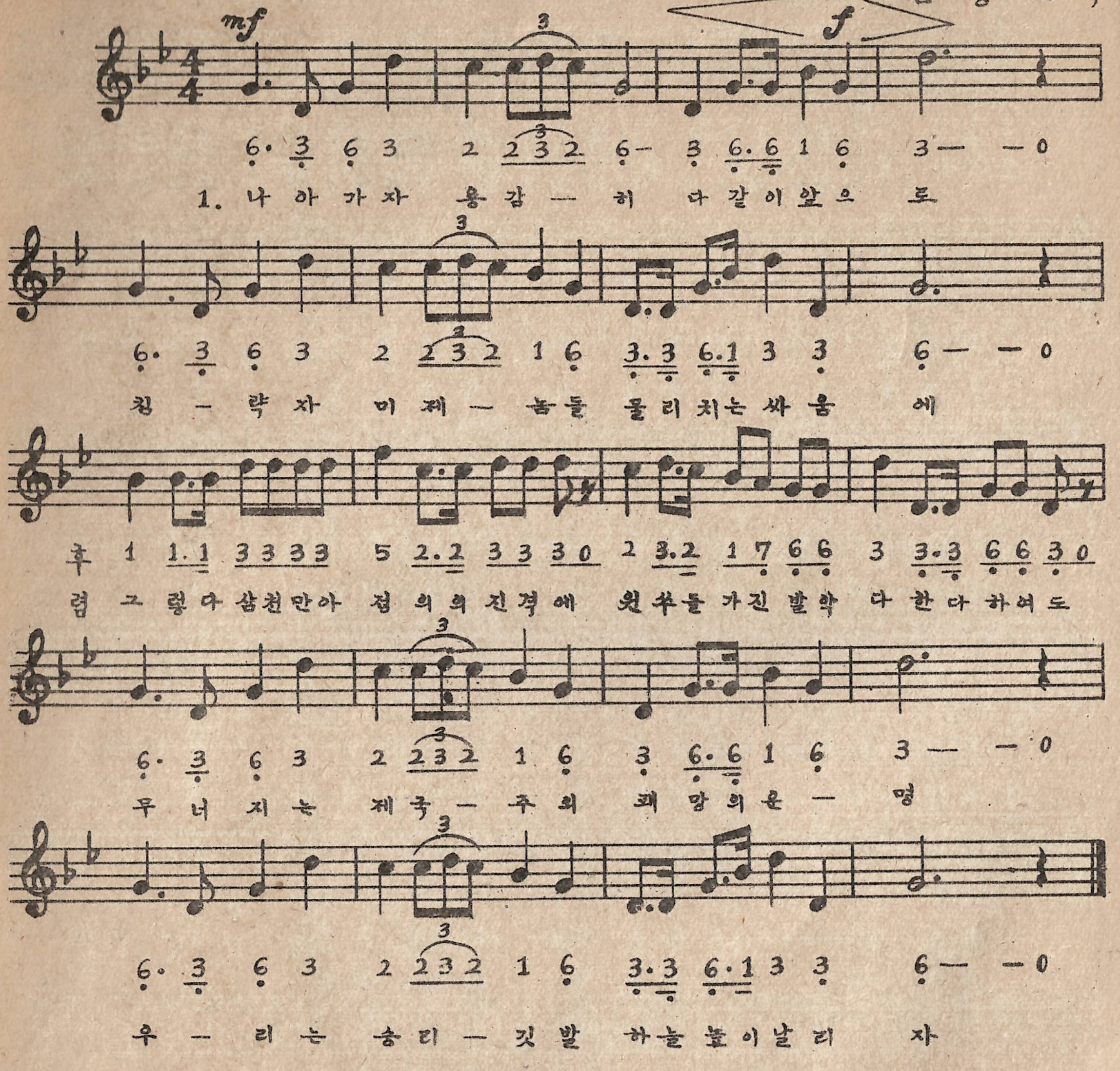
2. 불패의대오다우리의무력
침략의마수미제를무찔러
싸워가자인민조국우리의강토
정의로지켜가는 불패의대오다
후렴

3. 승리의대오다우리의무력
평화의기폭이 땅위에날리며
삼천만의 단결된힘 뭉쳐나간다
빛나는 우리들은 승리의대오다
후렴

정의의 진격

배 영 주 시
함 홍 근 곡

행진조로 힘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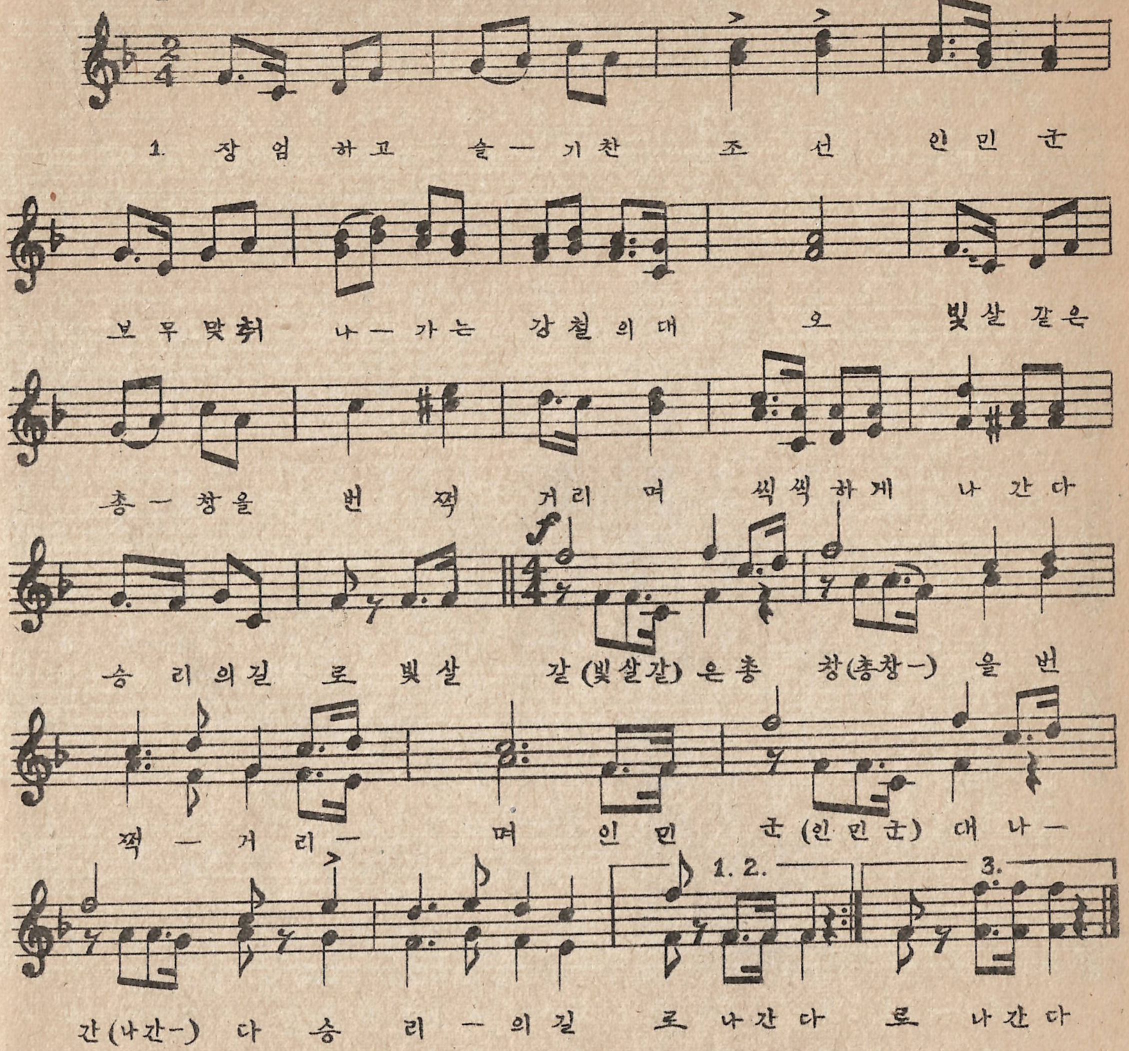
2.

나 아 가 자 용 감 히 피 에 는 피 로 써
조 국 의 자 유 독 립 쟁 취 하 는 싸 움 에
후 렴

보 위 행 진 곡

안 영 시
김 옥 성 곡

힘 차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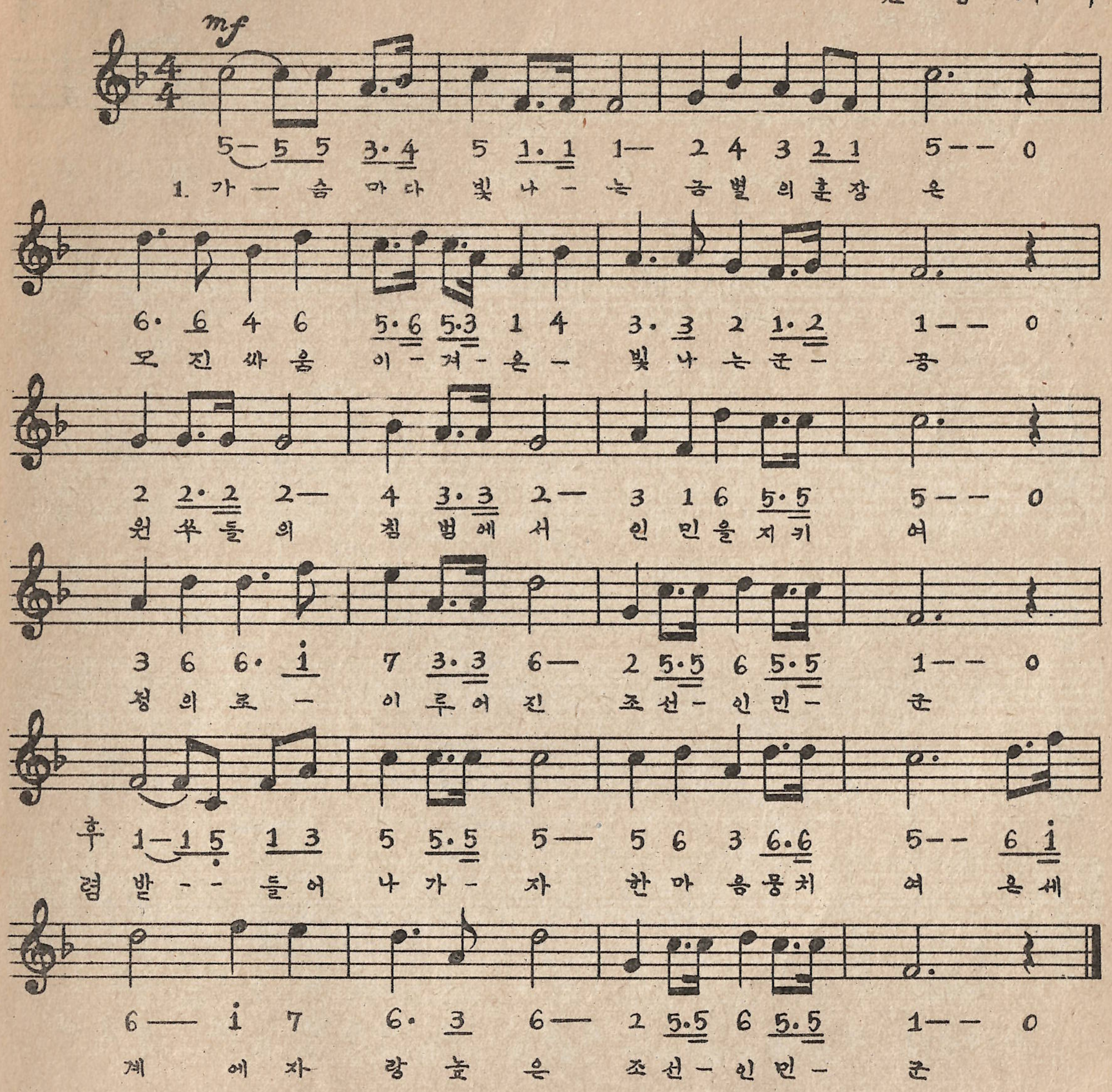


2.

김 장 군 의 전 통 을 계 승 한 용 사
줄 기 차 게 나 가 는 정 의 의 대 오
영 광 스 런 군 기 를 선 두 에 날 려
노 래 높 이 부 르 며 통 일 의 길 로
빛 살 같 은 총 창 을 번 쩍 거 리 며
인 민 군 대 나 간 다 승 리 의 길 로 나 간 다

영광의 군대

김 순 석 시
윤 영 기 곡

행진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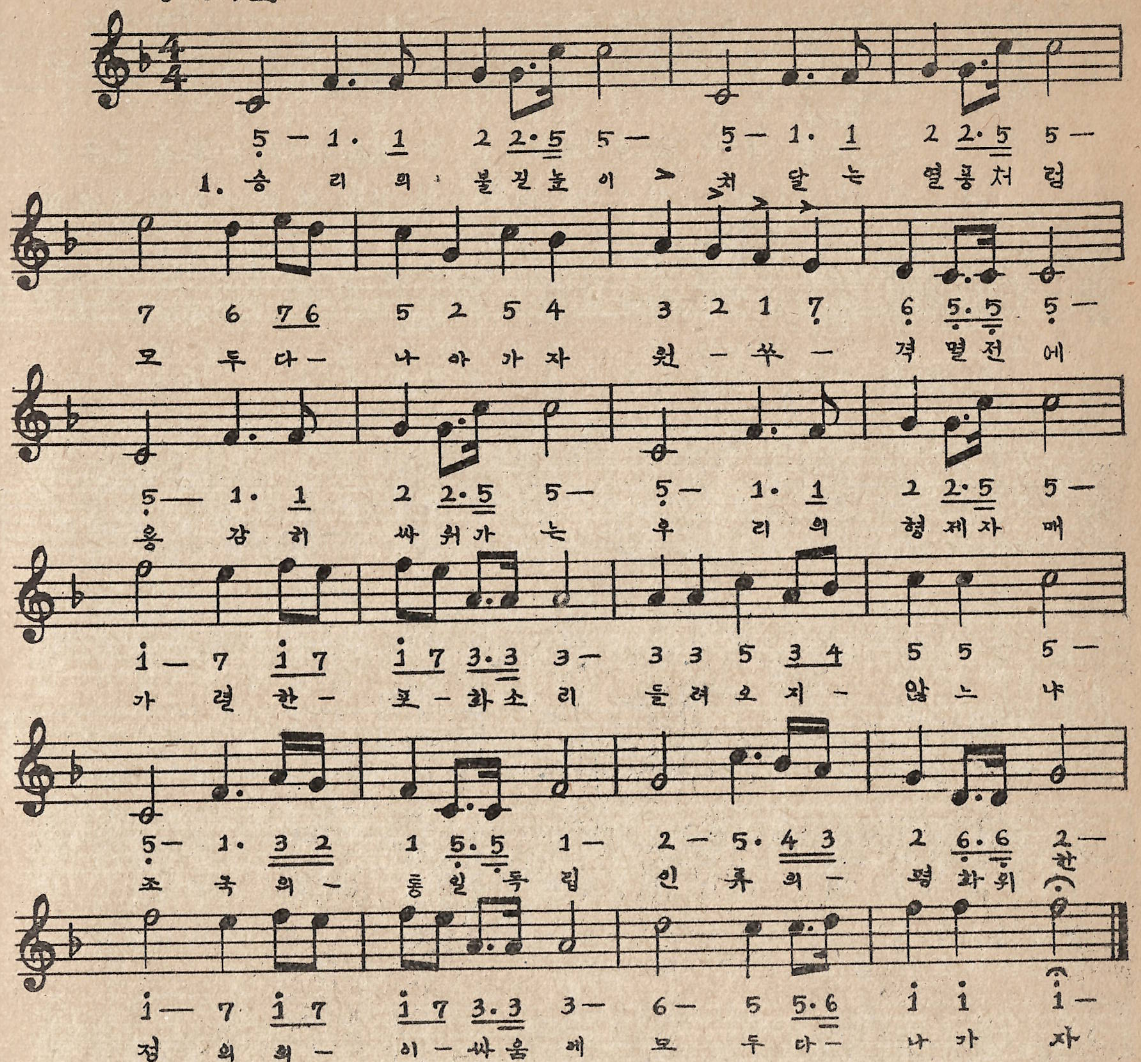
2. 영 광 스 런 조 국 의 슬 기 로 운 아 들 딸
원 쑤 에 겐 무 서 운 강 철 의 성 벽
침 략 자 의 발 악 에 서 평 화 를 지 키 여
승 리 로 빛 나 는 조 선 인 민 군

후 렴

결전의 노래

리 찬 시
박 한 규 곡

행진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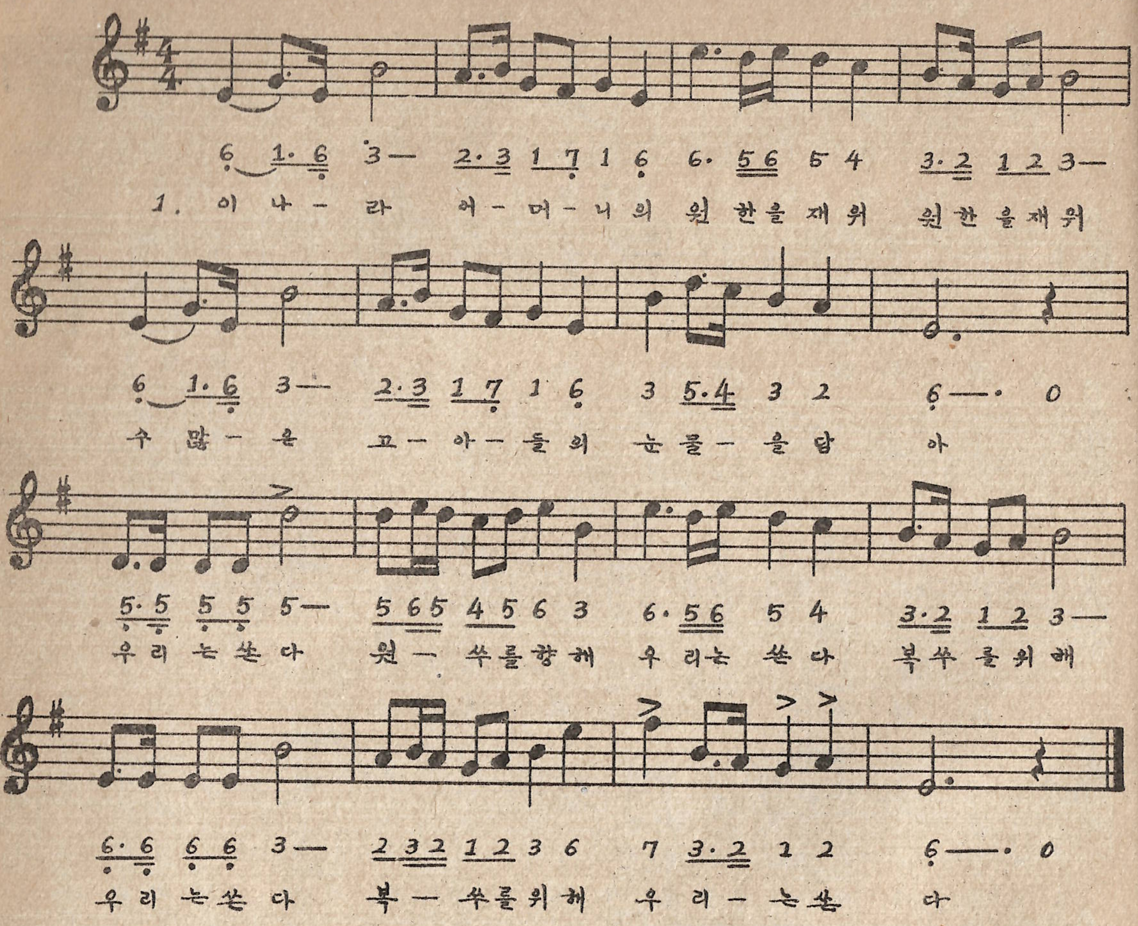


2. 애국의불길높이 저마다앞다투어
전선에요구되는 모든것다바치자
조국과후손만대 운명을결정하는
판가리이마당에 무엇이아까우랴
온세계형제들도 모두다뒤받드는
결승의이싸움에 모든것 바치자

우리는 쏜다 복쑤를 위해

정 서 촌 시
김 원 균 곡

힘있게 행진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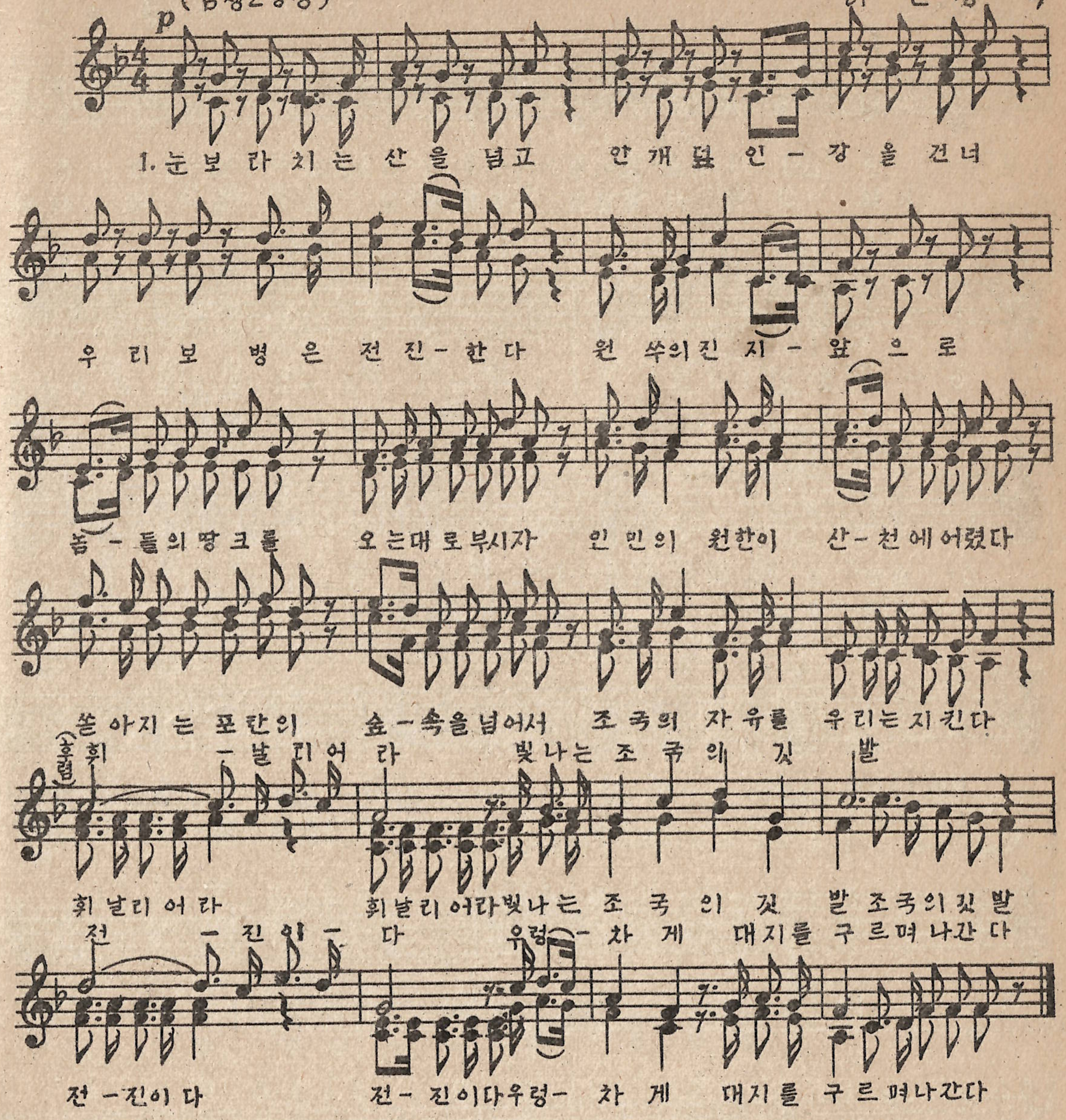
2. 원쑤들이 불사른 고향을 위해 고향을 위해
원쑤들이 짓밟은 이 땅을 위해
우리는 쏜다 원쑤를 향해
우리는 쏜다 자유를 위해
우리는 쏜다 자유를 위해 우리는 쏜다

3. 조국의 푸른하늘 가슴에 새겨 가슴에 새겨
물결치는 논과 들을 마음에 안고
우리는 쏜다 원쑤를 향해
우리는 쏜다 행복을 위해
우리는 쏜다 행복을 위해 우리는 쏜다

보병행진곡

조 령 출 시
리 면 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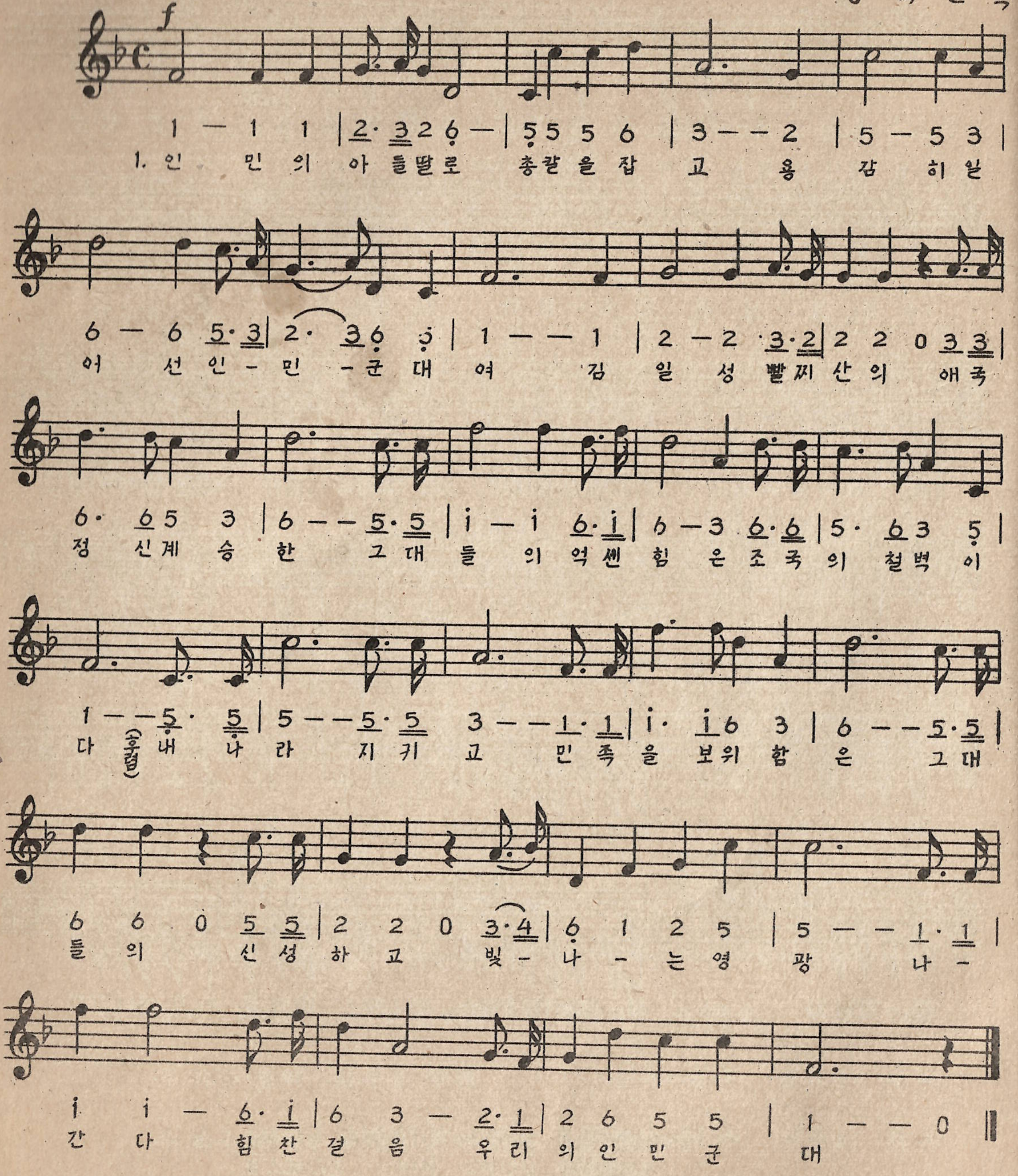
(남성2중창)



2. 진군나팔을 울리면서 천리원정의 험한 길을
우리보병은 전진한다 원쑤의 진지 앞으로
놈들의 화점을 용감히 부시자
증오에 타는 불 가슴에 솟는다
쓸어지는 전우의 죽엄을 넘어서
조국의 자유를 우리는 지킨다
—(후 렴)—

인민군대 찬가

조 령 출 시
황 학 근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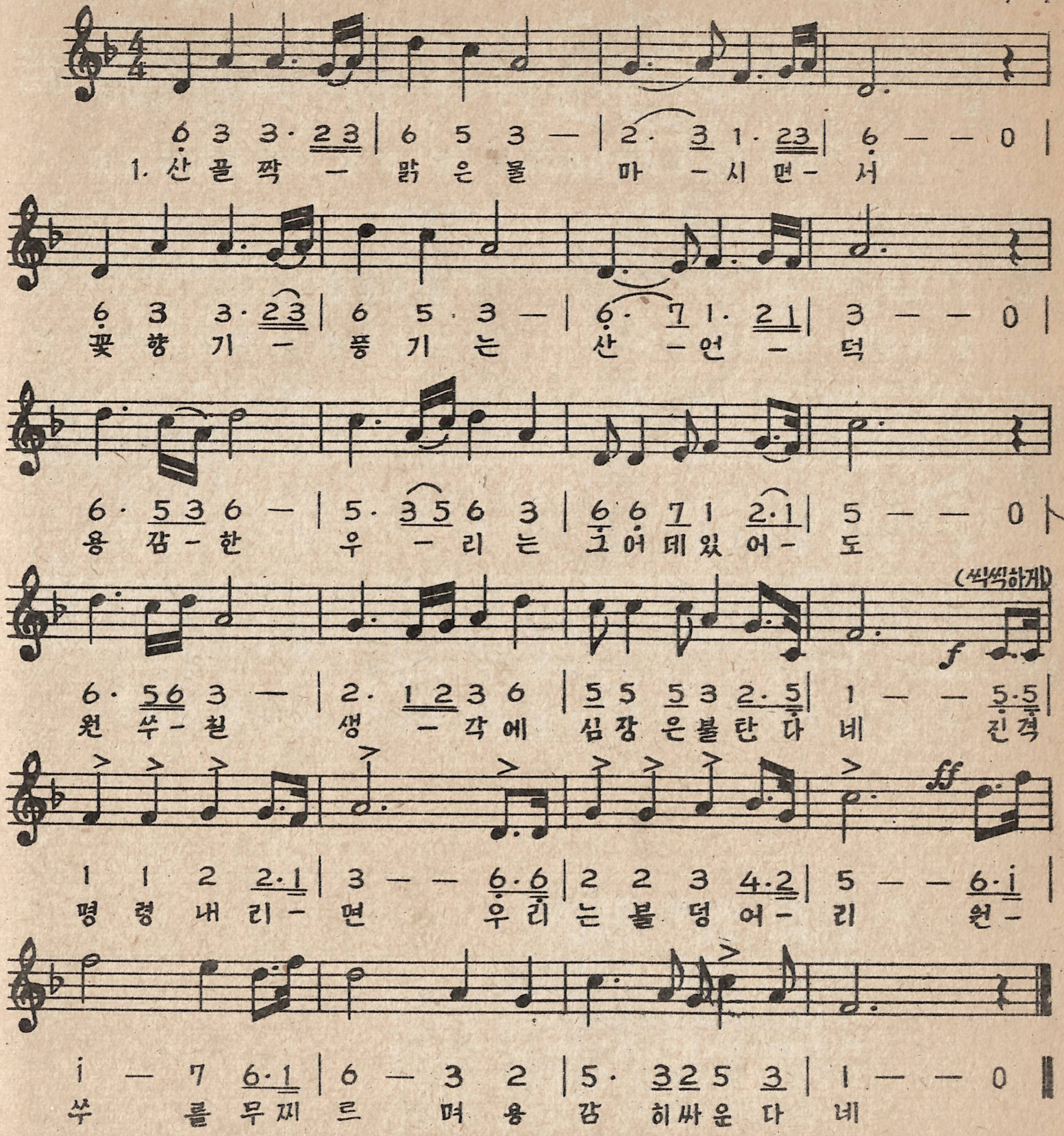


2. 자유와 행복으로 꽃피게하라
내나라 지키는 인민군대여
강철로 다진훈련 불길같은투지로
그대들이 나가는곳 승리는빛나리라
——(후 렴)——

3. 온세계 자유애호 인민의편에
떳떳이 나서는 조선인민군
정의의 사상으로 철석같이무장한
그대들의 억센무력 평화를지키리라
——(후 렴)——

용감한우리분대

박 세 영 시
김 길 학 곡

보통속도로 부드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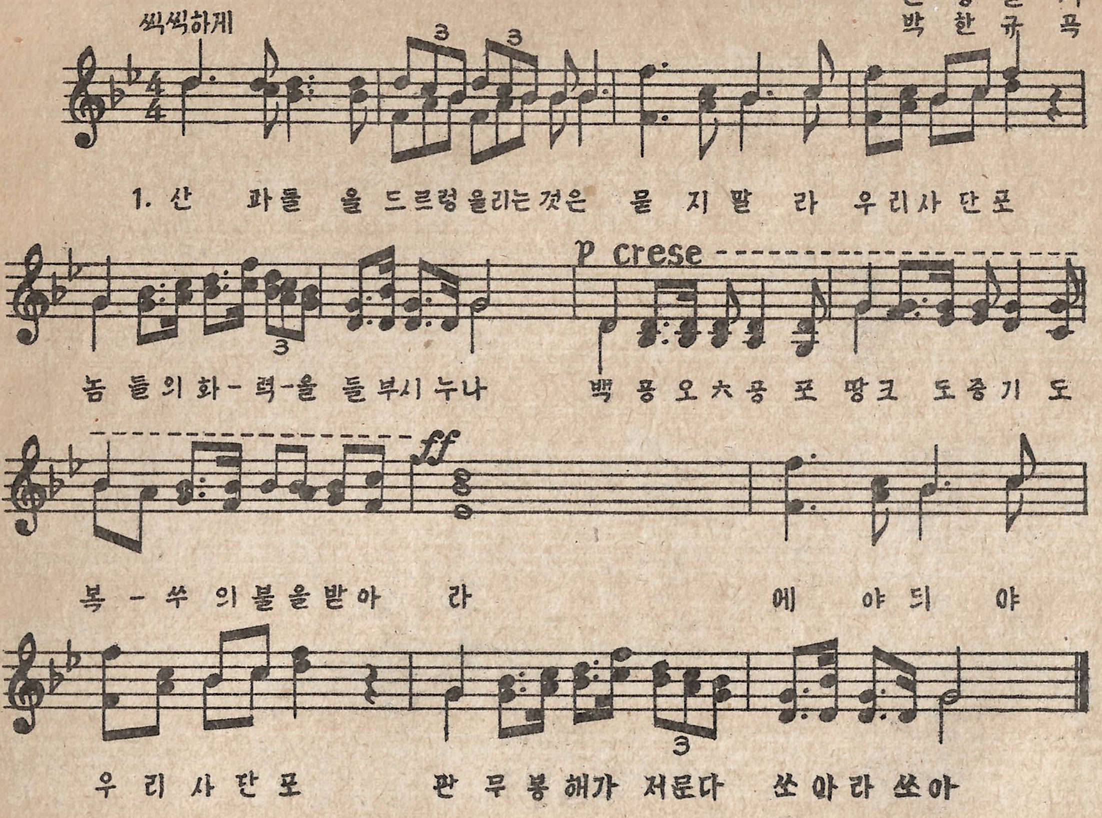


2. 동무가 누이를 자랑해도
생각해 볼새도 없는것
한몸인 우리는 그어데있어도
언제나 전우들을 잊을수없다네

3. 처맨팔 풀지도 않은채로
전호에 달려온 분대장
용감한 우리는 그어데있어도
원수칠 생각에 심장은불타네

화선의노래

신동철 시
박한규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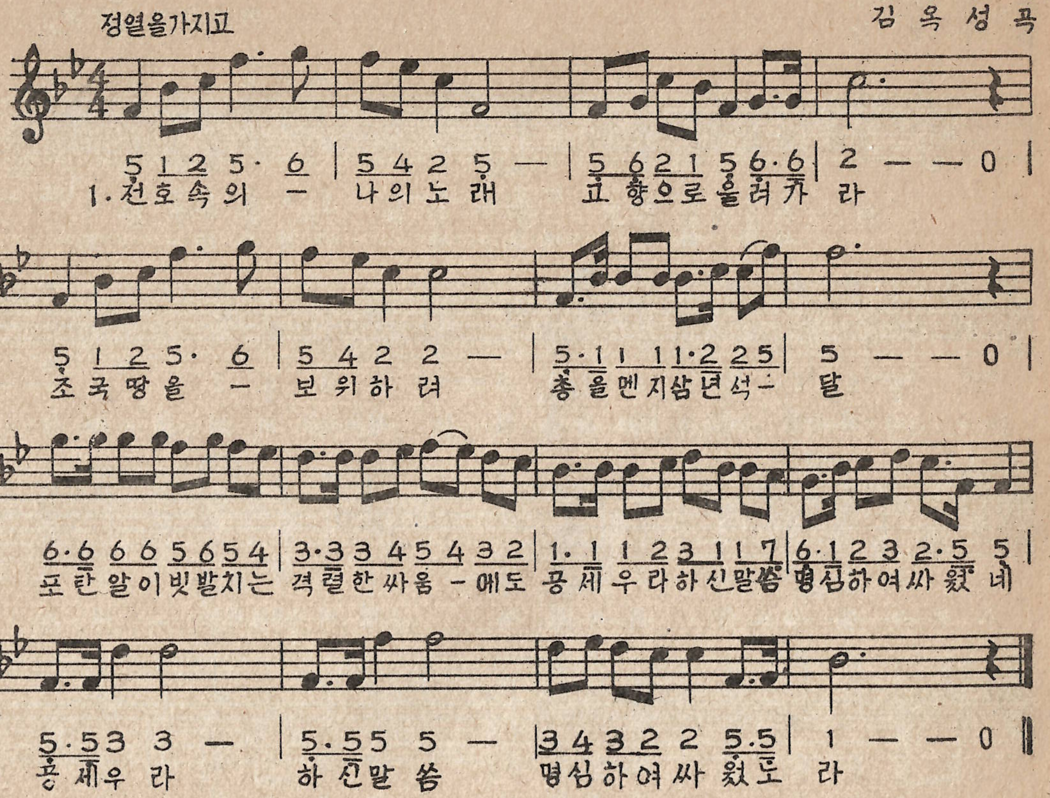


2. 넓은대지 찌르릉 울리는것은
묻지말라 우리 전차대
원쑤의 무리를 전멸하누나
양키와 국방군 진지도화점도
가루가 되여 보아라
에야되야 우리 전차대
거칠것 하나없구나 달려라달려

3. 푸른하늘 우르릉 울리는것은
묻지말라 우리 항공대
놈들의 날개를 불태우누나
쌕쌕이 구라망 사발기로켓트
정의의 불을 받아라
에야되야 우리 항공대
삼천리 령공지키여 날려라날려

전호속의나의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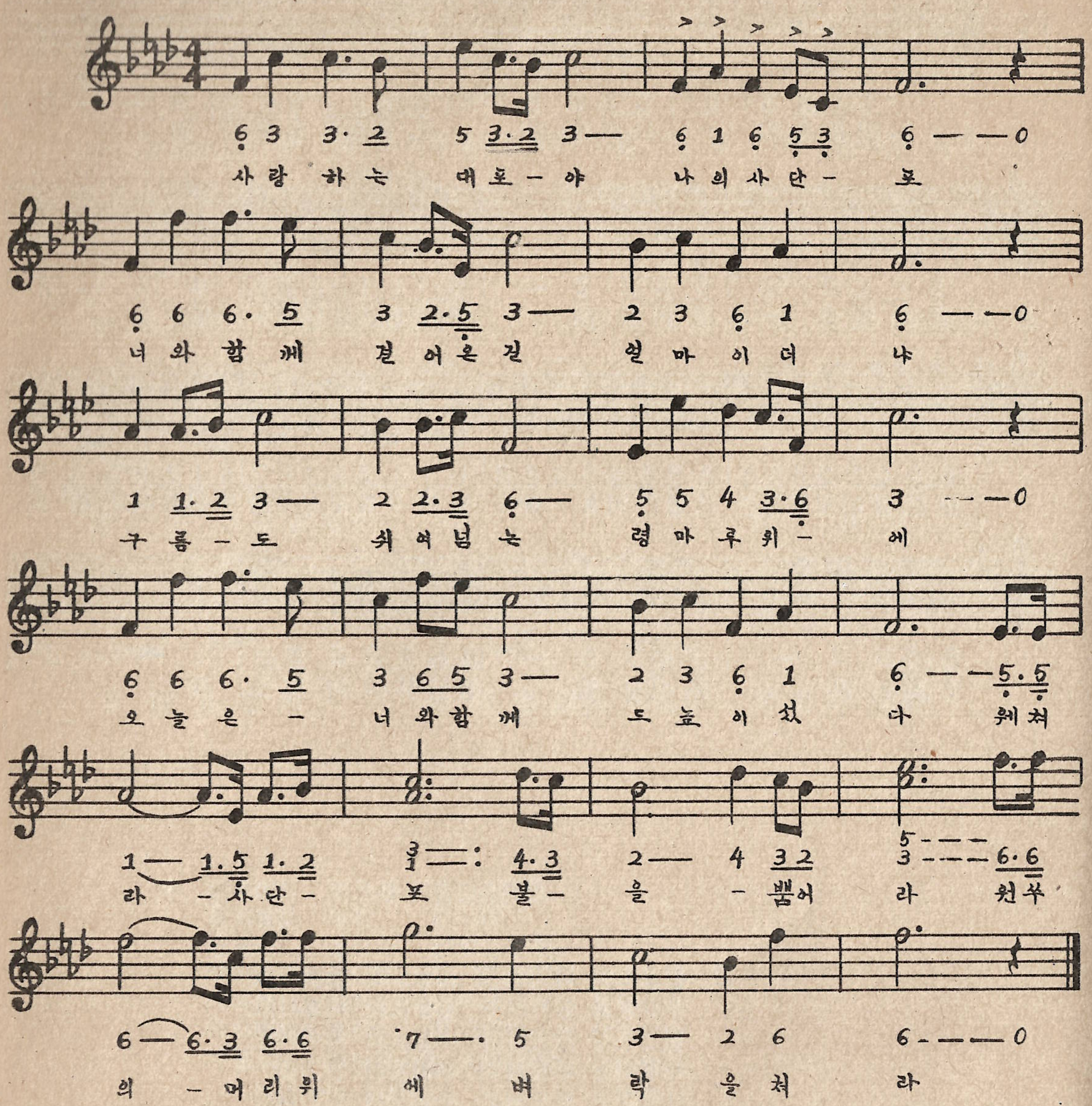
신동철 시
김옥성 곡



2. 전호속의 나의노래 고향으로 울려가라
우리행복 삼키려는 짐승들을 쳐부시고
빛난훈장 가슴팍에 내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서 안기리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서 안기리라

포병의 노래

김북원 시
최북구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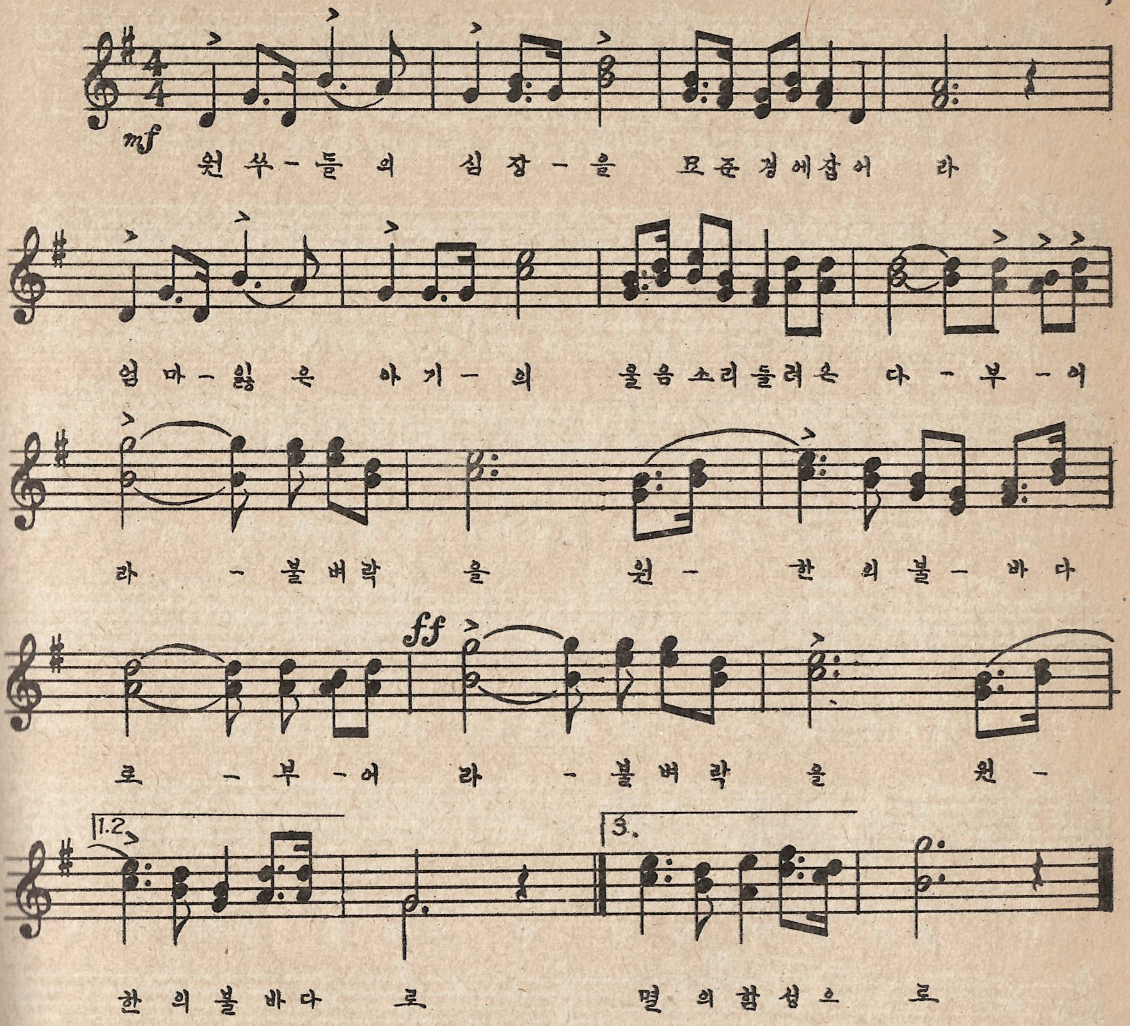
2. 련봉을타고서 준령을 넘어
너와함께겪은 고난 얼마이드냐
눈보라에 어느밤을 산에새웠고
쏟아지는불비속에 우리싸웠다

3. 여기는 삼천만 마음의산정
내조국 지키는 평화초소다
리치웨이공세를 부시였거늘
클라크의 음모도 우리부시자

포사격의 노래

힘있고 씩씩하게

오송식 시
김봉구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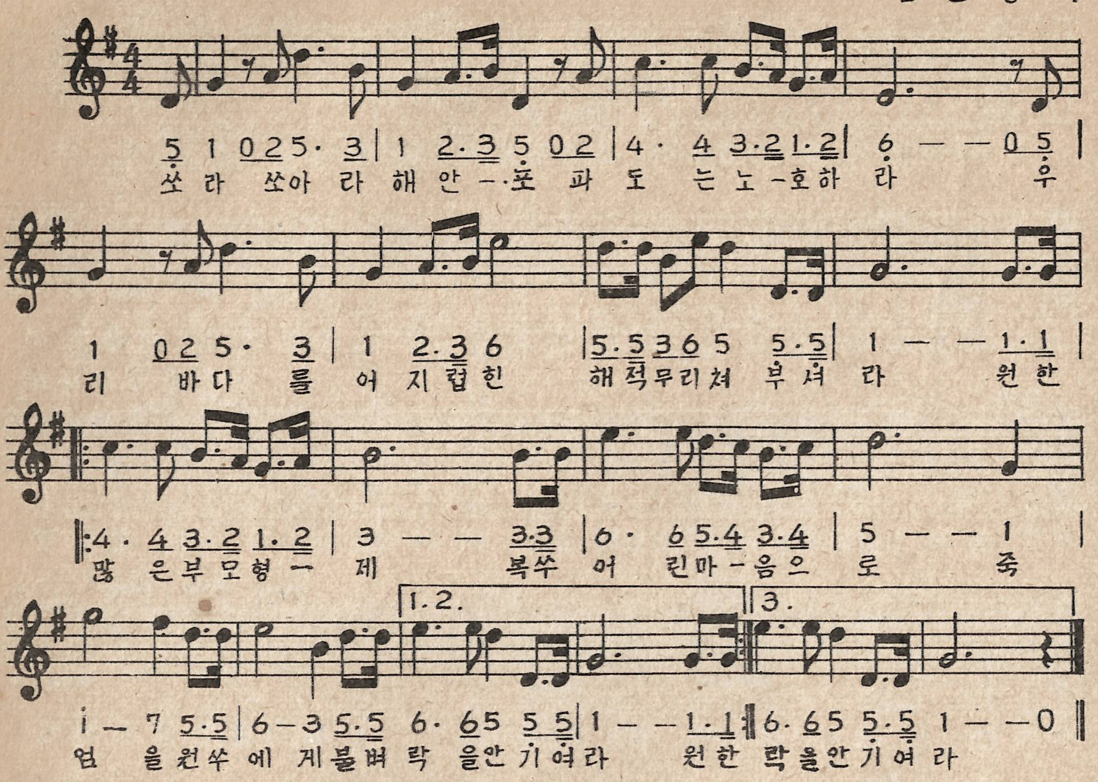


2. 번개처럼우뢰처럼 울려라 포구마다
쓸어진 전우들이 복쑤에로 부른다
부어라 불벼락을 복쑤의 화염으로
부어라 불벼락을 복쑤의 화염으로

3. 놈들의머리위에 명중탄을 퍼붓자
온세계인민들의 분노는 끓는다
부어라 불벼락을 섬멸의 함성높여
부어라 불벼락을 섬멸의 함성높여

쏘라쏘아라해안포

원진관 시
김칠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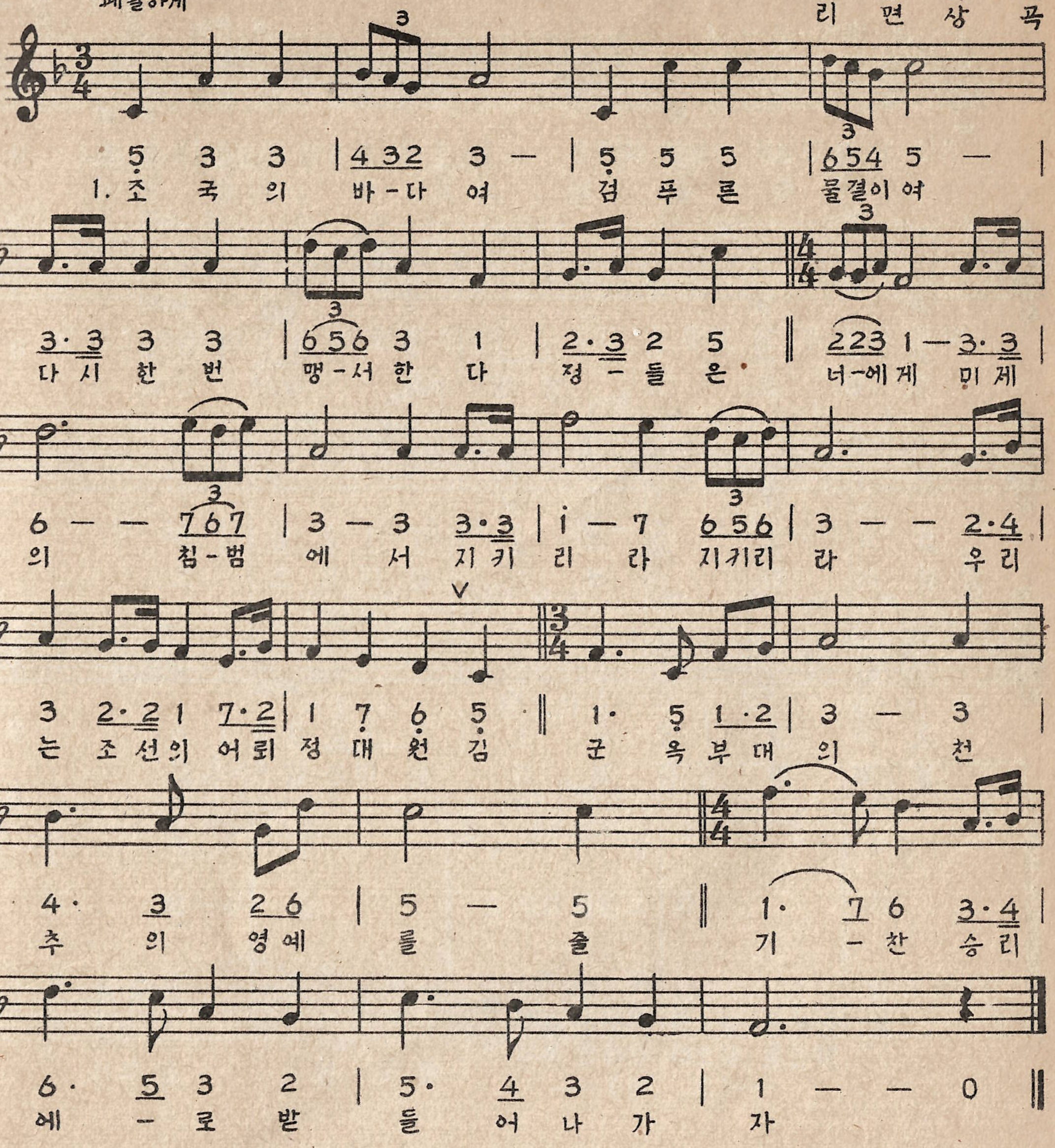


2. 쏘라쏘아라 해안포 하늘땅을울리여라
달려드는 양캐들의 앙가슴을노리여라
철갑탄 유지탄 멸적의 한방한방
죽엄을 원수에게 명중탄을퍼부어라

3. 쏘라쏘아라 해안포 포신을높여라
동서해 우리바다 철석같이지키여라
수령에게 맹서드린 승리의노래높이
죽엄을 원수에게 우박으로퍼부어라

어뢰정의노래

김순석 시
리면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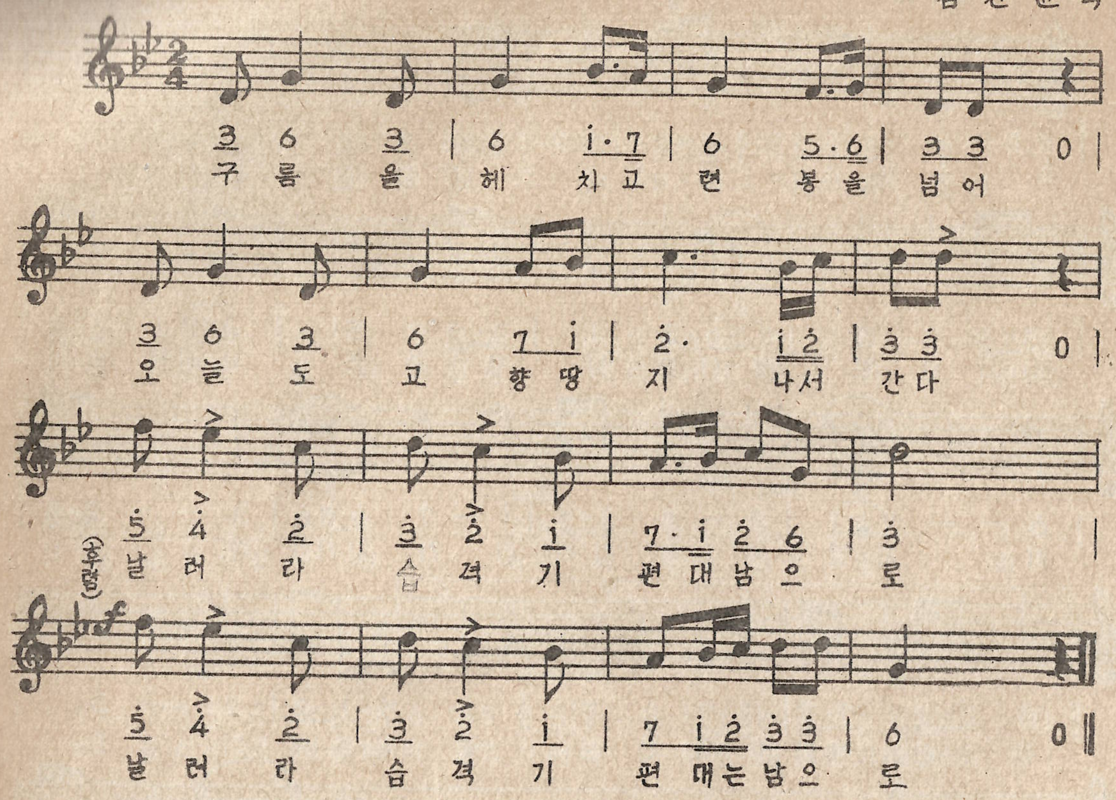
쾌활하게



2. 그어데로 원쑤들이 새어들어 온대도
날세게 포착하여 부시리라 부시리라
우리는 조선의 어뢰정 대원
김군옥 부대의 천추의 영예를
줄기찬 승리에로 받들어 나가자

편대남으로

김 북 원 시
김 원 균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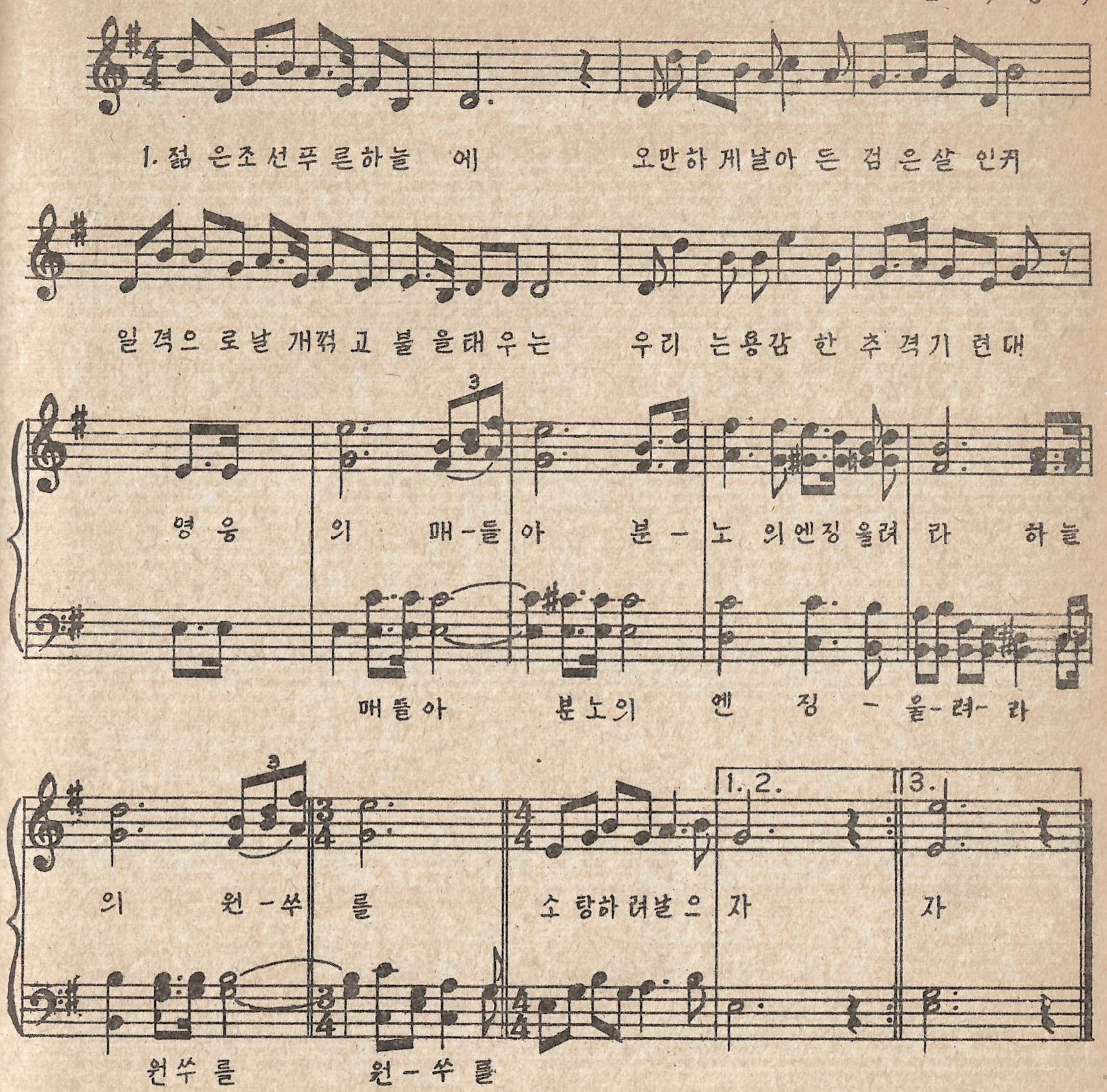


2. 원쑤를 잡으라 휘젓는 손길
잡신들 잊으랴 간곡한 부탁
——(후 렴)——

3. 어제는 비행장 오늘은 함선
침략의 무리를 무찔러 간다
——(후 렴)——

추격기련대의노래

신 동 철 시
김 옥 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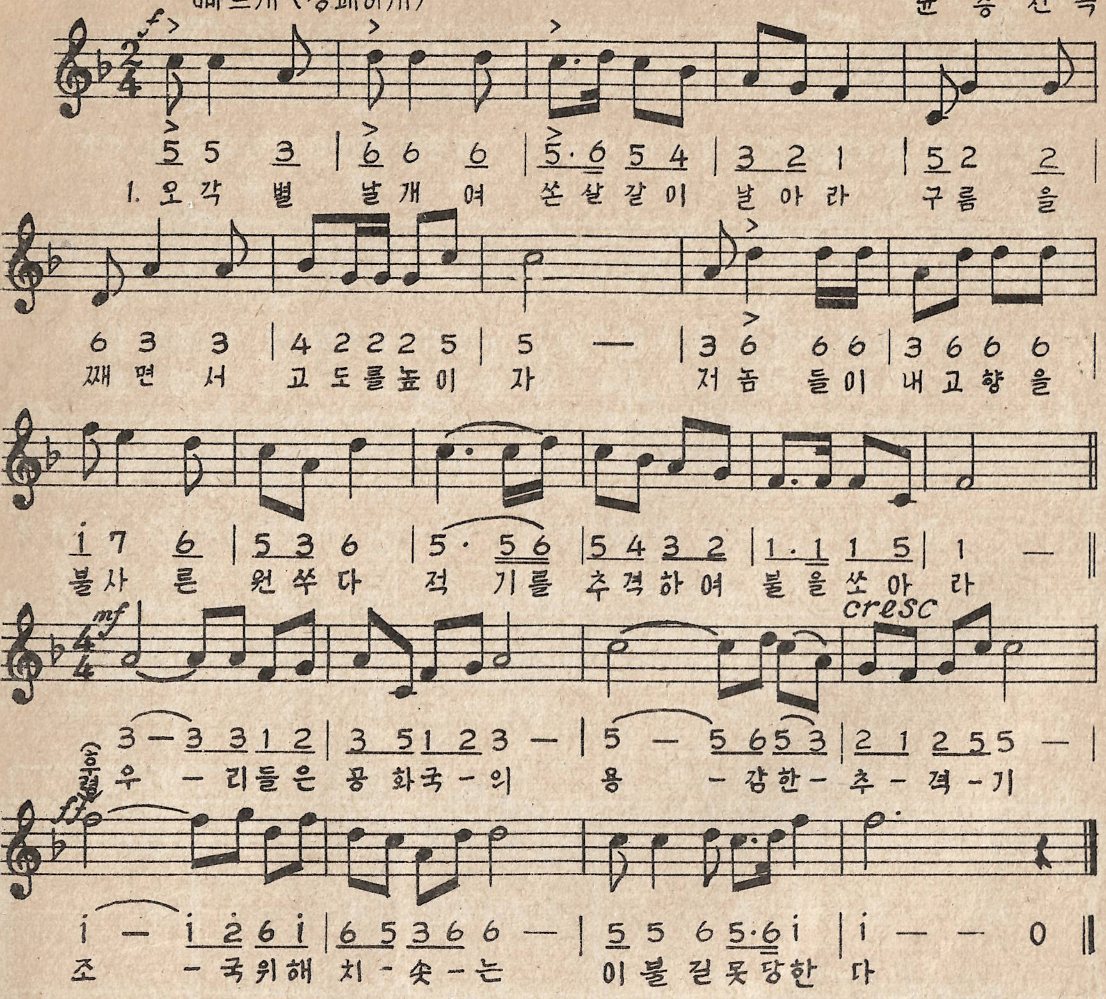
2. 구름헤쳐 적기부수며
용감스런 지상부대 손을맞추어
미제강도 섬멸에로 짓몰아치는
우리는 완강한 추격기련대

3. 무쇠의힘 조종관잡고
내조국의 창공을 지켜내리니
고향아 머리를들고 노래불러라
우리는 슬기론 추격기련대

추격기의노래

마 우 룡 시
윤 승 진 곡

빠르게 (상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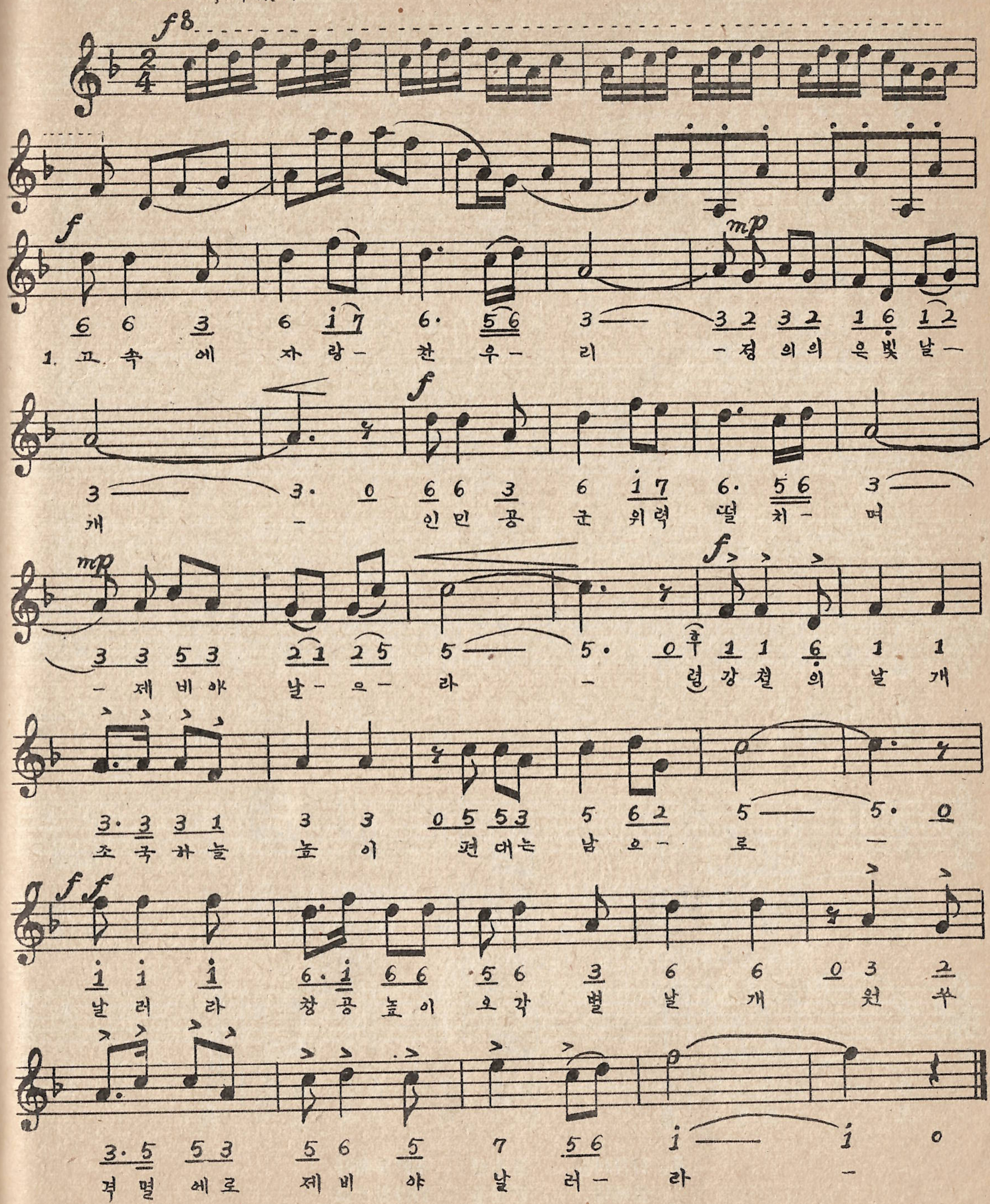


2\. 공화국 매들아 번개같이 날아라
적기를 향하여 내려다 꼰져라
저놈들이 우리형제 살륙한 악마다
한놈도 남김없이 모두 부시자
—(후 렴)—

날려라제비야

오 석 윤 시
한 시 형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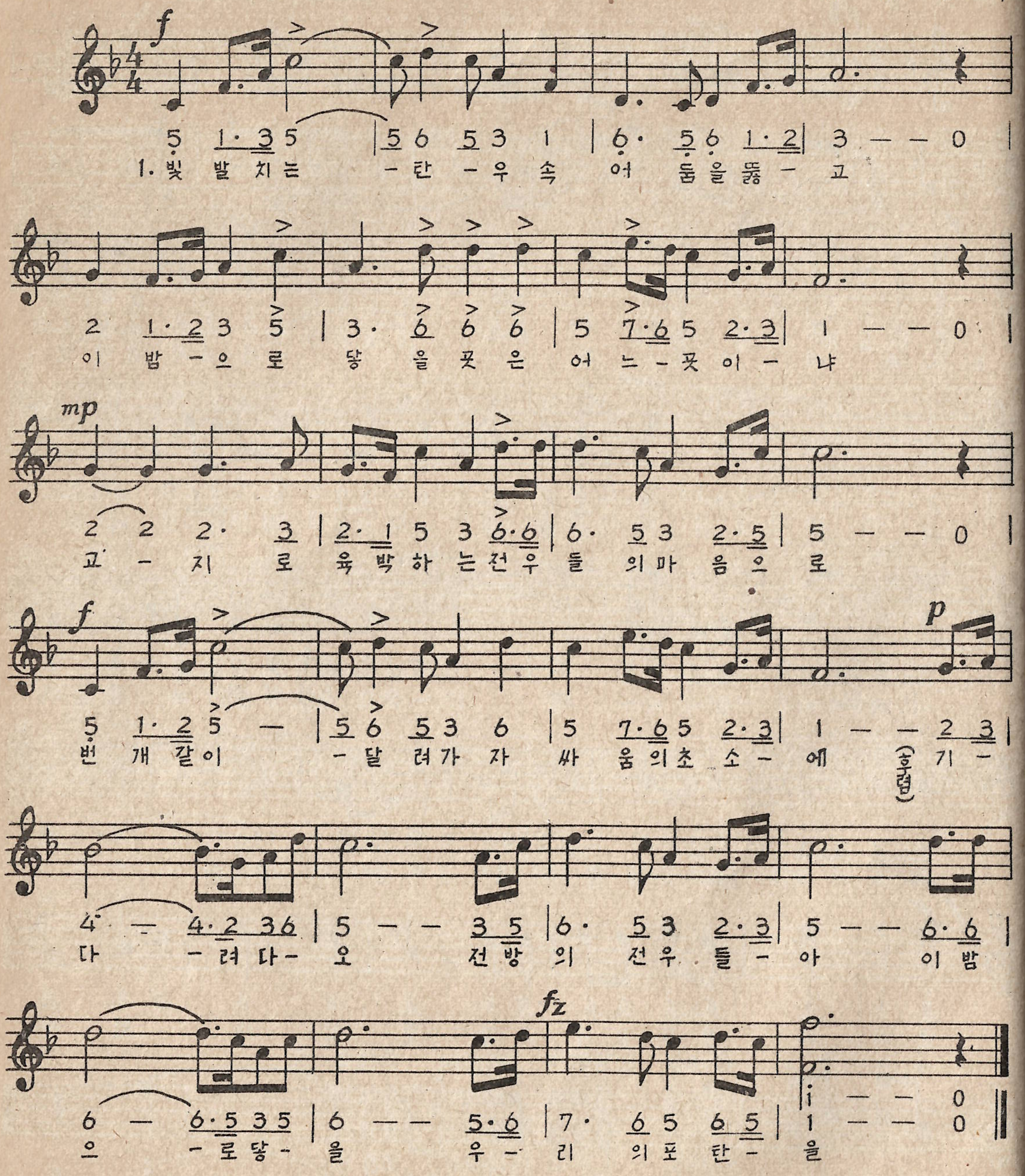
빠르고 박력있게



2\. 백승을 떨치는 우리 하늘에 억센용사
인민의 원한 씻으려 제비야 날려라
(후 렴)

수송전사의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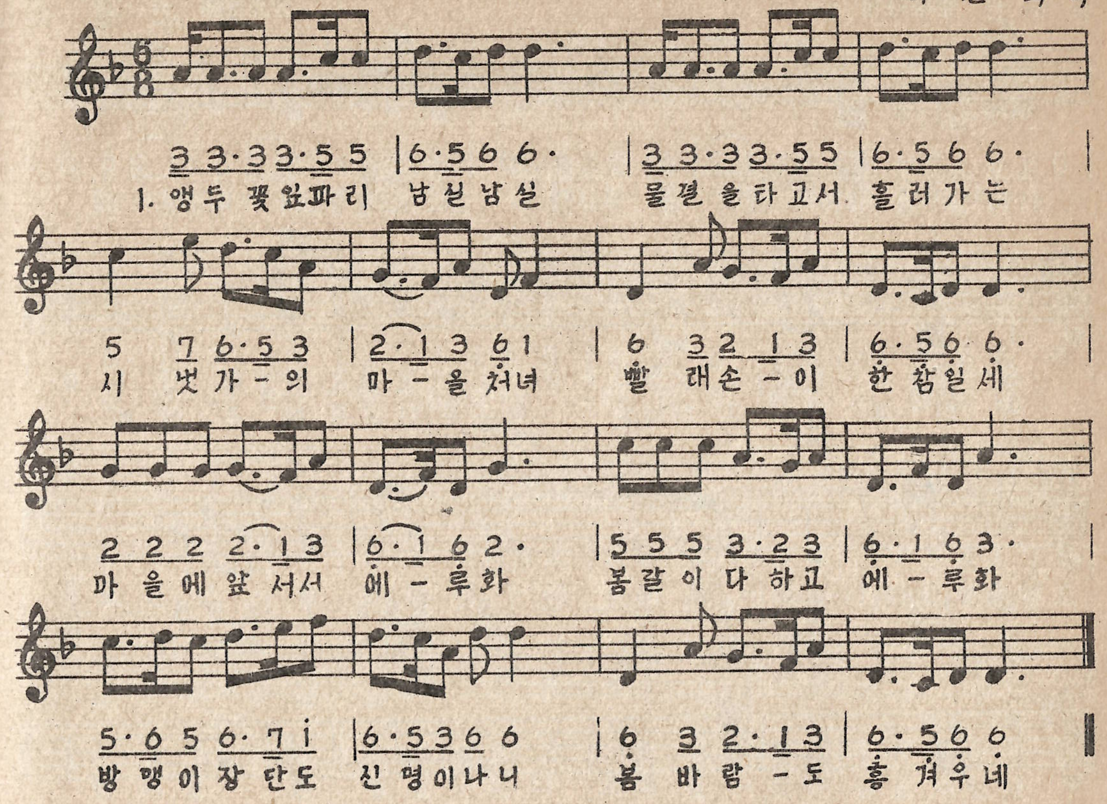
리 맥 시
라 화 일 곡



2. 다가서는 높은산 구비를돌아
얼마나 먼길을 지나왔느냐
수송전사 영예를 목숨으로지키어
쏜살같이 달려가자 싸움의초소에
——(후 렴)——

처녀와통신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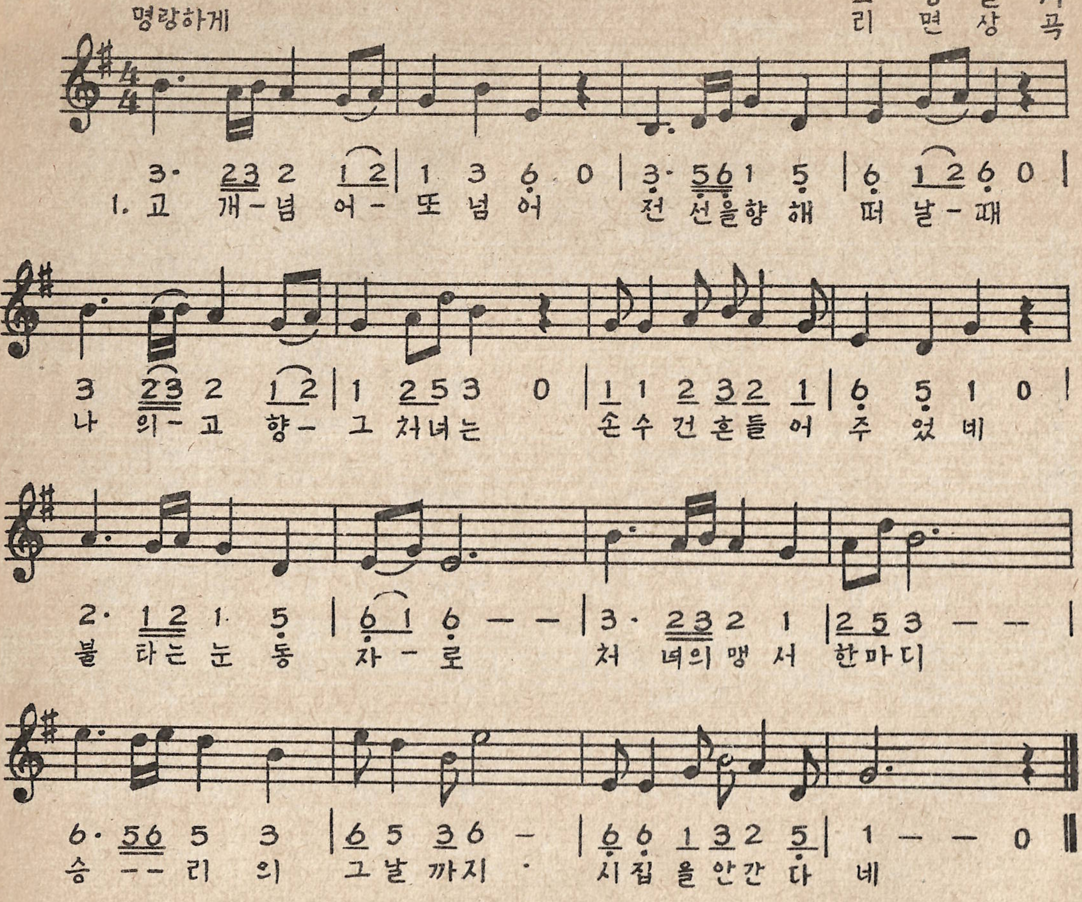
홍 종 린 시
리 천 백 곡



2. 수양버들이 나붓나붓 이봄을안고서 나붓나붓
시냇가의 통신병들 줄당기기 한참일세
전봇대 우에서에루화 전봇대아래서에루화
방맹이 장단에 신바람나서 줄당김도흥겨우네

전사와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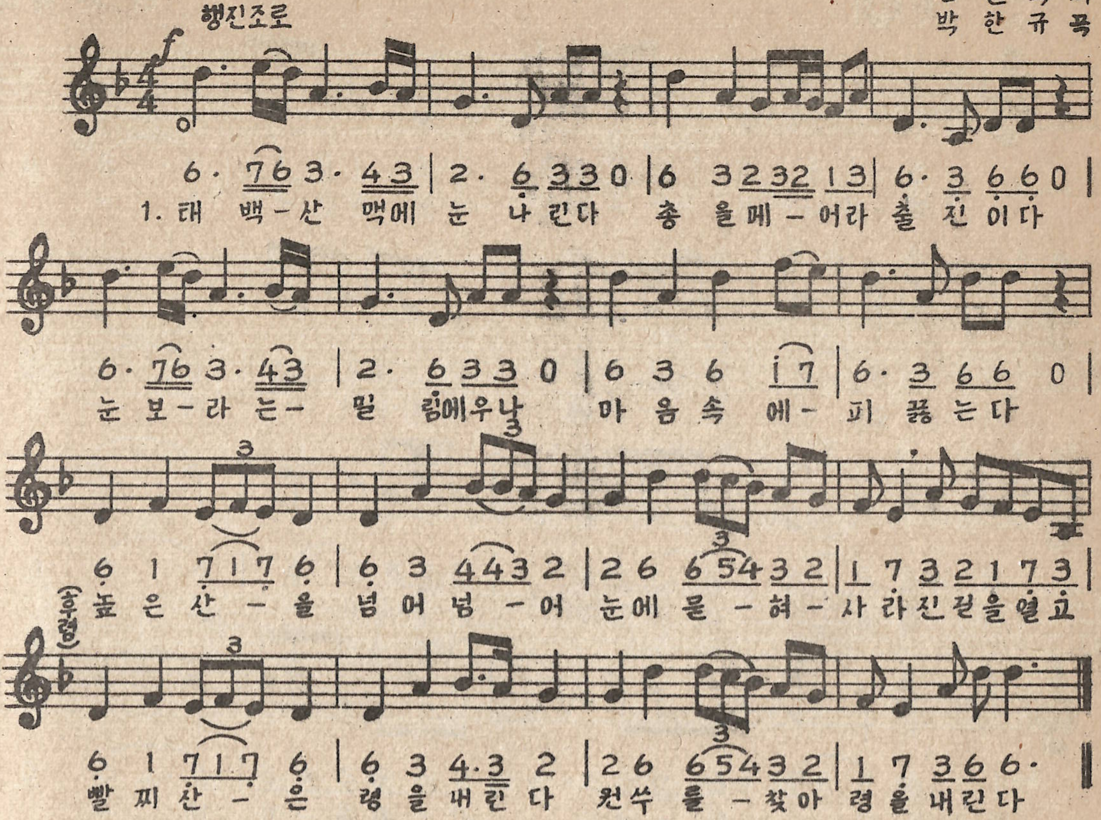
조령출 시
리면상 곡



2. 꽃이피고 새우는 봄철이 다시왔고나
나의고향 버들숲엔 귀여운 꾀꼴새울겠지
내가슴 붉은피로 조국을 지켜싸울때
처녀야 나를위해 봄노래 불러다오

빨찌산의노래

김순석 시
박한규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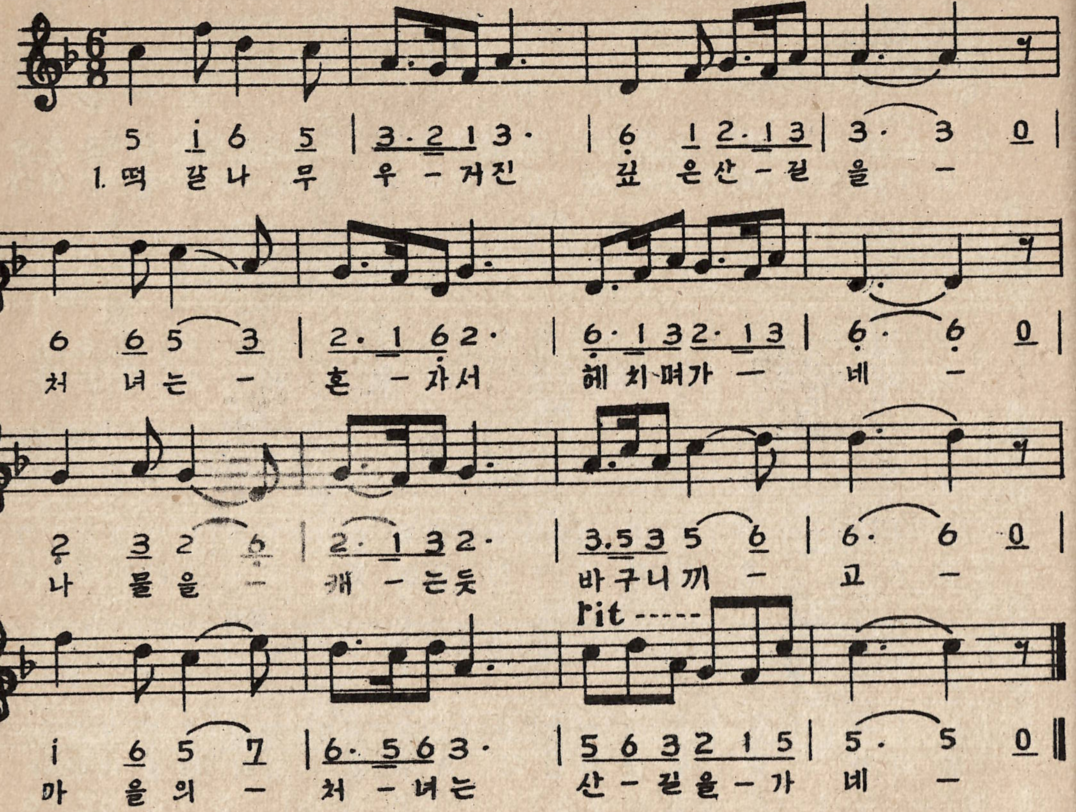


2. 동지들이 흘린피를 헛되이말라 출진이다
공화국을 부르며죽은 그얼끌이 떠오른다
—— (후 렴) ——

3. 참고견디는 고향마을 만나려가자 출진이다
고난에찬 산중에서도승리의날을 믿었노라
—— (후 렴) ——

빨찌산의길

정 서 촌 시
리 천 백 곡

천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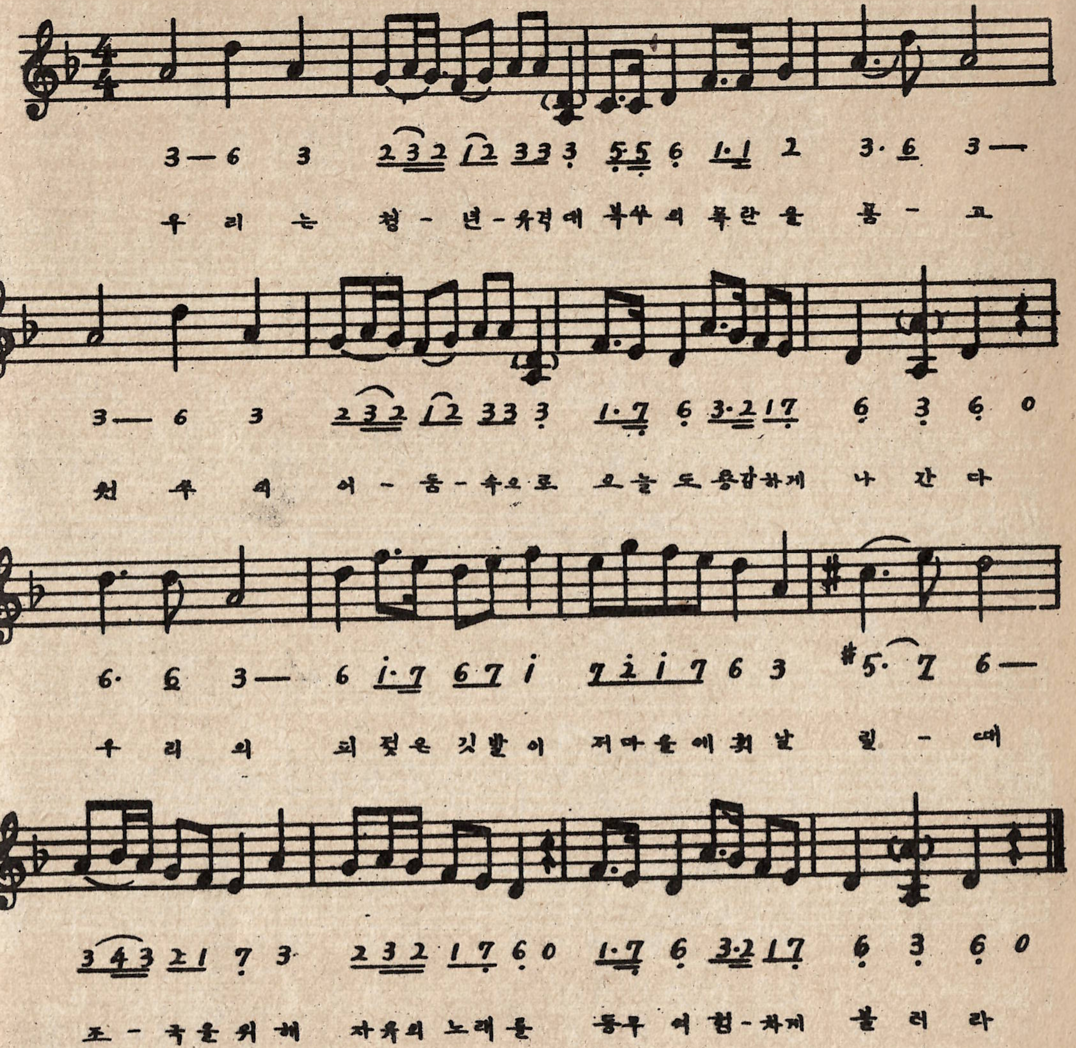
2. 처녀가 가는길 깊은산길은
빨찌산 용사를 찾아가는길
바 구 나 속에는 산 나물있고
산 나물 밑에는 례포가있네

3. 빨찌산에가는길 험준한산길
벼랑굽도그의길 열어준다네
가다오다원쑤를 길에맞나면
바위도그몸을 숨겨준다네

3. 처녀가 가는길 빨찌산의길
산속에는그리운 총각도있네
삼십리길 오늘도 해는지것만
처녀의마음속엔 등불이밝네

청 년 유 격 대

조 령 출 시
리 면 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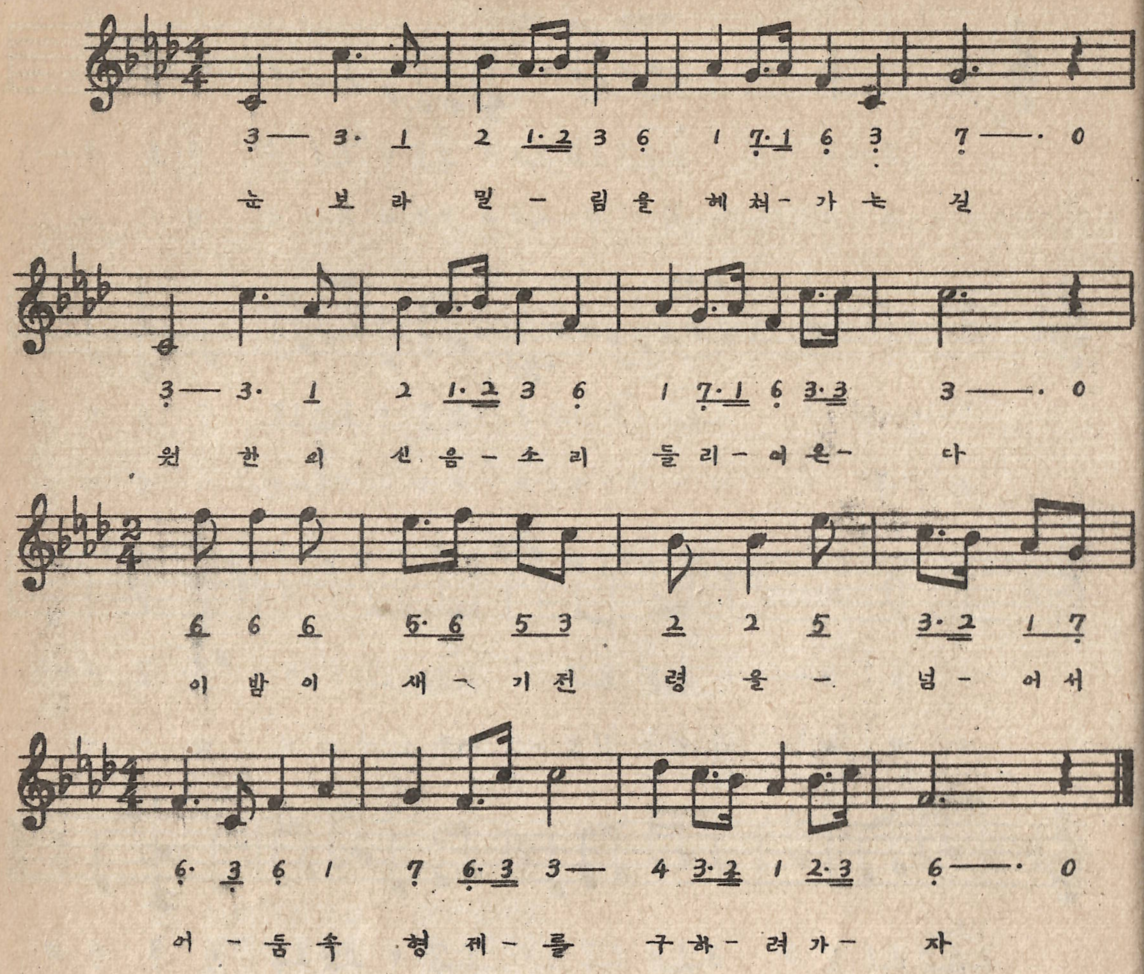


2. 우리는 청년유격대 복쑤의 칼날을 품고
원쑤의 심장앞으로 오늘도 용감하게 나간다
원한의 미제 야수를 저거리에 쓸어 칠 때
인민을위해 자유의노래를동무여 힘차게 불러라

령을넘어서

(빨찌산의노래)

정서촌 시
라화일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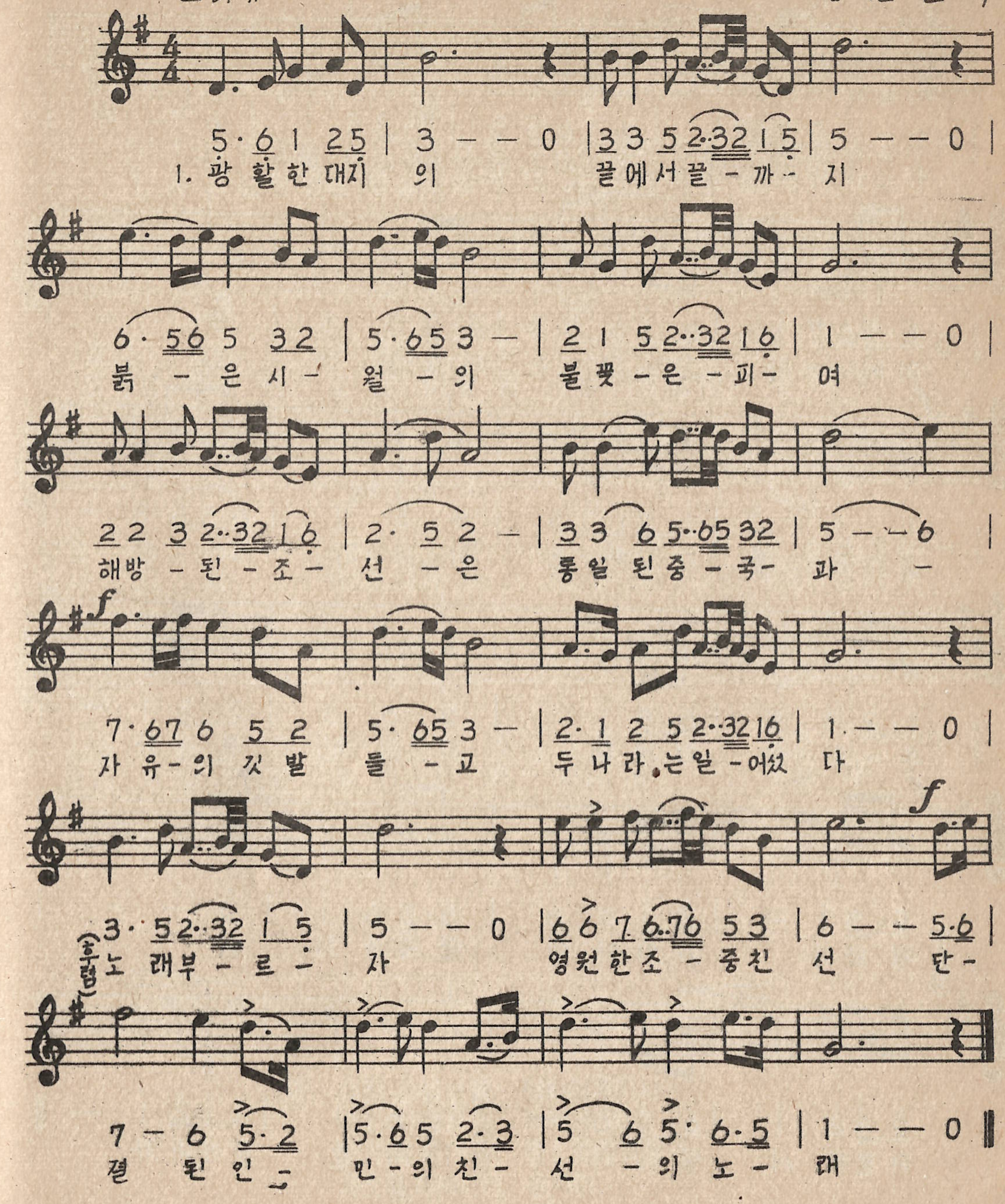
2. 별빛도 삼가는 험한벼랑을
공화국 깃발이 이끌어준다
먼동이 트기전 마을을 지나
원쑤를 한놈도 남기지말자

3. 뜨거운 손목을 굳게 잡으며
인민군 용사들은 찾아오리라
어둠과 산발을 뚫고 넘어서
승리의 새벽을 맞으려가자

영원한친선

리문섭 시
김원균 곡

느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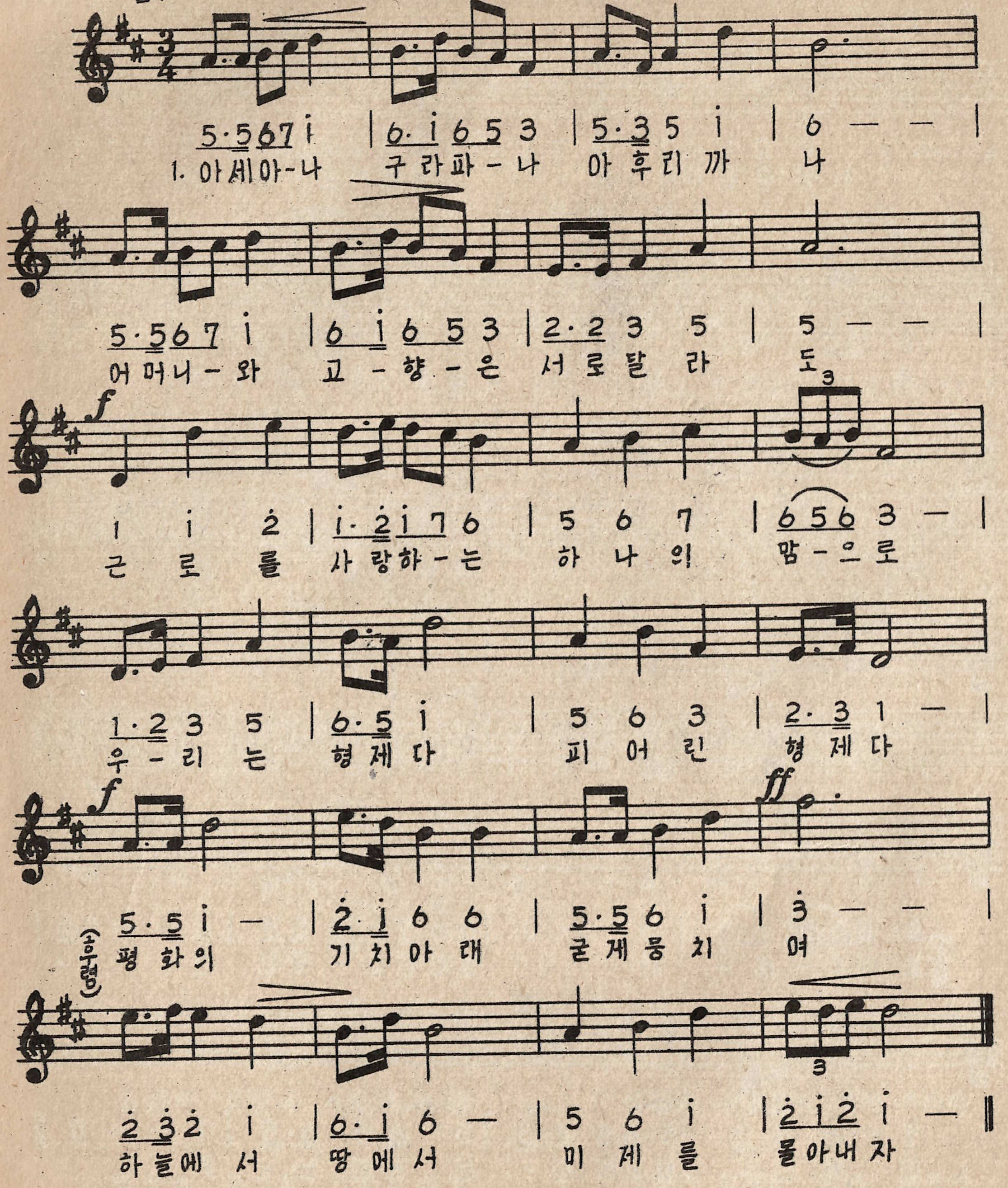


2. 일제를 반대한 싸움에서 맺어진
조선과 중국의. 지향은 하나
침략자 미제를 물리친 길에서
동방의 두나라는단결되여 나간다
—(후 렴)—

3. 붉은기 오각별 빛나는 쏘련과
온세계 평화의 소리와 함께
五억의 인민들과 삼천만 우리는
뭉쳐서 나간다 승리위한 투쟁에로
—(후 렴)—

국제단결의노래

홍 종 린 시
리 면 상 곡

힘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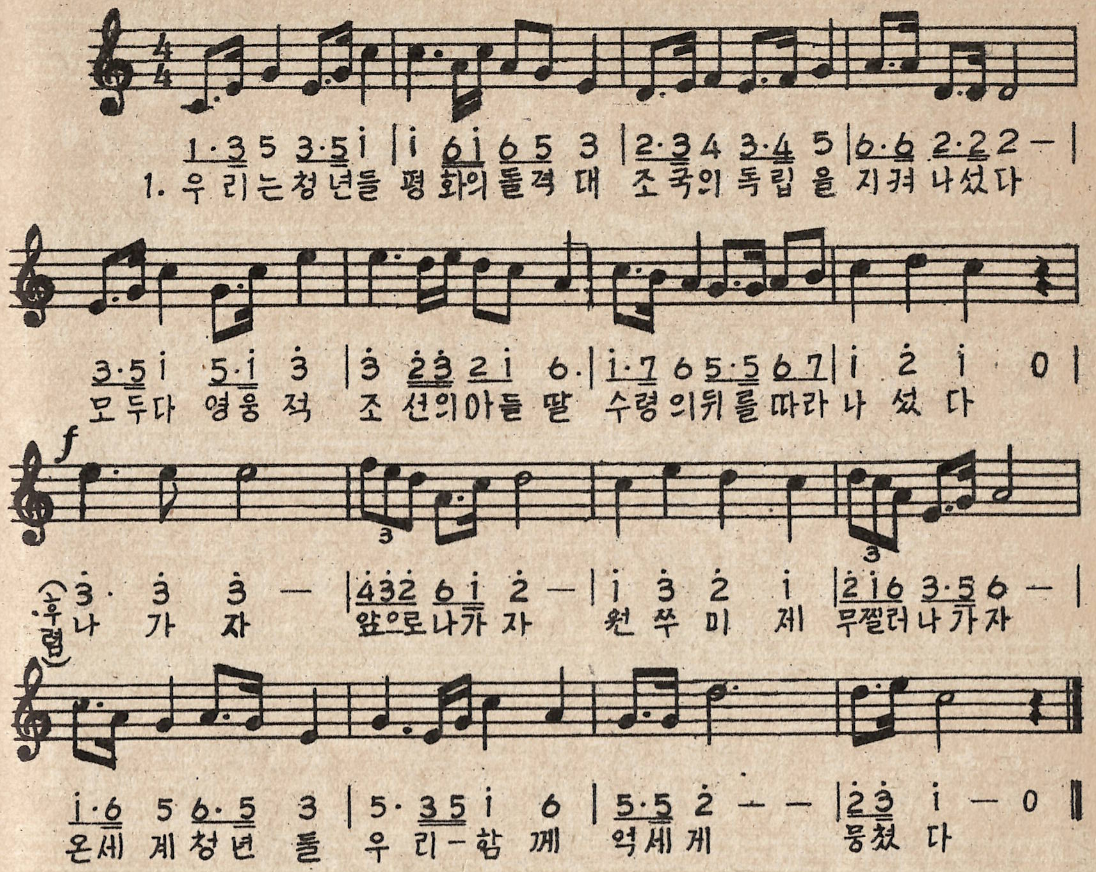


2. 황색이나 백색이나 검은빛이나
피부빛과 종족을 묻지말아라
평화를 갈망하는 하나의맘으로
우리는 동지다 믿어운동지다
—(후 렴)—

3. 하늘이나 령마루나 기대앞이나
싸움터와 일터를 묻지말아라
인류의 밝은앞길 앞장서나가는
우리는 투사다 평화의투사다
—(후 렴)—

청년평화투사행진곡

리 연 시
리 면 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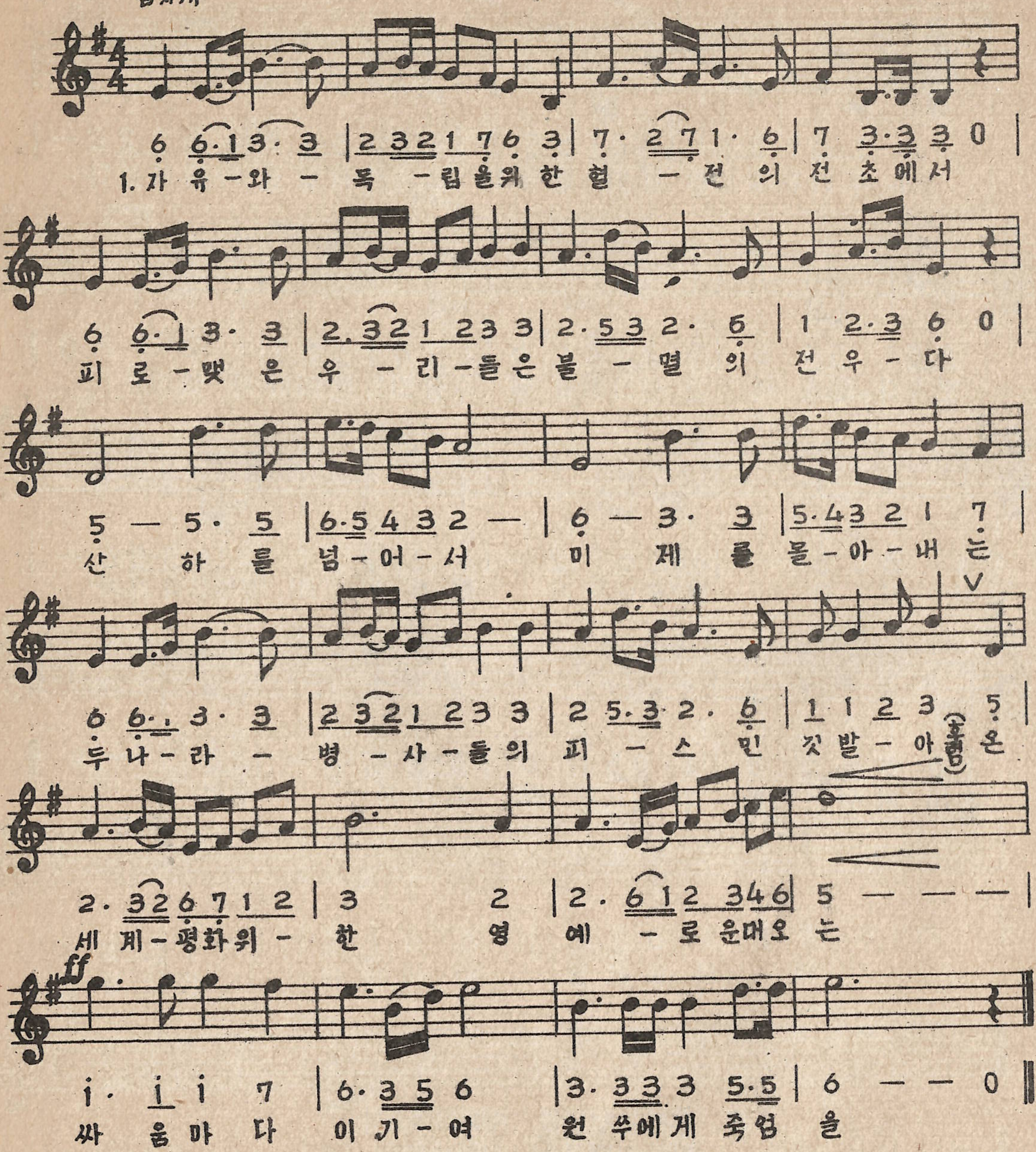


2. 우리는청년들 평화의투사다
인민의행복을 지켜나섰다
원쑤의포구를 몸으로막으며
초소를지켜나선 돌격대
—(후 렴)—

불멸의전우

김 순 석 시
김 길 학 곡

힘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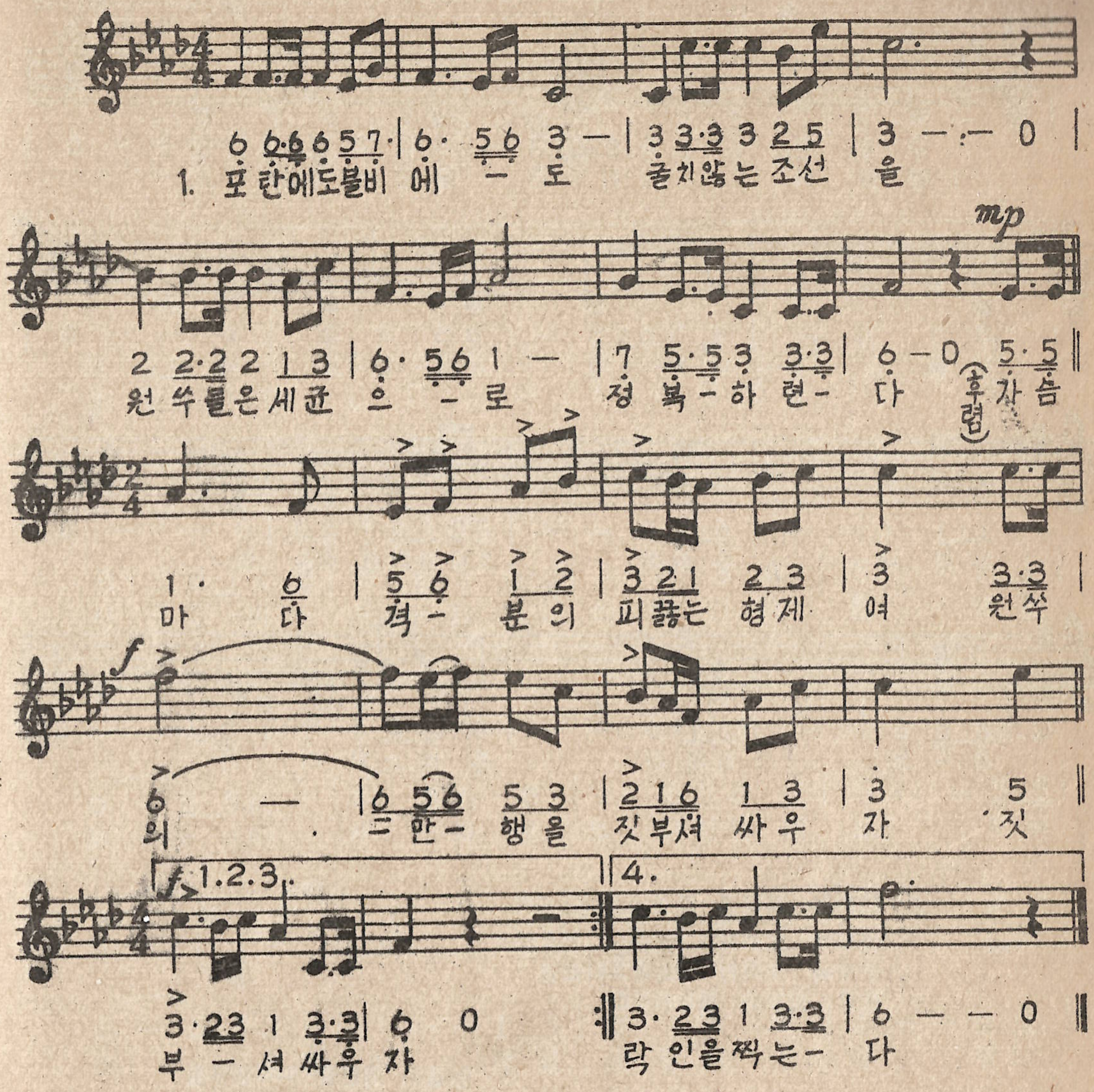


2. 민주와행복위한 하나의싸움에서
병사마다영웅인 인민의 군대다
곤난도 웃음도 한품에나누면서
승리에로 내닫는 강철의 대렬아
—(후 렴)—

3. 아세아넓은대록 수억만인민들
안전을 지키는 철옹의 성벽
인류의 원쑤인 미제를무찔러
청사에걸이남을 영광의이름아
—(후 렴)—

세균전범자타도의노래

정 서 촌 시
김 원 균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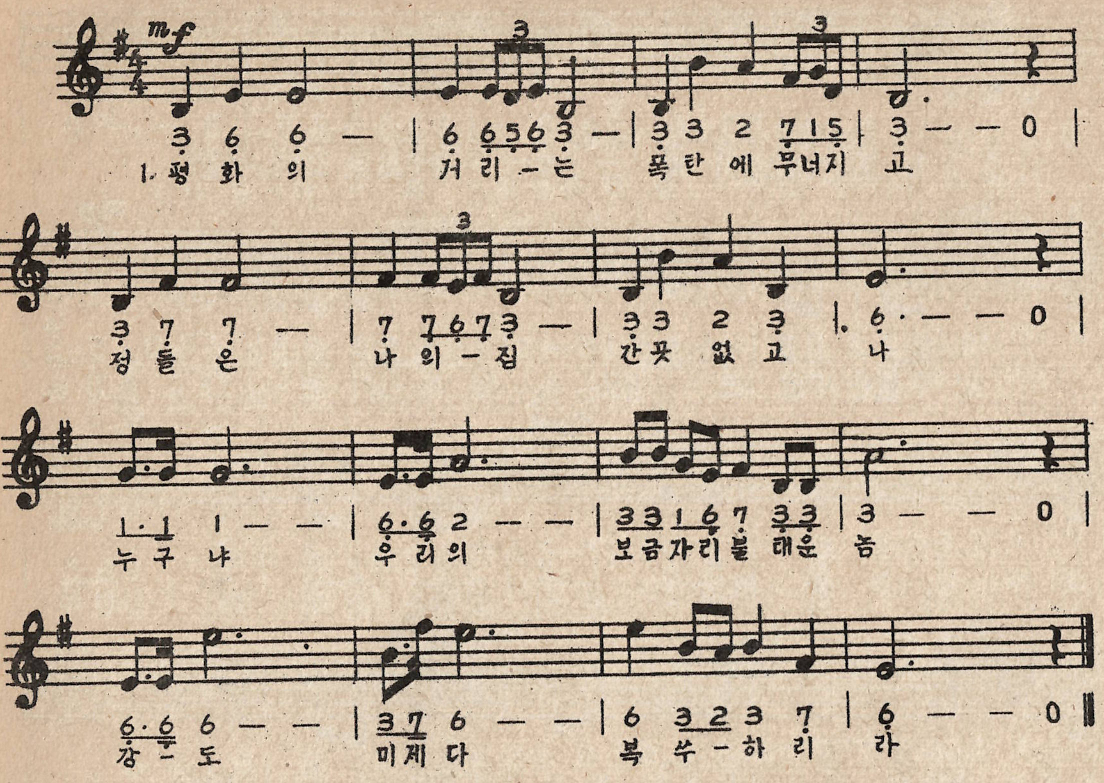


2. 네놈들이병마의 독충을뿌려도
우리들의방역진은 철벽으로서있다
—(후 렴)—

3. 보아라죽어가는 독충들의꼴을
미제의운명이다 멸망하리라
—(후 렴)—

4. 인류의량심은 하나의소리로
네놈들을범죄자로 락인을찍는다
—(후 렴)—

복쑤하리라

정 서 촌 시
김 현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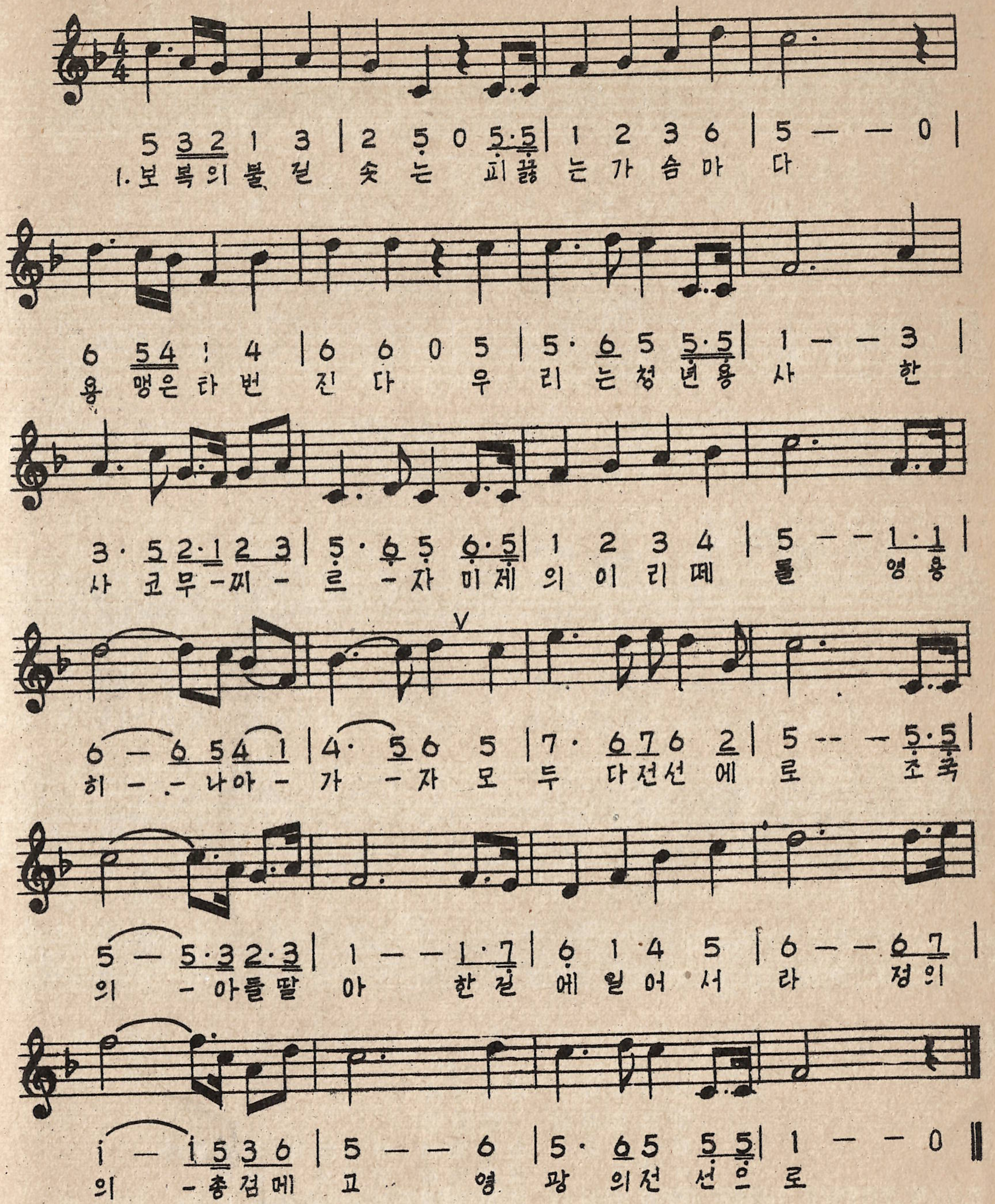
2. 안해는 사나운 불속에묻히고
꽃밭에 놀든아기 웃음소리꺼졌네
누구냐 우리의 행복을노리는놈
강도 미제다 복쑤하리라

3. 놈들이 폭탄을 퍼부을쑤록
인민의 심장은 강철로뭉친다
보아라 우렁찬 복구의함성을
하나를 태우면 둘을일으킨다

4. 동무여 형제여 쓰라린 상처를
격분으로 삼키며 일어서거라
놈들이 불태운 잿데미속에
놈들의 시체를 묻어버리자

청년들은전선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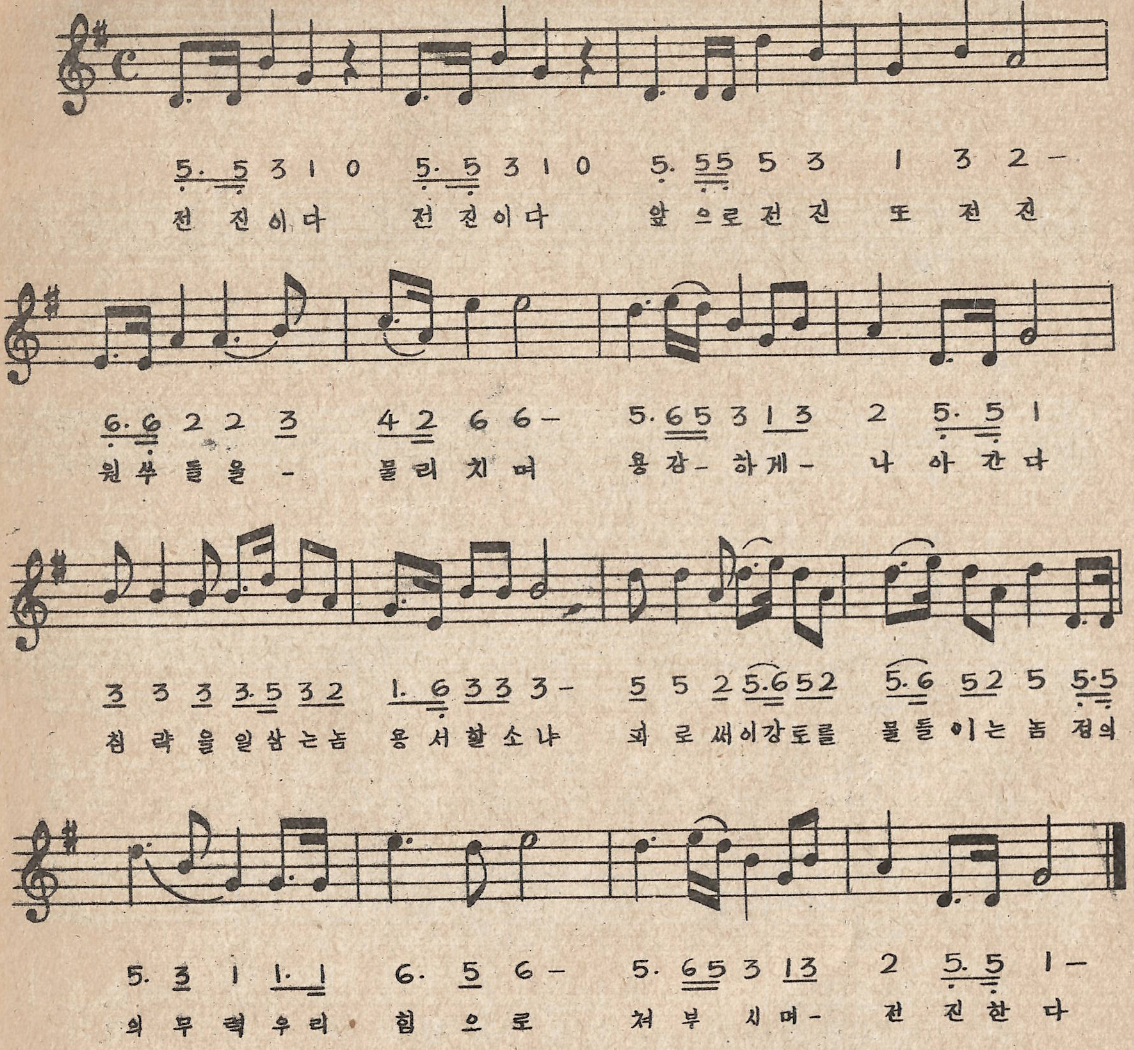
홍 순 철 시
황 학 근 곡



2. 군공에 빛나는 영웅의 자랑마다
본받아 따라선다 우리는 애국청년
죽엄을 안겨주자 미제의 가슴통에
백승의 번개처럼 장엄한 결전에로
——(후 렴)——

전진또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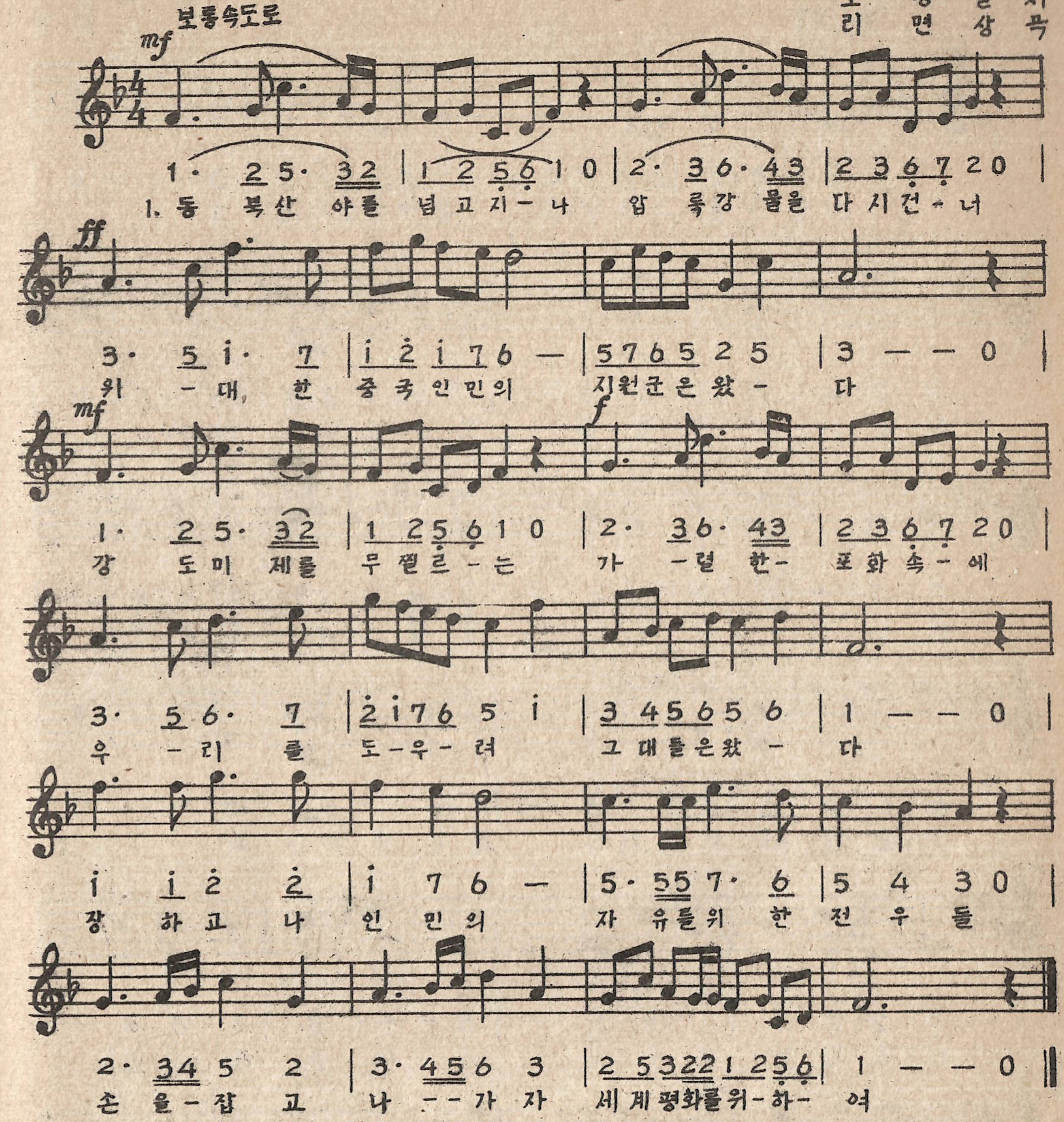
리호남 시
황학근 곡



2. 진격이다 진격이다
앞으로전진 또전진
원쑤들을 소탕하며 영용하게 전진한다
이강토 짓밟는놈 침략의 야수
한놈도 남김없이 소탕하리라
인민의 무력 정의의 힘으로
우리조국 수호한다

중국인민지원군찬가

조령출 시
리면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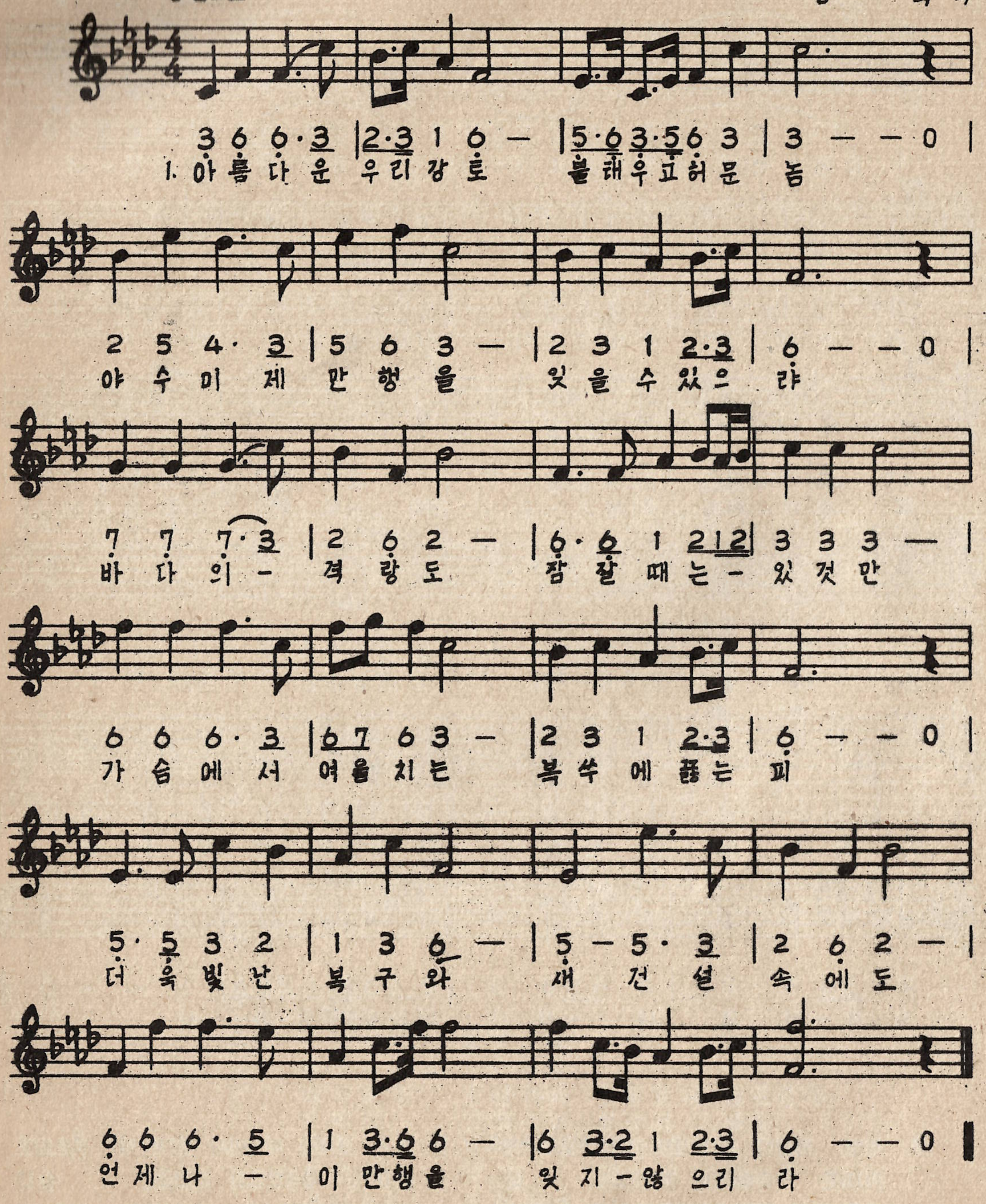


2. 항일 전선의 지난날에 피로맺은동지애로
위대한 중국인민의 지원군은 왔다
오늘의적은 강도미제 공동의 원쑤 물리치려
조선의 이땅에 그대들은 왔다
——(후 렴)——

3. 넓은 아세아 대륙에서 정의에 타는 붉은피로
위대한 중국인민의 지원군은 왔다
세계인민은 우리의편 최후승리는 우리의것
원수는 굴복하리라 인민의 힘앞에
——(후 렴)——

언제나잊지않으리라

행진조로

박 세 영 시
김 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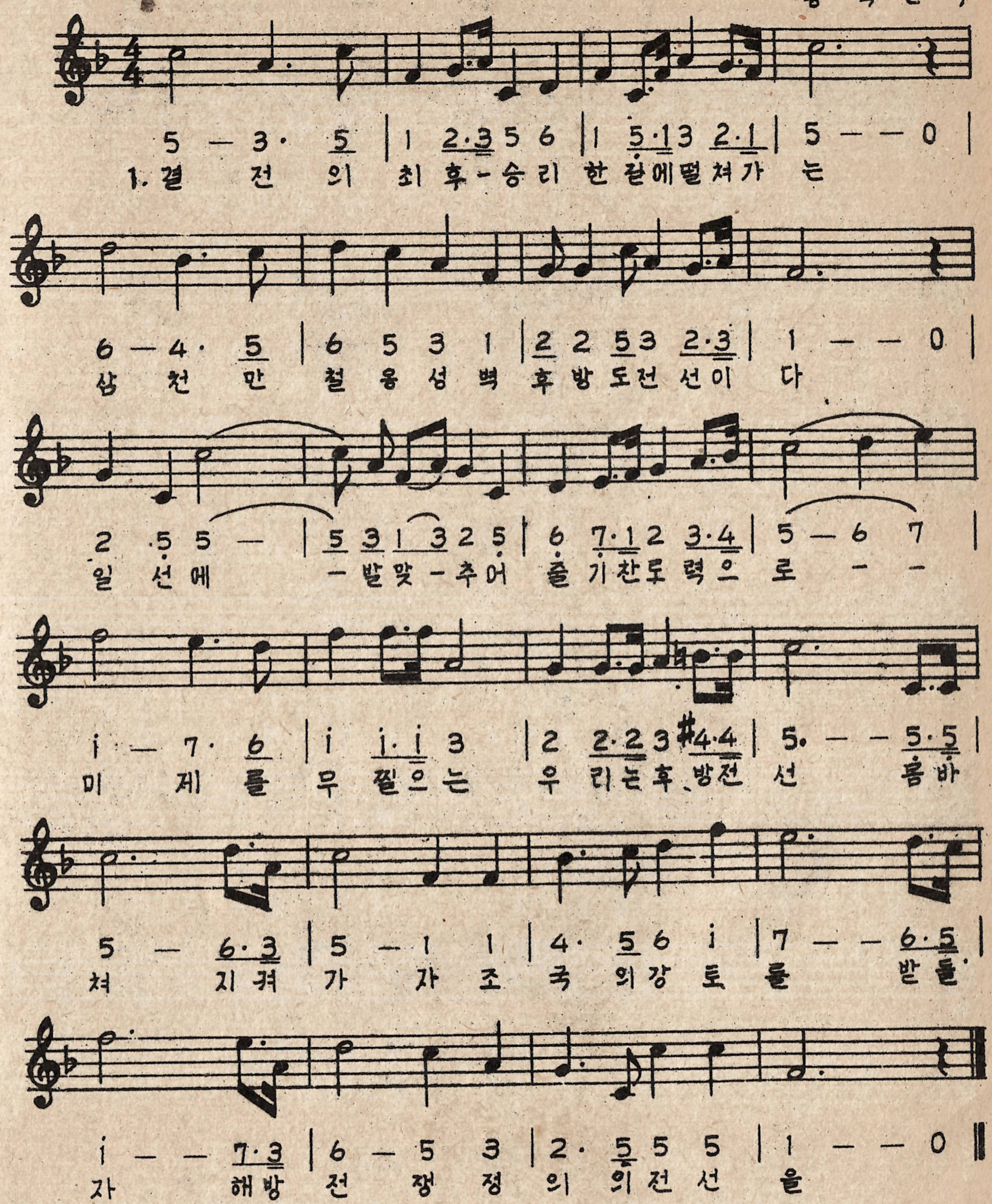


2. 사랑하는 부모형제 학살하고 날뛴놈
불구대천 원쑤를 잊을수 있으랴
줄기찬 바람도 잦아질때 있지만
폭풍같이 일어나는 피맺인 이원한

——(후 렴)——

후방전선의노래

홍 순 철 시
황 학 근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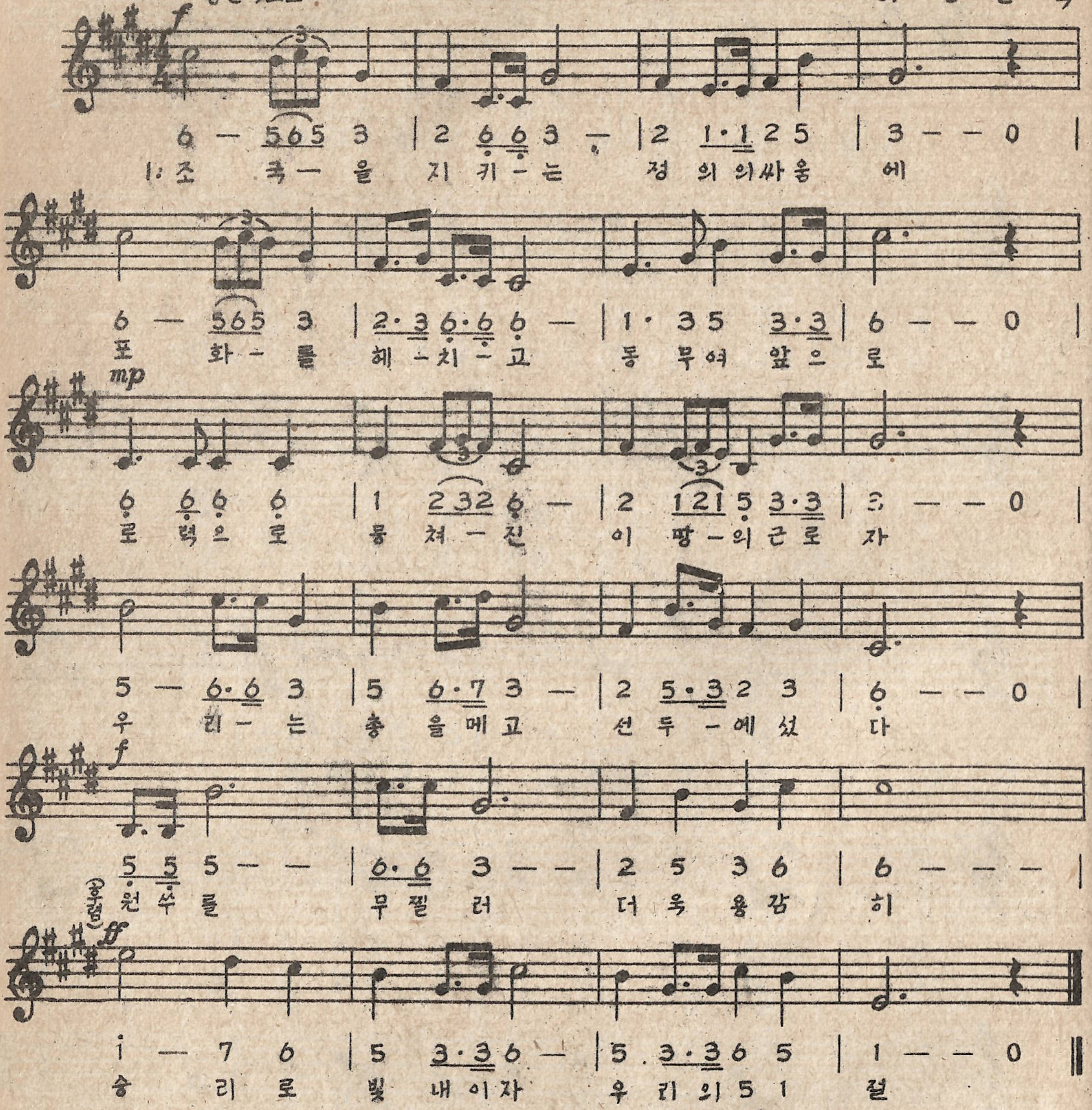


2. 백승의 기세높이 보복에 불타오른
장엄한 애국대렬 후방도 전선이다
수령의 이름높이 불굴의 용맹으로
미제를 쳐부시는 우리는 후방전사
몸바쳐 지켜가자 조국의 강토를
받들자 해방전쟁 정의의 전선을

승리로빛내이자

최 석 두 시
리 정 언 곡

행진곡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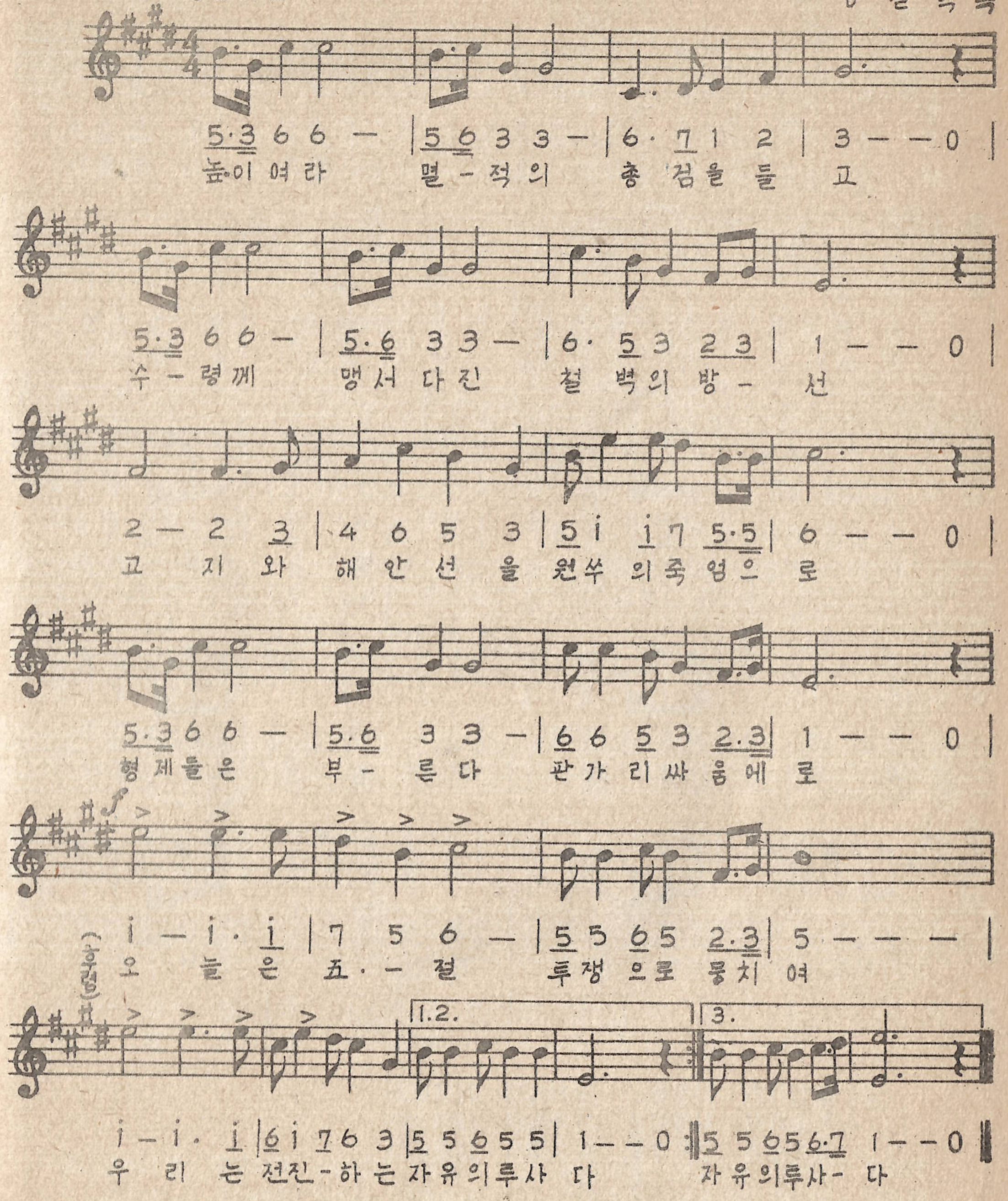
2. 미제를 소탕하는 판가리 싸움에
우리의 진격을 막을자 누구냐
공장은 무너져도 생산의 불길속에
승리를 향하여 우리는 나간다
——(후 렴)——

3. 세계를 진감하는 평화의 목소리
우렁찬 성원속에 승리는 부른다
중국의 형제들과 굳게 손잡고
원쑤에게 마지막 죽엄을 주자
——(후 렴)——

五·一절찬가

김 순 석 시
김 길 학 곡

행진곡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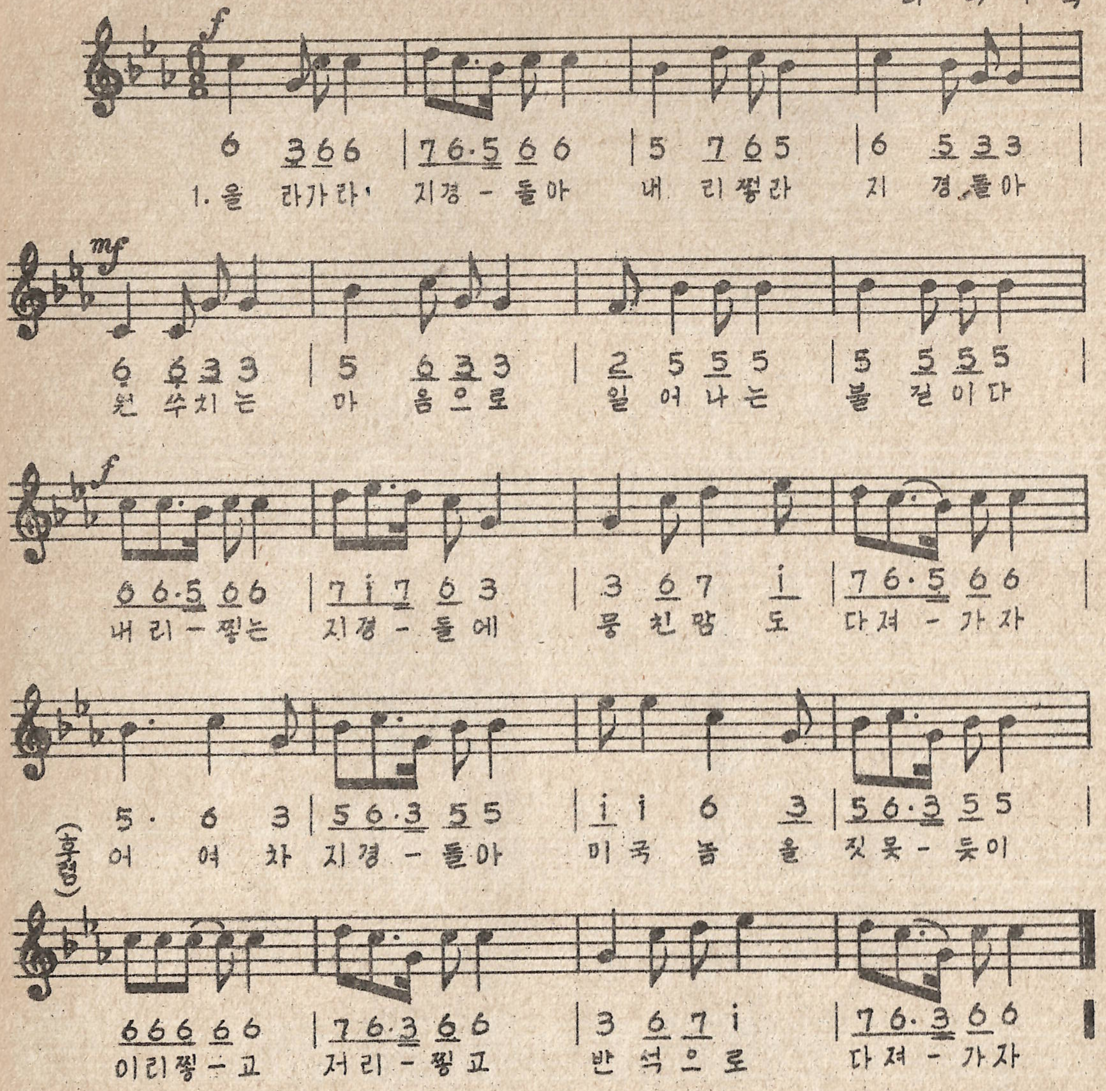


2. 굳게잡자 위훈의 마치와낫을
우리는 영광스런 혁명의돌격대
공장과 농토를 증산의 화선으로
전우들은 부른다 승리의싸움터로
—(후 렴)—

3. 나아가자 온세계 친선단결로
하늘땅 진감하는억반의대오
산넘어 구름넘어 침략을부시라고
세계는 부른다 평화의깃발높이
—(후 렴)—

지경닦기

박 세 영 시
최 북 구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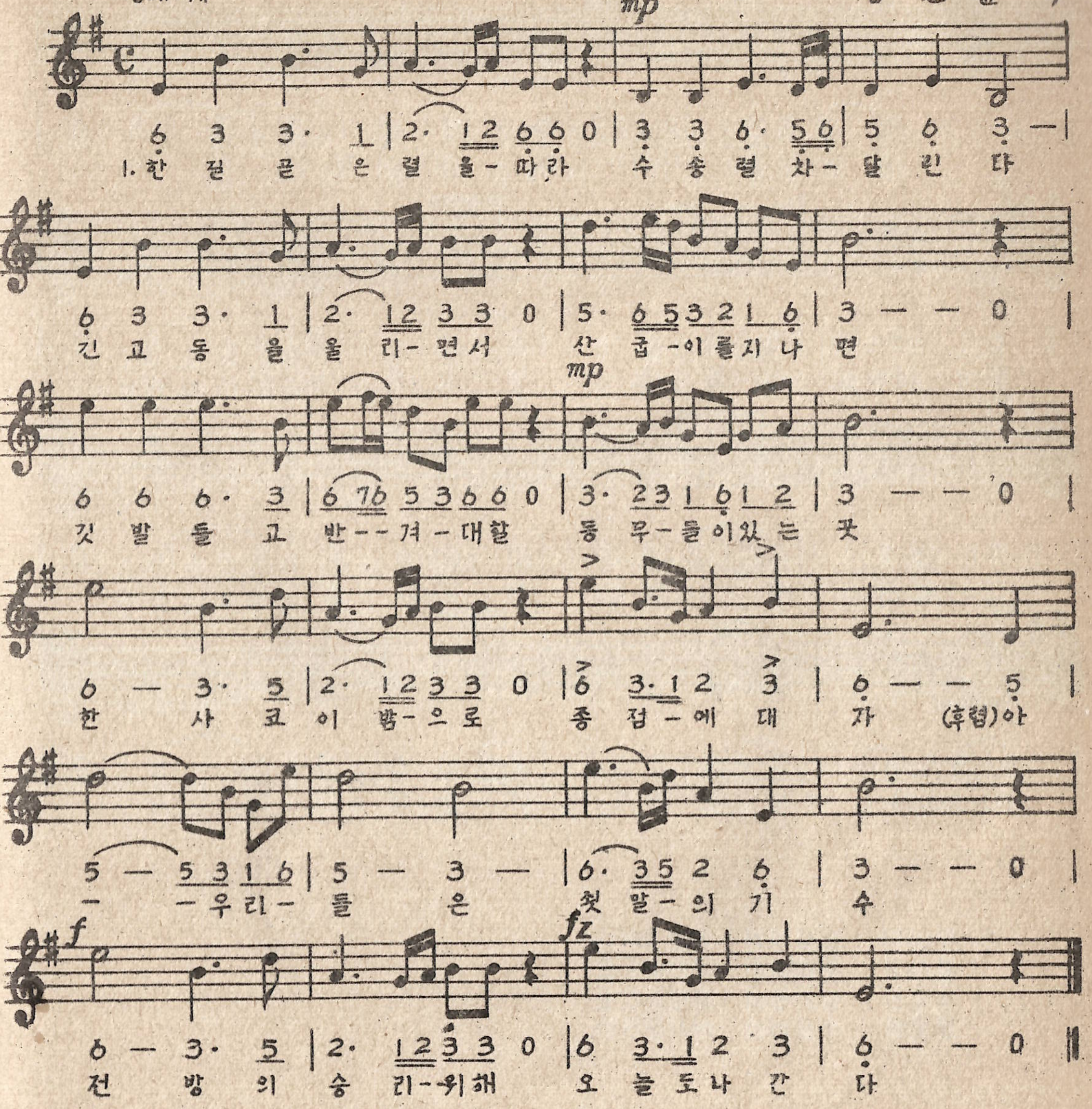
2. 올라가라 지경돌아 내리찧라 지경돌아
한숨쉬며 지경닦든 지주집터 아니로다
우리농촌 구락부를 둥그렇게 지울터다
—(후 렴)—

3. 올라가라 지경돌아 내리찧라 지경돌아
폭격맞아 허물어진 이터에다 집을지여
우리살림 새로꾸며 어엿하게 살아보세
—(후 렴)—

철 도 행 진 곡

고 석 상 시
김 원 균 곡

경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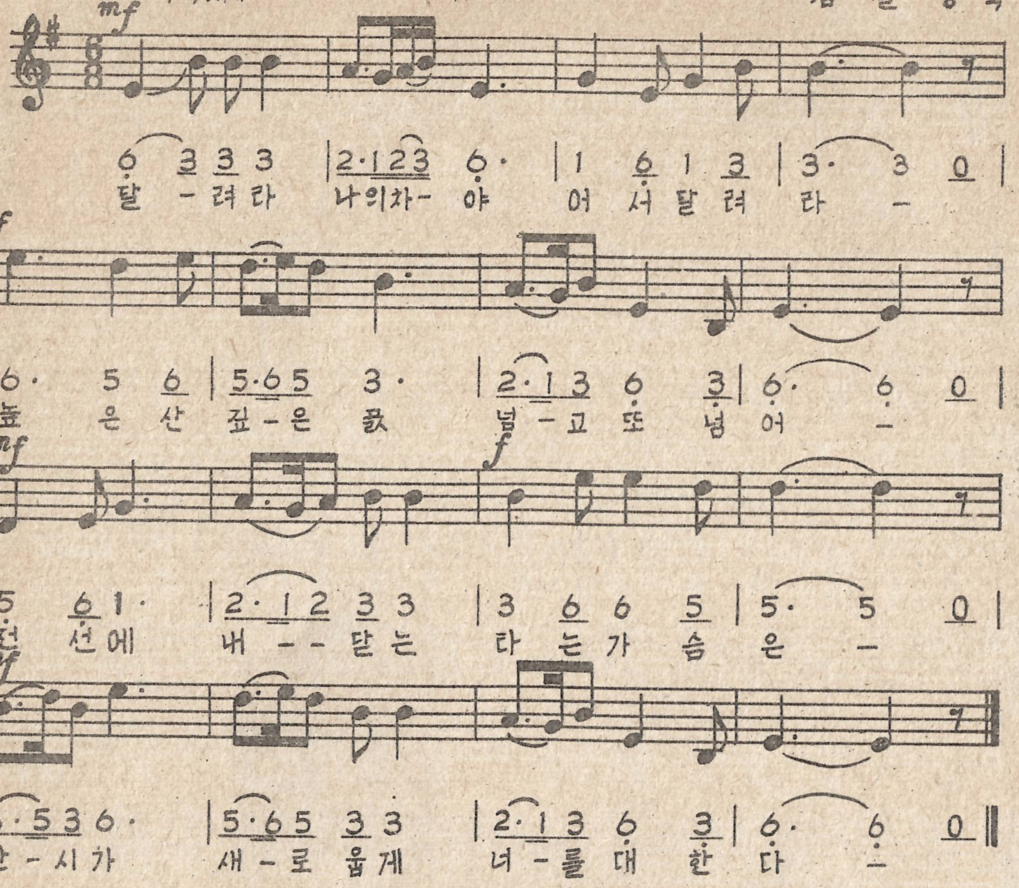
2. 불가마를 달구어라 수송렬차 달린다
분초가 우리에게 피보다 더중하여
매시간을 애끼면서 전선향해 가는길
원수를 다우치듯 기차를 끌자
—(후 렴)—

3. 푸른등불 정답고나 수송렬차 달린다
피스톤을 달구채며 종점에 닿으면
한아름씩 받아안을 전우들의 품에로
실으세 이란환을 어서 보내세
—(후 렴)—

수송차의노래

리 찬 시
김 칠 성 곡

씩씩하게



2. 보아라 달려달려 가는곳마다
불타고 잿데미된 우리마을들
놈들의 앙가슴에 죽엄을안길
보복의 수송이다 어서달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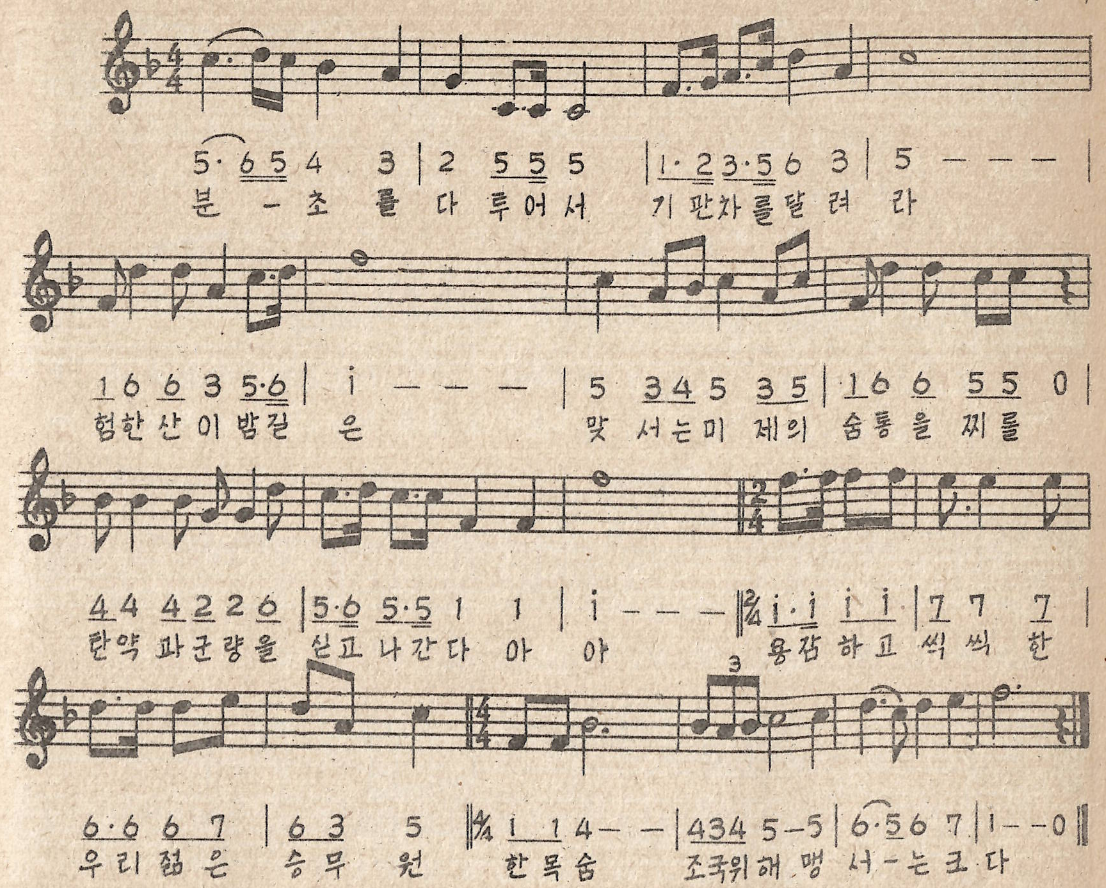
3. 오로지 한맘으로 달리는앞길에
걸음마다 지원군의 저호각 소리
그어떤 발악에도 어두움 에도
불의의 사고란 있을수 없다

4. 달려라 나의차야 포연을뚫고
래일의 빛난태양 바라다보며
수송은 동맥이다 긍지도높이
영예론 이과업도 승리로맺자

어서보내자

고 석 상 시
리 조 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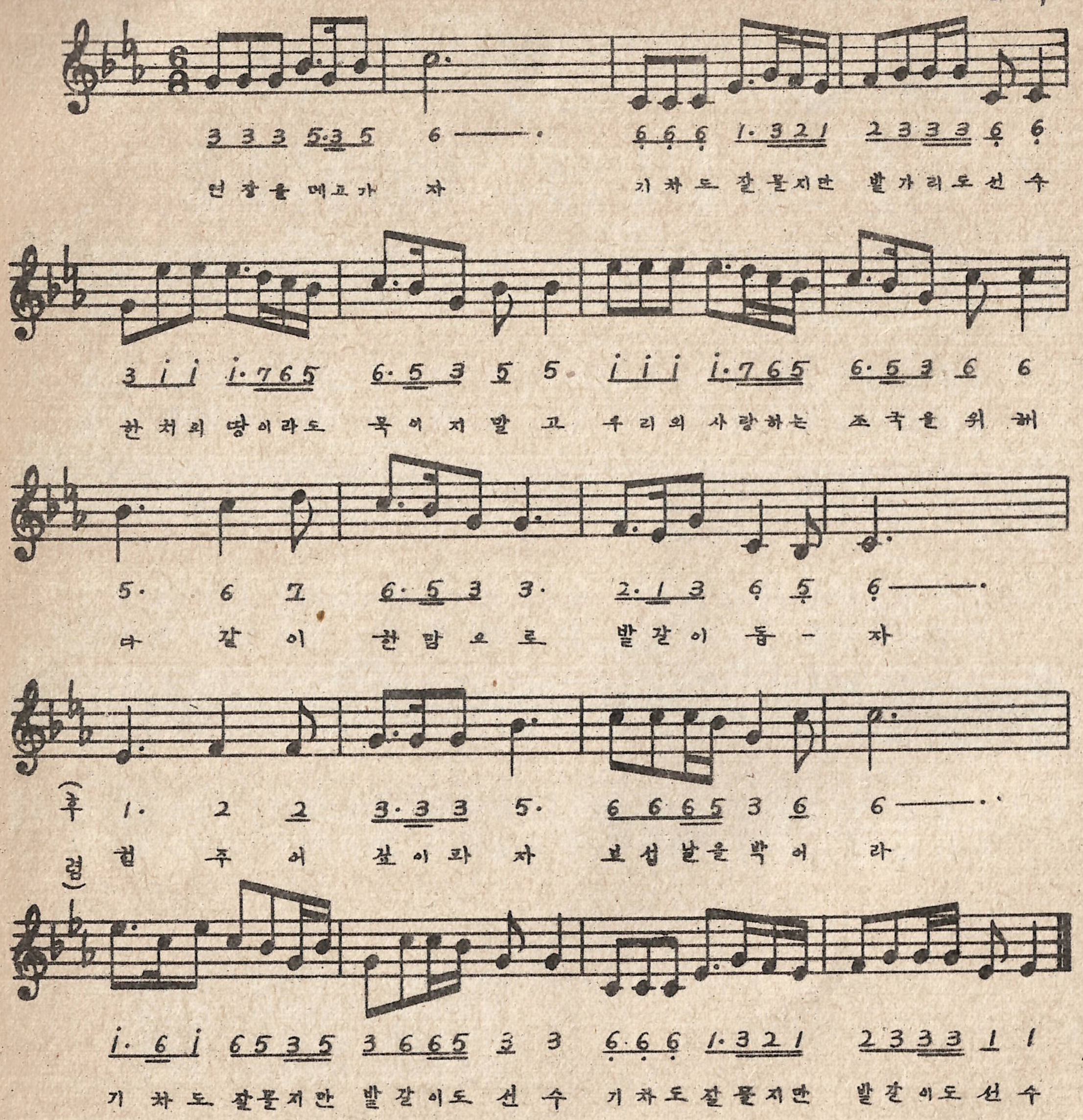
씩씩하게



2. 천리길 주름잡아 전선으로 보내자
달리는 걸음마다 맞서는 미제를
무찔러 무찔러나갈전의의 무력이 실리여있다
아 ! 용감하고씩씩한 우리젊은승무원
한목숨 조국위해 맹서는 크다

우리도 발갈이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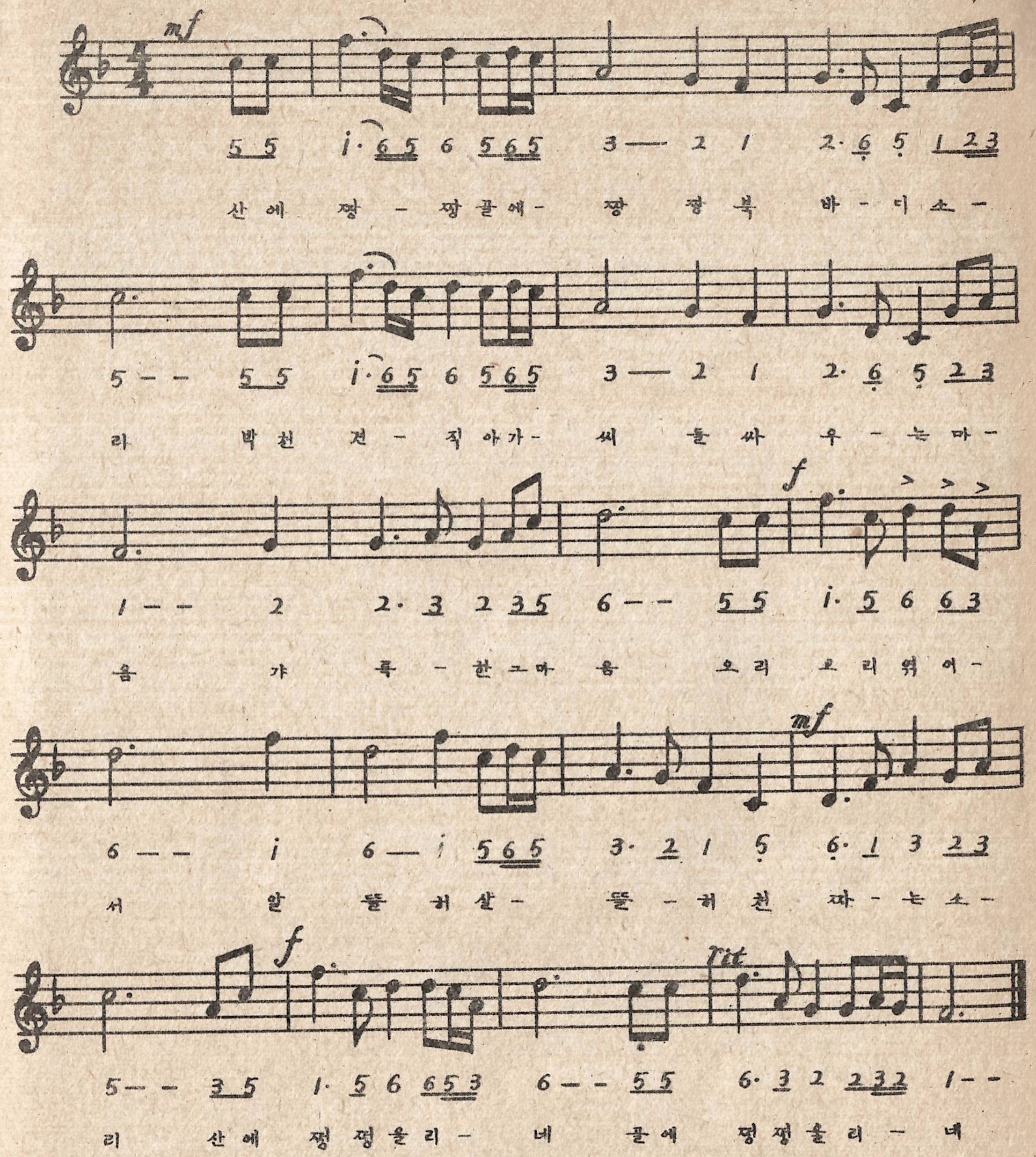
고석상 시
리면상 곡



2. 동무여 어서갈자 기차가 달리듯이 발갈이도 씽씽
조화를 뚫고가는 기관차 마냥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농민들 어서도와 발 갈 이 하세
(후 렴)

천 짜는 아가씨들

김북원 시
김철섭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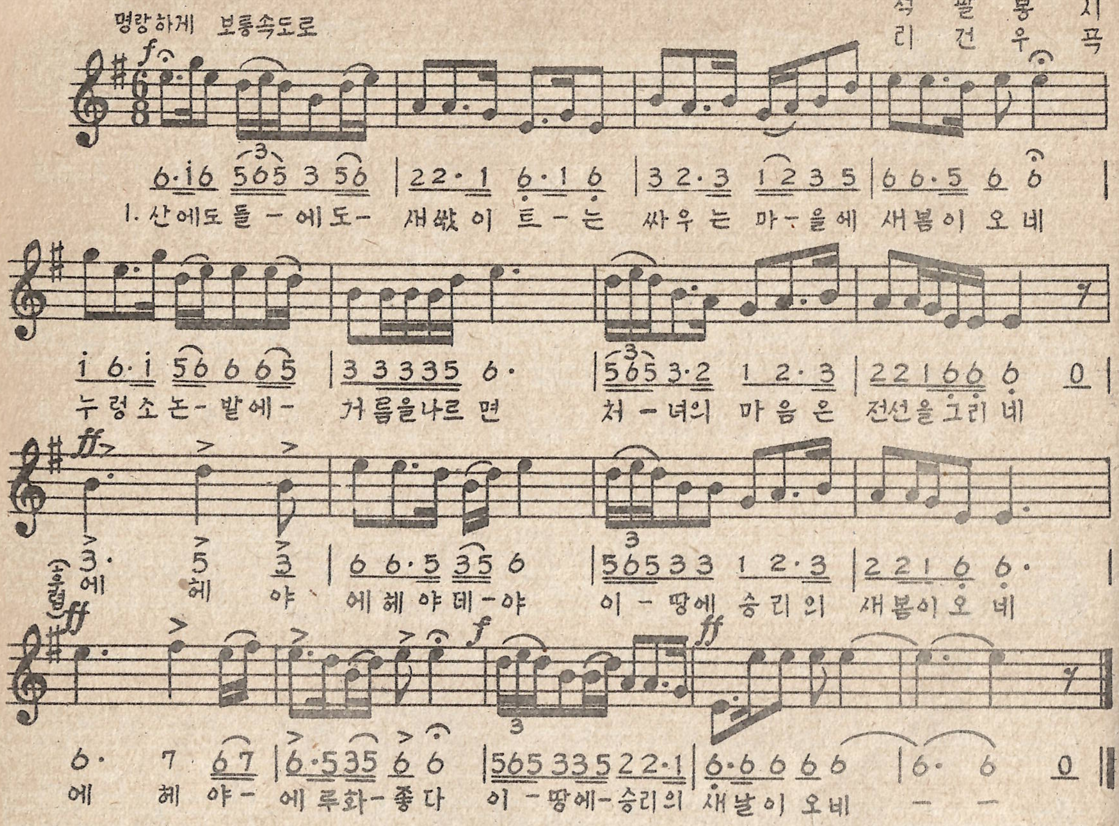


2. 돌고짱짱 놓고짱짱 북바디소리
박천전직 아가씨들 사랑의노래
전선에 보내는 사랑의노래 엮어서
알뜰히 살뜰히 천 짜는소리
산에쩡쩡 울리네 들에 쩡쩡 울리네

3. 산에짱짱 골에짱짱 북바디소리
오늘도 이내가슴 두근거리는
혁신자의 자랑을 오리오리 엮어서
알뜰히 살뜰히 천 짜는소리
산에쩡쩡 울리네 들에쩡쩡울리네

새 봄 의 노 래

석 팔 봉 시
리 건 우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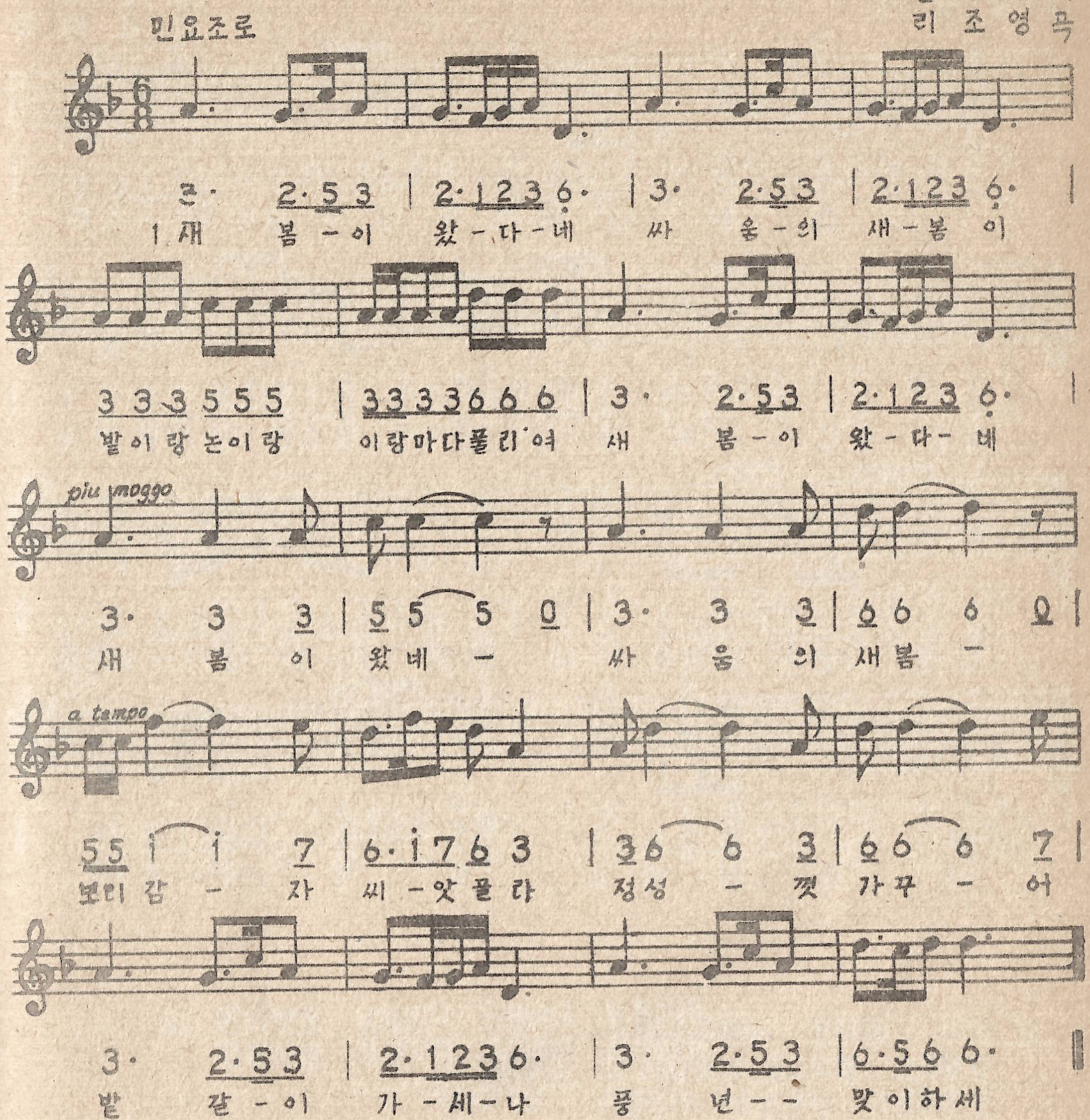


2. 부러진 가지에도 새움이트는
영웅의 고지에 새봄이오네
간악한 원쑤는 수없이덤벼도
전우들 심장은 승리에불타네
—(후 렴)—

3. 골작이 눈녹고 새샘이솟는
깊은산 숲속에 새봄이오네
원쑤를 섬멸한 총신을닦으며
용사들 눈앞에 고향이어리네
—(후 렴)—

새봄이 왔다네

원 진 관 시
리 조 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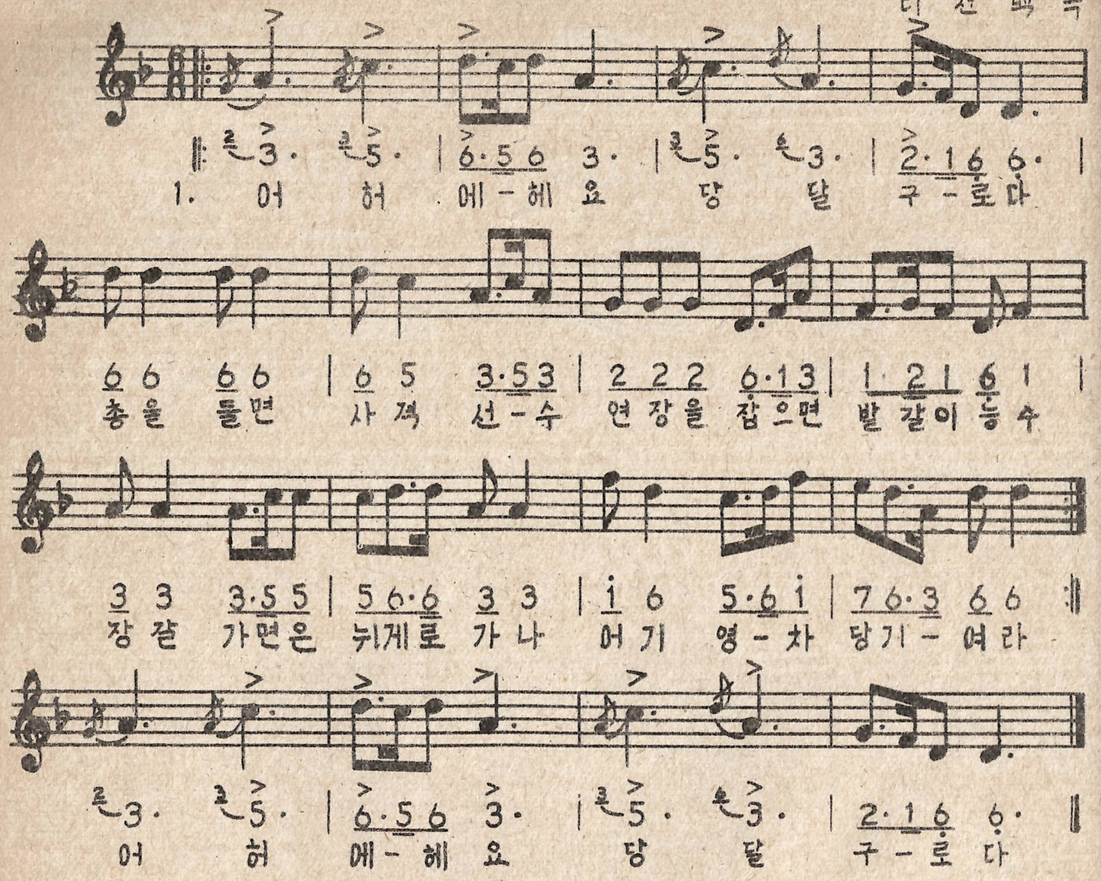


2. 새봄이 왔다네 승리의 새봄이
앞논에 은방주 뒷산엔 륙우종
새봄이 왔다네 새봄이 왔다네
증산의 새봄 이손저손 잦은손길
정성껏 가꾸어 거름을내세나 풍년맞이하세

3. 새봄이 왔다네 승리의 새봄이
옥백미 전선에 더많이 보내려
새봄이 왔다네 새봄이 왔다네
싸우는 농군들의 승리의 새봄
정성껏 가꾸어 씨앗을뿌리세 풍년맞이하세

당달구타령

홍 종 린 시
리 천 백 곡



2. 어허 에헤요 당달구로다
일잘하고 맘씨고운 이웃집아가씨 마음에드네
로력영웅이 마음에드네 어기영차 당기여라
어허 에헤요 당달구 로다

3. 어허 에헤요 당달구로다
바늘들면 천하일침 호미를들면은 김매기능수
시집가면 뉘재로가나 어기영차당기여라
어허 에헤요 당달구 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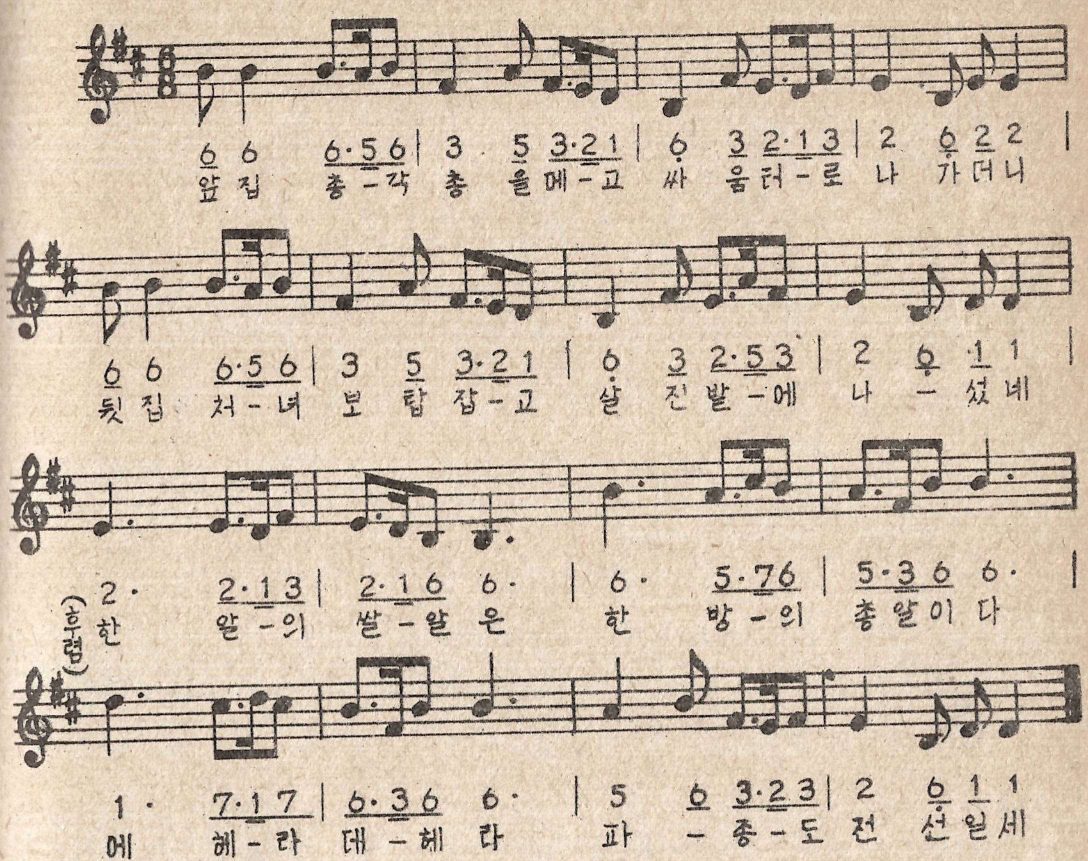
4. 어허 에헤요 당달구로다
늠름하고맘씨어진 이웃집총각이마음에있네
전투영웅이마음에있네 어기영차 당기여라
어허 에헤요 당달구 로다

5. 어허 에헤요 당달구로다
청실홍실금실좋다 신랑도신부도 마을의영웅
터를닦아라/새집을짓자 어기영차 당기여라
어허 에헤요 당달구 로다

6. 어허 에헤요 당달구로다
이집진지삼년만에 아들을나면은영웅을낳고
딸을놓아도영웅일세 어기명차 당기여라
어허 에헤요 당달구 로다

파종도전선일세

마 우 룡 시
라 화 일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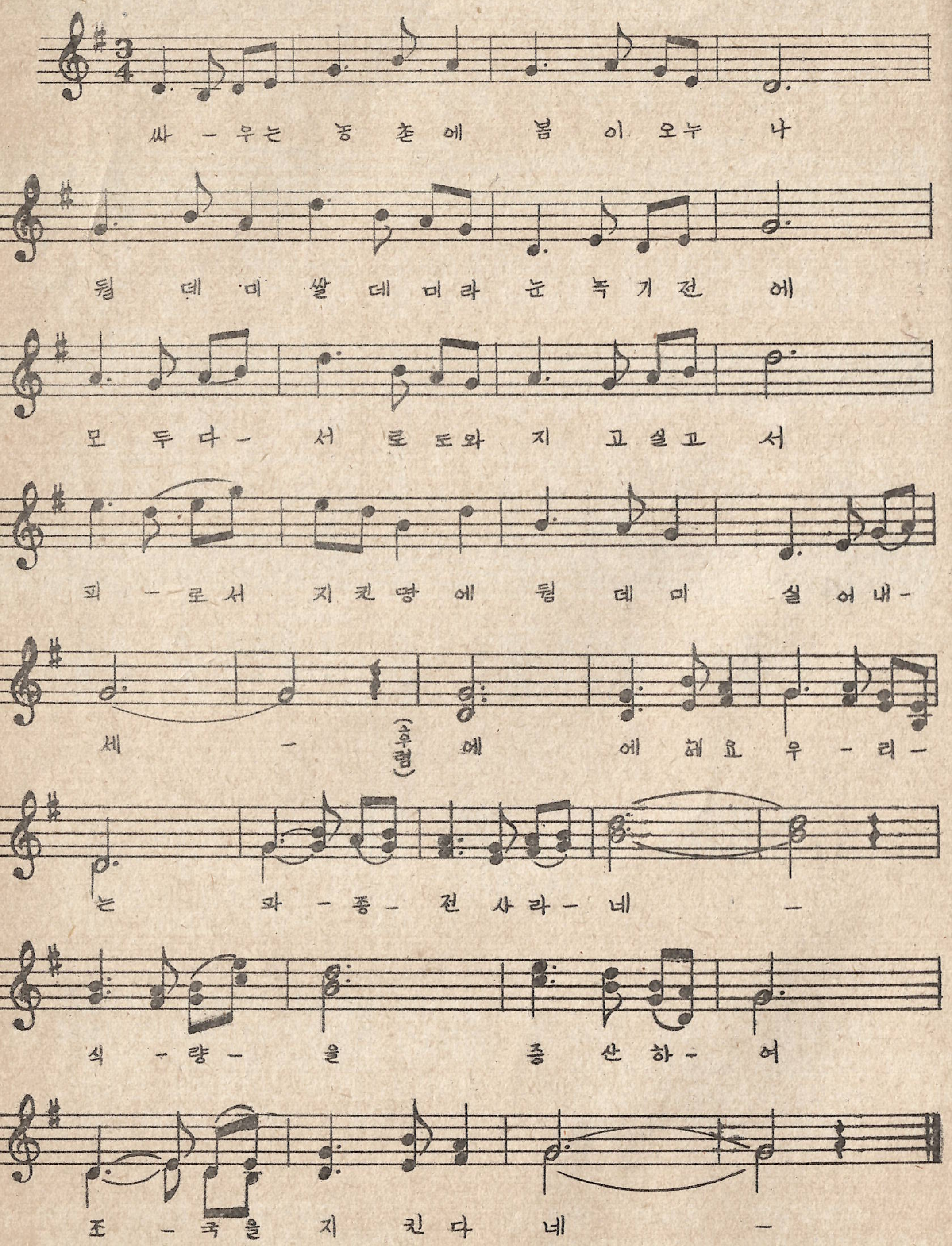
2. 한치땅도 남김없이 거름펴고 밭을가세
앞뒷마을 경쟁하며 우량종자 씨뿌리세
——(후 렴)——

3. 승리위해 일떠나선 우리들은 땅의전사
아래웃집 손을도와 우리마을 제일일세
——(후 렴)——

파종전사의노래

김 민 시
김 복 윤 곡

민요풍으로 즐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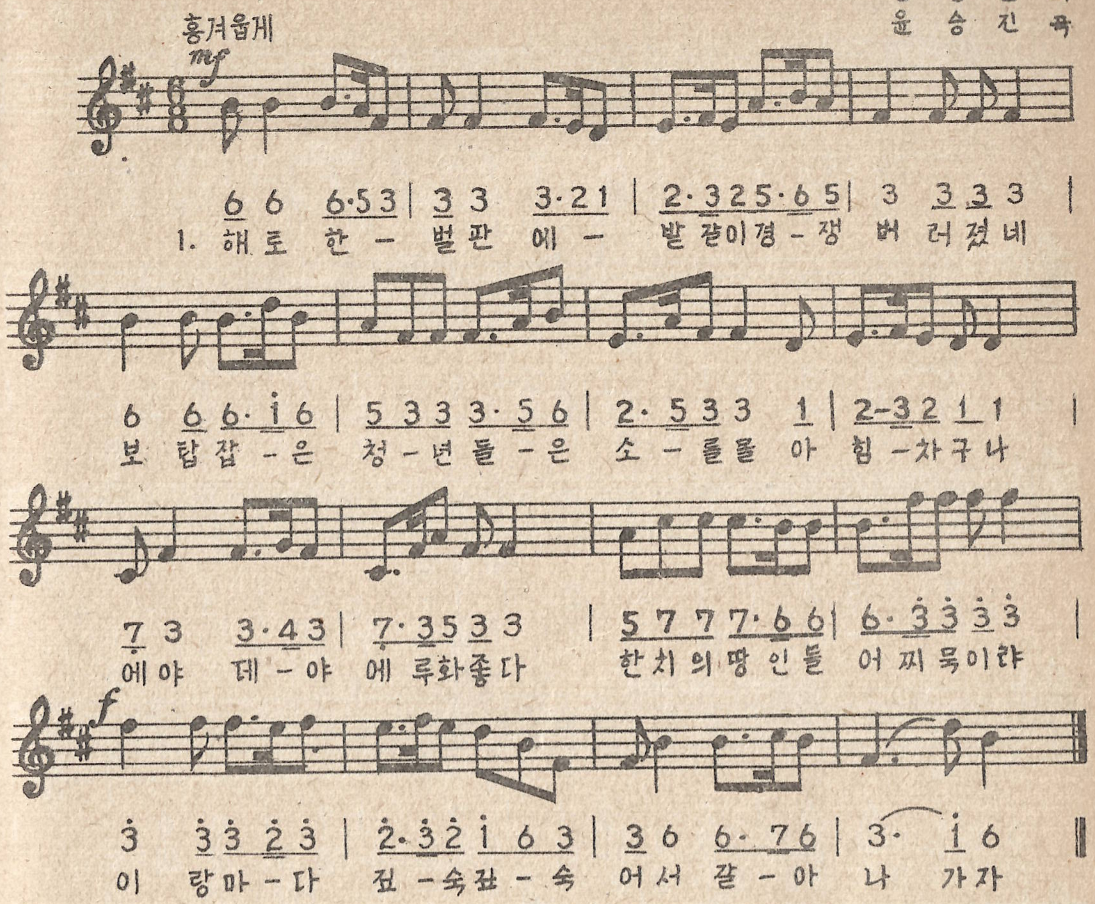


2. 싸우는 농촌에 봄이오누나
앞뒷벌 사래긴발 갈이틀었네
처녀도 안악네도 보탑을잡고
한천들 묵일소냐 갈이갈아제끼세
—— 후렴 ——

3. 싸우는 농촌에 봄이오누나
골라둔 좋은씨앗 나눠가지고
경쟁도 즐겁구나 우리결이반
풍년가 불러가며 승리의씨뿌리세
—— 후렴 ——

밭갈이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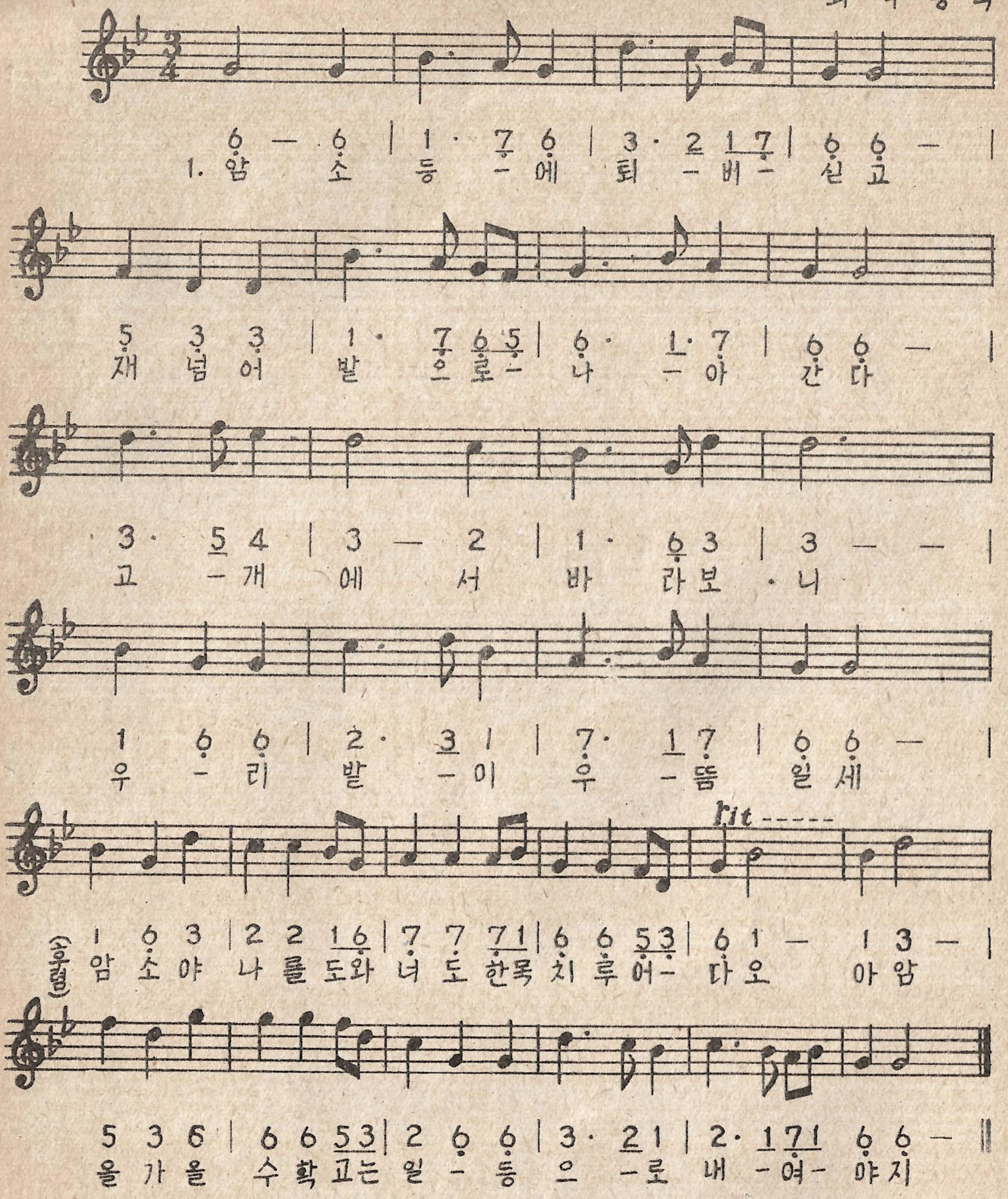
김 광 현 시
윤 승 진 곡



2. 기다리던 전선소식 밭으로 찾아왔네
승리의날 가깝단다 소야너도 반기여라
에헤야 데헤야 에루화 좋다
앞산 뒷산에 새봄이 왔네
이랑마다 풍년맞이 어서 갈아나가자

퇴비내는날

김 우 철 시
최 수 동 곡



2. 송아지도뒤를따라 발이랑밟으며달려온다
거름데미봉우리져 우리발이 제일일세
—(후 렴)—

3. 동넘어로퇴비실어 서산에하루해저므신다
송아지야달려가서 지는해를 멈추어라
—(후 렴)—

4. 이랑마다가꾸어서 기름진밭으로맨드오리
기름지게걷우움은 우리농촌 빛범일세
—(후 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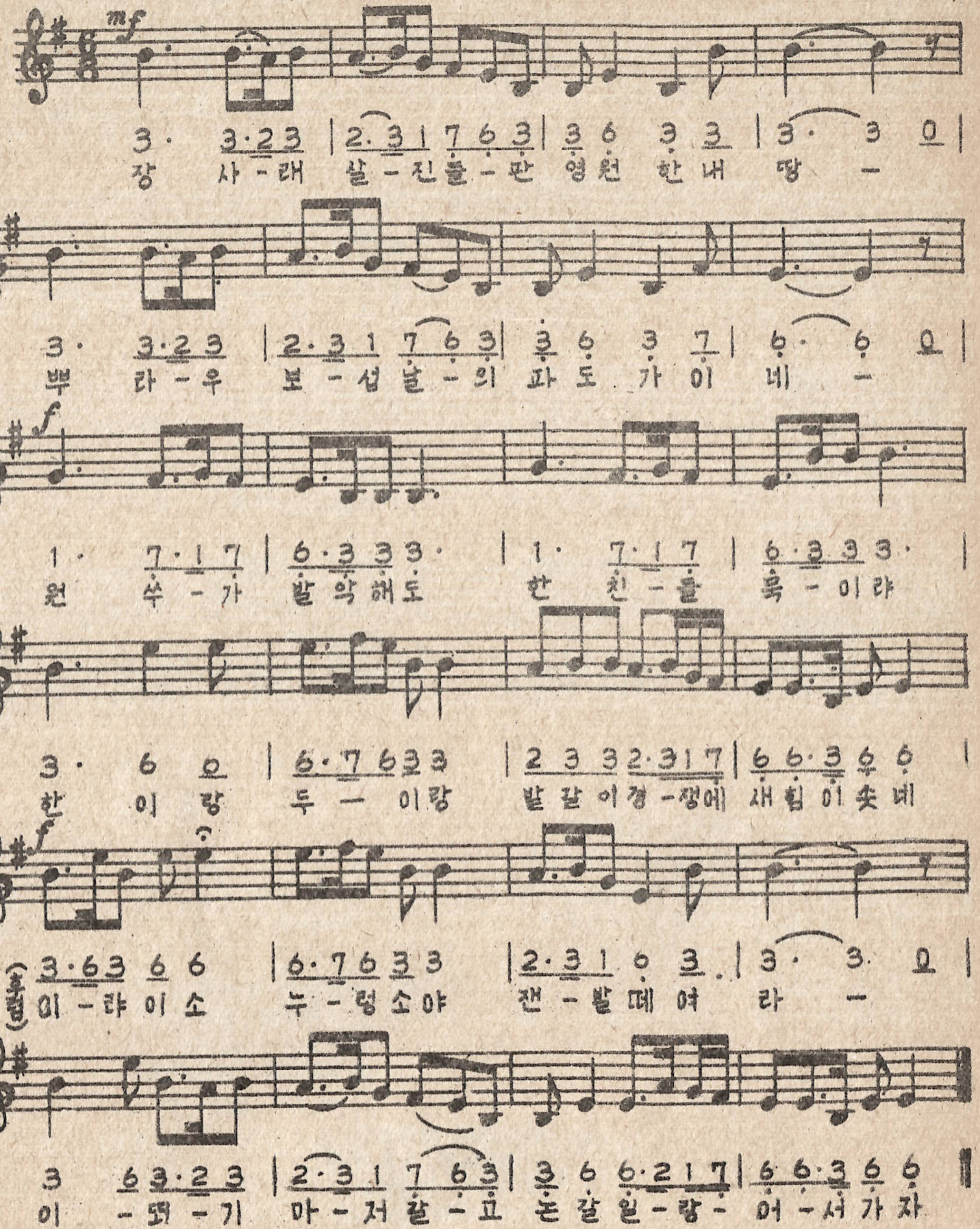
5. 증산으로보답하여 공화국정부를 받드오리
토지받은이기쁨을 애국미로 감사하리
—(후 렴)

6. 우리발에퇴비내고 동넘어집으로돌아온다
송아지도껑충뛰어 반겨드는 집이로세
—(후 렴)—

보잡이노래

신 홍 순 시
라 화 일 곡

흥겨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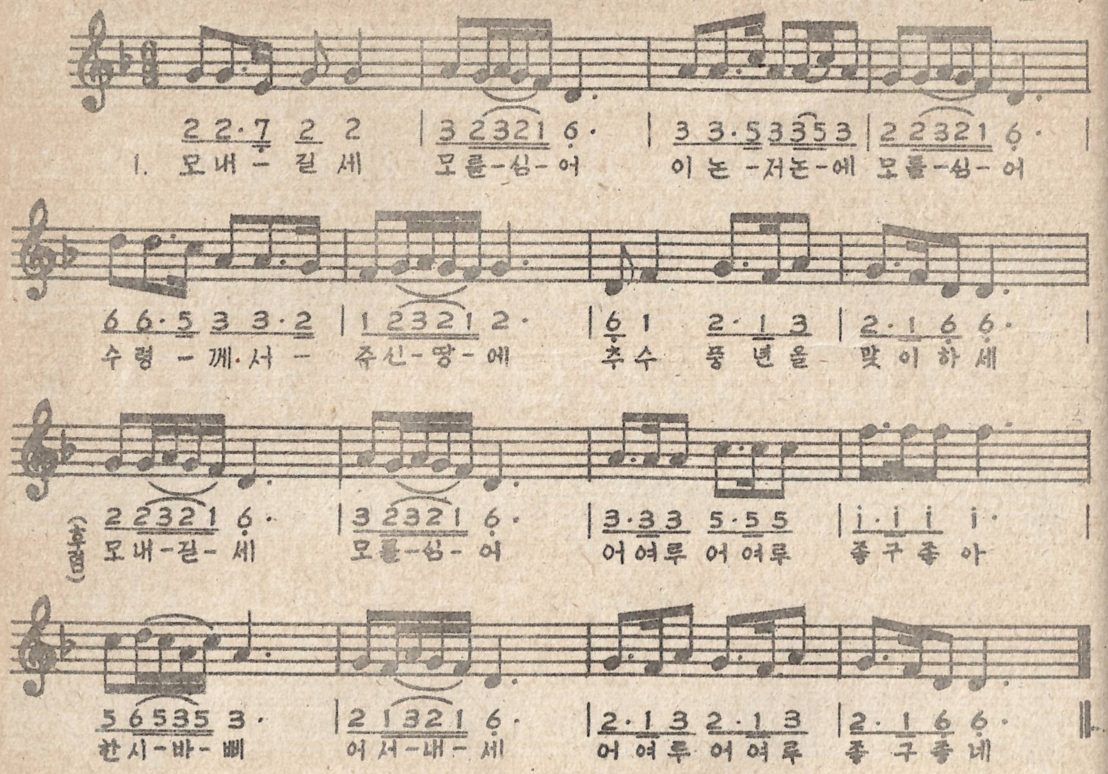


2. 알뜰히 심은씨앗 고루가꾸면
누른오곡 이벌판에 금물결치리
전선에 자랑할 가슴은설레여
보탑쥔이팔에 승리를다짐하는새힘이 솟네
—(후 렴)—

모내기노래

민요조로 흥겨웁게

조 령 출 시
김 복 윤 곡



2. 한일자로 줄을쳐라
모포기줄이 비뚤어질라
포기포기 잘꽂아라
식량전선이 예로구나
—(후 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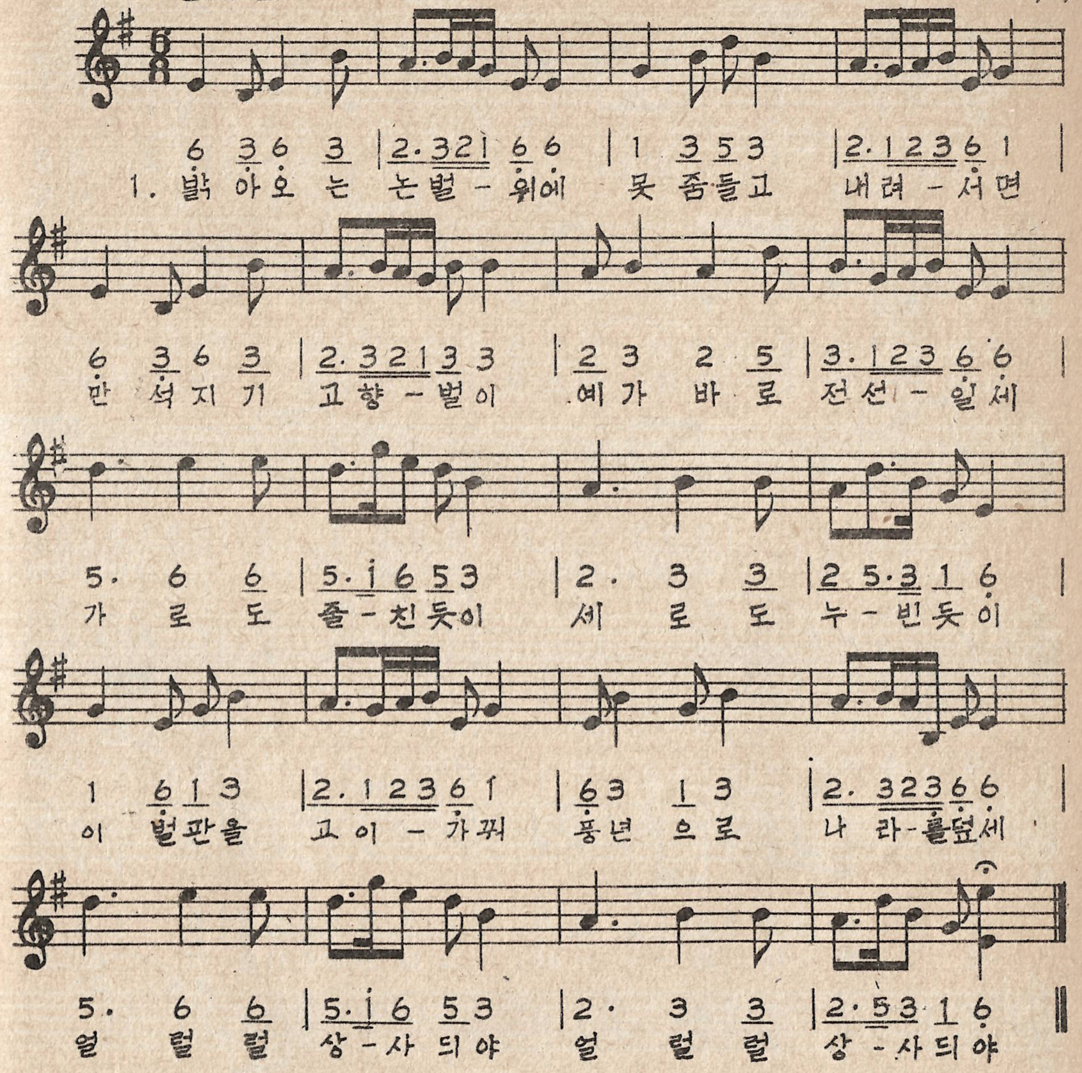
3. 목청좋은 큰아가씨
모내기노래 불러주게
서마지기 이논배미
접심전으로 파장하세
—(후 렴)—

4. 한이삭에 더두말구
이백은하구 설은알씩
백옥같은 흰쌀알도
이논배미에 쏟아져라
—(후 렴)—

모내기타령

민요조로

홍 종 린 시
리 천 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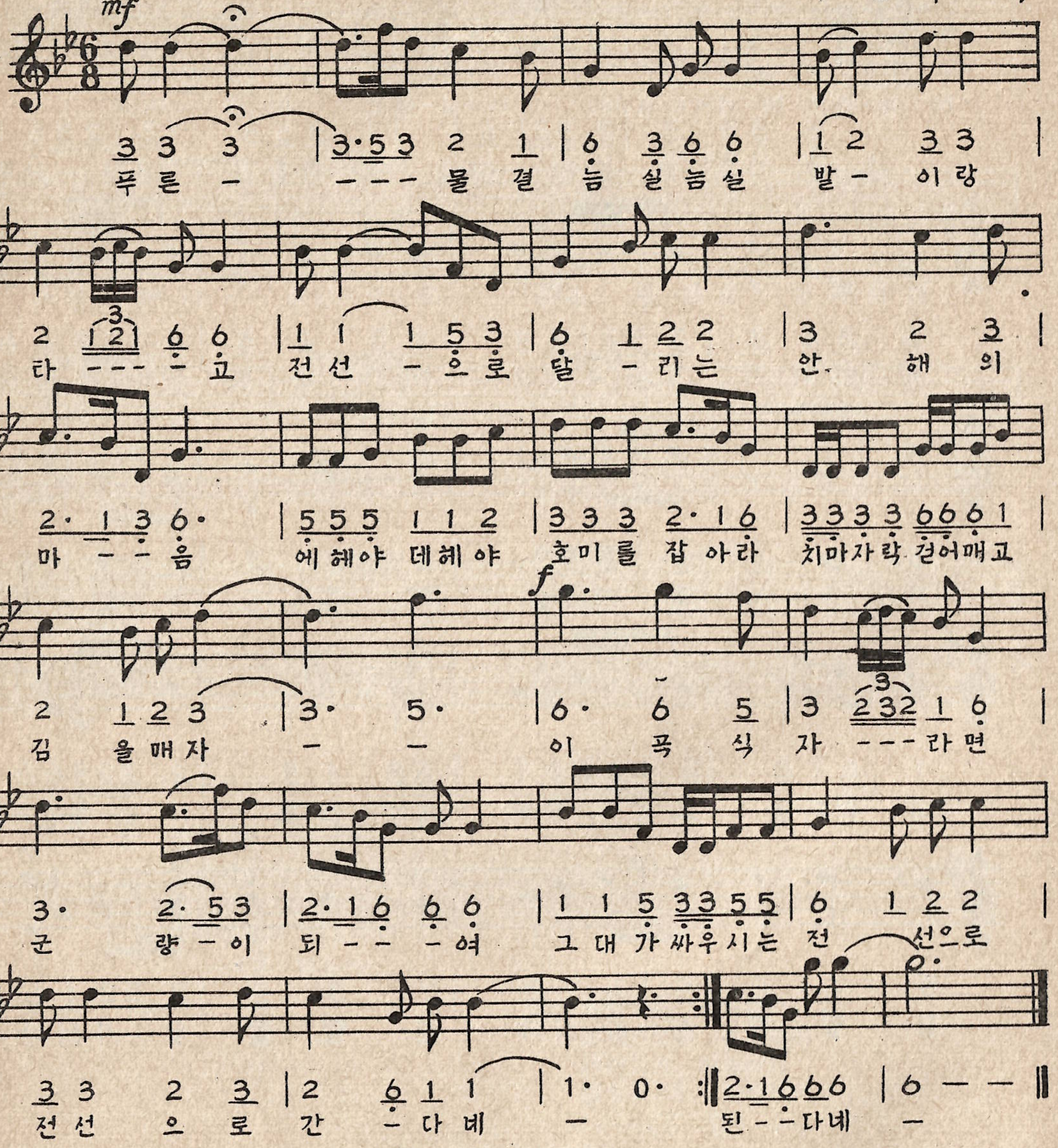
2. 내솜씨 비행기솜씨 네솜씨는 제비새솜씨
열마지기 넓은배미 반달만큼 남았고나
가로도 줄친듯이 세로도 누빈듯이
날고뛰는 이솜씨는 우리님이 두고간솜씨
얼럴럴 상사되야 얼럴럴 상사되야

3. 장구배미 다심었네 달빼미로 넘어가세
앞을보면 허허바다 뒤를보면 푸른논벌
가로도 줄친듯이 세로도 누빈듯이
이논벌을 고이다루며 그리운이 기다리자네
얼럴럴 상사되야 얼럴럴 상사되야

김 매 기 타 령

김 금 단 시
리 건 우 곡

흥겨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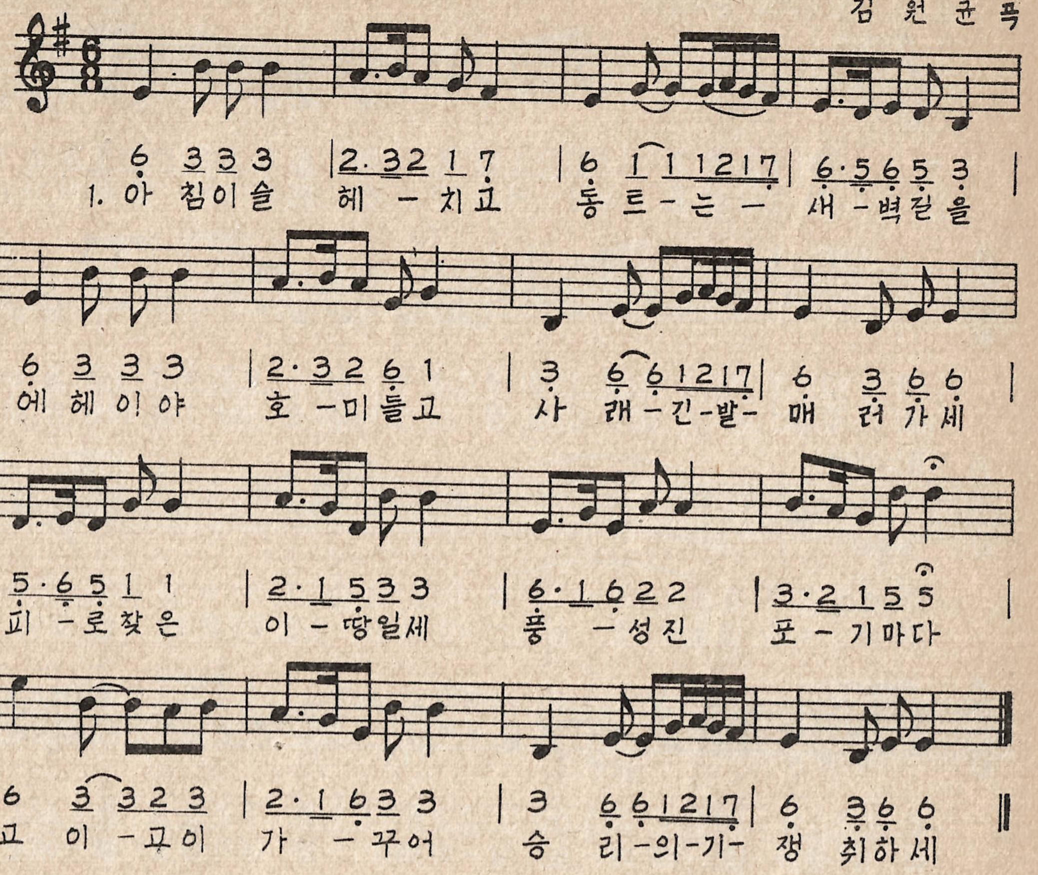


2. 수령께서 주신땅 기름진논을
한치나마 묵이랴 그윽한정성
에헤야 데헤야 호미를잡아라
치마자락 걷어매고 김을매자
올해도 풍년으로 이곡식가꾸어서
전선의 용사들께 식량을보내세

3.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받들고
영농은 전선이다 힘을다하여
에헤야 데헤야 호미를잡아라
치마자락 걷어매고 김을매자
이곡식 가꾸어서 식량의증산으로
조국에 보답하세 조국에보답하세 보답하세

김 매 기 노 래

허 진 계 시
김 원 균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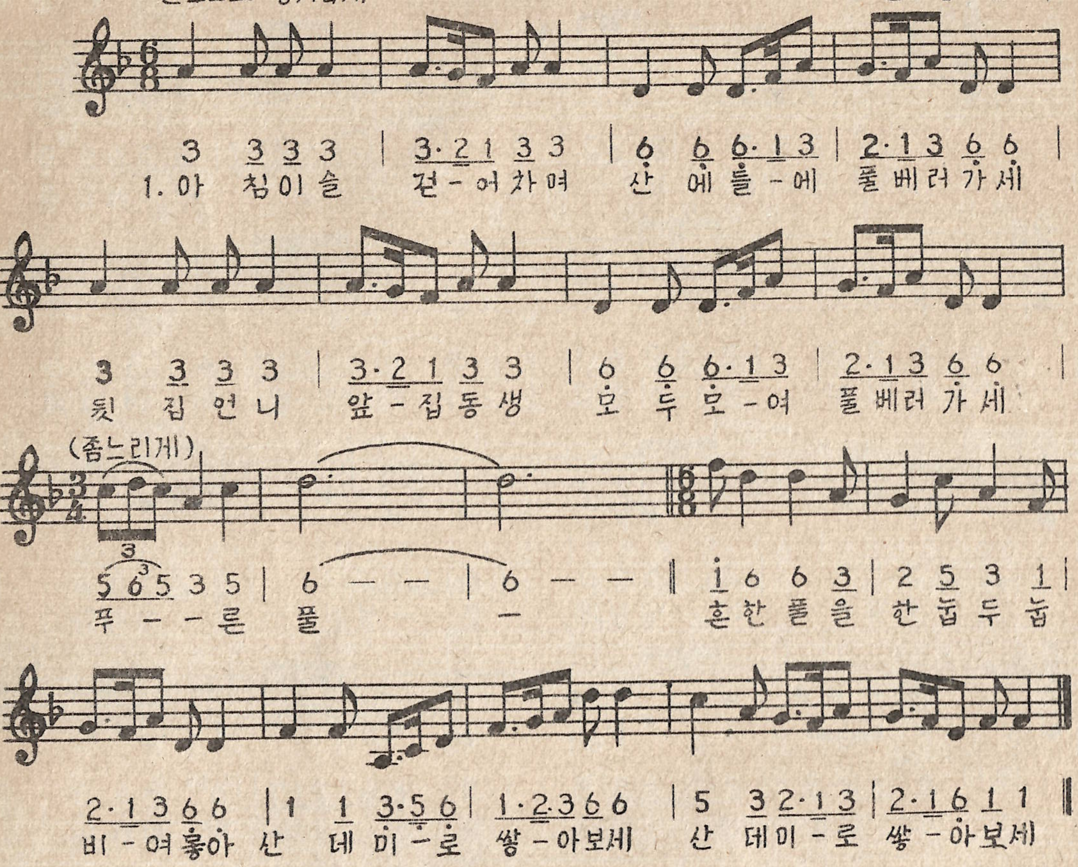
2. 품앗이반 겨루어 이한철땀흘리면
에헤야 삼복지나 풍년이온다네
—(후 렴)—

3. 전선나간 우리님 집안일걱정마소
에헤야 원쑤미제 무찌르고돌아오소
—(후 렴)—

풀베러가세

최영환 시
문영원 곡

민요조로 흥겨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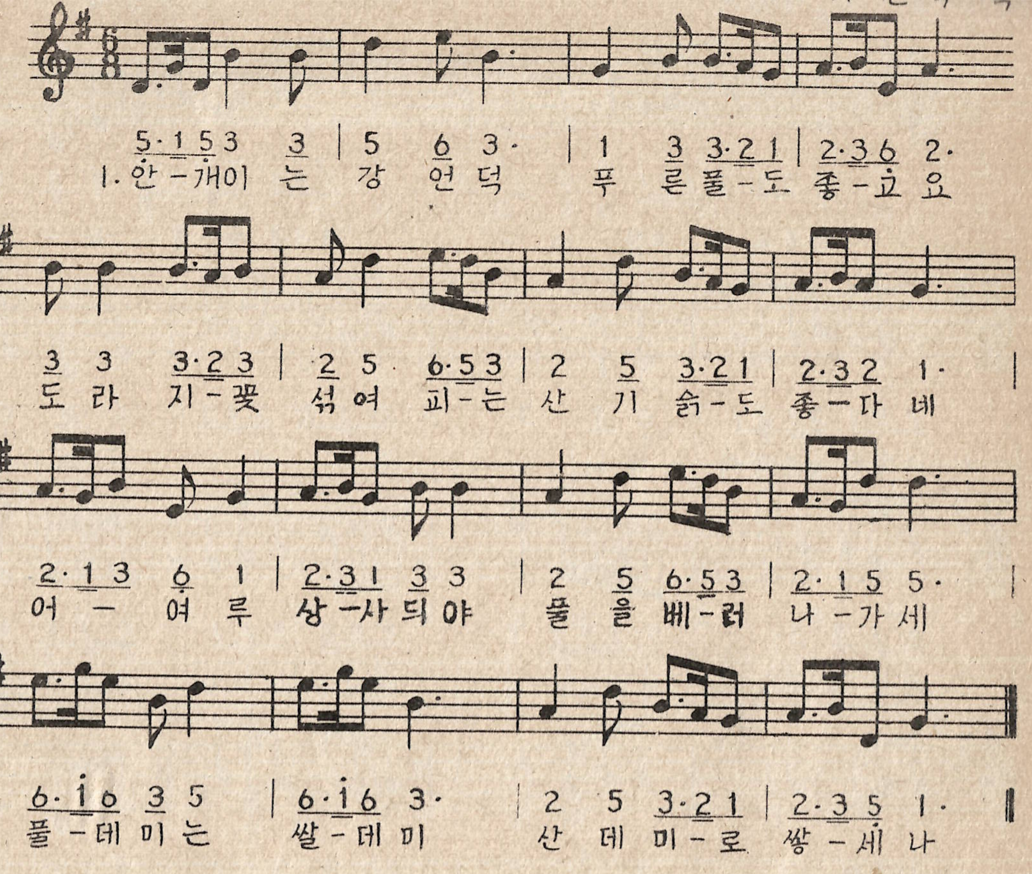
2. 선들선들부는바람 풀향기도 풍기는데
건선위해 바친마음 낫질소리 높아간다

3. 미국놈의비행기가 비료공장마삿건만
쌓아올린풀데미가 금비료만못할소냐

4. 박동무네풀데미 으쓸으쓸높아간다
아차하면질가보다 어서어서베여쌓자

풀베기노래

홍종린 시
리천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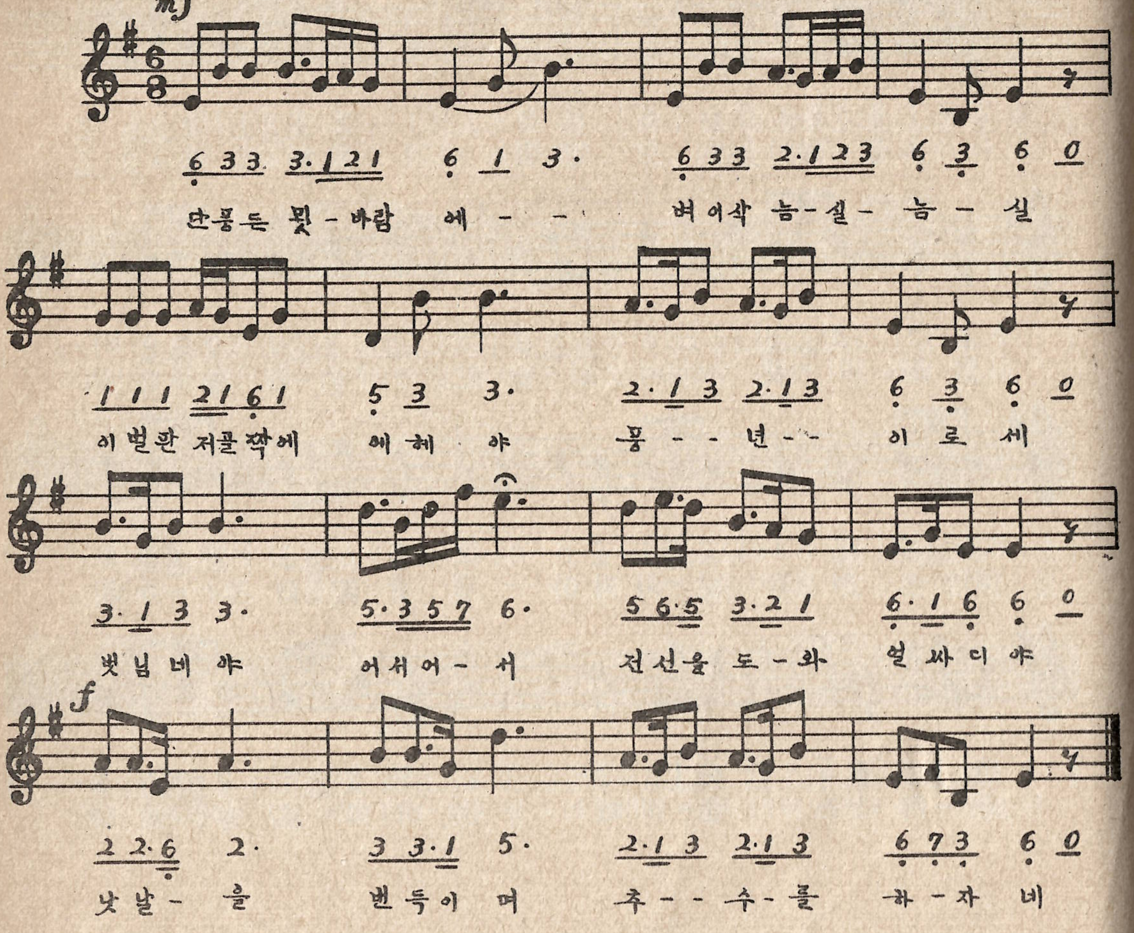
2. 삼복지경 바쁜철 이고비가 성초기
후려베는 낫끝에서 선들바람 인다네
어여루 상사되야 풍년차비 차리세
풀데미는 쌀데미 산데미로 쌓세나

3. 금비없어 한말고 홍영제를 본받아
산과들에 가득찬 두엄감을 걷우세
어여루 상사되야 래년농사 차빌세
풀데미는 쌀데미 산데미로 쌓세나

추수의 노래

원석파 시
김혁 곡

흥겹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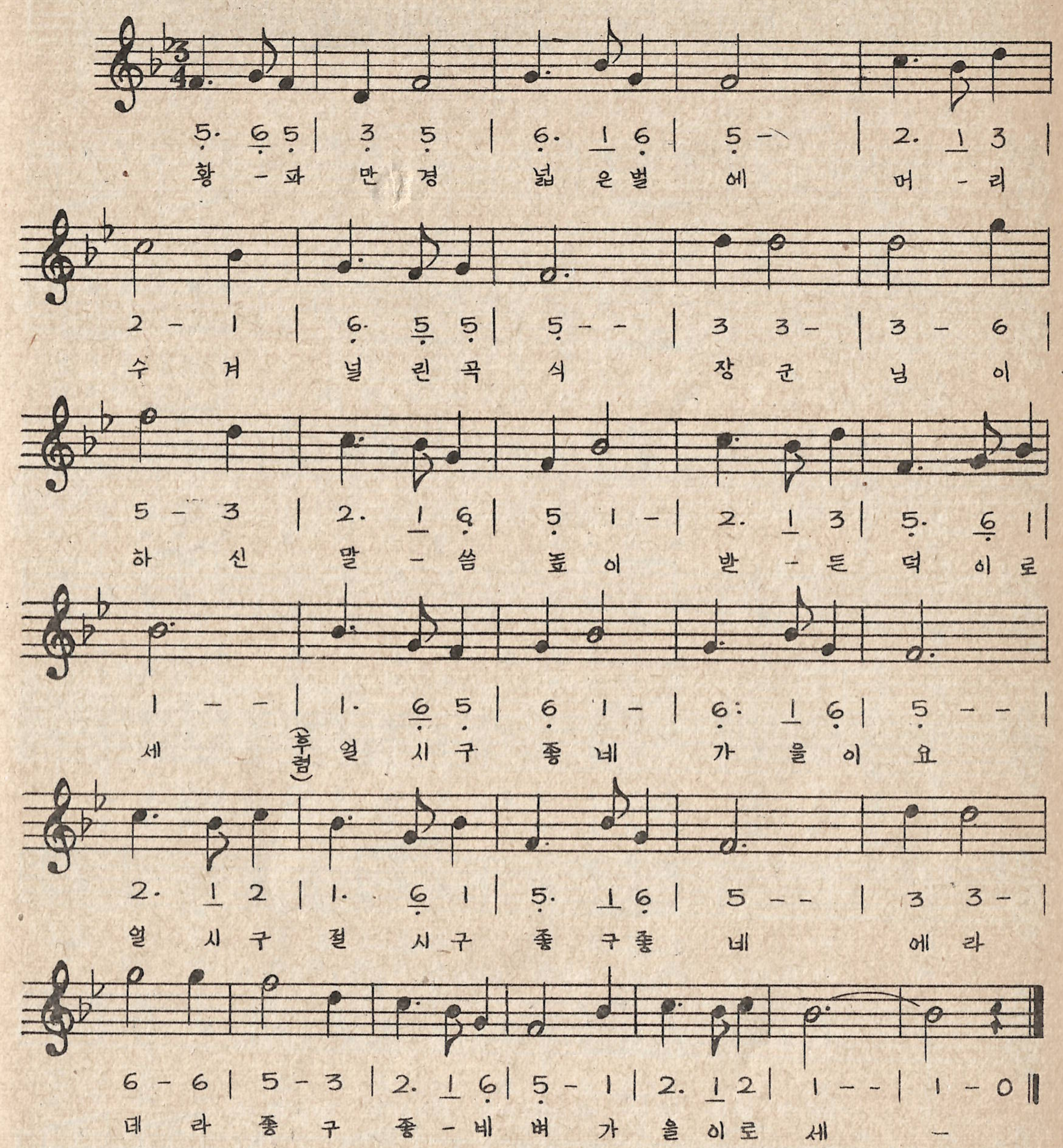


2\. 달밝은푸른밤에 이슬도 아롱아롱
이한밤베여내면 에헤야 신참이라네
벗님비야 어서어서 전선을도와 얼싸디야
달구지 다부지게 벗무지 나르자네

3\. 첫닭이홰를치면 황소야 이랴이랴
걸마다 혈을지여 에헤야 풍경소리
벗님비야 어서어서 전선을도와 얼싸디야
여무진 알곡으로 현물세 바치자네

벼가을의노래

김욱 시
김복윤 곡

천천히



2\. 미국강도 날뛴다고 우리농사 못질소냐
제아무리 발악한들 올해에도 풍년일세
— 후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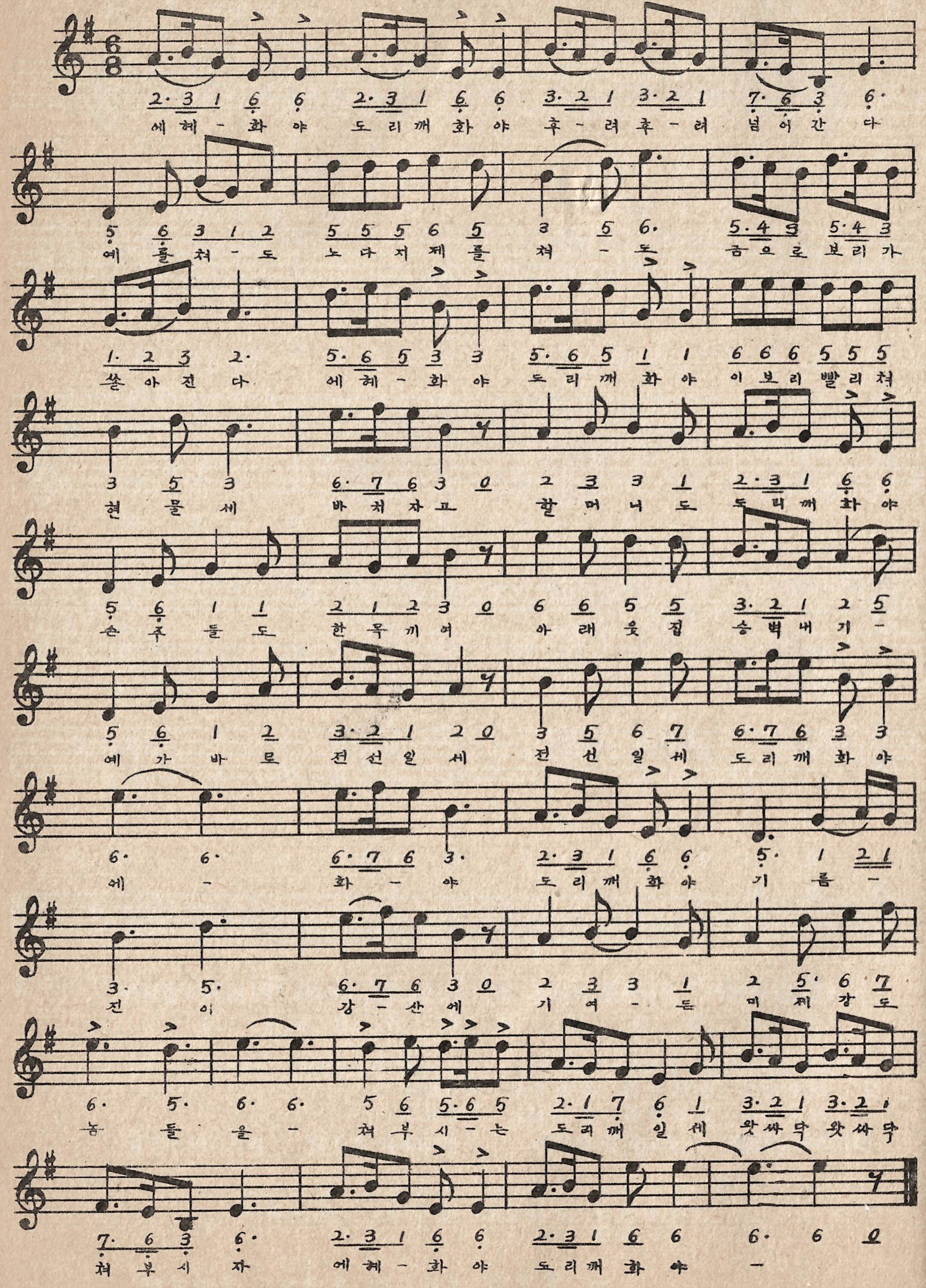
3\. 녀인네들 보잡이만 잘하는줄 알았드니
가을걷이 농사일도 한결같이 선수일세
— 후렴 —

4\. 탈곡기 도는소리 풍년가도 구성진데
알알이 떠는것이 순식간에 산이로세
— 후렴 —

도리깨타령

씩씩하게 풍자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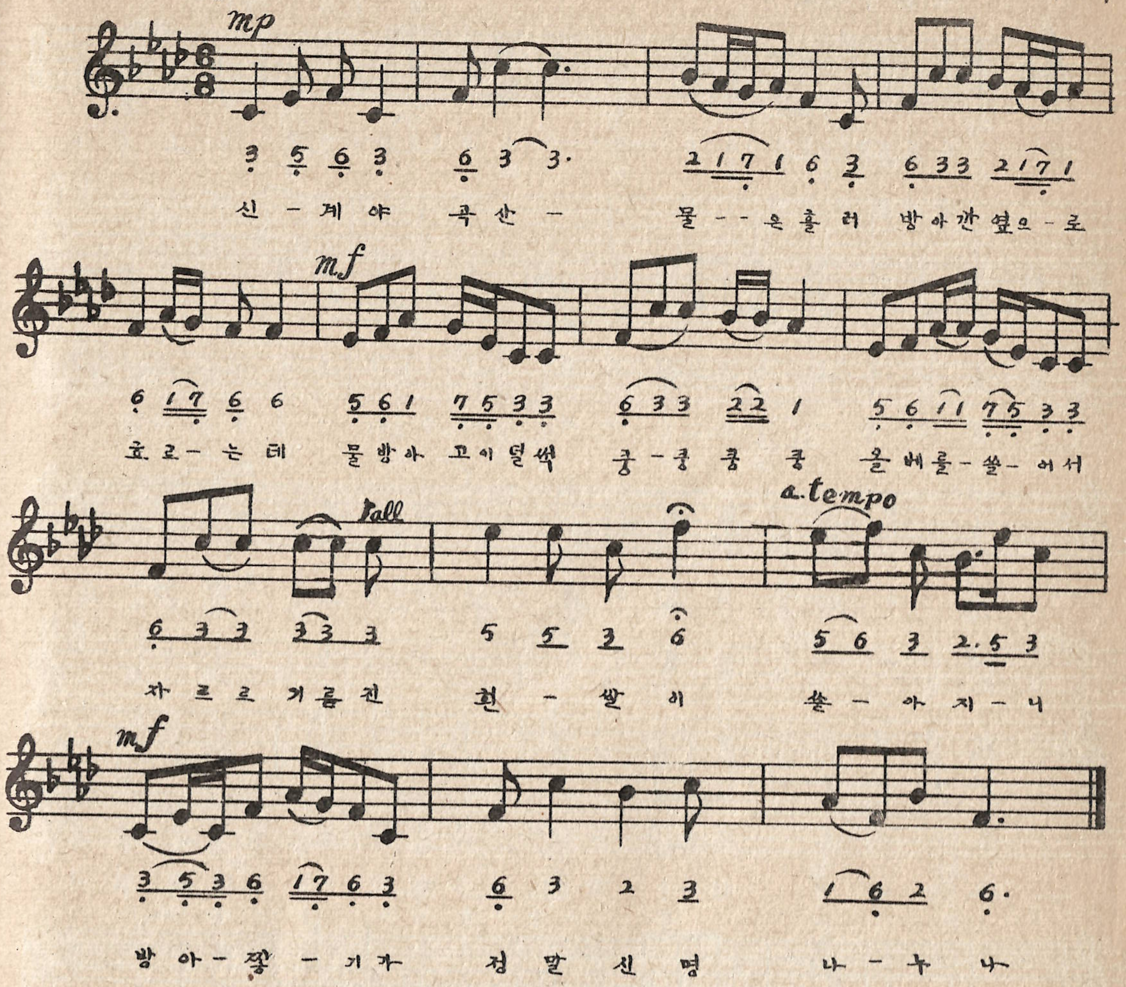
홍종린 시
리천백 곡



방아타령

민요풍으로 경쾌하게

조령출 시
리석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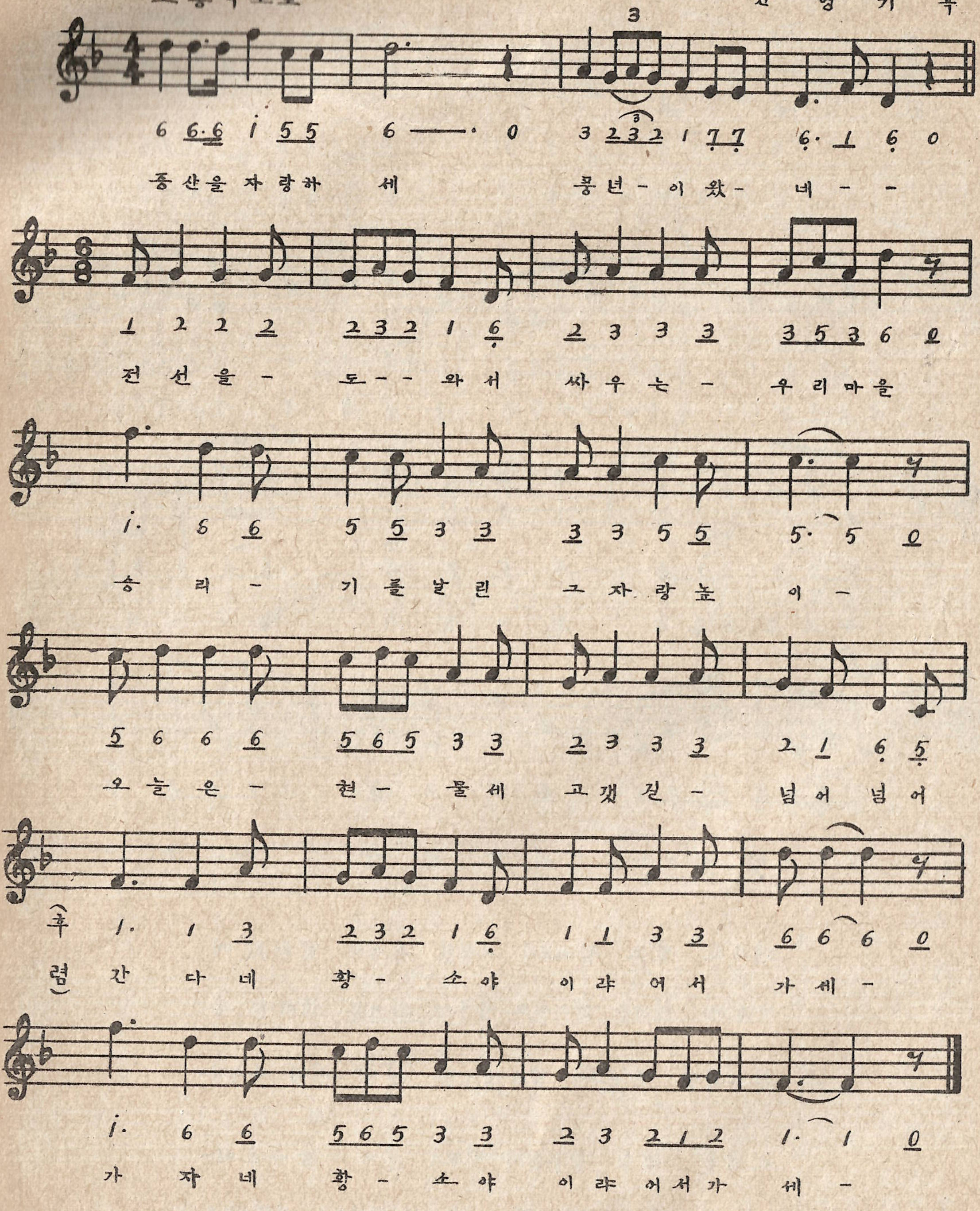


2. 권지요 발소 뜯어보니 그립던 소식이 날러왔네
산두야 천리를 굽이돌고 물두야 천리를 굽이돌아
원수격멸 하신다니 방아찧기가 정말 신명 나누나

3. 소방울 절렁 달구질세 볏무지 싣고 찾아온다
고개를 넘어 절그렁 달구지 전선으로 보낼쌀을
때를 맞춰 실어오니 방아찧기가 정말신명 나누나

현 물 세 싣 고

김 순 석 시
윤 영 기 곡

보통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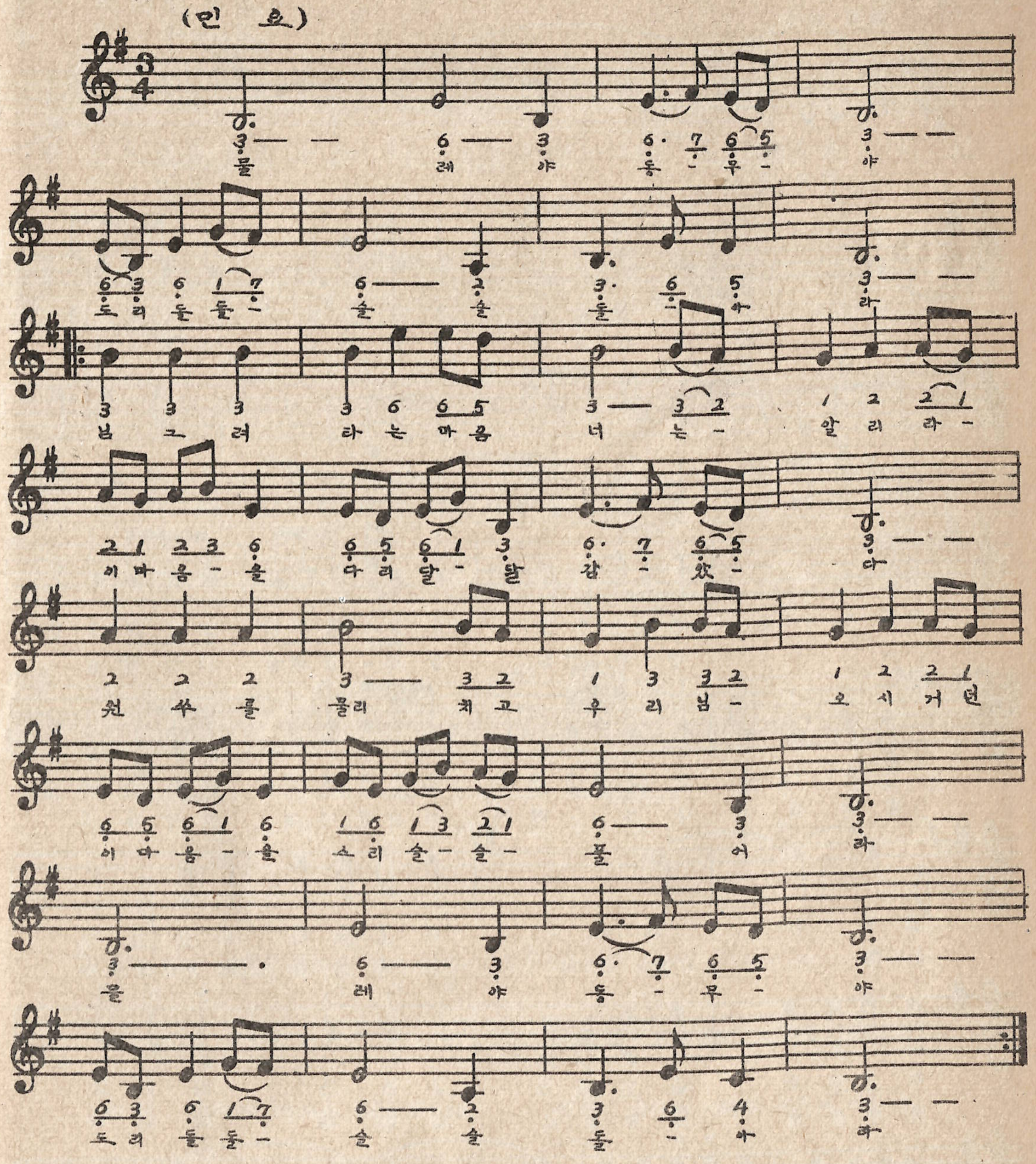


2. 기름진 내 땅일세 가을이라네
싸움으로 자유를지킨 우리마을
원쑤에게 죽엄을준 그자랑 높이
남먼저 깃발을 날려 날려
(후 렴)

3. 싸우는 이나라의 추수철 왔네
총을쥔 전사에게 섬기는총란을
전선에 보내는 그 마음으로
정성의 현물세 마음도 넘쳐 넘쳐
(후 렴)

물 레 야 동 무 야

조 령 출 시
리 면 상 곡

(민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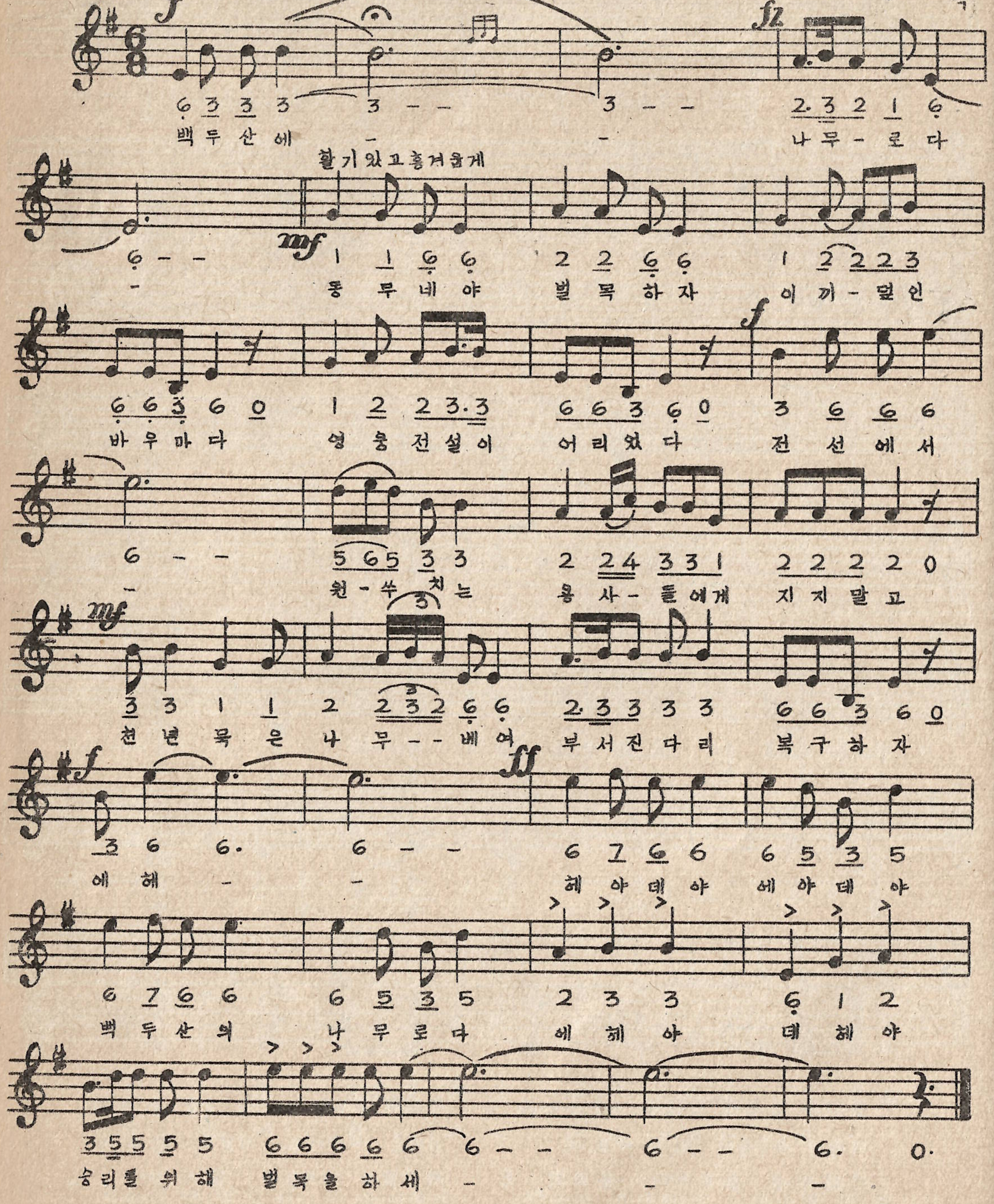


2. 물레야 동무야 도리돌돌 술술돌아라
미국의 야수들이 원쑤 이로제
이원쑤를 용감하게 물리쳐
락동강 칠백리 피가 어린 굽이마다
맺힌 한을 스리술술 푸세나
물레야 동무야 도리돌돌 술술 돌아라

3. 물레야 동무야 도리돌돌 술술 돌아라
님계신 그산에도 저달은 밝으리
저달빛을 도리돌돌 감아라
싸워에 나가신몸 잠에이 주무시라
나도 이밤 스리술술 새우리
물레야 동무야 도리돌돌 술술 돌아라

벌목부의 노래

석괄봉 시
리건우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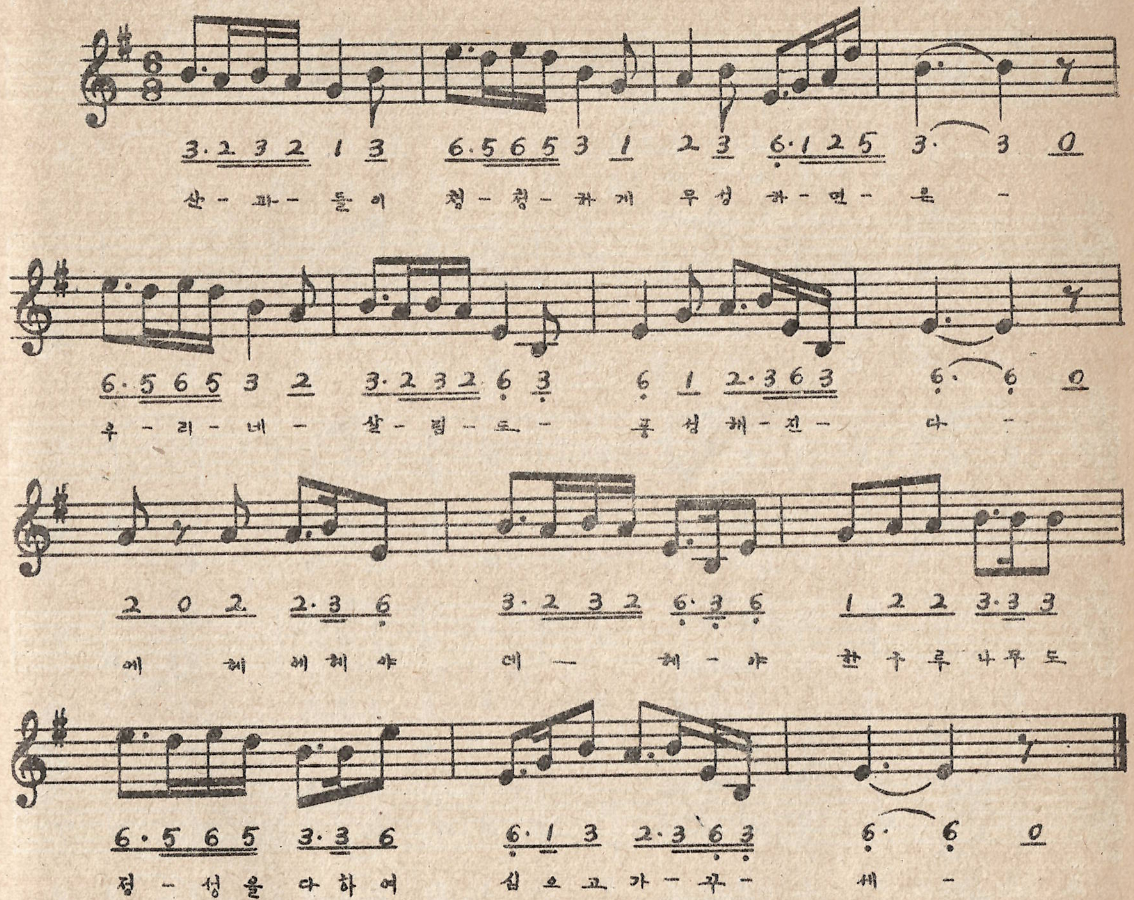
류창하게



애림의 노래

정서촌 시
리원백 곡

민요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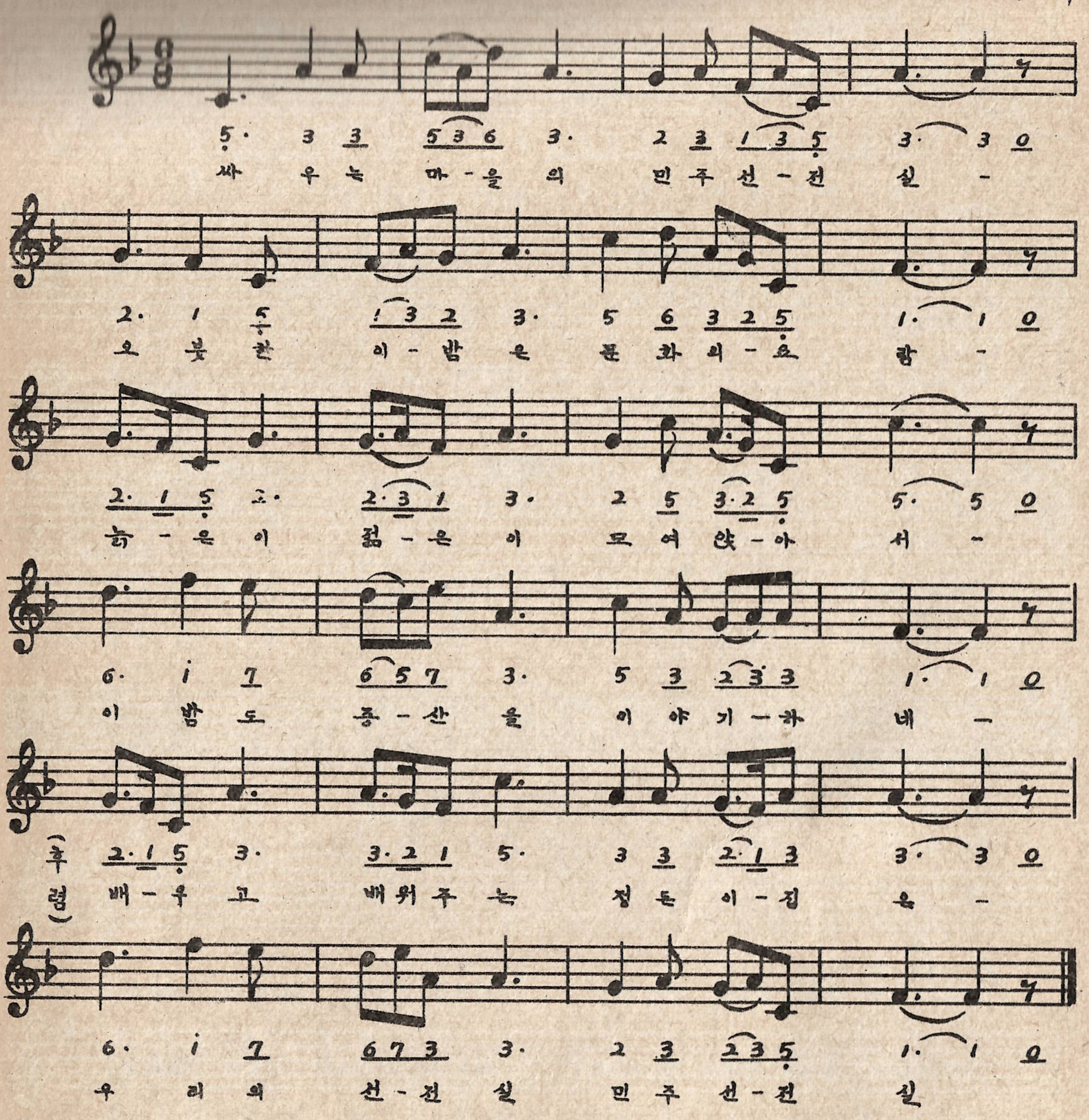


2. 원쑤들이 짓밟고 불태운 자욱마다
발가숭이 산들이 원한을 말하네
에헤 에헤야 데헤야 보복의 가슴으로
하나를 태운곳에 열을 심으세

3. 싸우는 오늘엔 무기가 되고
래일은 보금자리 기둥감 된다네
에헤 에헤야 데헤야 조국의 산림을
힘을 뭉쳐 가꾸세 우리의 의무라네

민주선전실의 노래

리효운 시
리천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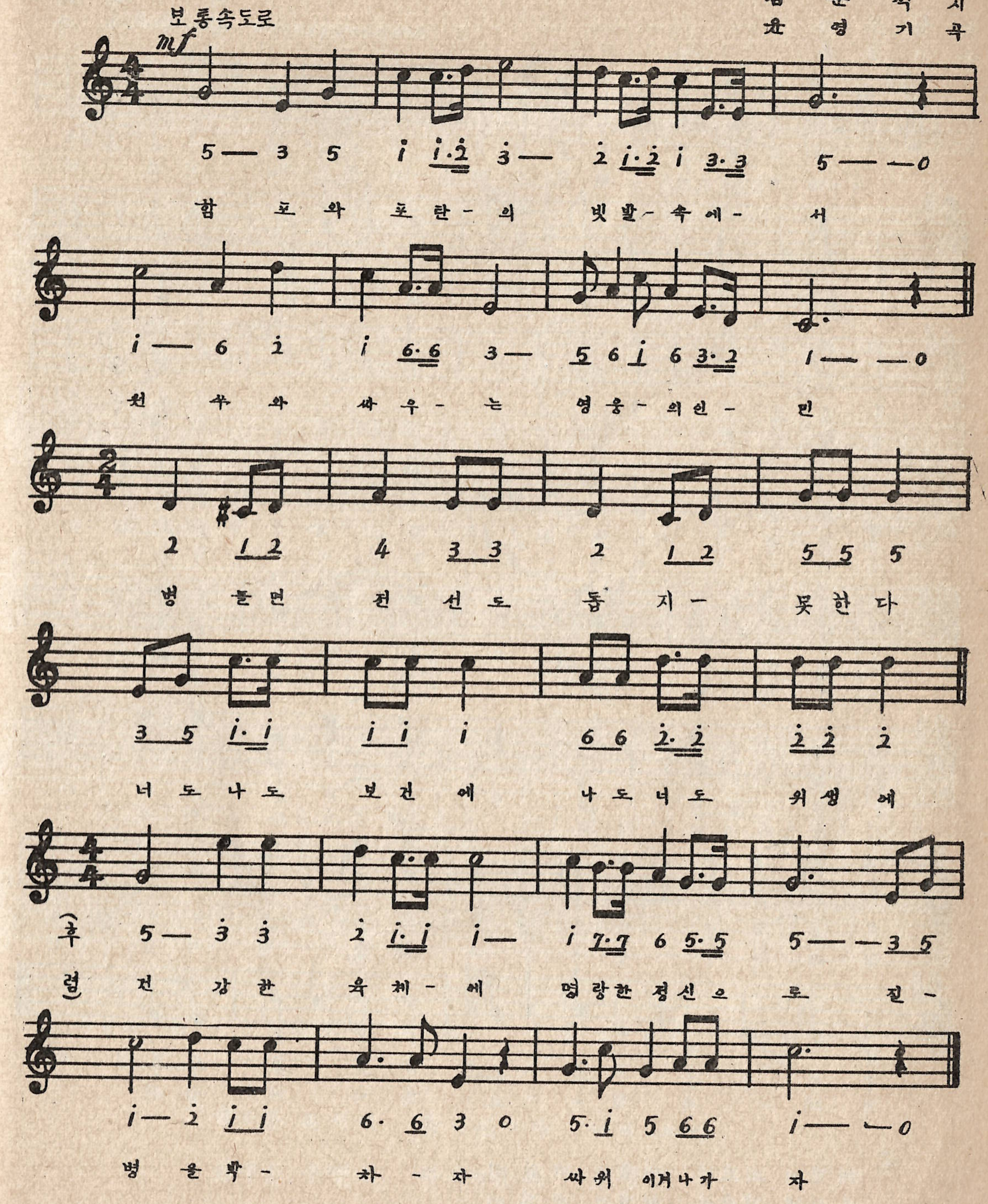


2. 우리의 선생님 선전실장은
점잖고 겸손하고 마음도좋아
모르고 힘들고 답답한일도
그에게 무르면 환 하다비
(후 렴)

3. 선전원 동무가 가르켜주는
마을일 나라일 세계의일에
애쓰고 힘내서 함께일어나
승리를 향하여 모두나가세
(후 렴)

인민보건의 노래

김순석 시
윤영기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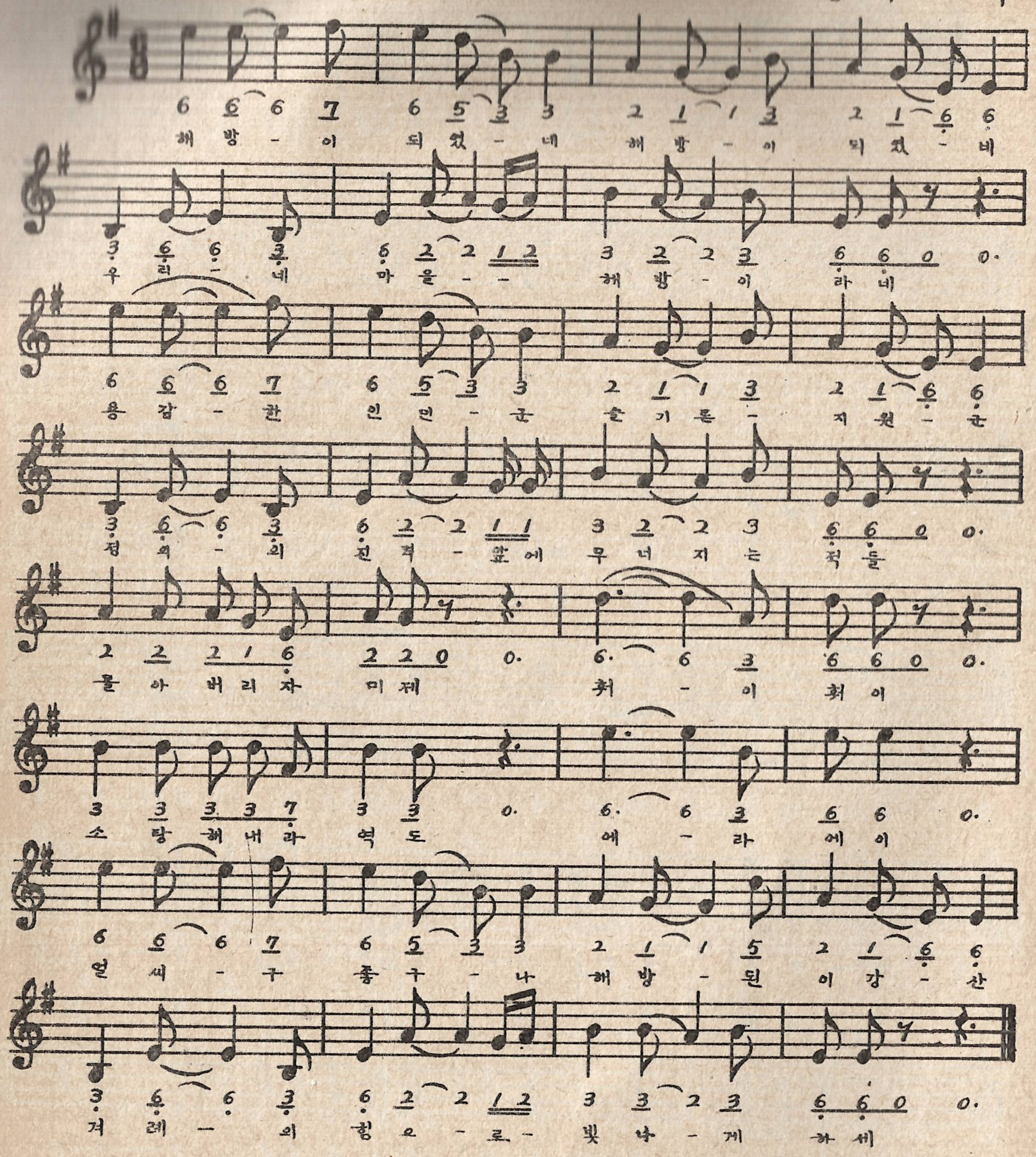


2. 시련도 곤난도 한몸에안고
우리는 싸우는 후방의전사
병들면 승리에 지장이된다
너도나도 청결에 나도너도 방역에
(후 렴)

3. 야수의 세균전 음모를 부셔
모두다 방역원 동원된 태세
미연에 없새자 전염 병균을
너도나도 웃으며 나도너도 예방에

해방구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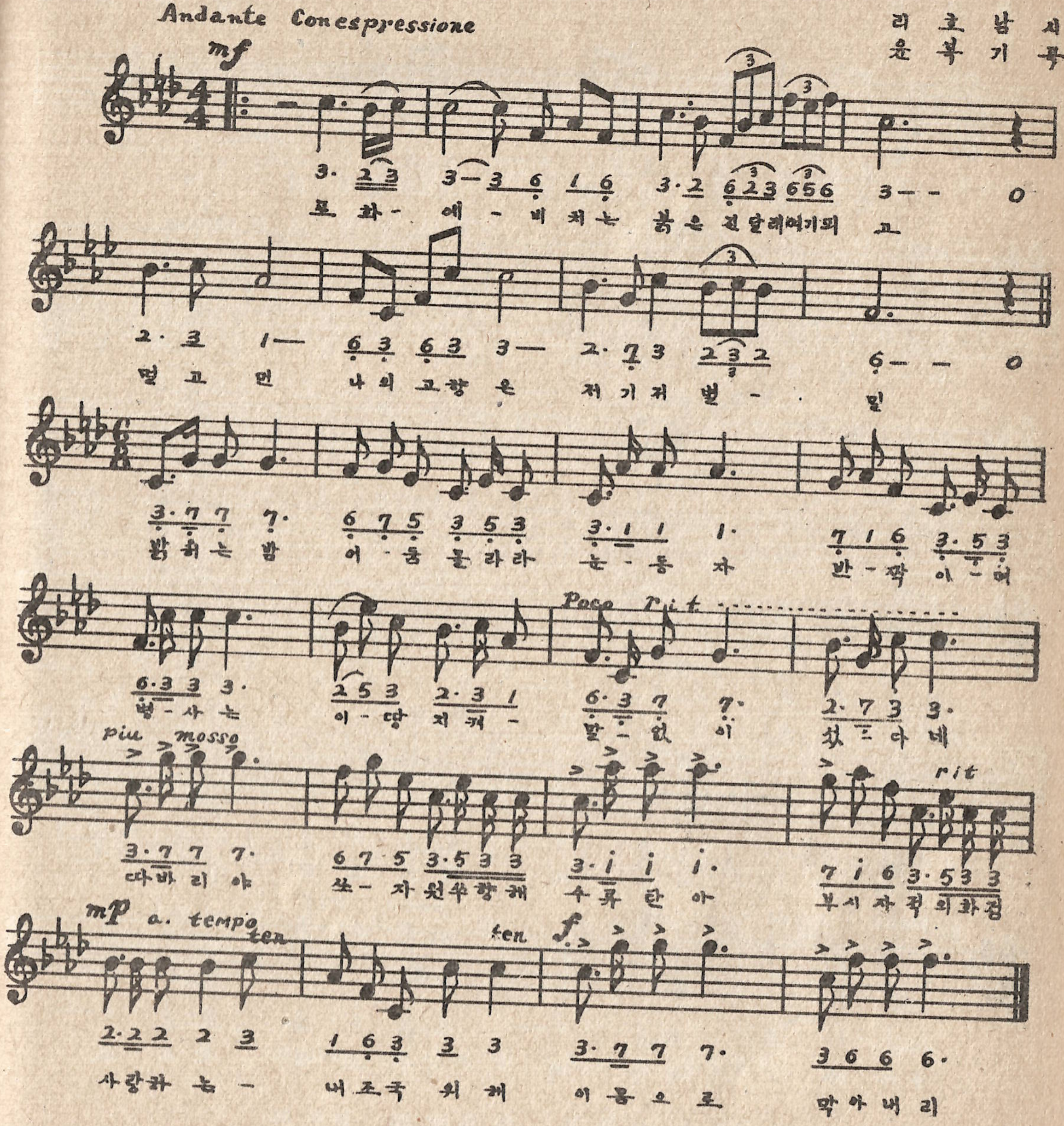
허 춘 시
황 학 근 곡



2.
해방이 되였네 해방이 되였네
우리네 강산이 해방이 되였네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흉악한 원쑤를 부셔 버리세
(후렴)
몰아버리자 미제 쿼이 쿼이
소탕해내라 역도 에라 에이
삼천리 이강산 침략자 내쫓고
인민의 힘으로 내나라 세우세
(후렴)

한병사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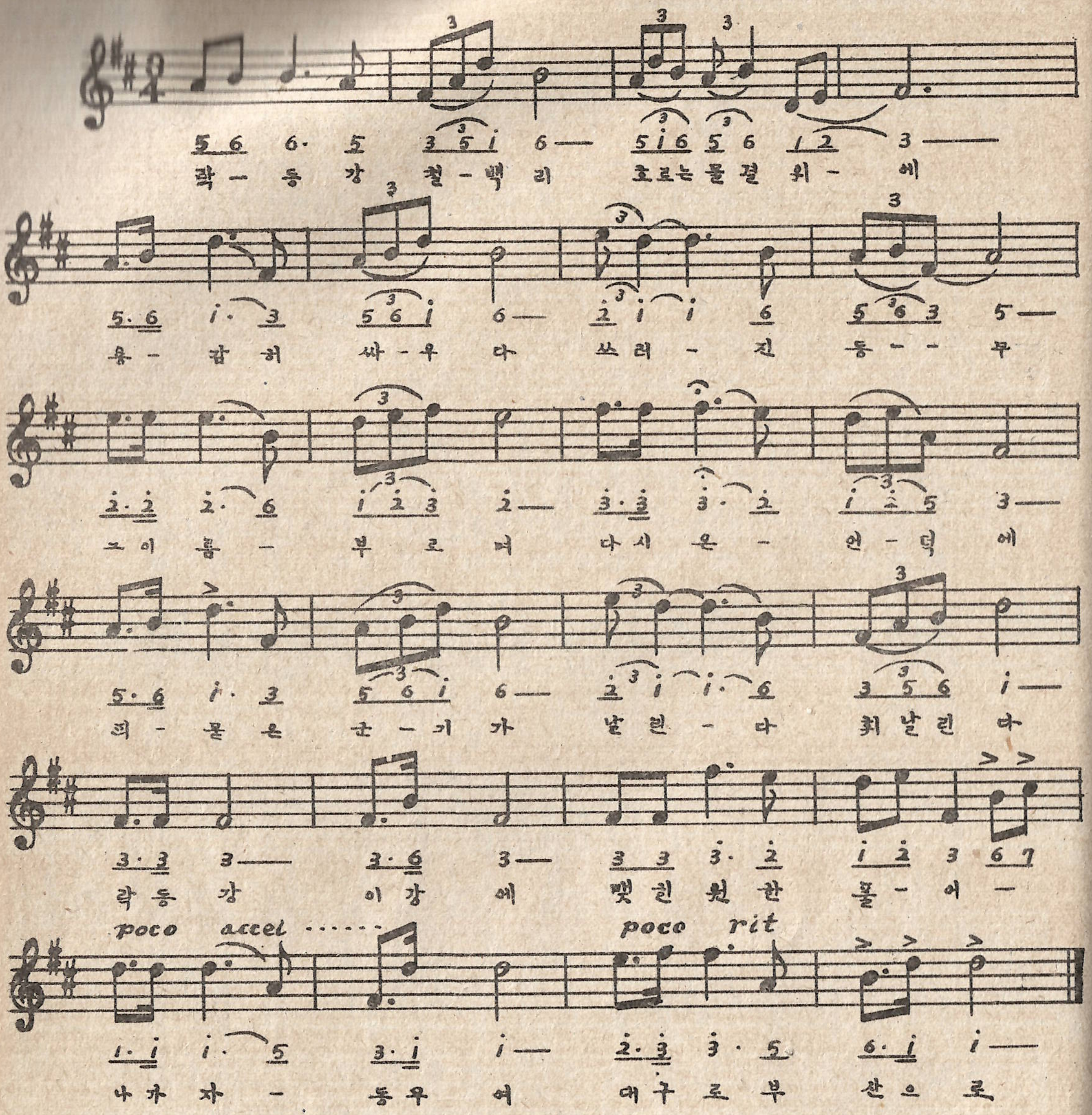
리 호 남 시
윤 복 기 곡



2. 살구꽃 뒷산에 붉어졌느냐 나의 고향
원쑤를 무찔러 싸워지키는 이땅
안심하고 편히 쉬시라 늙으신 어머니여
이밤도 젊은용사 아들은 싸워요

락동강 건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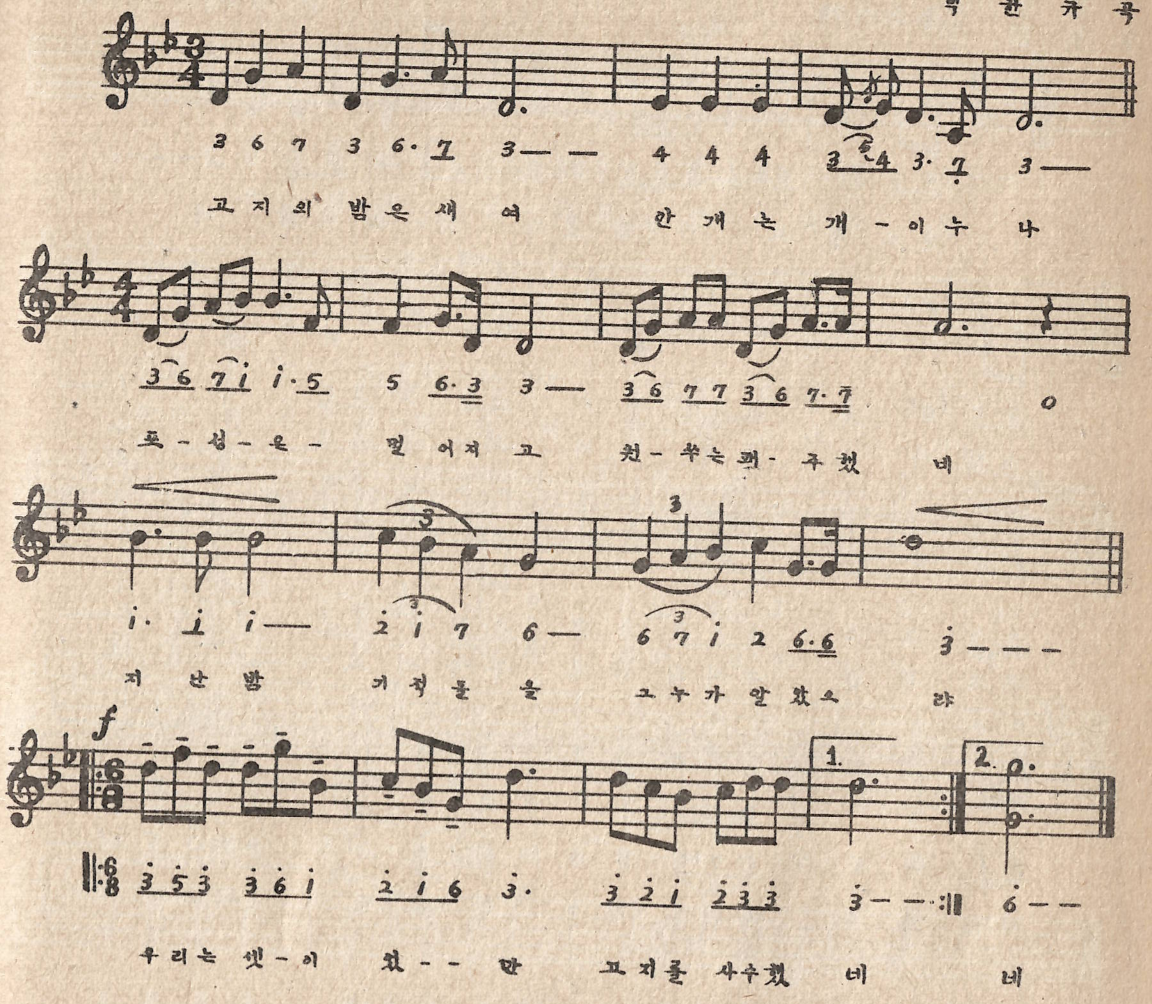
김북원 시
김원균 곡



2\. 락동강 철백리 굽이친 물결넘어
원쑤를 무찔러 나가리
원한의 고지 공화국기 높이날려
새행복 길이 누릴 통일의 그날위해
락동강 이강에 맺힌원한 풀어
나가자 동무여 대구로 부산으로

고지에서

신동철 시
박한규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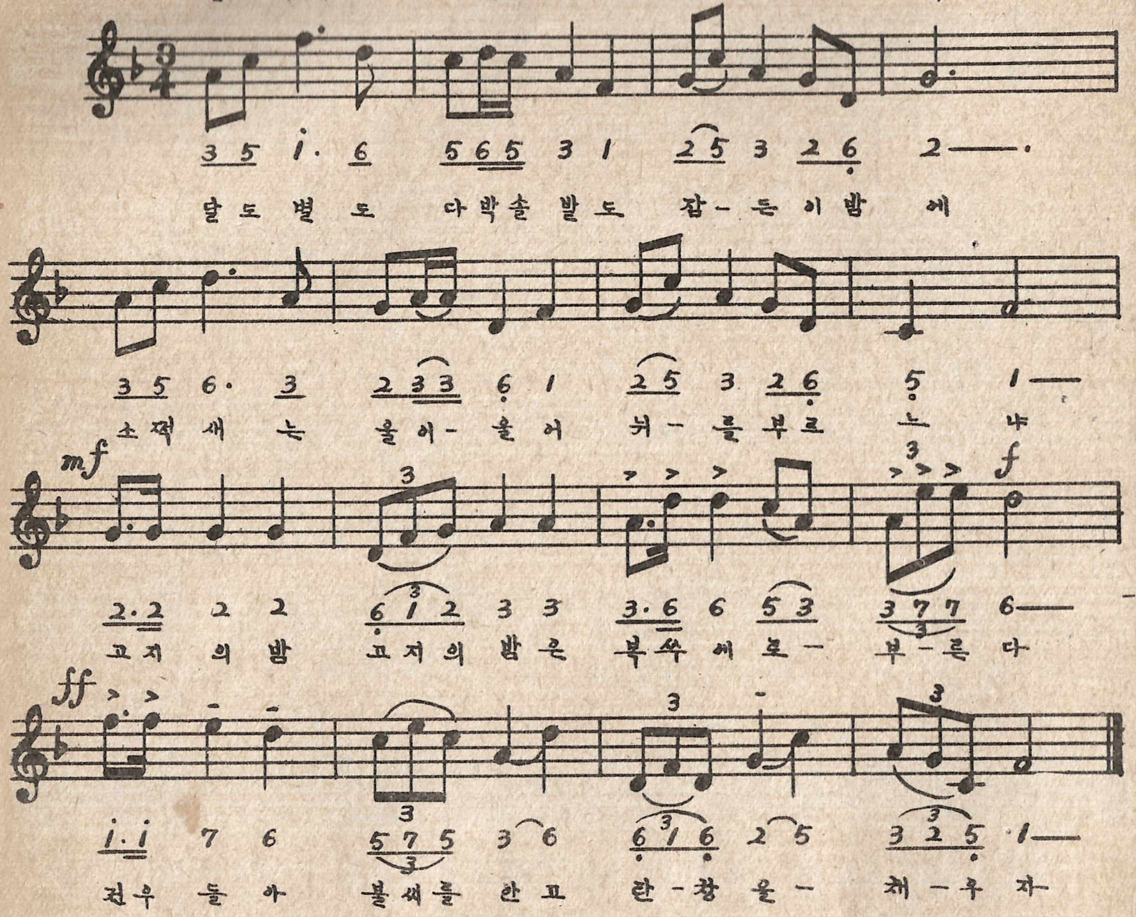


2\. 여기는 조선의 땅 조그만 봉우리나
세계의 평화위한 철벽의 초소라비
노래여 울려가라 싸우는 전호마다
‖: 수령의 말씀지켜 래일도 이기리라 :‖

고지의 밤

김학연 시
박용필 곡

좀느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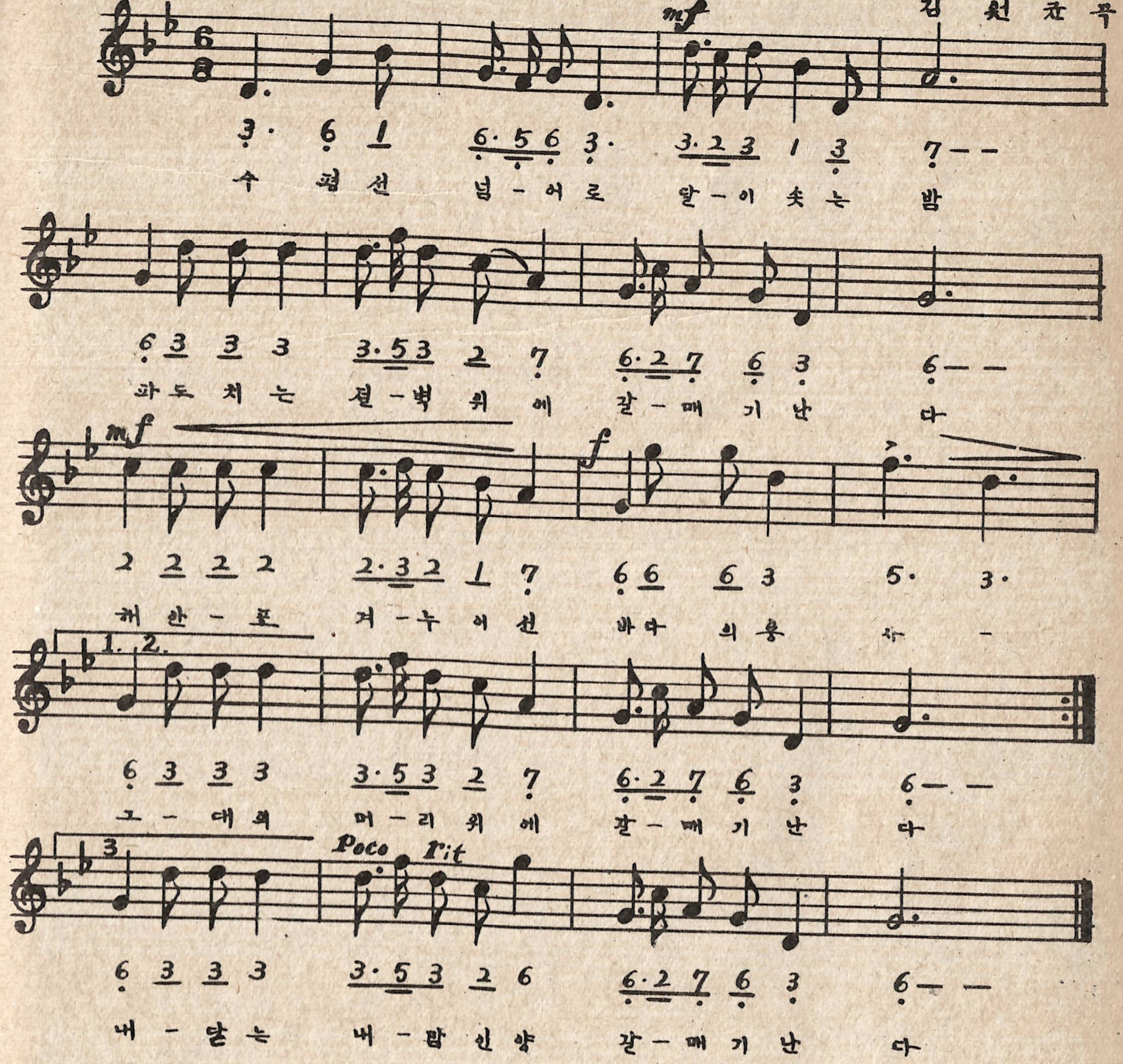


2. 고향땅에 닿은고지 조국의 고지에
소쩍새가 울때마다 가슴은 끓는다
고지의밤 고지의밤은 복쑤에로 부른다
전우들아 불씨를안고 탄창을 채우자

갈매기노래

김북원 시
김원균 곡

느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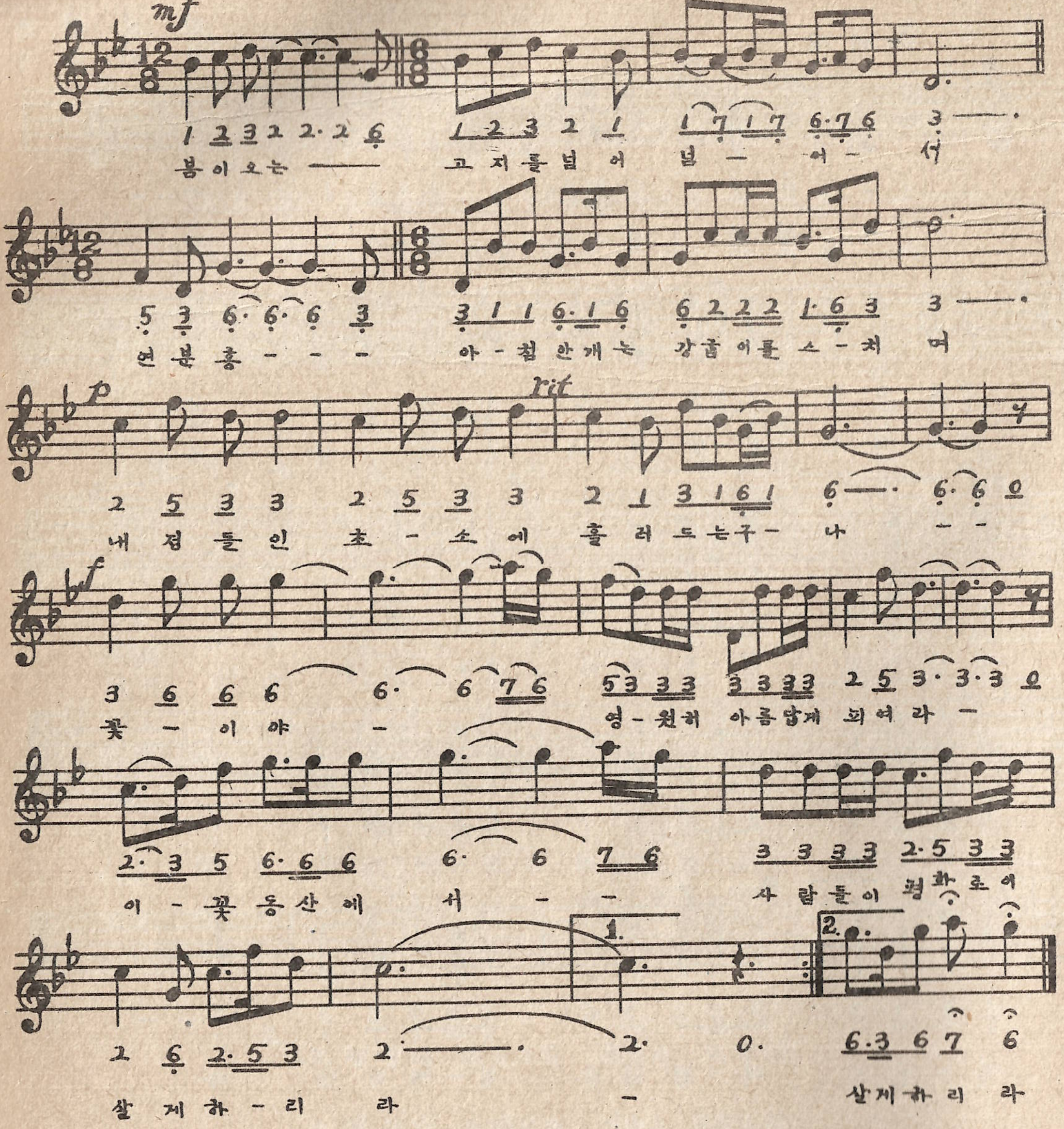


2. 물에기 날리는 돛대 끝에서
춤을추며 반겨주던 정든 갈매기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 앞으로
승리를 노래하며 감돌아 돈다

3. 해뜨는 아침엔 금빛 갈매기
달도 밝은 이밤에는 은빛 갈매기
바다를 지키는 그대 가까이
내 닫는 내닫인양 갈매기 난다

五월의 초소

조학래 시
김옥섭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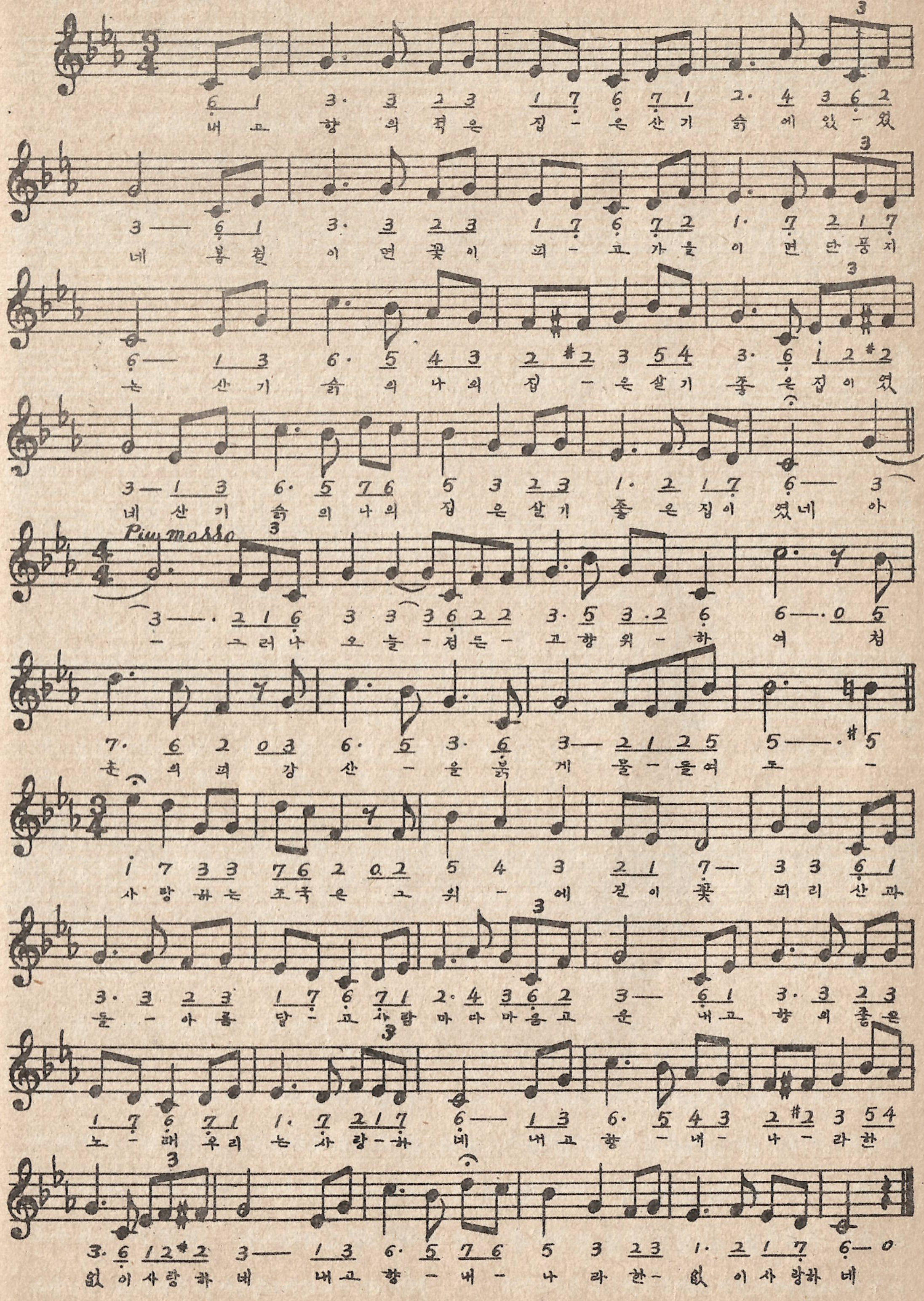


2. 파란 잎새 만지며 불어 불어서
바람아 흘러가거든 전해다오 고향에
조국을 위하여 공을 세웠다고

3. 불길속의 꽃들은 피어 피여서
내 전우 남긴 붉은뜻 꽃피였거니 五월아
새로운 승리를 위해 더욱 빛나라

내고향의 적은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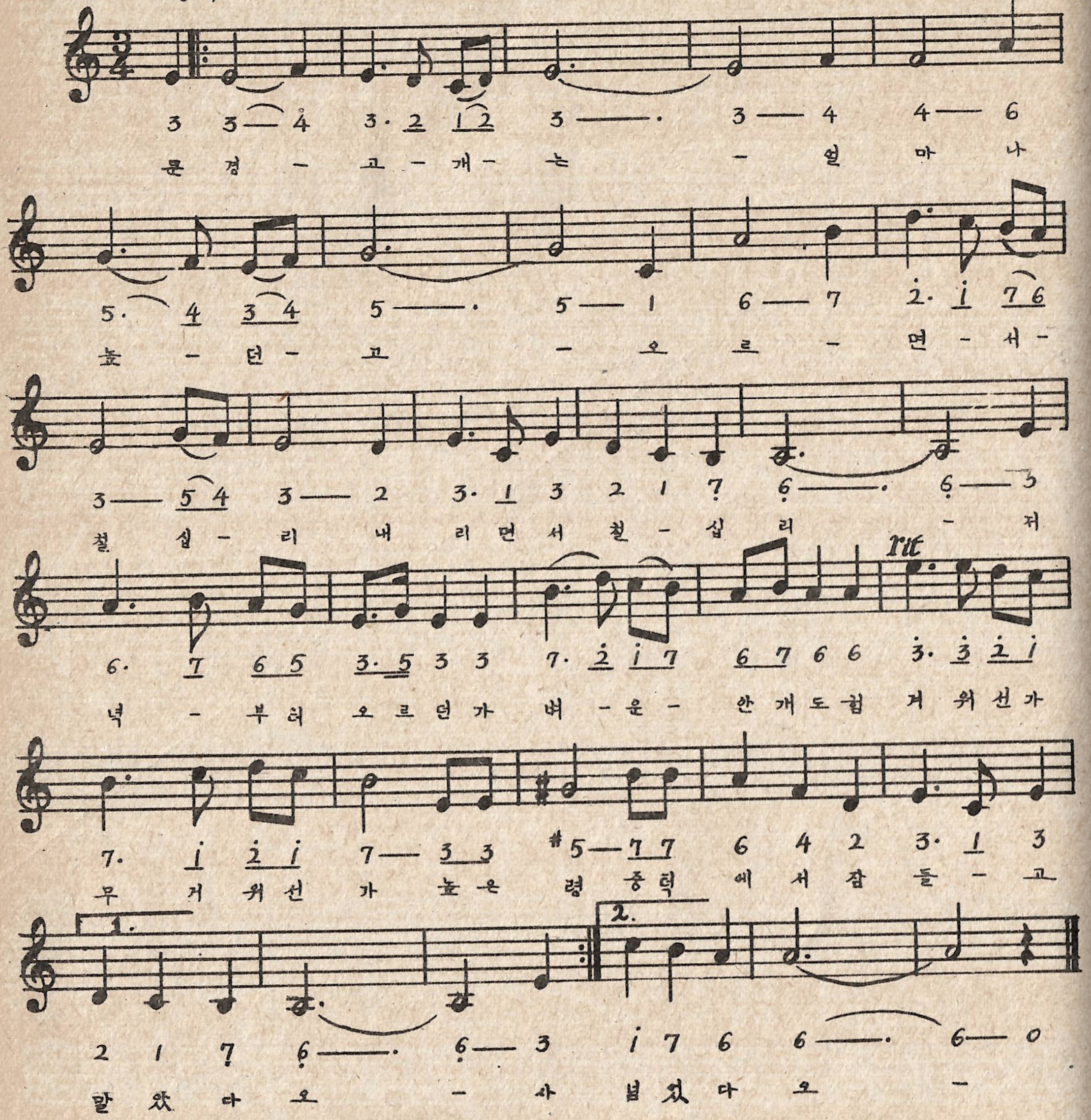
리서향 시
리면상 곡



문경고개

조 기 천 시
리 면 상 곡

보통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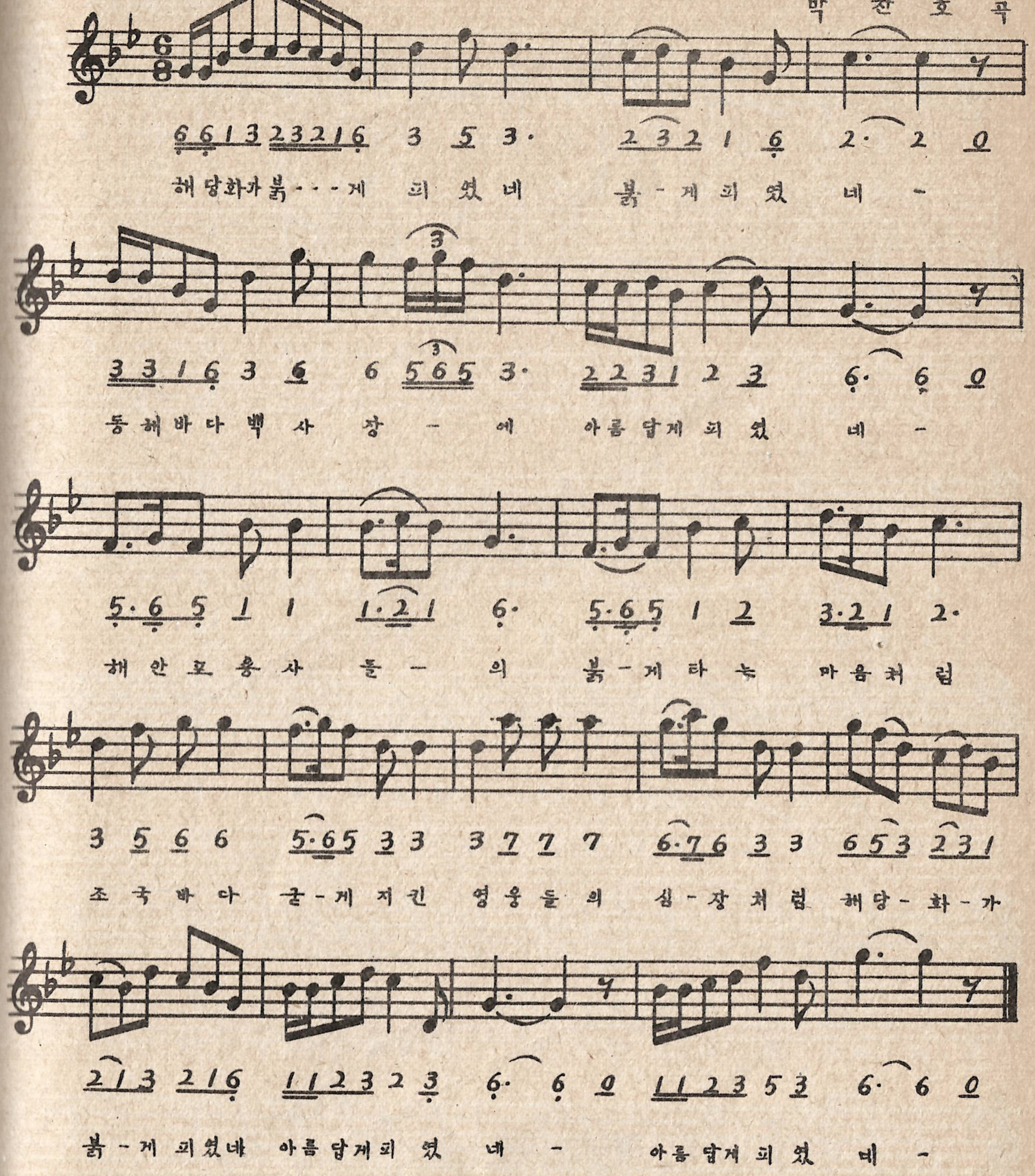


2. 사람들이야 높으든 괴롭든
원쑤들을 부시며 그고개를 넘었네
이나라의 행복을 자유를 부르며
쓰러지면서 피흘리면서
높은령 험한길을 단숨에 넘었다오

해 당 화

원 진 관 시
박 찬 호 곡

섬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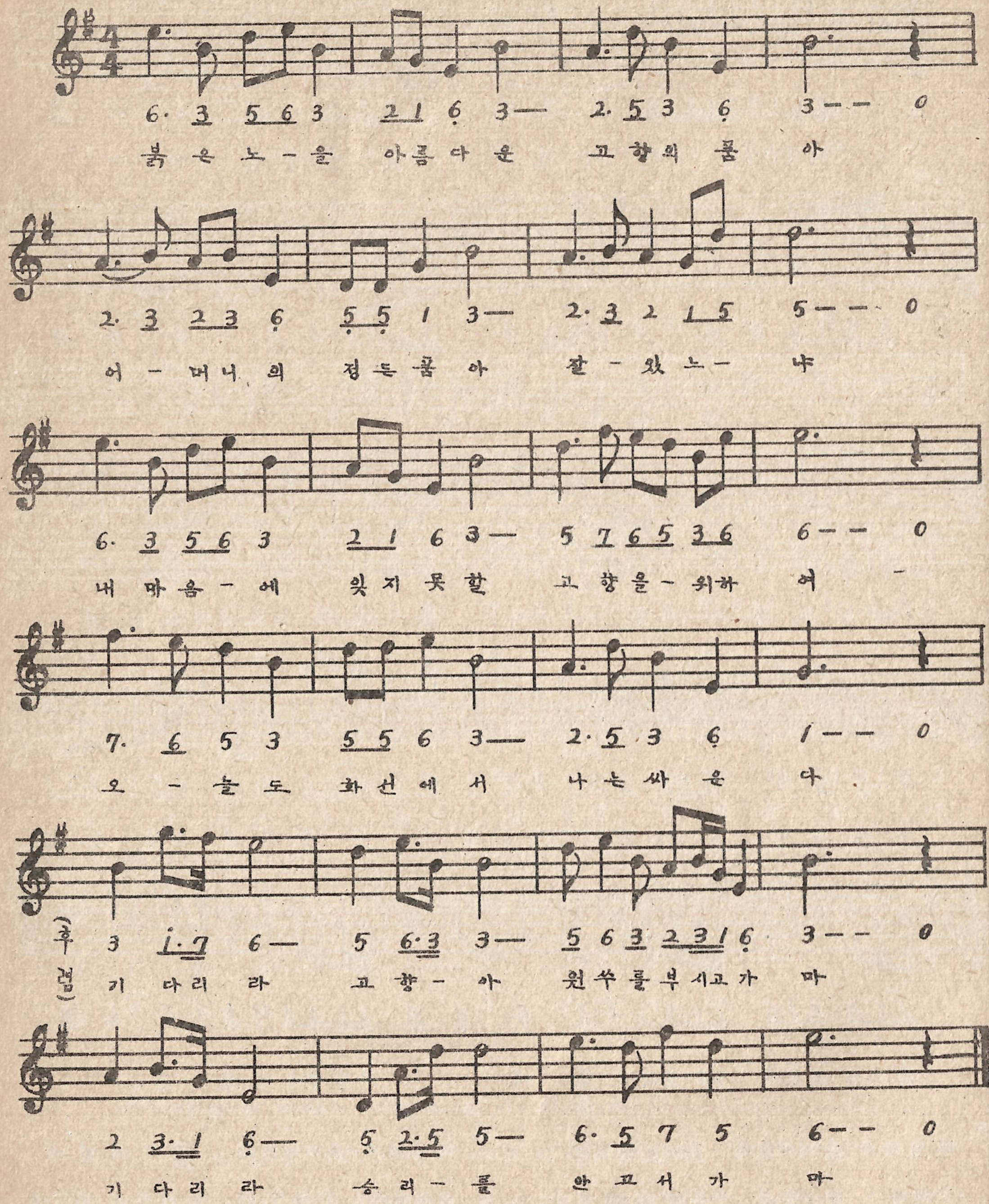


2. 해당화가 붉게피였네 붉게 피였네
동해바다 백사장에 아름답게 피였네
해적떼야 못다친다 다짐먹는 마음인가
조국위해 피흘린 용사들의 숨결인가
해당화가 붉게피였네 아름답게피였네아름답게피였네

3. 해당화가 붉게피였네 붉게 피였네
조국바다 백사장에 슬기롭게 피였네
미제원쑤 물리친 불멸의 노래로
새건설에 떨쳐나선 어부들의 희망으로
해당화가붉게피였네슬기롭게피였네슬기롭게 피 였네

기다리라 나의 고향아

김 학 연 시
리 천 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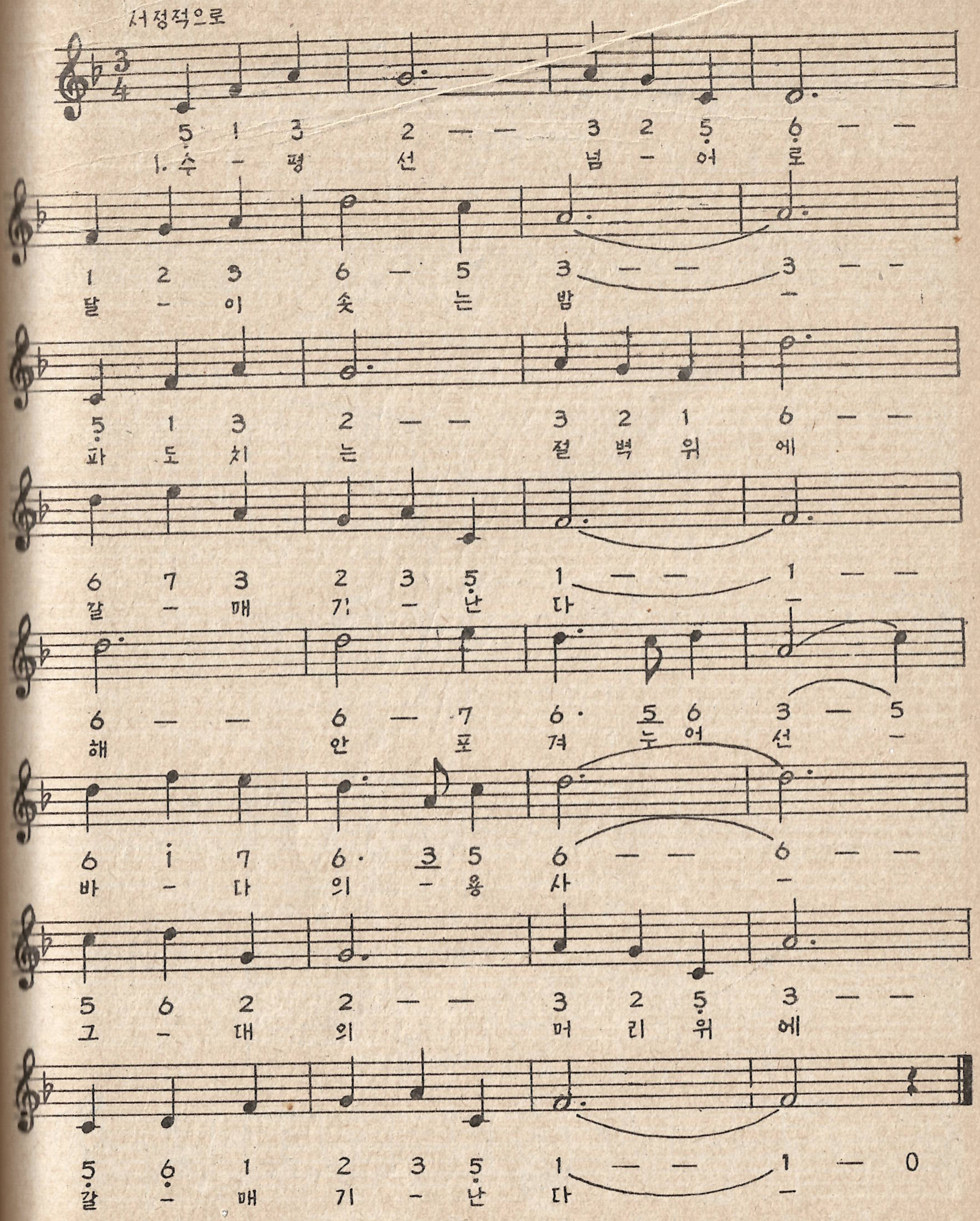


2. 시냇물이 속삭이는 추억의품아
그리운 형제들아 잘 있느냐
가슴마다 서리인 그원한 풀어주려
오늘도 화선에서 나는 싸운다
(후 렴)

3. 꽃구름 피여나는 사랑의품아
너푸른 언덕아 잘 있느냐
그언덕을 또다시 거닐기 위하여
오늘도 화선에서 나는 싸운다
(후 렴)

갈 매 기

김 북 원 시
리 면 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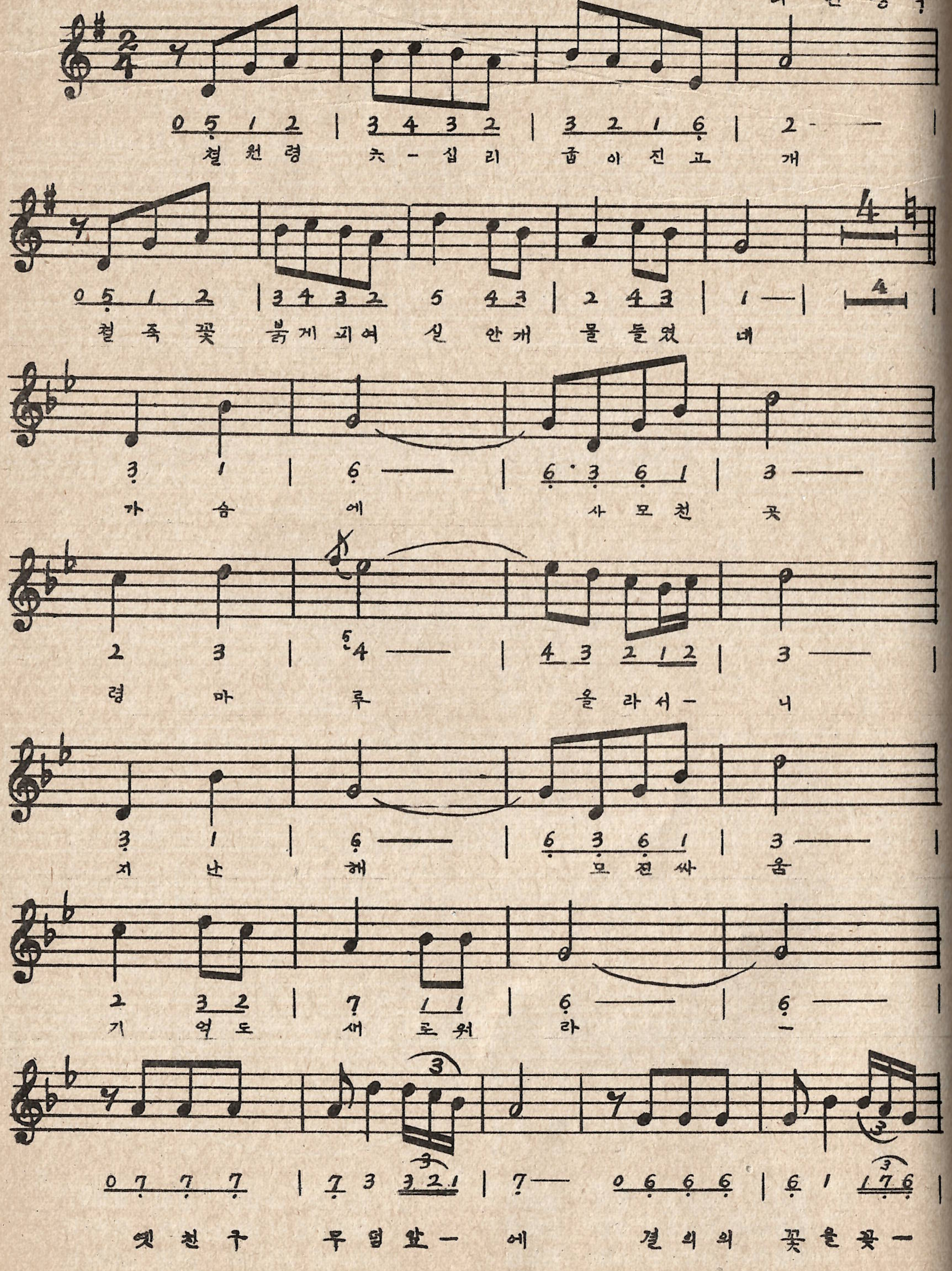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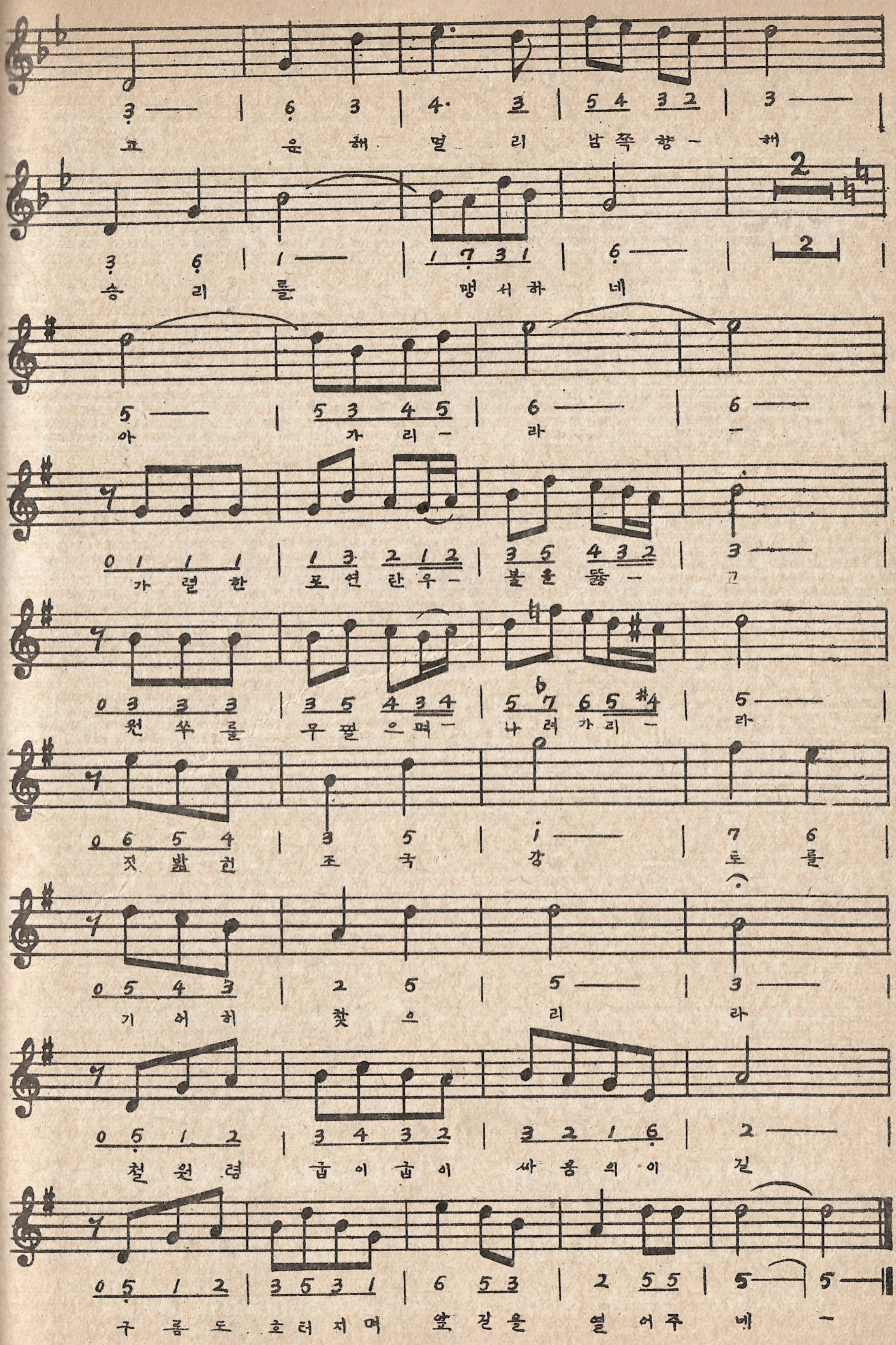
2. 풍어기 날리는 돛대 끝에서
춤을추며 반겨주던 정든 갈매기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 앞으로
승리를 노래하며 감돌아 든다

3. 해뜨는 아침엔 금빛 갈매기
달도밝은이밤에는 은빛 갈매기
바다를 지키는 그대 가까이
맴도는 바람인양 갈매기 난다

철원령고개

홍 종 린 시
리 면 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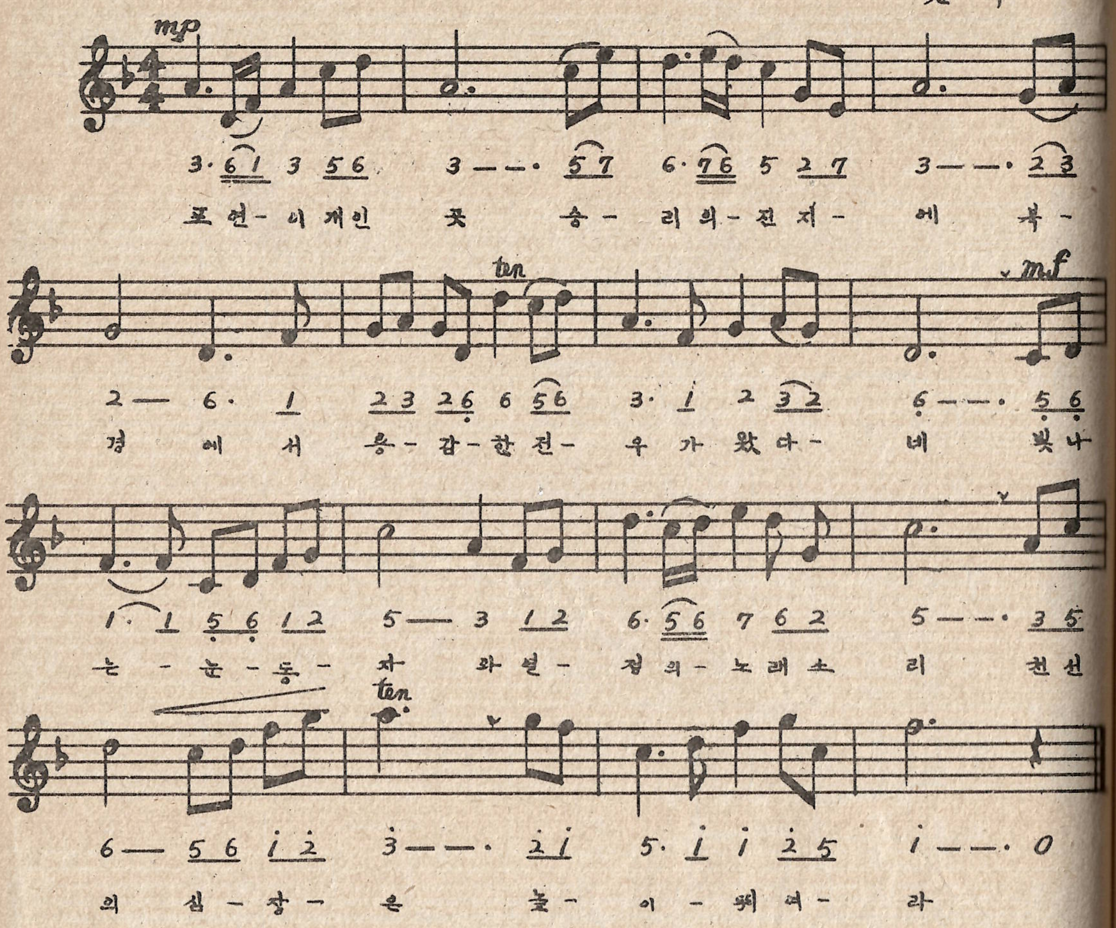




북경에서 온 전우

신 동
윤 복

너무느리지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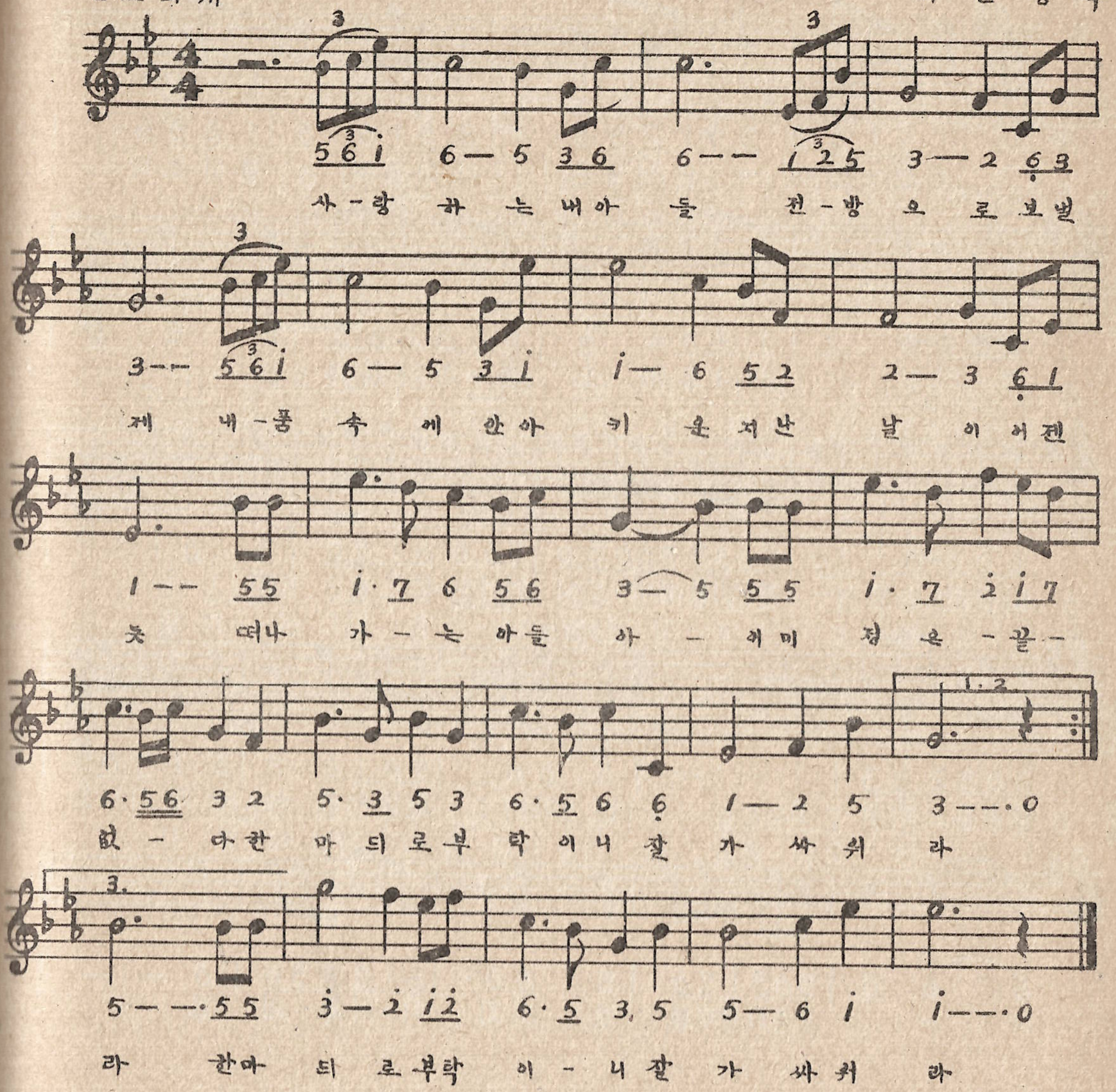
2. 중국의 딸이며 믿어운 동무야
항미원조 웨치며 몇천리 왔느냐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하는 그뜻은
위대한 인민의 사랑이여라

3. 압록강 푸른물 국경이긴 하여도
우리뜻 하늘같이 지경이 없어라
다함없이 이겨한것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의 큰날을 노래 부르자

어머니의 노래

조 령 출 시
리 면 상 곡

좀느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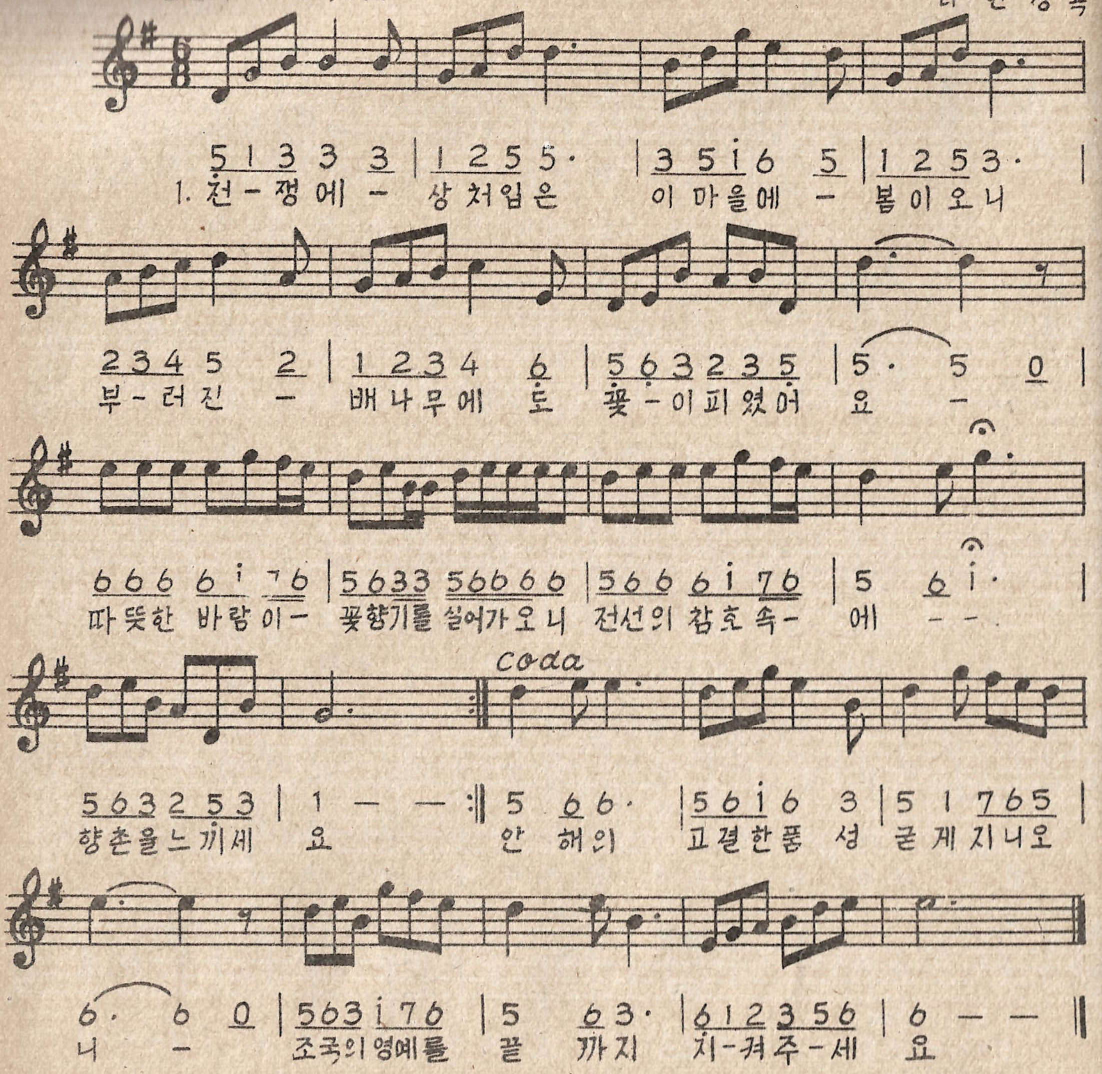
2. 사랑하는 내아들 먼곳으로 보낼제
부질없다 여기면서 옷소매가 젖노니
떠나가는 아들아 어미걱정 아예 말고
나라위해 목숨바쳐 잘가 싸워라

3. 사랑하는 내아들 싸움터로 떠날제
슬기로운 그모습은 대견하고 기뻐라
떠나가는 아들아 네가 다시 돌아올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 오너라

전선의남편에게

전 동 혁 시
리 면 상 곡

천천히 서정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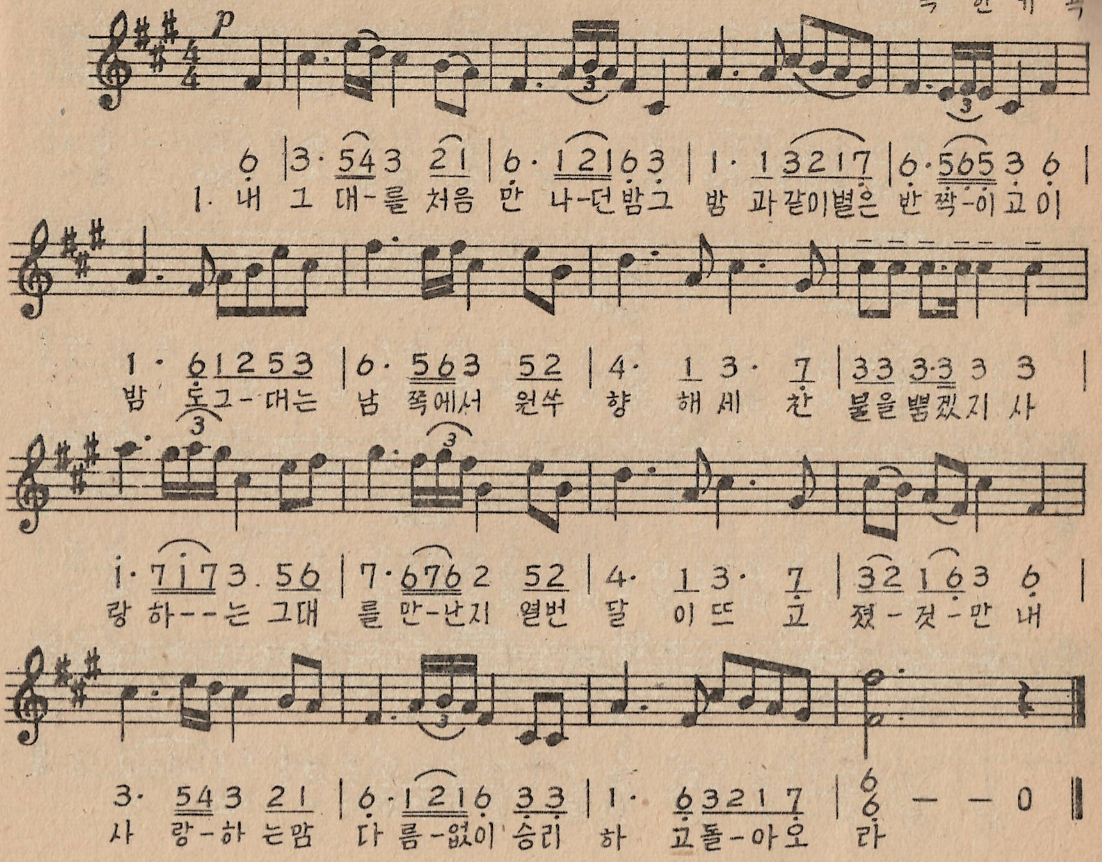


2. 당신이 하시던일 내손으로 다하오니
집의일 념려말고 용감히 싸우세요
어째떤 이기고야 말것을 믿고바라오니
어떠한 싸움에도 굳하지 마세요

3. 안보일줄 알면서도 남쪽만 바라보오니
당신을 그려하는줄 알아 주세요
당신이 오실그날 손꼽아 기다리오니
빛나는 공훈세우시고 어서 돌아오세요

승리하고돌아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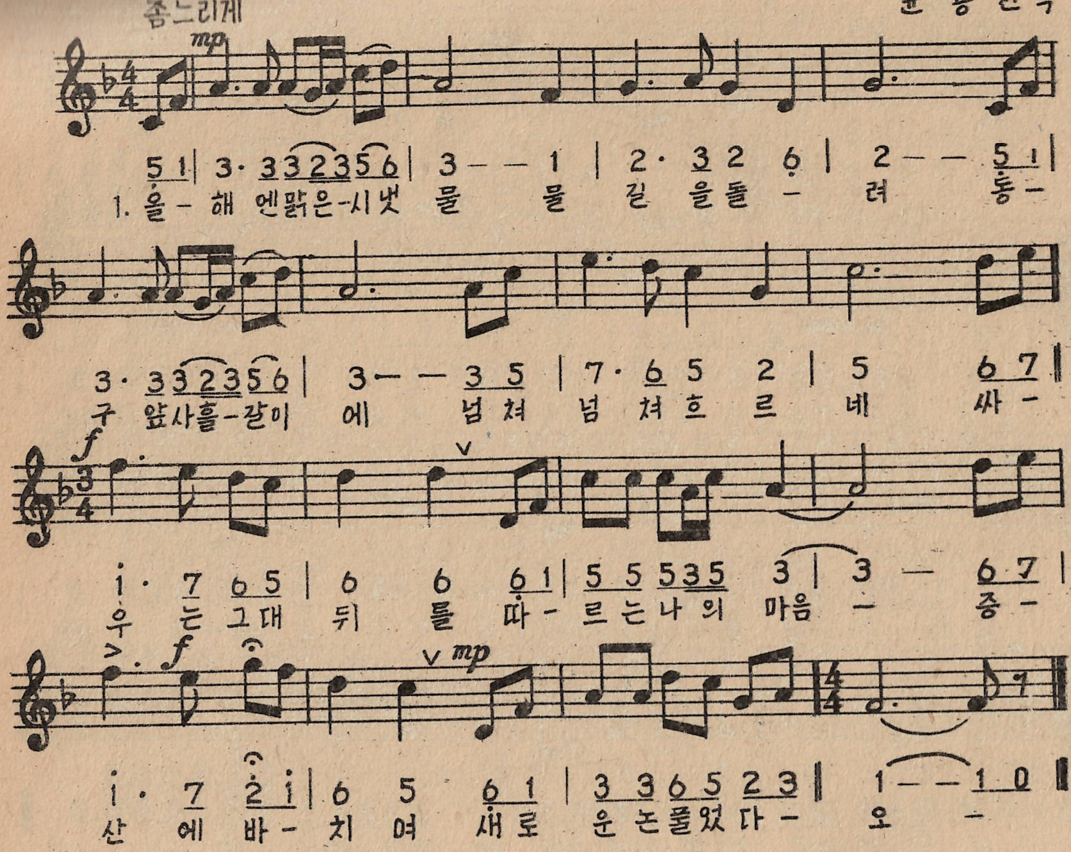
안 막 시
박 찬 규 곡



1. 내그대를 처음만나든 밤과같이 별은반짝이고
이밤도 그대는 남쪽에서 원쑤향해 세찬불을뿜겠지
사랑하는 그대를만난지 열번 달이뜨고 졌것만
내사랑하는맘 다름없이 승리하고 돌아오라

이기고만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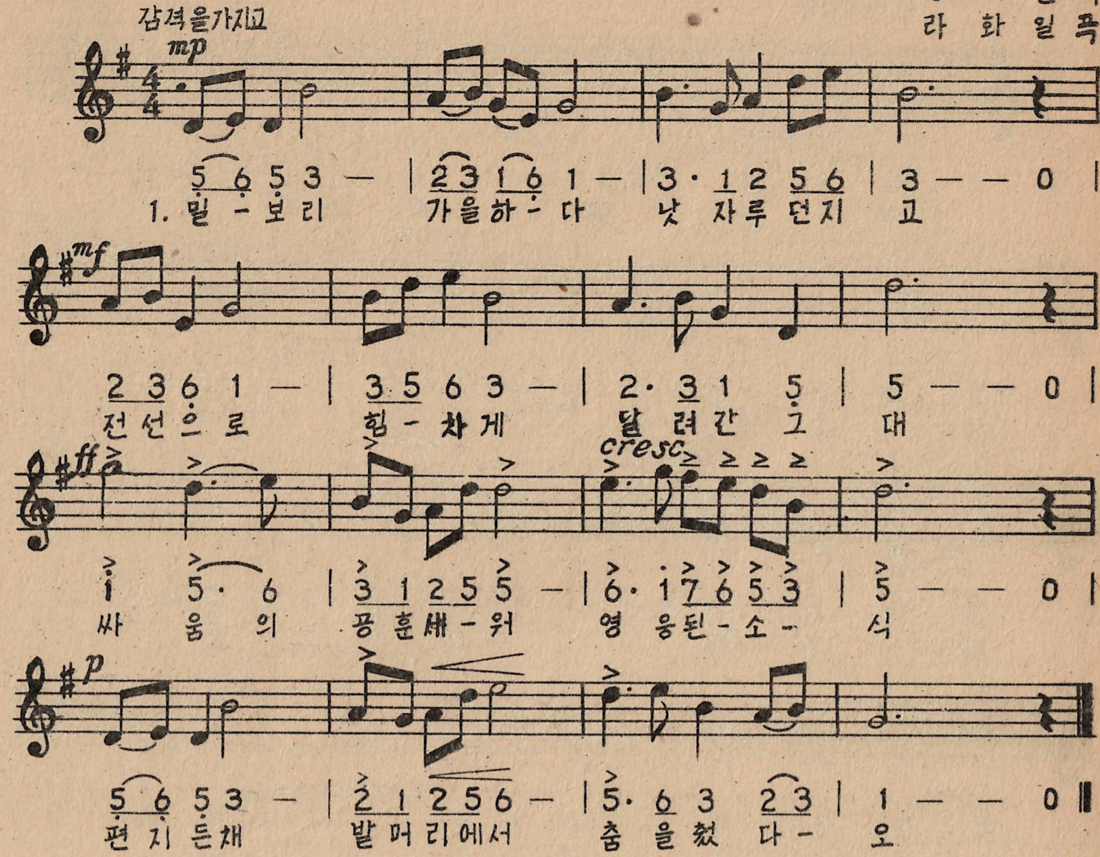
김 광 현 시
윤 승 진 곡



2. 우리제비 남에서 돌아오는 저녁
벼포기도 배미마다 파릇파릇 나붓기네
이기고 만나자던 그대말 명심하여
오늘의 모내기 선참으로 끝냈다오

안해의노래

정 서 촌 시
라 화 일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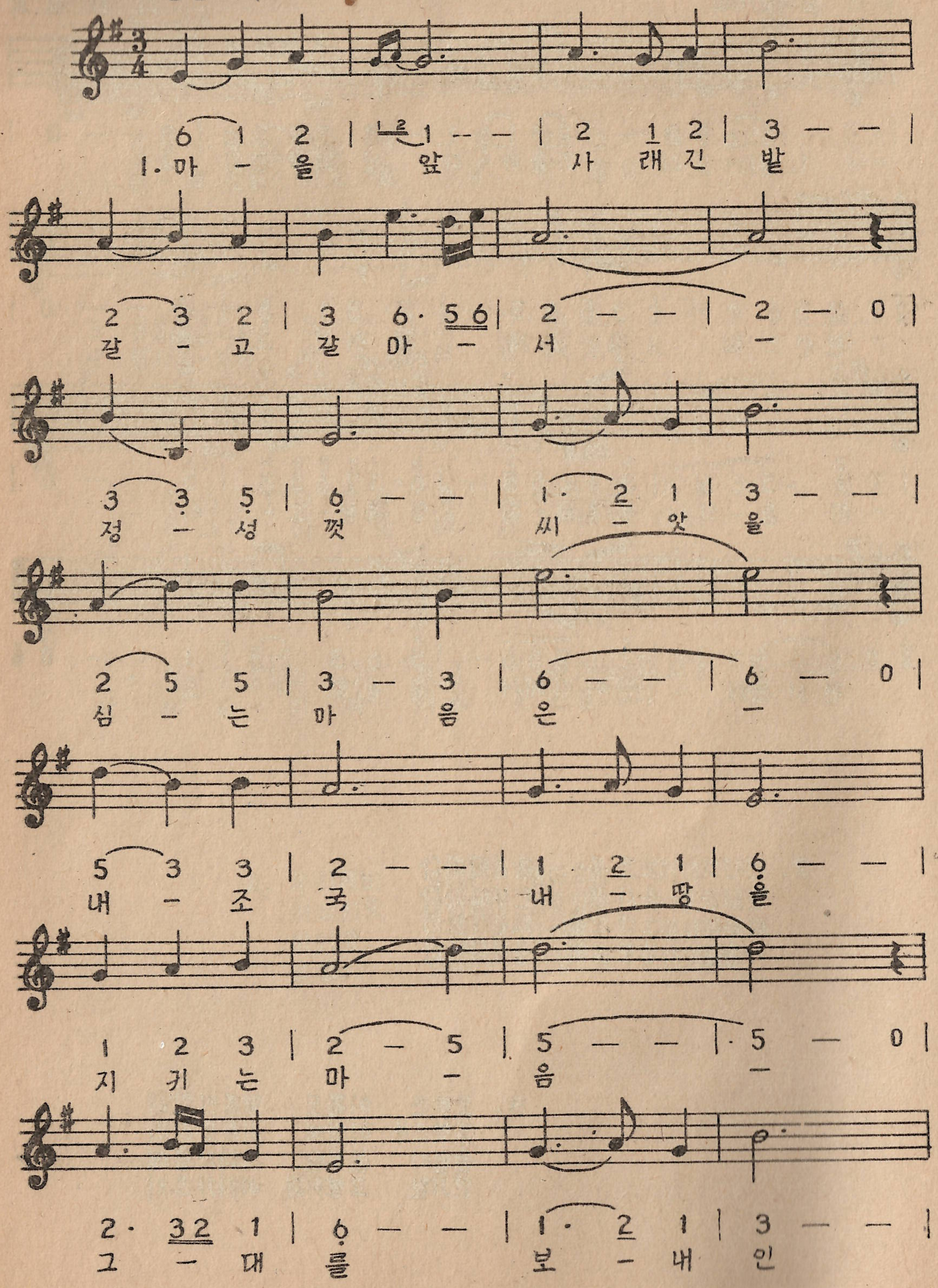
2. 전선의 보도를 들을때마다
길가는 용사를 만날때마다
싸우는 그대모습 있는가싶어
가슴은 남모르게 불탔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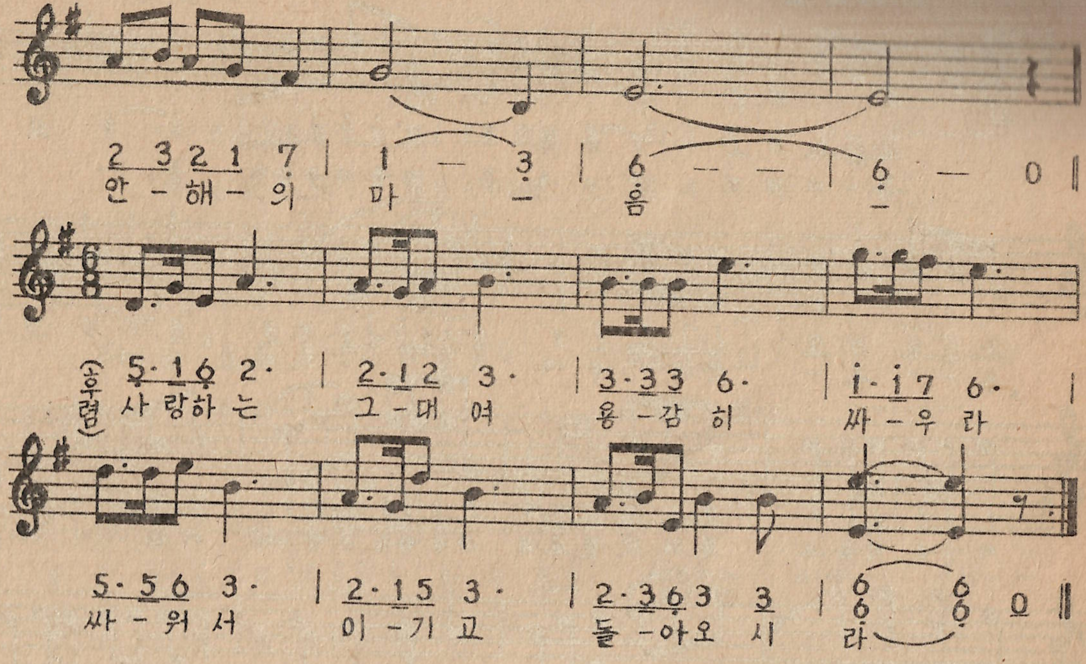
3. 오늘은 이몸도 영웅의안해
무엇으로 이영예 비하오리까
금별이 눈부실 그대가슴에
안기일 그날위해 싸워가오리

안해의마음

김 북 원 시
리 천 백 곡

간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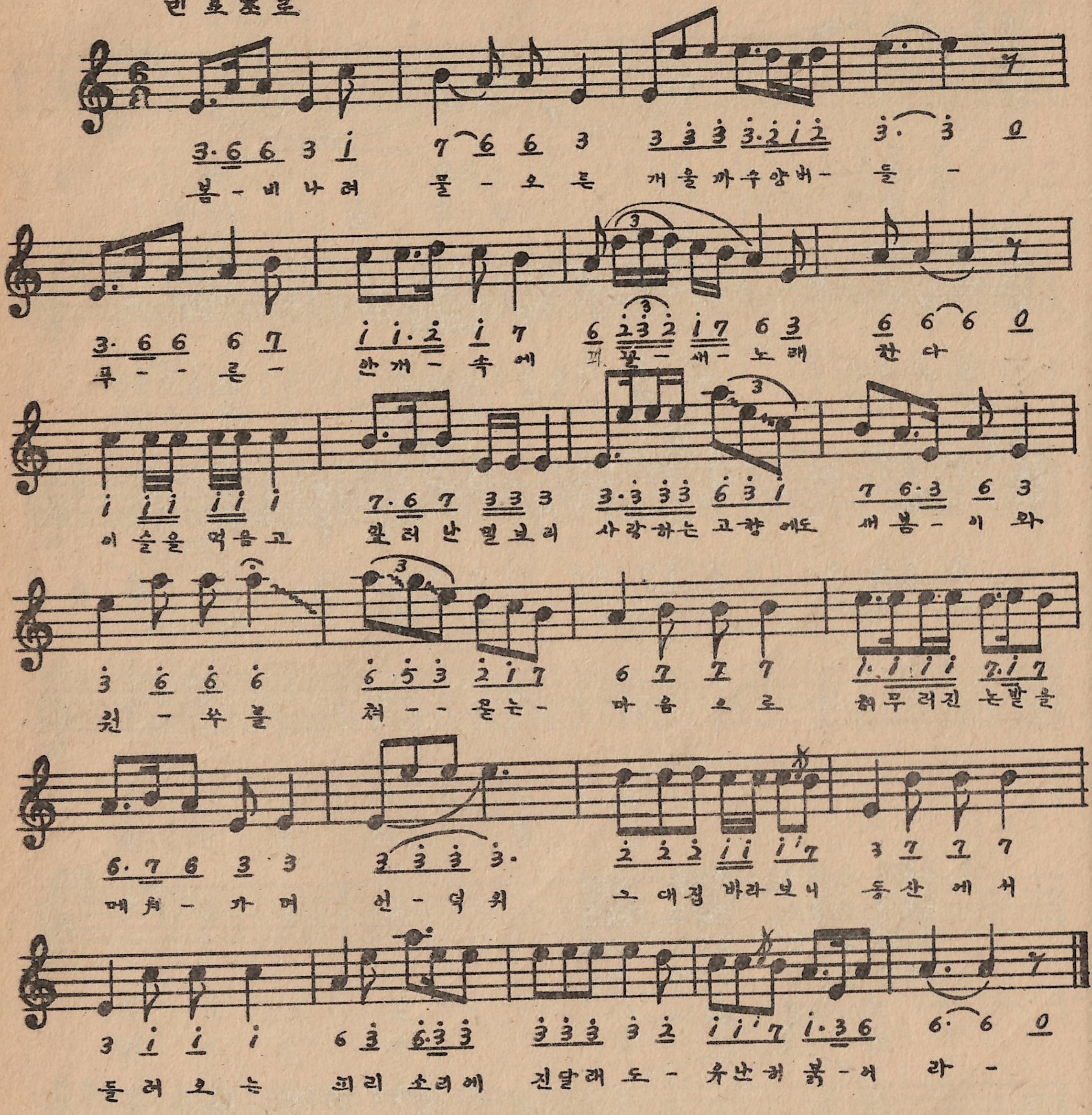
2. 종달새 노래하는 보뚝을 넘어
옥계수 이끌어 논두는 마음은
전선에 바치는 농민의 마음
고향을 지키는 안해의 마음
—(후 렴)—

3. 뜰아래 허물어진 화단을 모아
한떨기 장미꽃 가꾸는 마음은
내고향 내집을 지키는 마음
오로지 붉은맘 안해의 마음
—(후 렴)—

고향의 봄

박 세 영 시
박 창 식 곡

민요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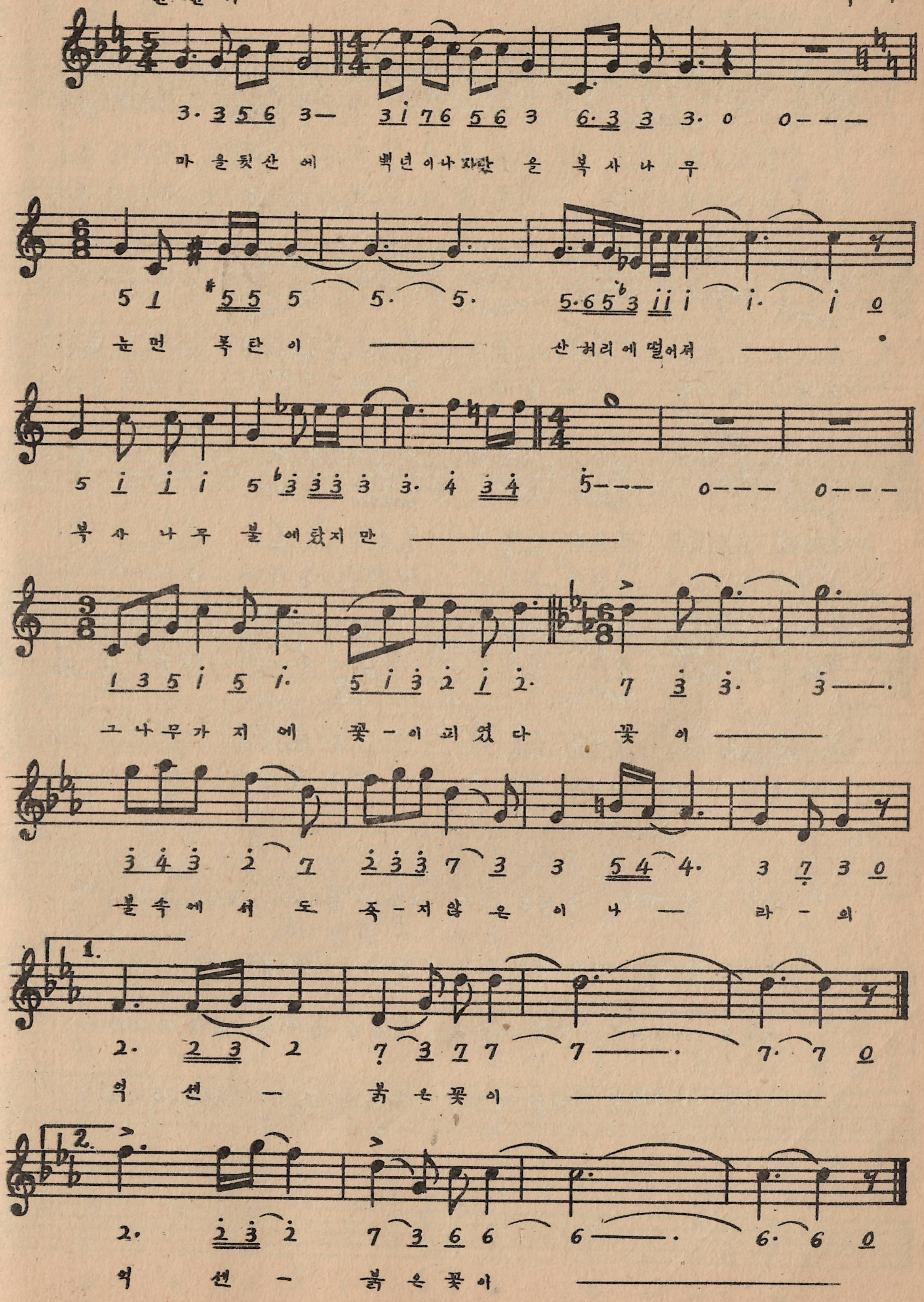


2. 시냇가의 물방아 이끼도 푸르른데
들려오는 새노래 살풍아 찧어낸다
산같은 거름을 짐짐이 날라서
뿌라우로 갈아제킨 밭이랑엔
복수의 날창을 소쳐듯
세차게도 새싹은 파릇파릇 가슴에 꽃피는가
머리드니 전공세운 그대소식 싣고 오듯
산을넘어 봄바람은 불어오라

복 사 나 무

안 막 시
김 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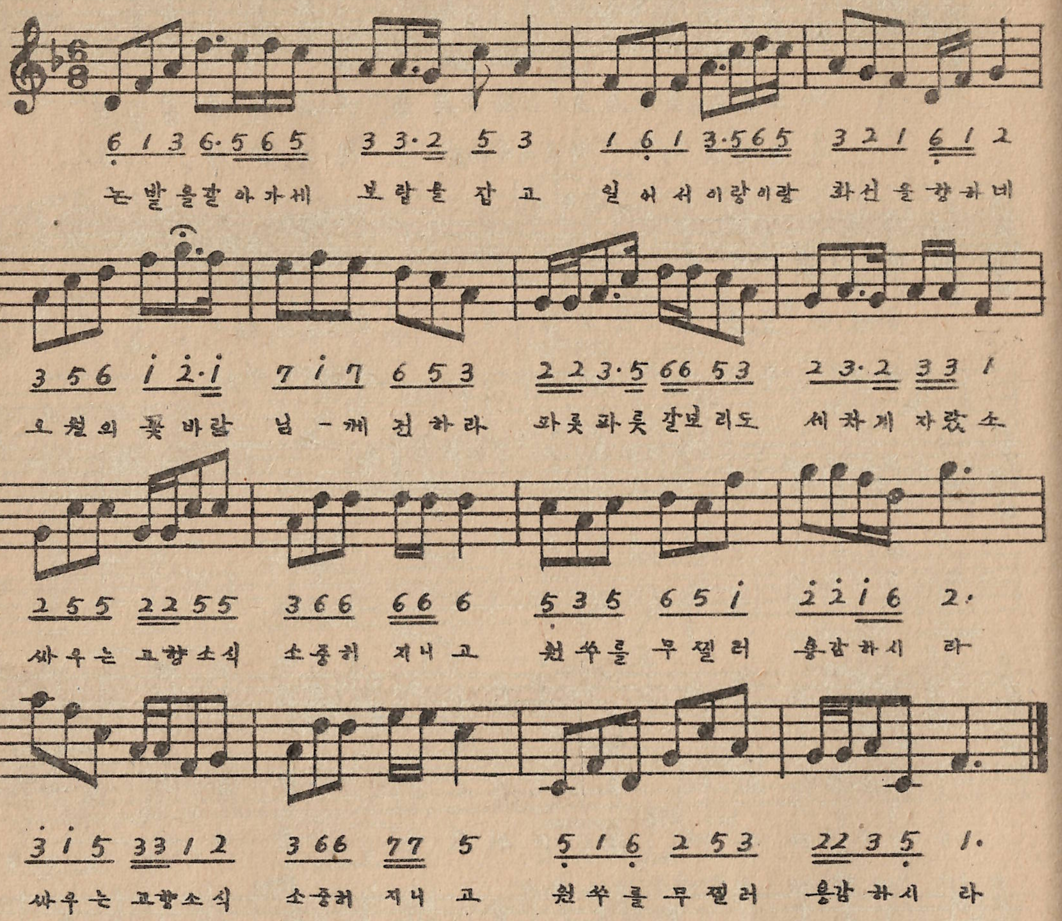
천천히



님께전하라

김동림 시
김영규 곡

천천히 서정적으로



2\. 씨앗을 넣어가세 두엄을 내고 이랑을 밟아가세 화선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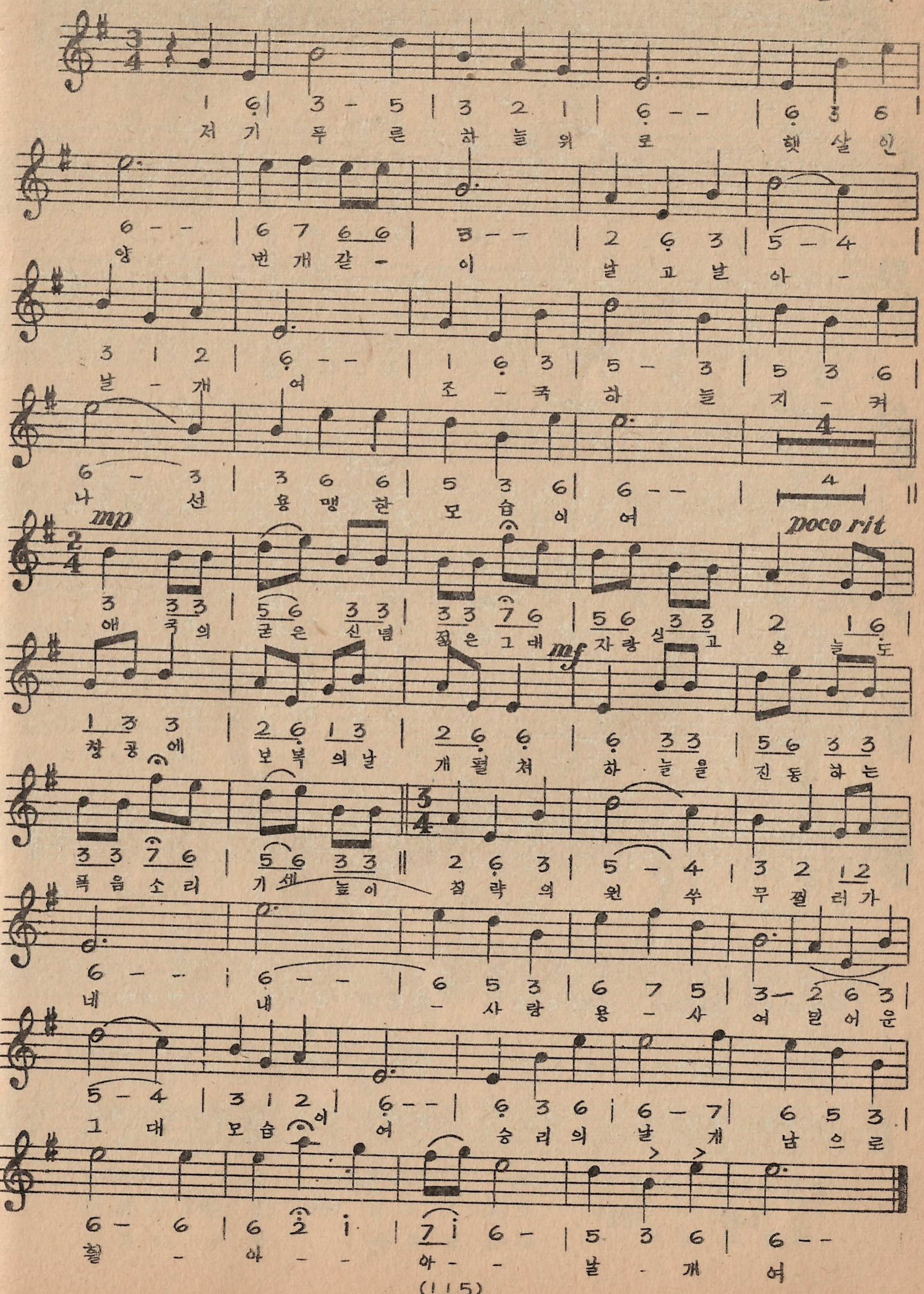
떠가는 꽃구름 님께 전하라 올안에는 함박꽃도 곱게 피였소

우리들 다시만날 그날을 위하여 증산에 몸바쳐 용감하리라

우리들 다시만날 그날을 위하여 증산에 몸바쳐 용감하리라

날개의용사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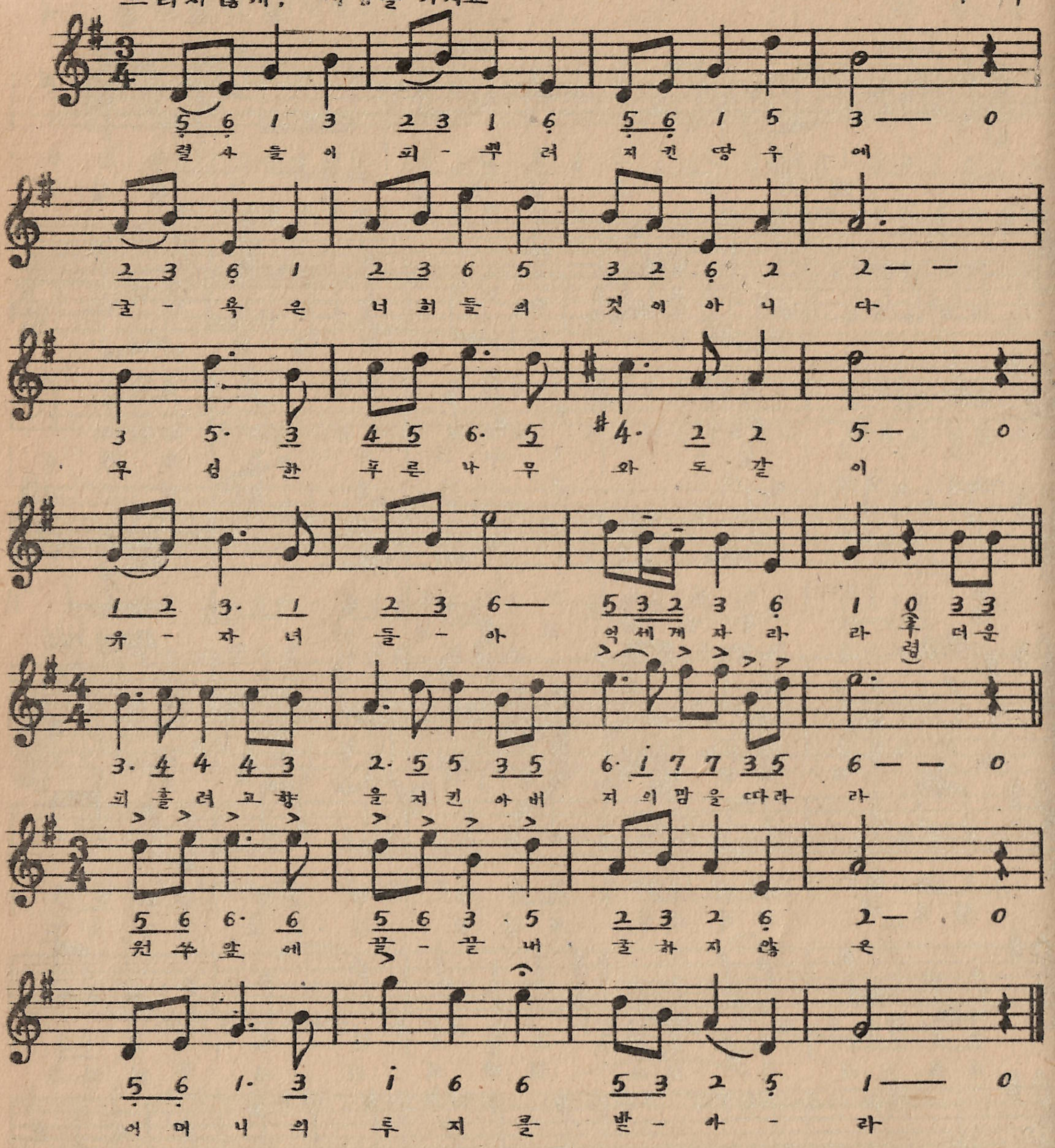
황 민 시
김원균 곡



억세고곱게 자라라

김 동 림 시
김 혁 곡

느리지 않게, 애정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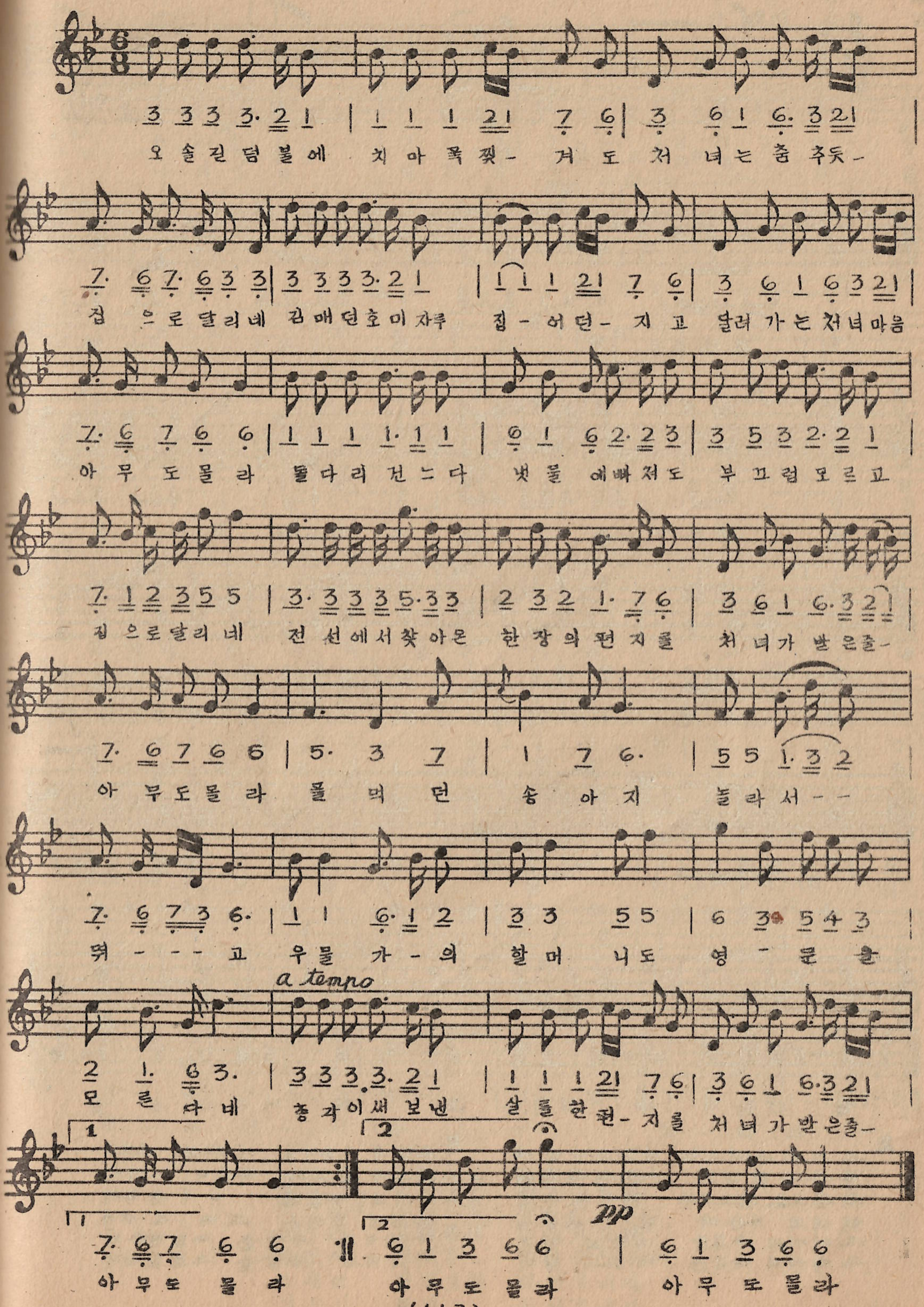
2. 따뜻한 인민들의 원호속에
굴욕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하늘의 뭇별들과도 같이
유자녀들아 깨끗이 자라라
(후 렴)

3. 찬란한 건설의 래일로하여
슲음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햇빛속 붉은 꽃들과도 같이
유자녀들아 곱게 자라라
(후 렴)

아무도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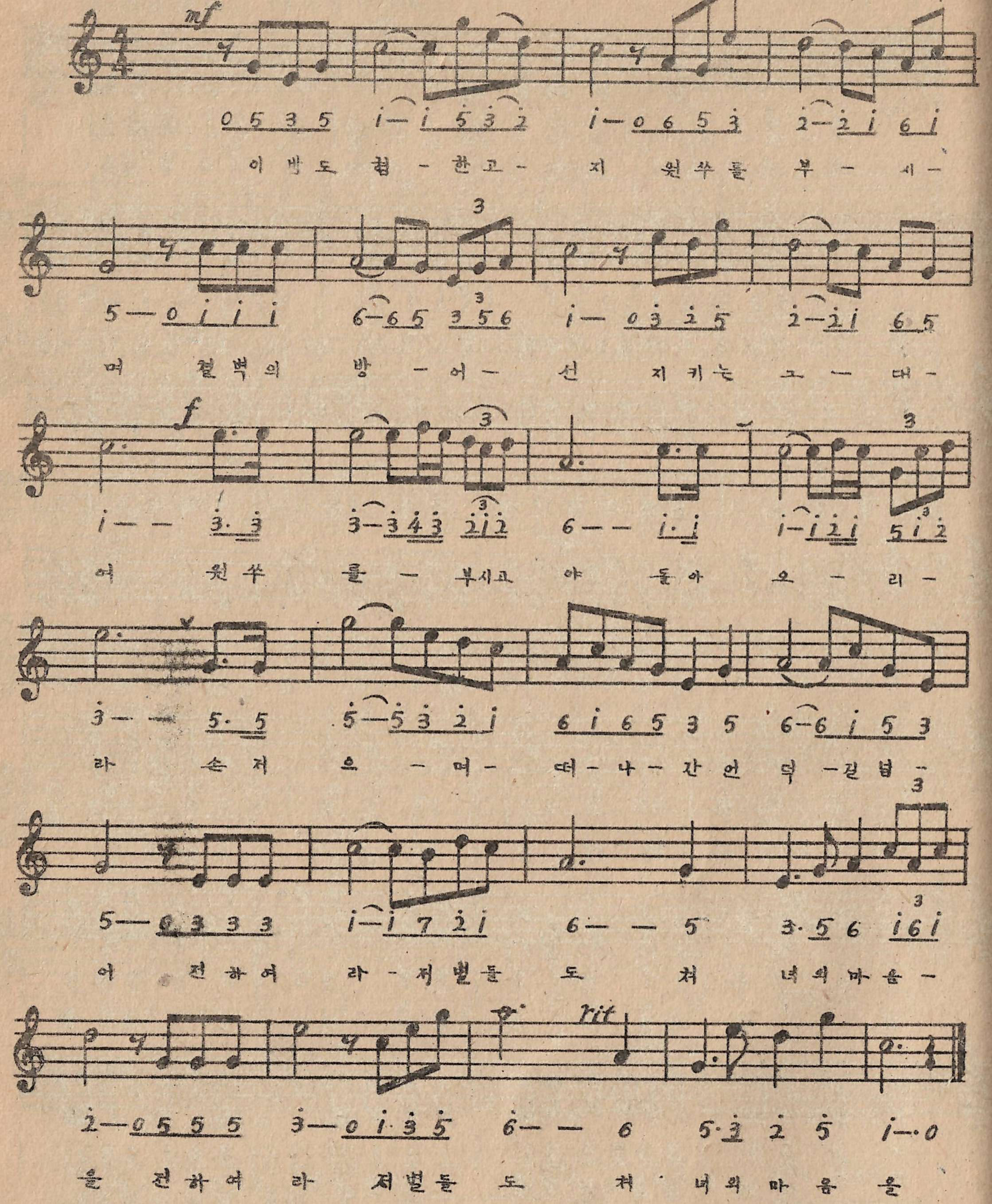
정 서 촌 시
박 한 규 곡

명쾌하게



처녀의 노래

김순석 시
송덕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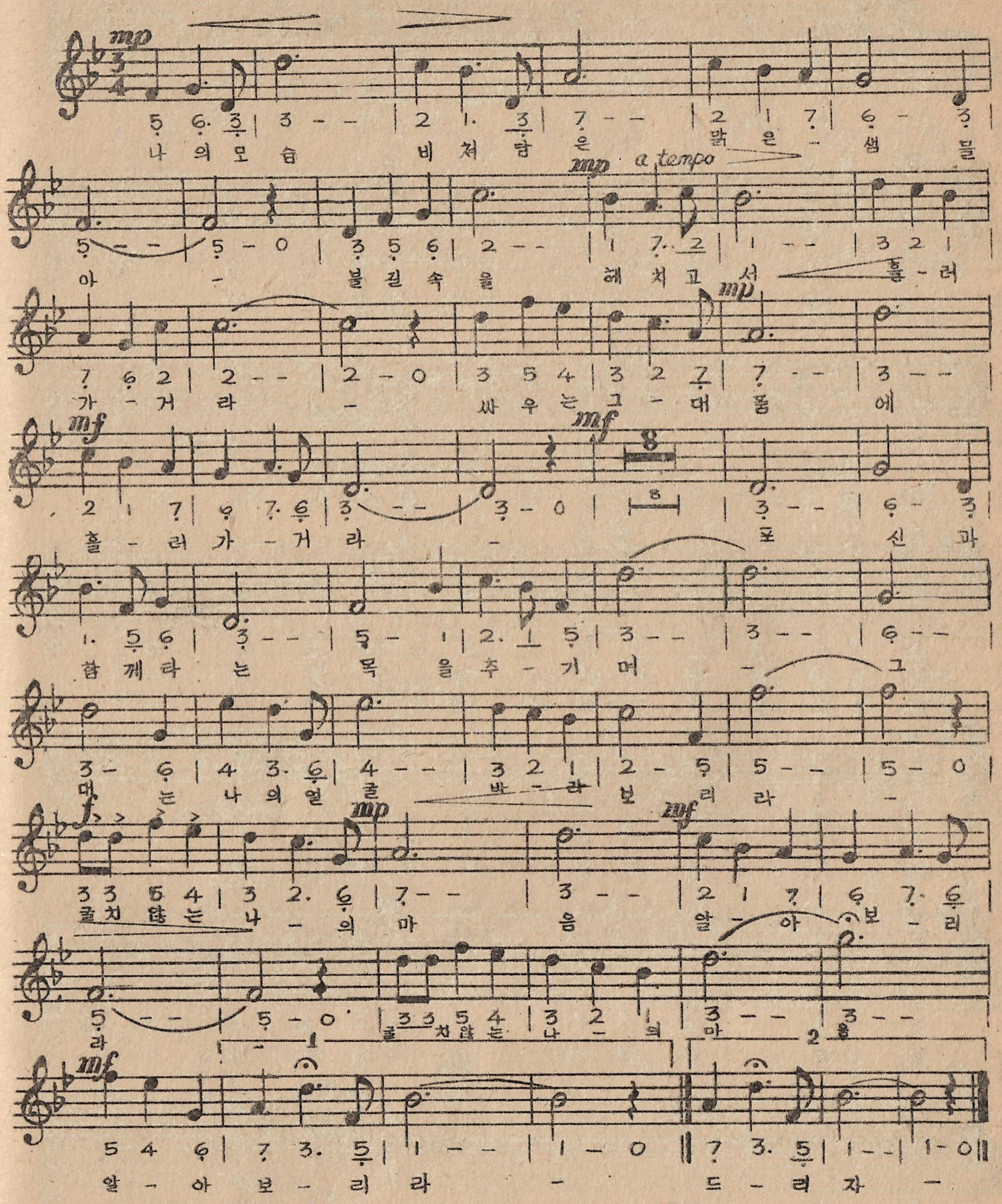


2\. 고요히 스며드는 마을의 달밤에
마음은 달리네 그대의 싸움터
위훈으로 빛으오리 개선의 그날
처녀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은
그대에게 다짐한 사랑의 맹서
그대에게 다짐한 사랑의 맹서

3\. 고향의 아름다운 산하와 더부러
처녀의 첫맹서 바친이 그대여
승리의 그날엔 다시 만나리
손저며 달려올 그 개 길에서
싸워이긴 자랑을 그날 말하리
싸워이긴 자랑을 그날 말하리

싸우는 그대 품에 찾아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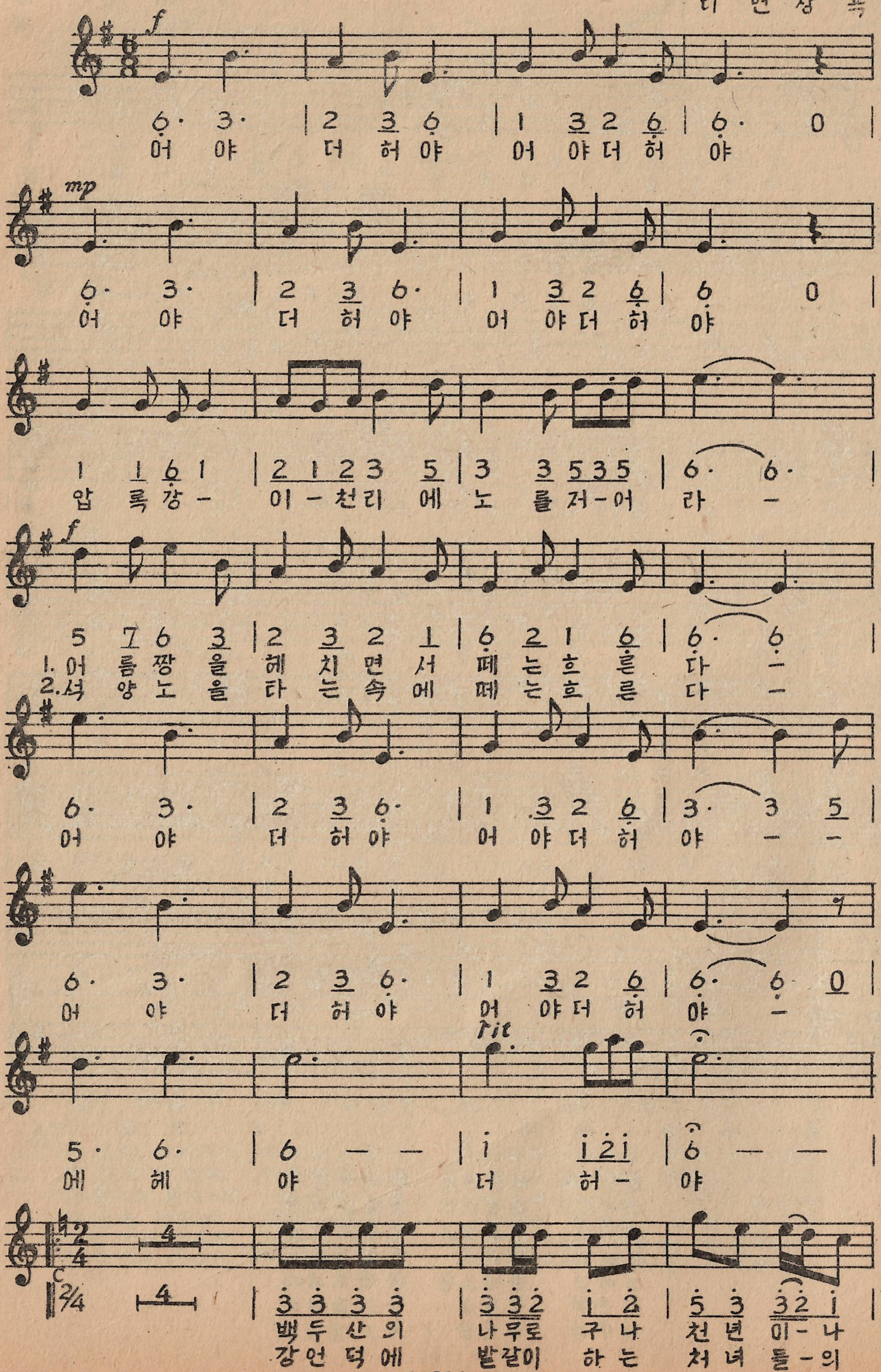
정서촌 시
김원균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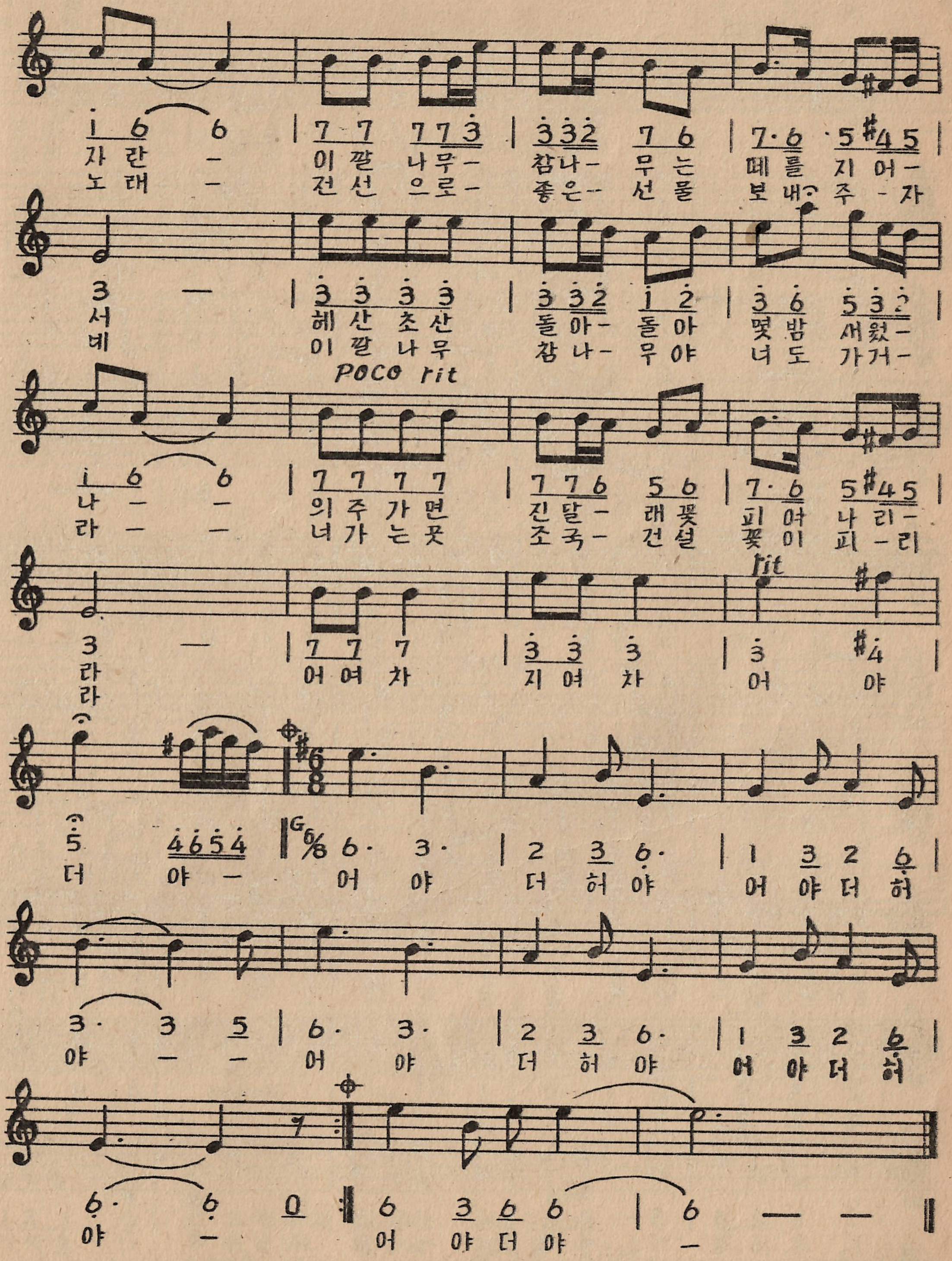


2\. 고향모습 비쳐담은 맑은샘물아
굽이굽이 전선으로 흘러가거라
싸우는 그대품에 흘러가거라
포연에 꺼슬은 얼굴을 씻으며
그대는 불탄고향 바라보리라
복수의 총검을 추겨들리라
복수의 총검을 추겨들리라

압록강이천리

조령출 시
리면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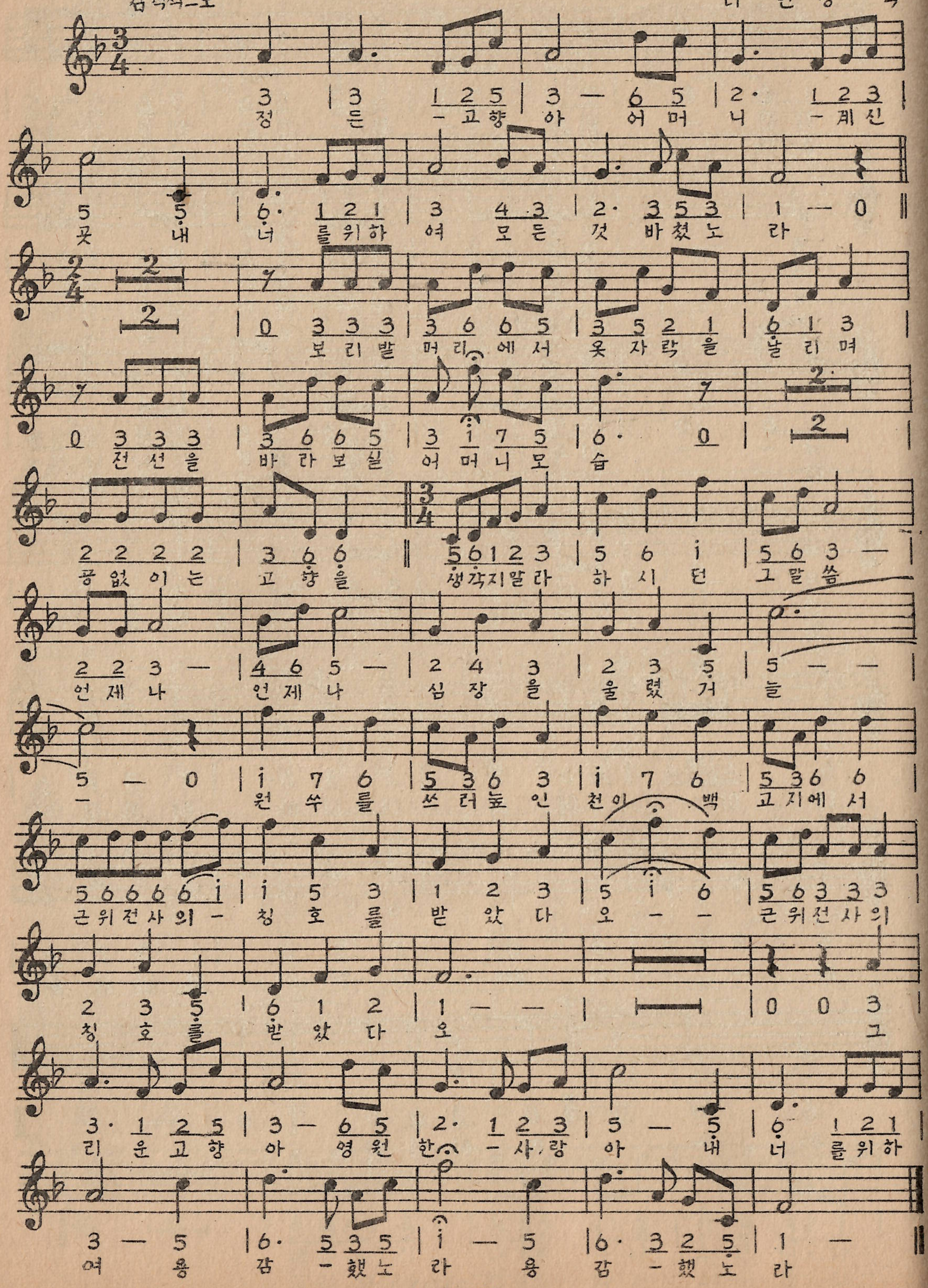




고향을위하여

신 동 철 시
리 면 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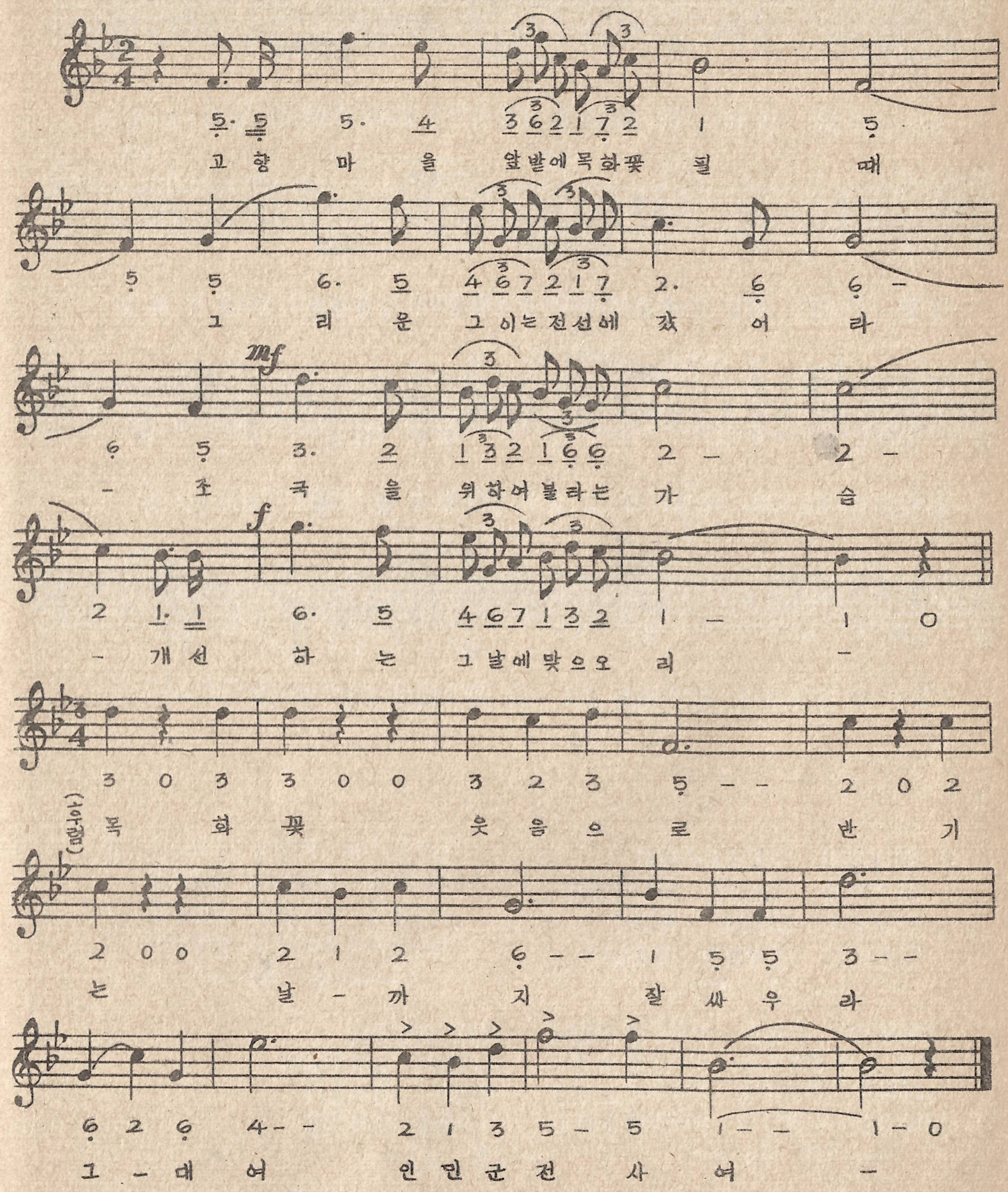
감격적으로



목화꽃필때

김 우 철 시
공 익 화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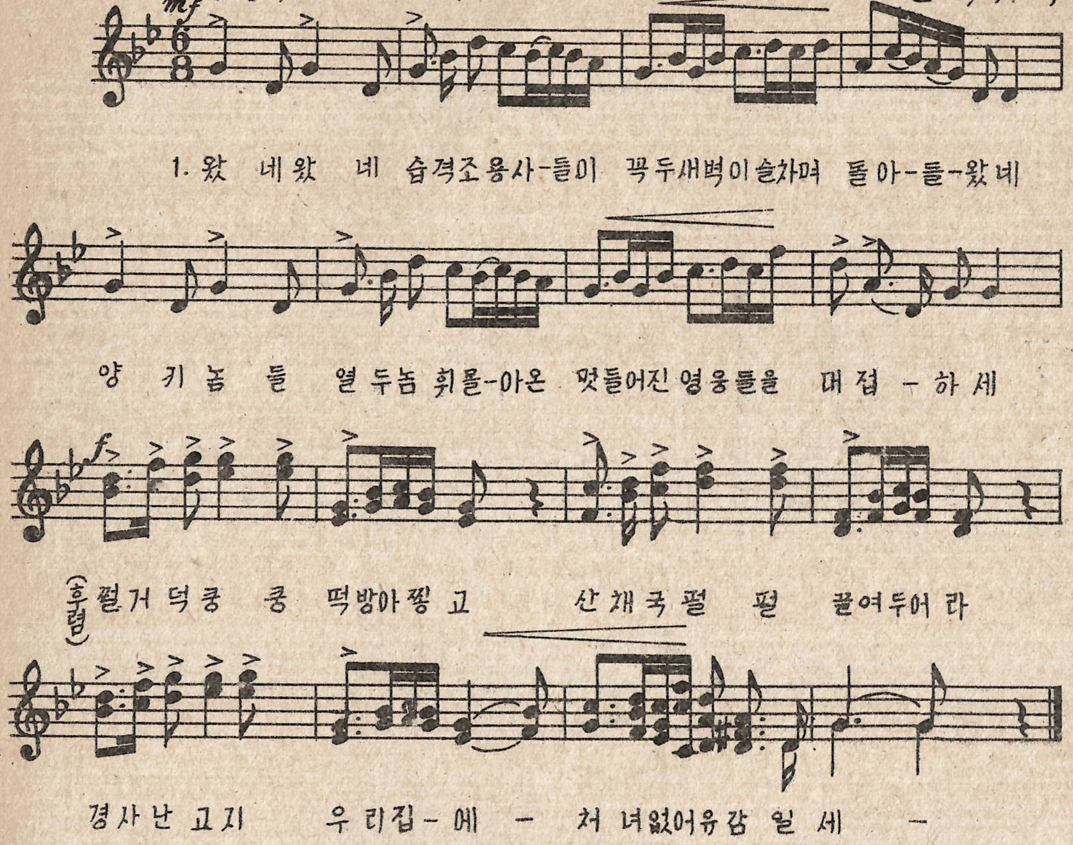
느리게



2. 고향마을 언덕이 어리울때면
원수의 골수에 탄알을 박으라
향토를 지키는 처녀의 맹서
승리하는 마당에 달려가리
—— 후렴 ——

고지에경사났네

신 동 철 시
윤 복 기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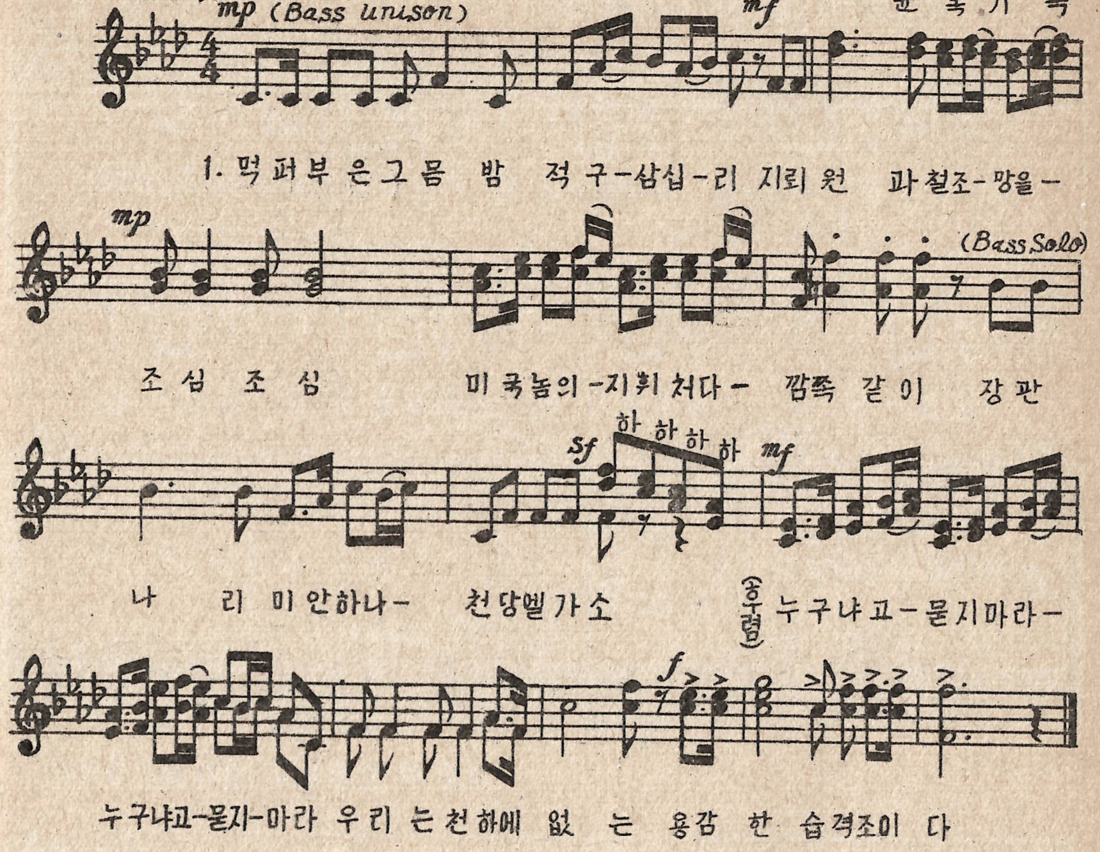
2. 쐈네쐈네 사단포포수들이
잘도맞네 우리포탄 눈이달렸네
원쑤땅크 다섯대 불태운
멋들어진 포병들을 대접하세
—(후 렴)—

3. 떴네떴네 적기가이상공에
사냥꾼조 무서워서 높이도떴네
쏘고말고 석대가 격추로다
멋들어진 사수들을 대접하세
—(후 렴)—

4. 왔네왔네 저격수명수들이
귀신몰래 숨었다가총메고왔네
백놈천놈 문제가 아니라는
멋들어진 저격수를 대접하세
—(후 렴)—

습격조의노래

신 동 철 시
윤 복 기 곡



2. 흰눈나린 달밤에 적의보초선
조명등과 감시병을 가만가만
한참쏘는 포진지다 깜쪽같이
대포만능 미안하나 다녹아나라
—(후 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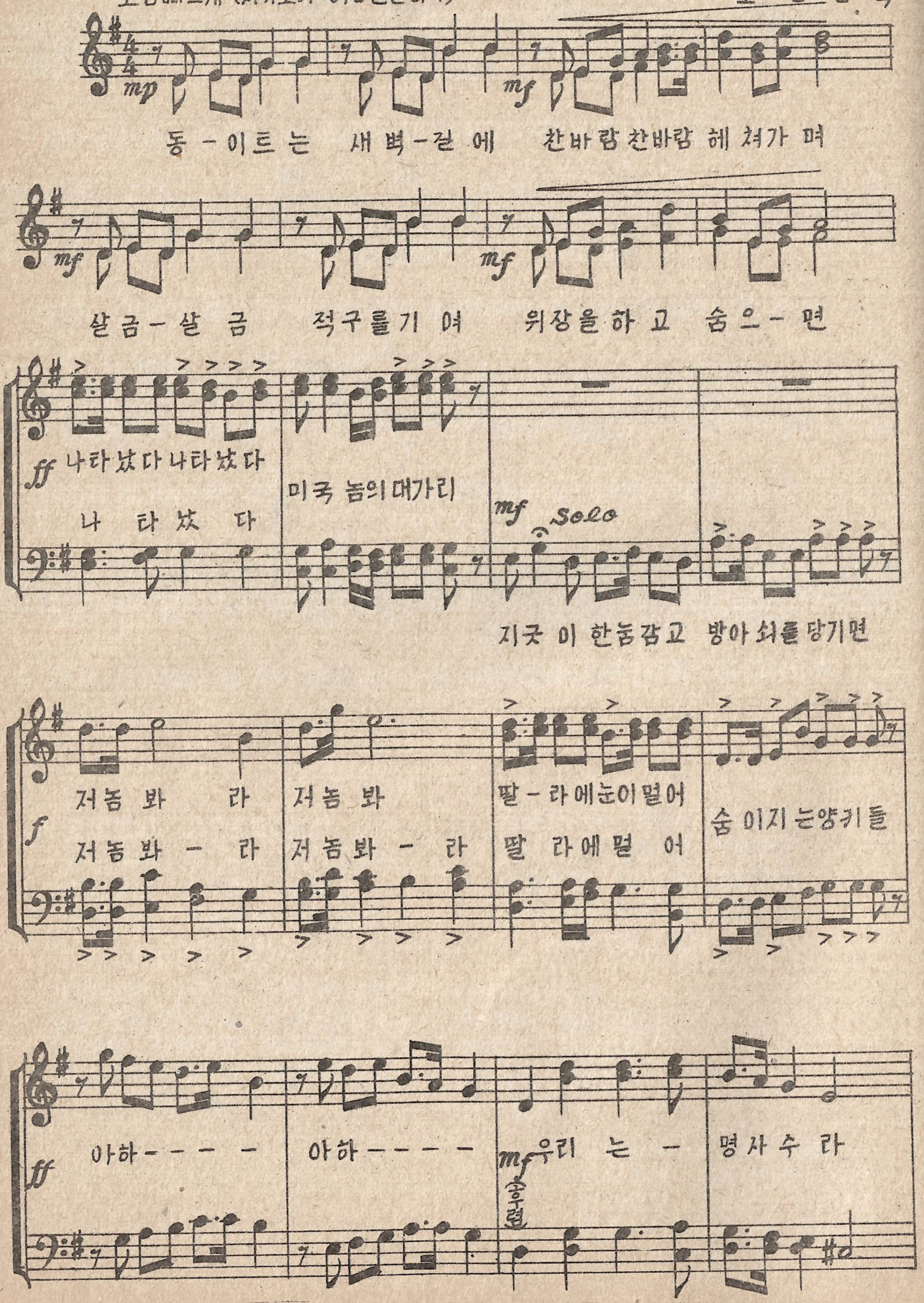
3. 번개치는 포화속 적의방어선
험한벼랑 교두보도 슬금 슬금
앙큼스런 토치까다 깜쪽같이
복수탄에 미안하나 무덤이되세
—(후 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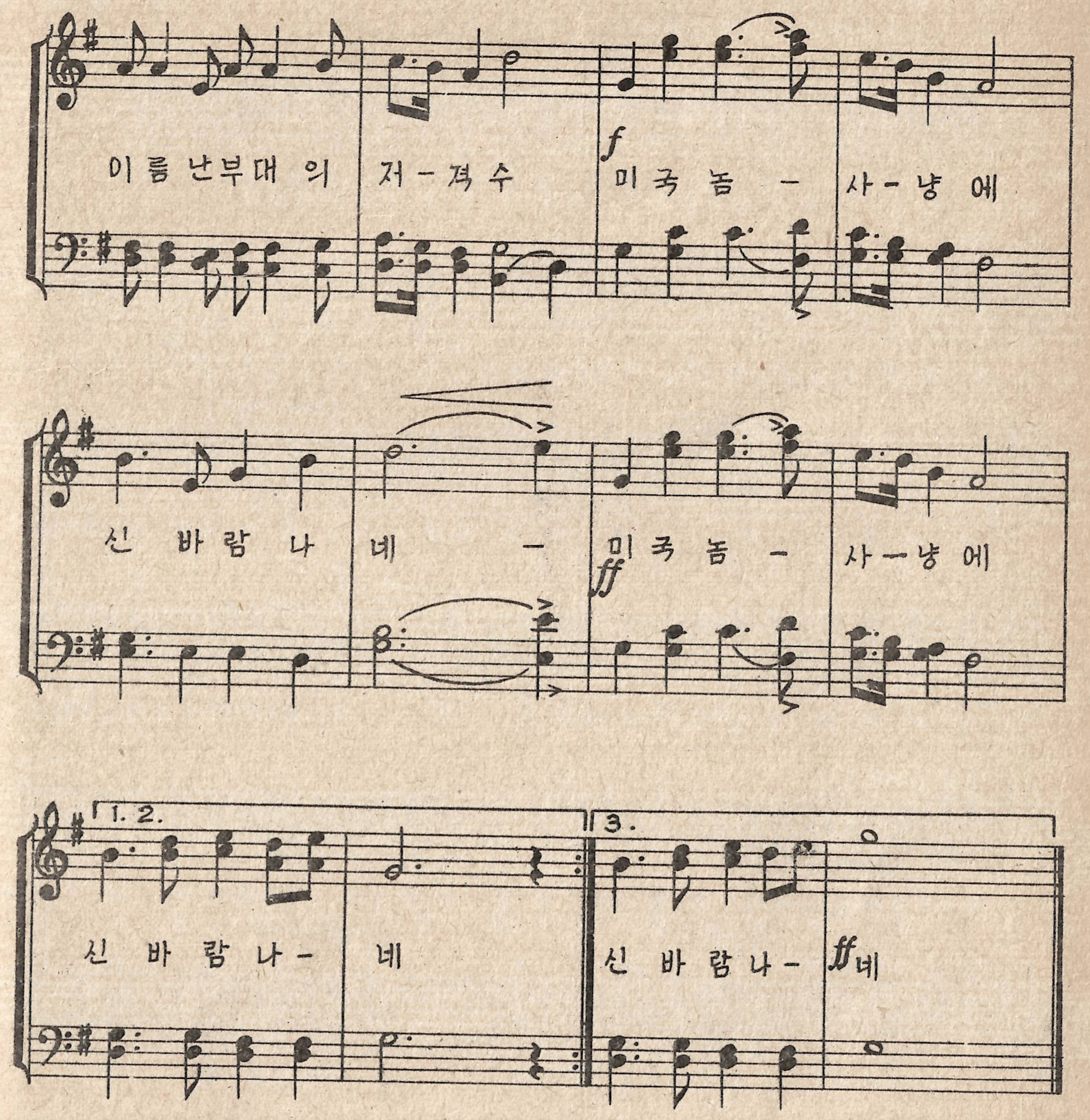
저격수의노래

(남성중창곡)

리 선 을 시
모 영 일 곡

조곰빠르게 (자유로이 어감을살리며)





2. 흰눈이나린 비탈길에 조심히더듬으며
살금살금전초선기여 깜족같이숨으면
달아간다 달아간다 질겁먹은괴뢰군
뿌듯이 총을잡아 방아쇠를당기면
저놈봐라 저놈봐
두다리 꼬으면서 자빠지는졸도들
—(후 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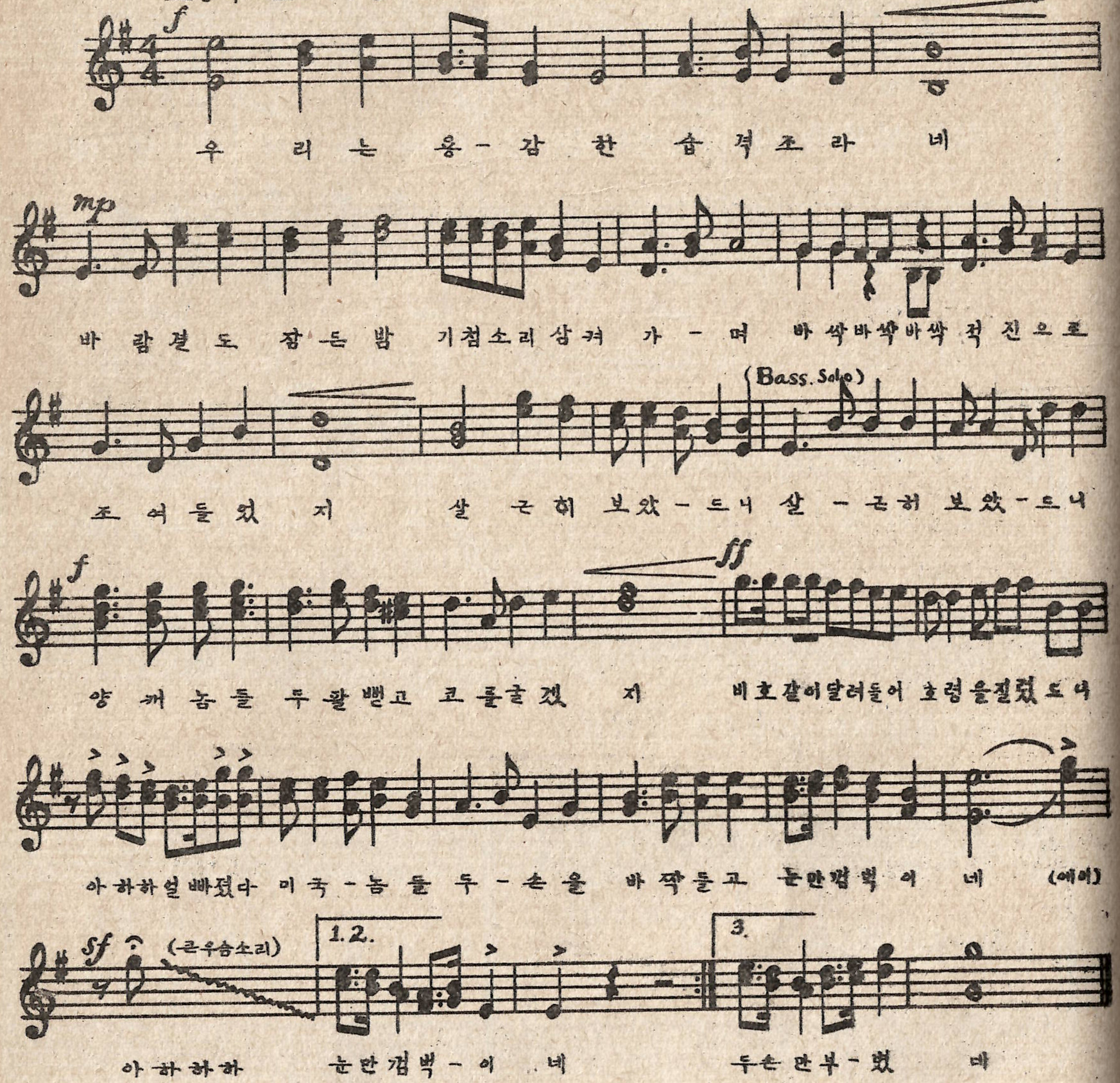
3. 틀어잡은총신에 복수를맹서하며
살금살금적진을기여 매복하고숨으면
걸어온다걸어온다 위신차린장교놈
후뭇한가슴으로 방아쇠를당기면
저놈봐라 저놈봐
오뎐갈차렷하고 자빠지는양키놈
—(후 렴)—

습격조의 노래

(남성중창곡)

리선울 시
모영일 곡

보통속도로 (명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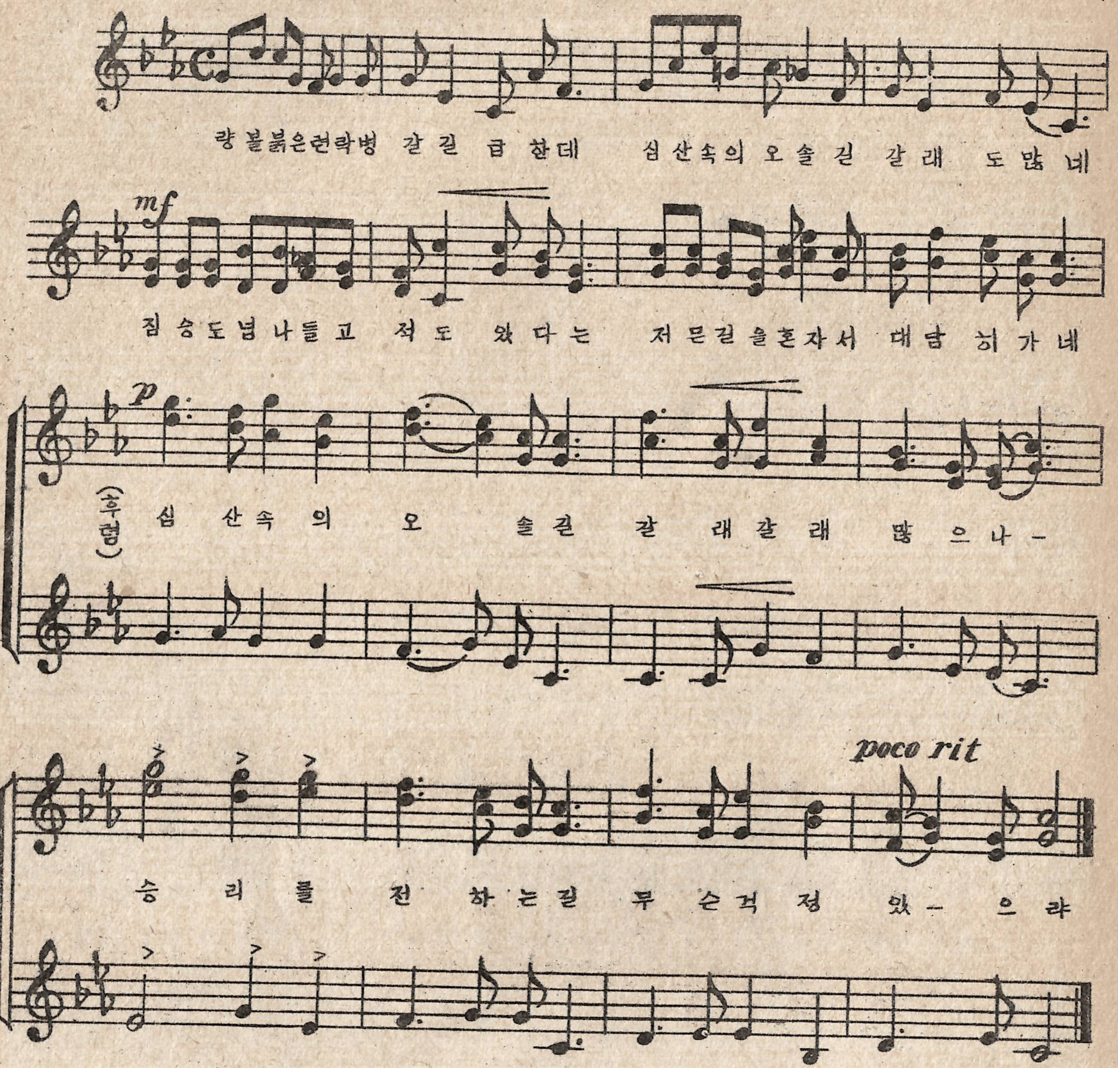


2. 우리는 용감한 습격조라네
흑막같은 어둠속 미국놈의 진지향해
바싹바싹 보복하고 기여들었지
가만히 살폈드니
양깨놈들 눈이 멀은 사격소리
바위틈에 숨었다가 수류탄 던졌드니
아하하 어리석다 미국놈들
모진지가 공중으로 날려버렸네

3. 우리는 용감한 습격조라네
철조망과 지뢰원 감쪽같이 해제하며
바싹바싹 원쑤찾아 닥아들었지
조용히 들었드니
장교놈들 졸도보구 호통치겠지
번개같이 달려들어 따바리 겨눴드니
아하하 비겁하다 양깨놈들
목숨만 살려달라 두손만 부볐네

심산속의 오솔길

신 동 철 시
최 수 동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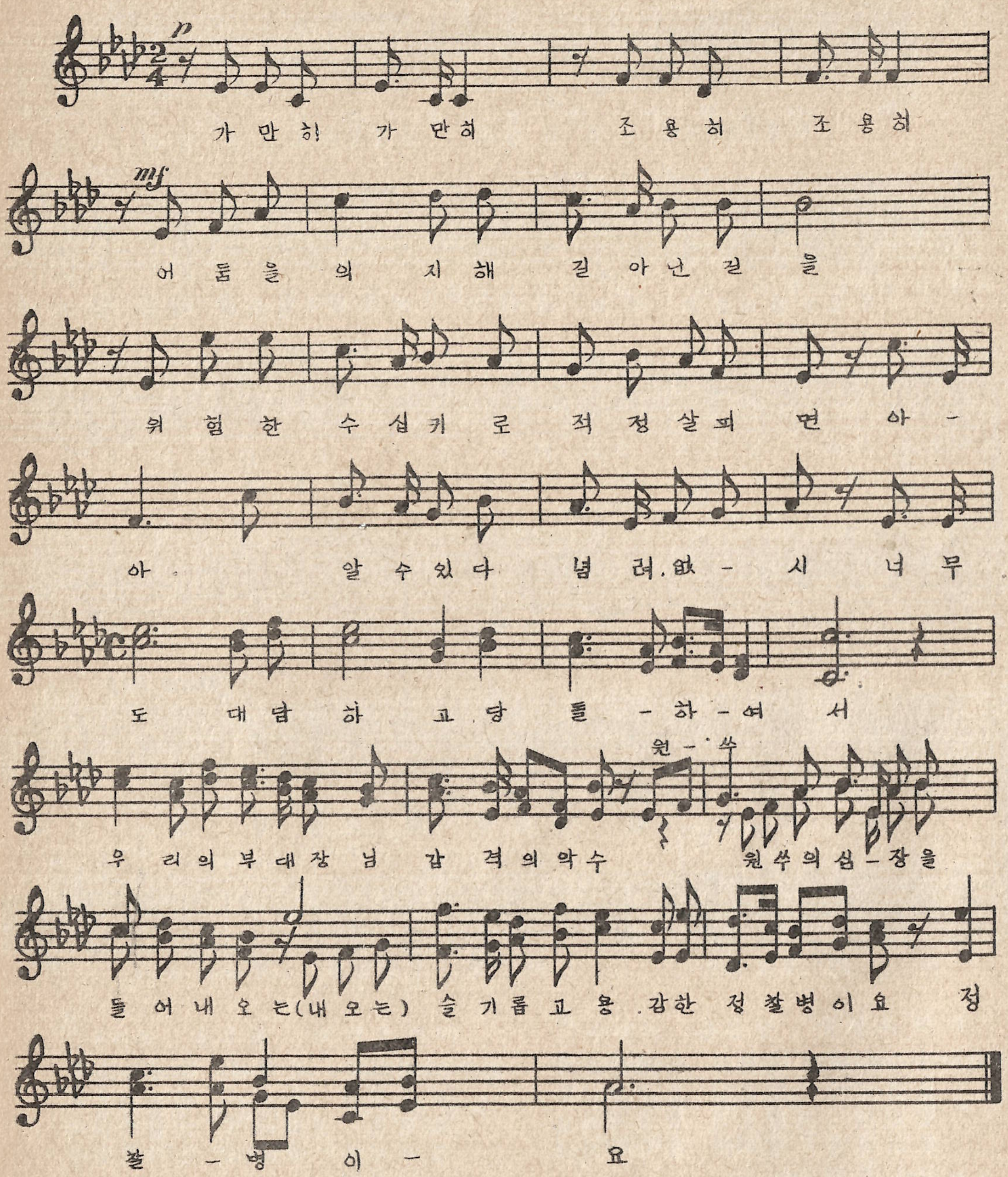


2. 날을밝혀 싸워서 점령한고지
공화국기 날리며 고수한다는
승리의 기쁜소식 늦을세라고
초저녁별 방위로 용감히가네
— 후렴 —

3. 어디선가 인적이 들려오길래
안전장치 풀고서 매복해보니
따꿍총 둘러메연 단발소녀라
언제인가 정찰때 만나본동무
— 후렴 —

4. 산길에는 익숙한 빨찌산소녀
감격으로 잡은손 놓을세라고
길동무 되였다고 얼싸뒤면서
심산속의 오솔길 노래로가네
— 후렴 —

정찰병의노래

신 동 철 시
김 옥 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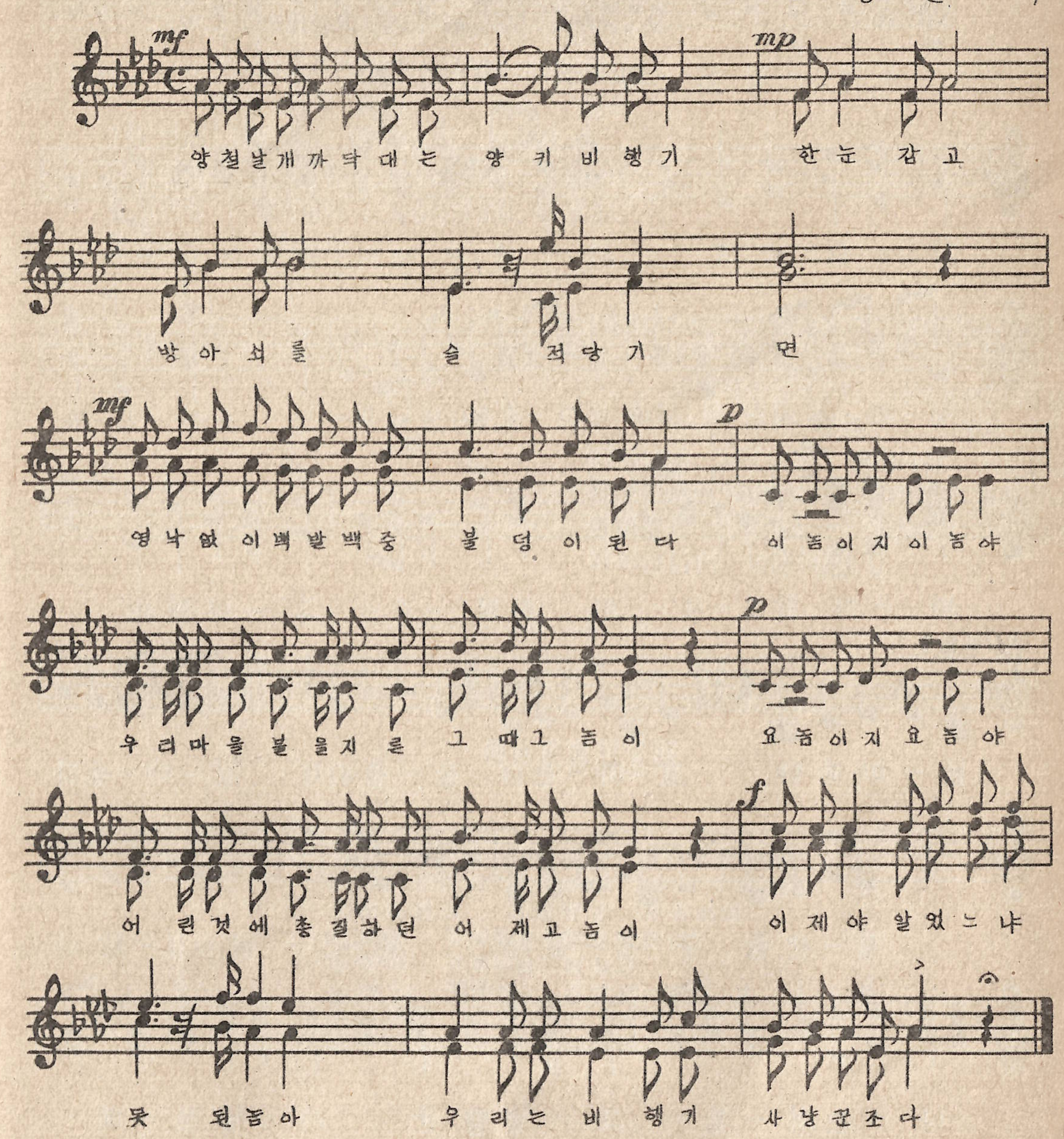


2. 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적진지 뚫고서 들어가 돌며
위기의 수십초간 비밀들추면
아하아 알수있다 살금살금
── 후렴 ──

3. 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철조망 끊고서 감시병 잡아
재빨리 입을막고 묶어오면은
아하아 알수있다 모든정보
── 후렴 ──

비행기사냥꾼조의노래

(남성중창곡)

리 선 용 시
윤 승 진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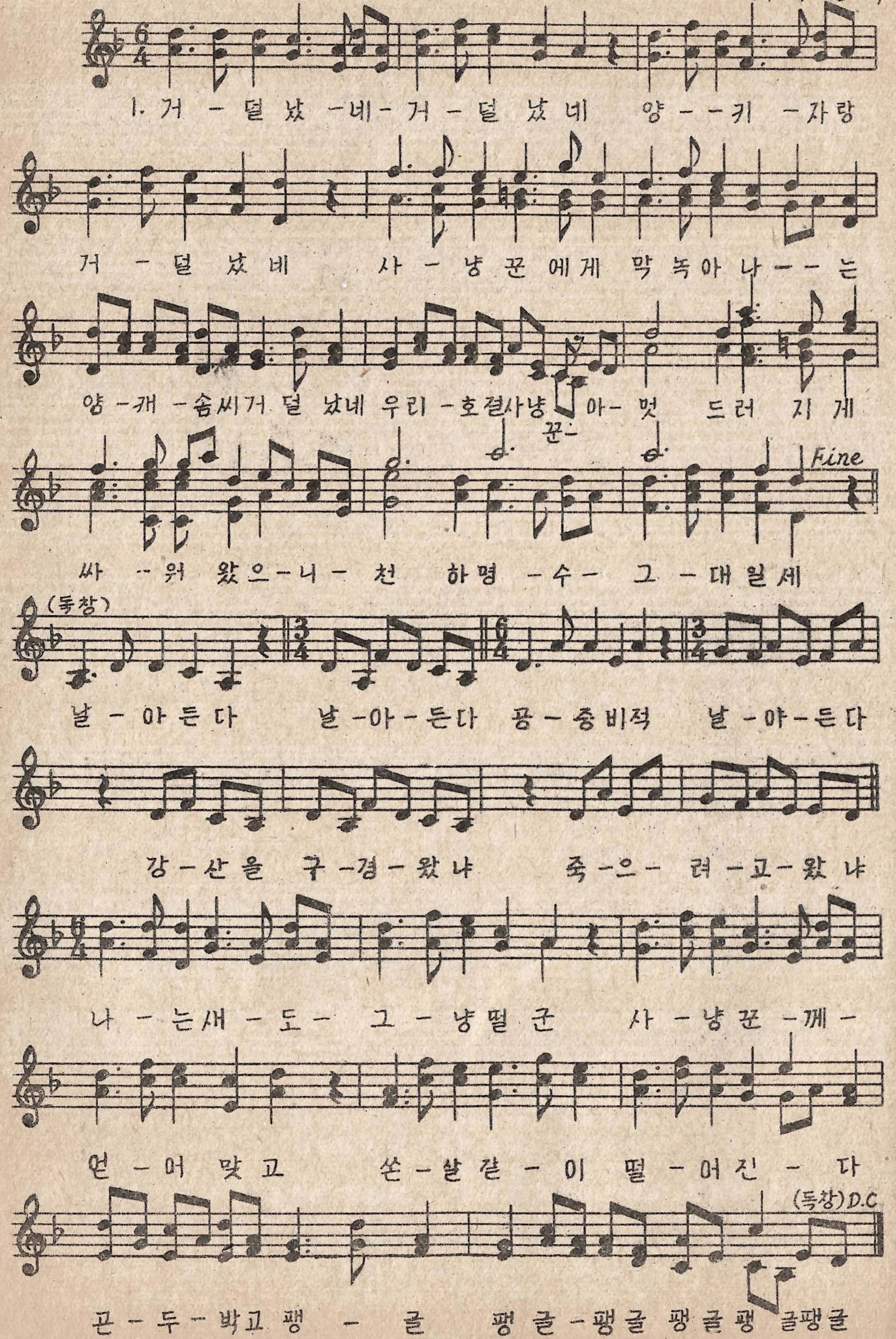


2. 양철날개 까닥대는 양키비행기
한눈감고 방아쇠를 슬적당기면
영낙없이 백발백중 불덩이된다
이놈이지 이놈야
우리마을 불지른 그때그놈이
요놈이지 요놈야
어린것에 총질하던 어제그놈이
이제야 알았느냐 못된놈아
우리는 비행기 사냥꾼조다

사냥꾼의노래

신동철 시
최수동 곡

좀 느리게



2. (독창) 기여든다기여든다 양개땅크기여든다
신작로를닦으려왔냐 파쇠가 되려왔냐
멧돼지도쳐서눕힌 사냥꾼께얻어맞고
삐곡 삐곡 삐곡 삐곡 삐곡
거덜났네 거덜났네 양개솜씨 거덜났네
사냥꾼에게 막녹아나는 양개솜씨 거덜났네
멀정한놈 깜짝말아 송장통조림 되였으니
콜라크나 처먹어라

3. (독창) 나타났다나타났다 해적선이나타났다
원산굴을먹으려왔냐 고기밥 되려왔냐
백발백중명포수인 사냥꾼께얻어맞고
꾸룩 꾸룩 꾸룩 꾸룩 꾸룩
거덜났네 거덜났네 양개자랑 거덜났네
사냥꾼에게 막녹아나는 양개솜씨 거덜났네
한바다가 입벌리고 넝큼삼켜 주었으니
아이젠하워 어떠합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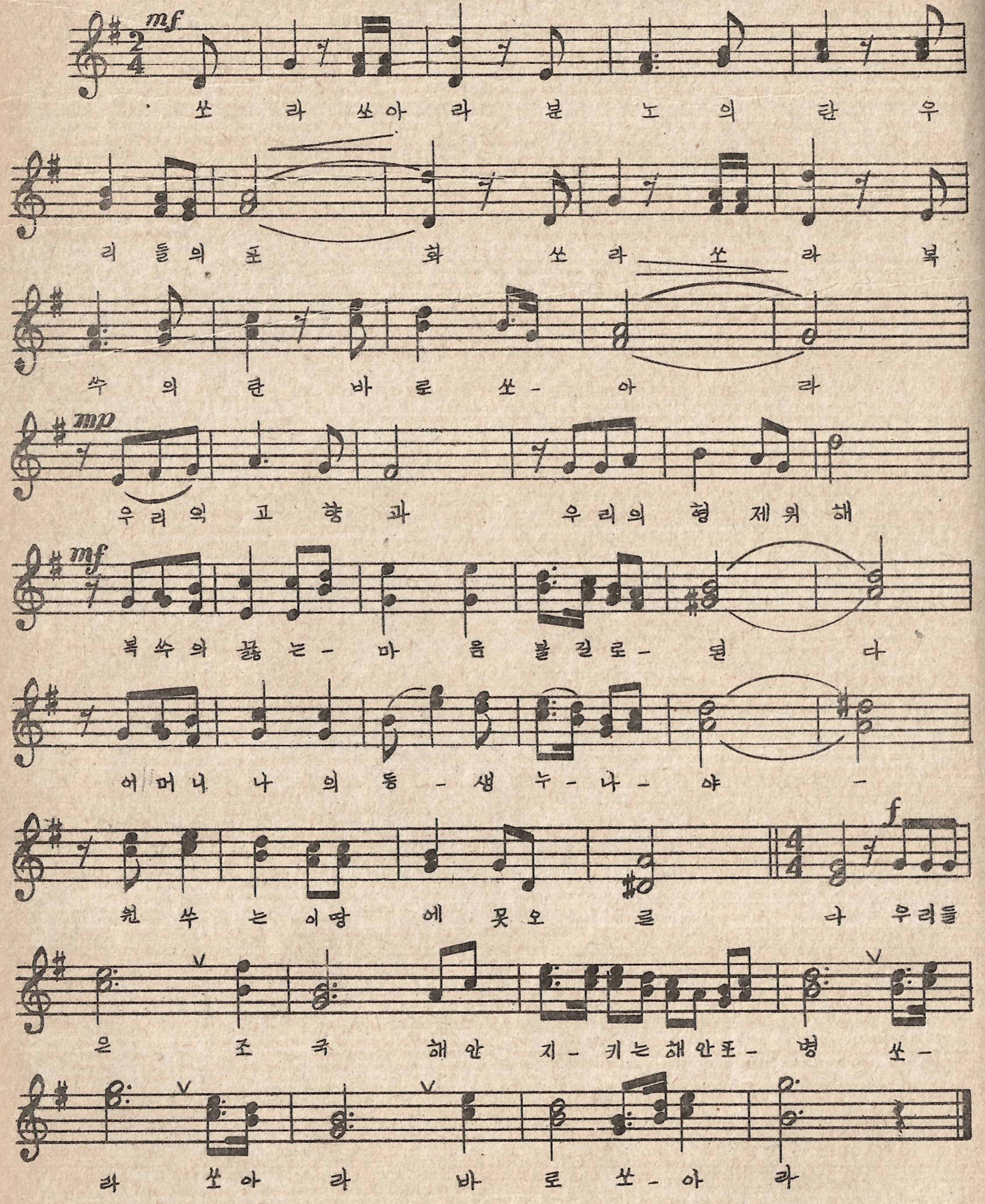
해안포병의노래

2. 쏘라 쏘아라 영광에찬 우리들의포야
쏘라 쏘아라 복수의탄 바로 쏘아라
조선인민의 기리빛날 자유위해
온세계 형제들도 한덩이된다
김장군 가르키는 길에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린다
우리들은 조국지키는 포병
쏘라 쏘아라 바로쏘아라

해안포병의노래

박 용 시
김 길 학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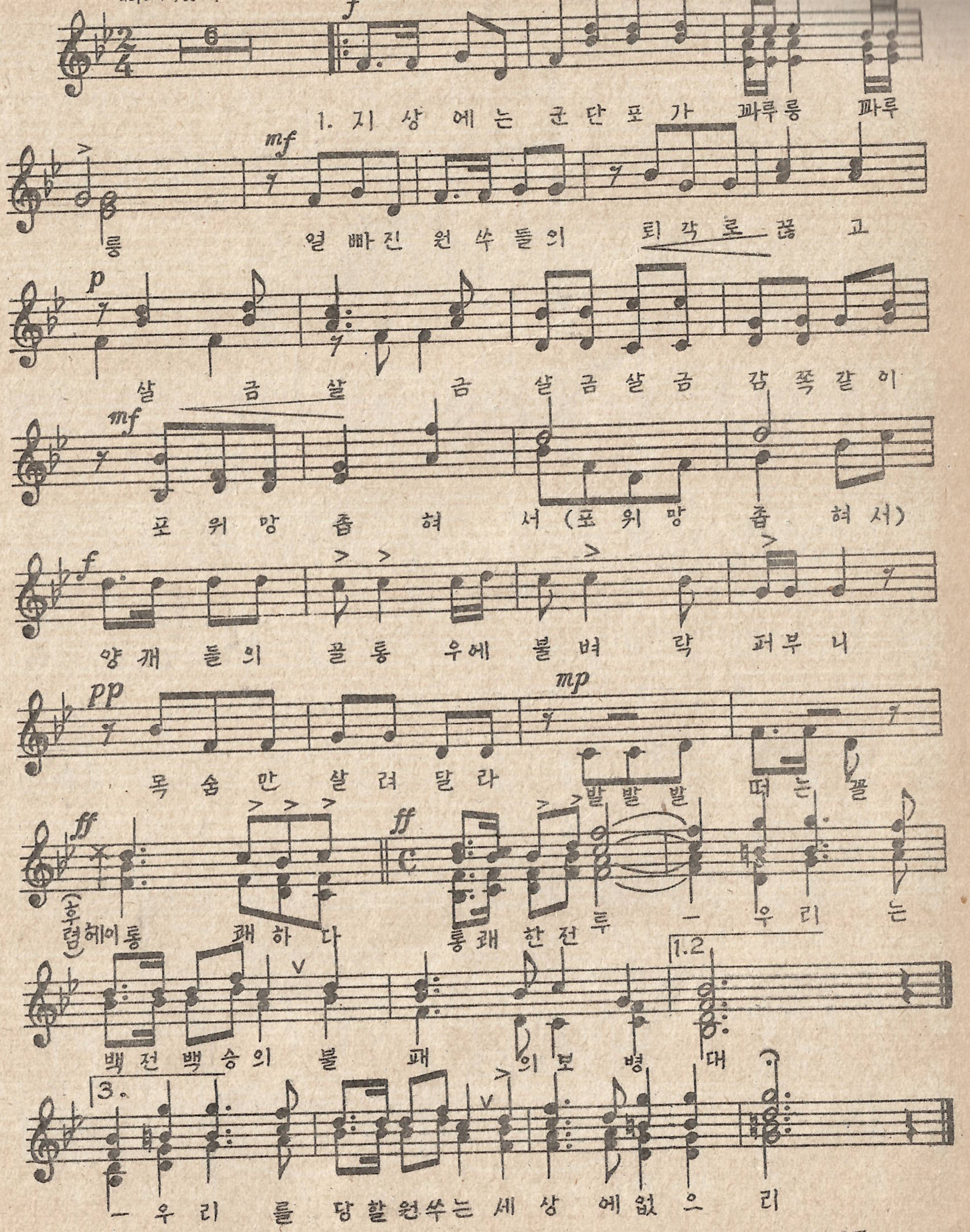
행진조로



우리의자랑

심 봉 원 시
리 선 우 곡

빠르지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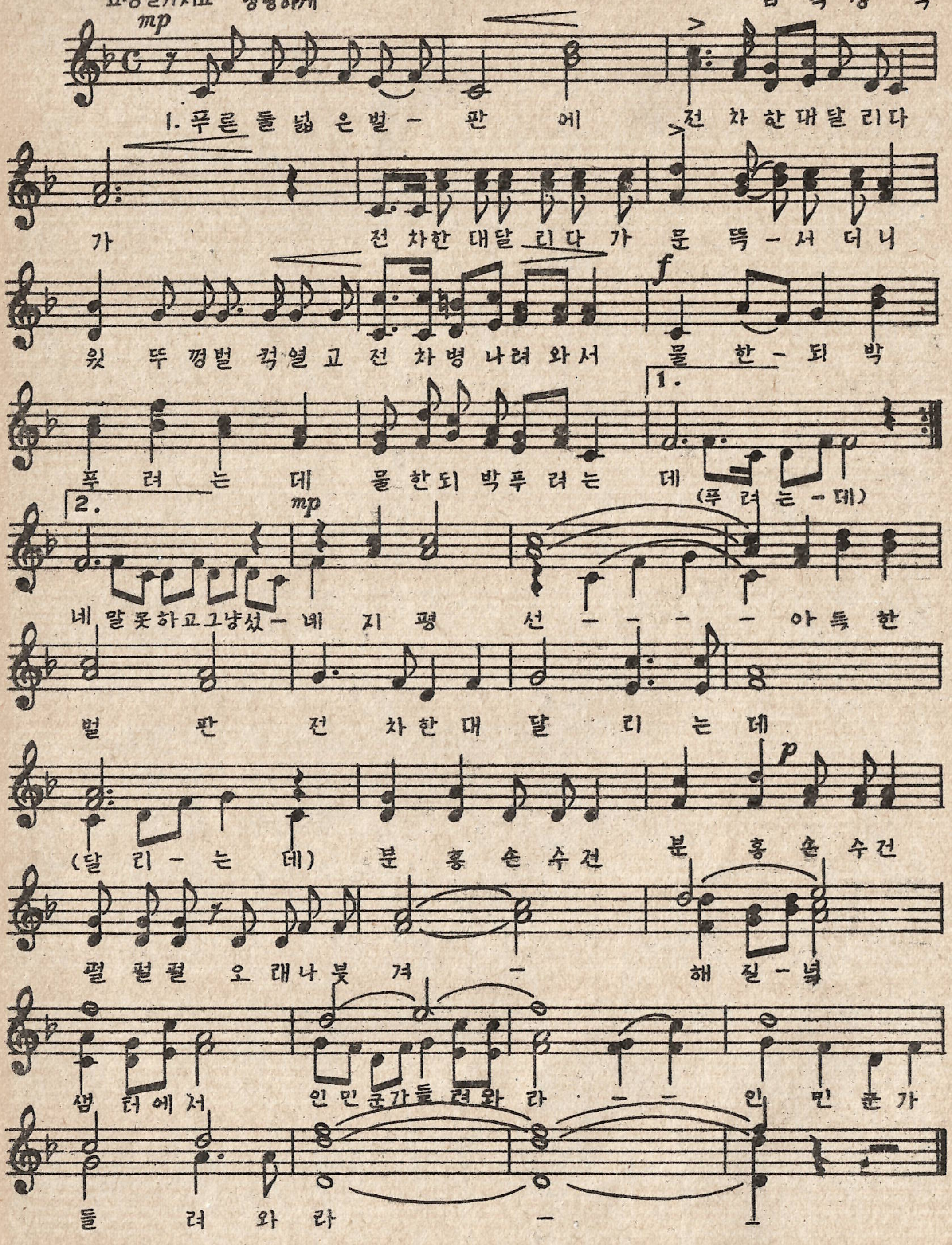


2. 바다에는 해안포가 꽈르릉 꽈르릉
오만한 해적선을 들부셔 놓고
쥐도새도 모를세라 깜쪽같이어뢰를내쏘니(어뢰를내쏘니)
적순양함 녹아난다 물속에꾸루룩
무너진 사령탑에 매달려 떠는꼴
—(후 렴)—

3. 하늘에는 우리제비 뚜루룩 뚜루룩
얄미운 쌕쌕이를 꿩차듯 잡고
어둠속에 엔징끄고소리없이목표를찾아서(목표를
찾아서) 원쑤들의 집결처에 명중탄솥으니
모조리 콩가루다 천당에 가거라
—(후 렴)—

전차병과처녀

신동철 시
김옥성 곡

표정을가지고 명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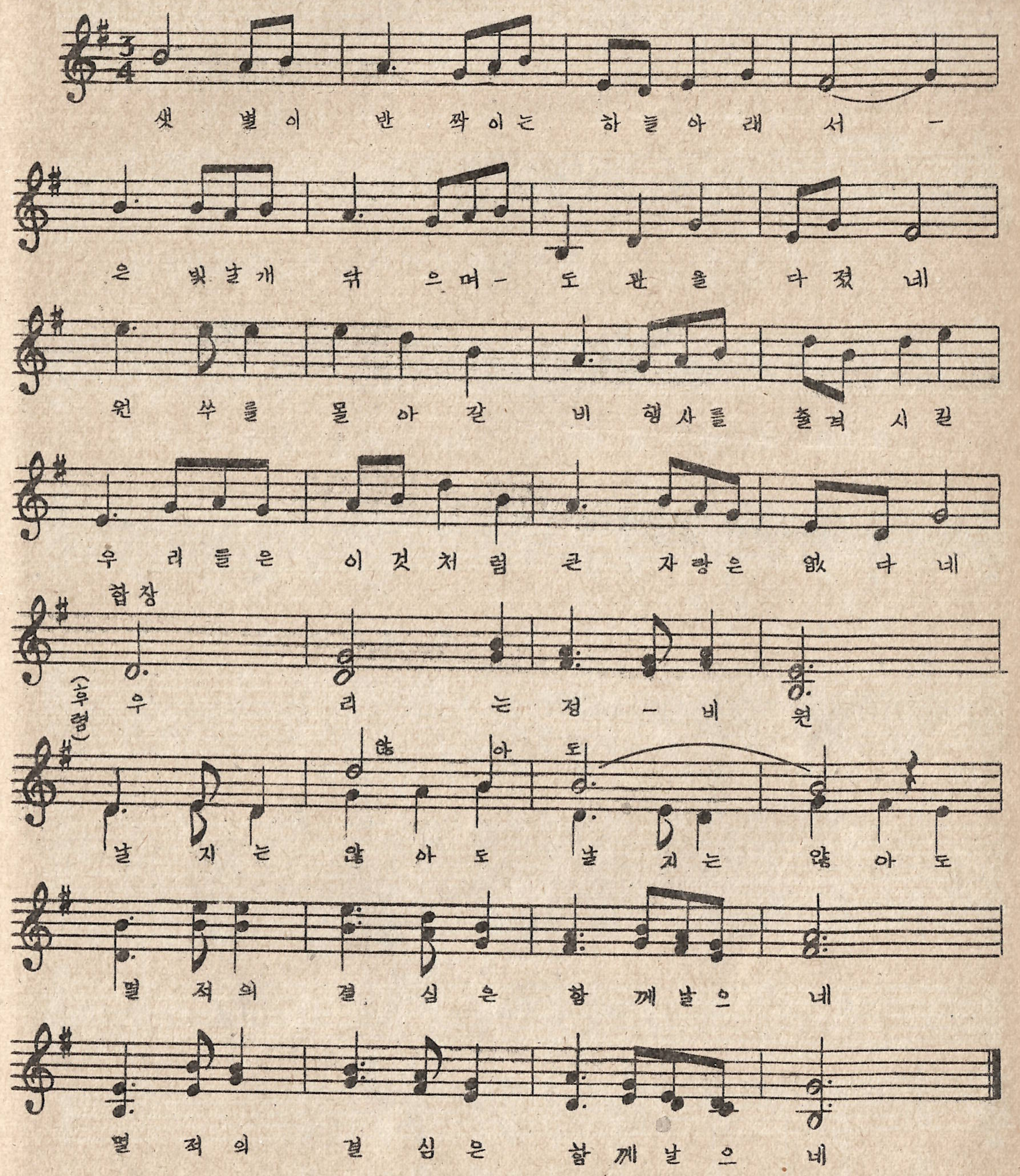


2. 박우물 맑은샘터에 마을처녀 나오다가
마을처녀 나오다가 깜짝 놀라네
그모습 틀림없이 소녀때 옛친구라
말못하고 그냥섰네 말못하고 그냥섰네
──(후 렴)──

비행기정비원의노래

마우룡 시
리면상 곡

유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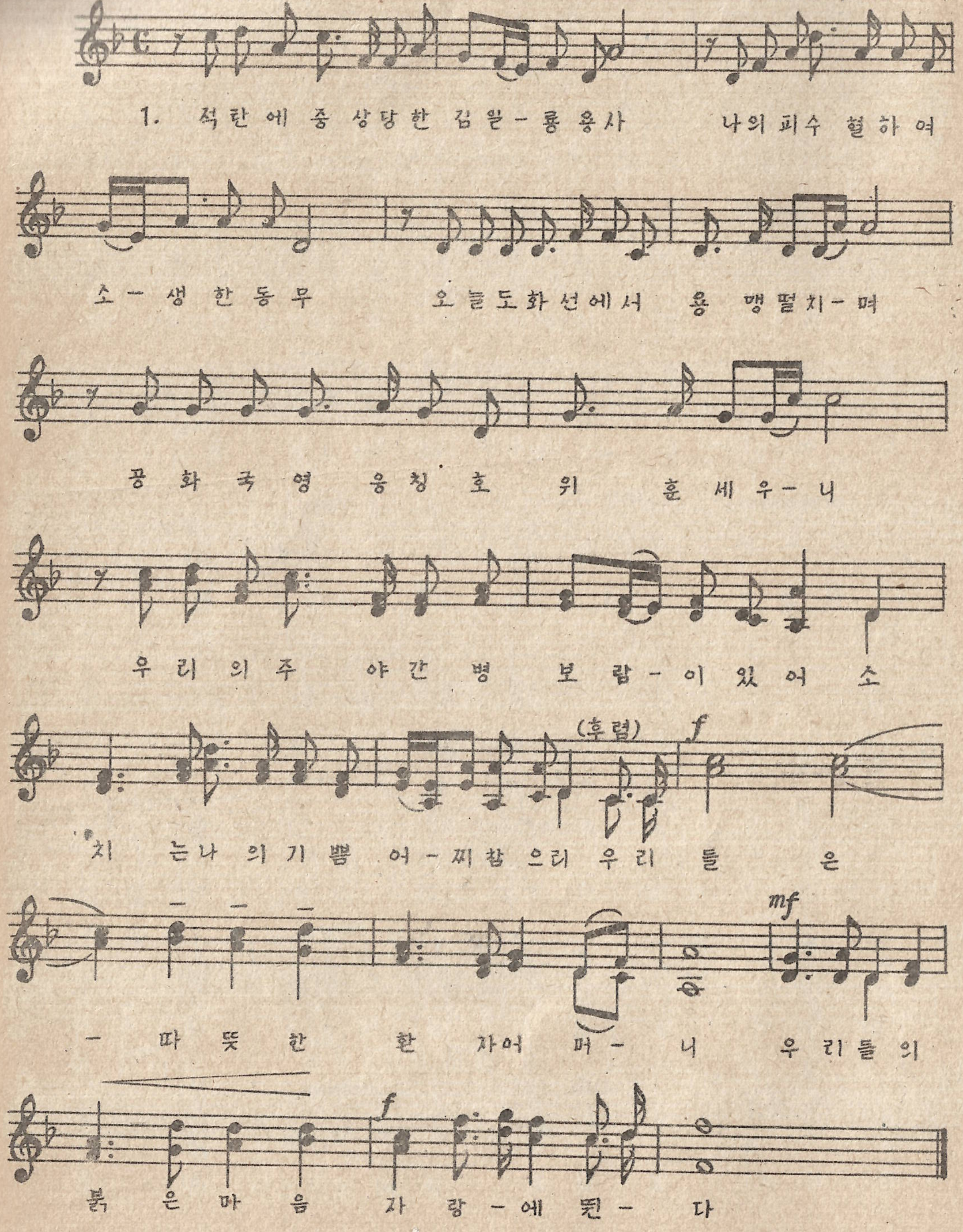
2. 눈보라치는 날도 비오는 날도
명중을 약속하는 폭탄을 실었네
원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쏟게하는
우리들은 이것처럼 큰자랑은 없다네
── 후렴 ──

3 우리가 날려보낸 젊은 매들이
원쑤를 떠러친 전과는 빛나네
붉은별 또하나 몸체에다 그리는것
우리들은 이것처럼 큰자랑은 없다네
── 후렴 ──

간호원의노래

석 광 희 시
윤 복 기 곡

보통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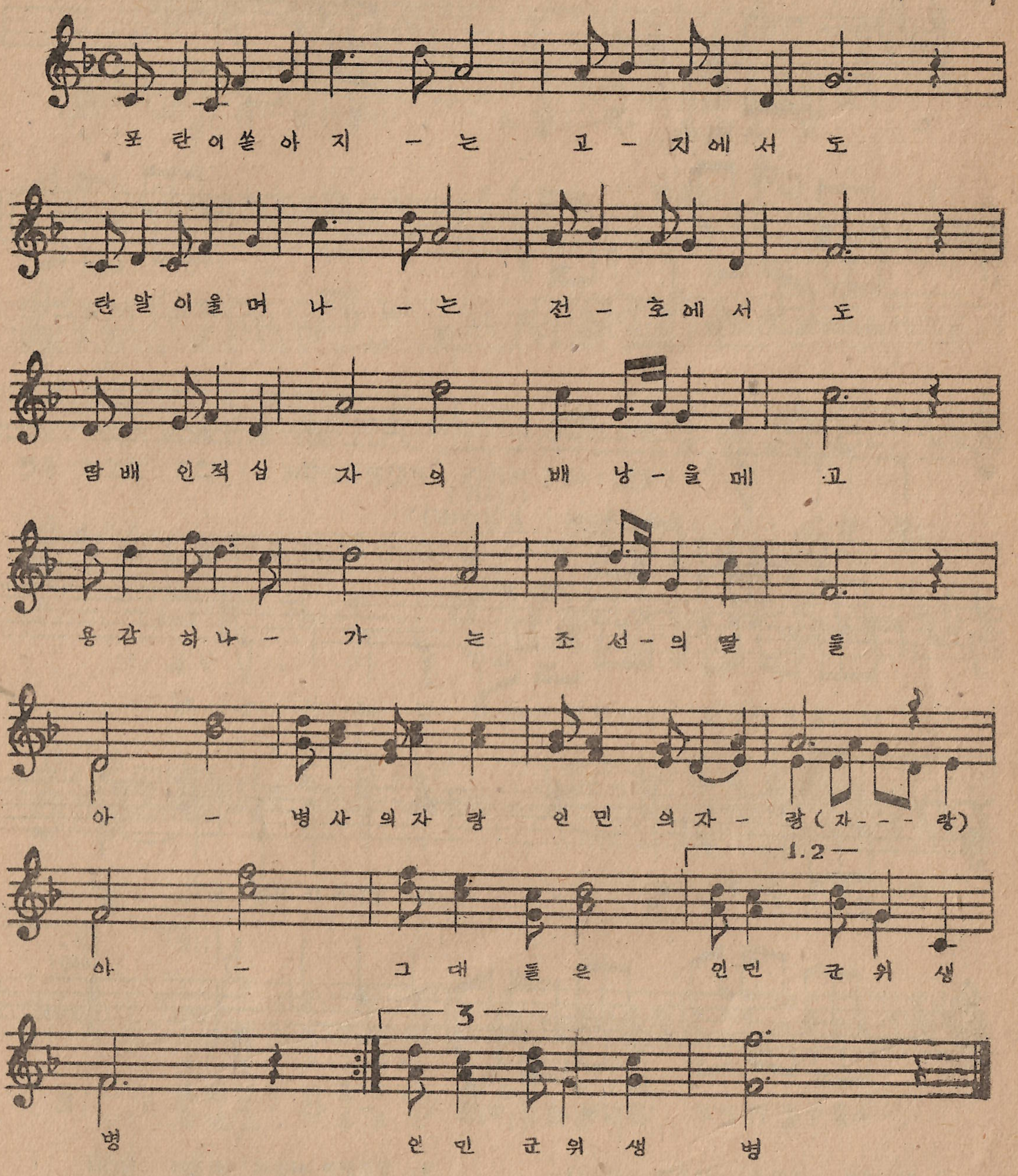
2. 고지에 덤벼드는 원쑤쳐물다
왼팔에 부상당한 지원군동무
달포의 병원생활 우정이 맺어
날보면 동무동무 수고한다고
서툴은 조선말에 시늉이절반
어머니 동생들의 사진뵌다네
——(후 렴)——

3. 용감히 싸우리라 맹서다지며
부대를 찾아떠난 오호실동무
포연내 풍기우는 조각종이에
적기를 다섯대나 사냥했드니
장군님 축하문을 보내셨다고
큼직한 주먹글로 편지왔다네
——(후 렴)——

우리위생병

리 효 운 시
김 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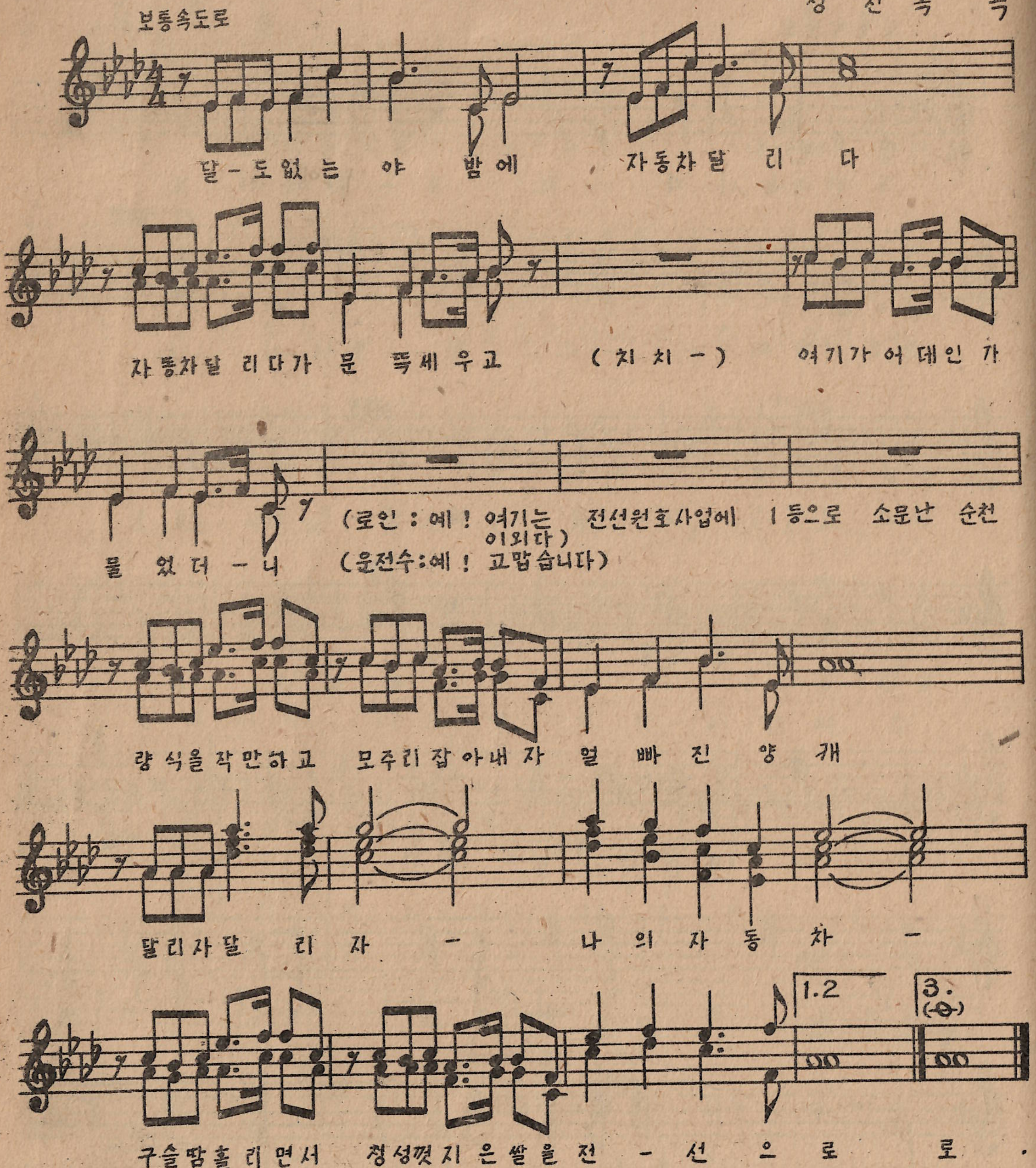
보통속도로



2. 무더운 병동속에 노래들으며
뜨거운 가슴속에 나래를펴고
또다시 일어나는 전사의곁에
언제나 아름다운 우리는위생병
—— 후 렴 ——

통쾌한운전사

심봉원 시
정진옥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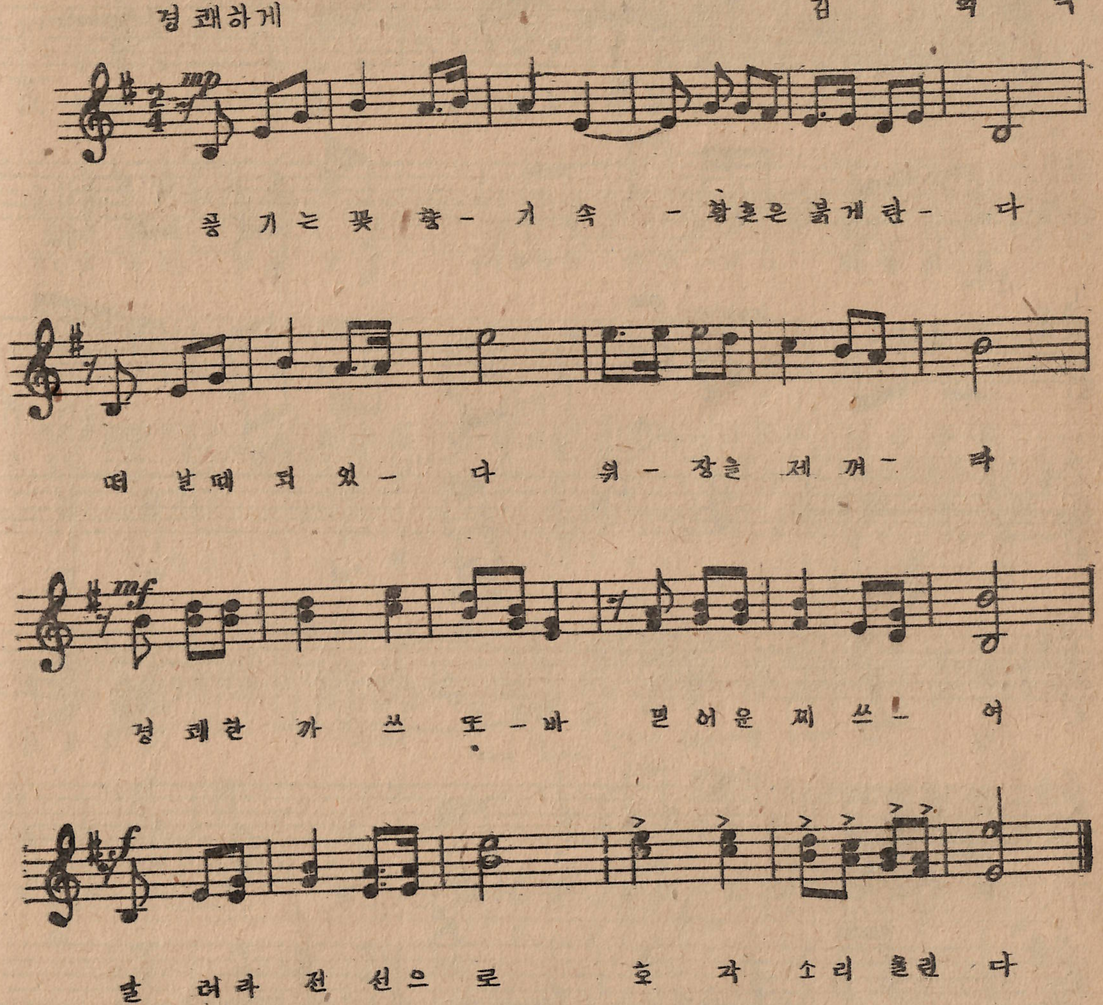


2. 달도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리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뚝 세우고
여기가 어데인가 물었더니
「예 ! 여기는깜둥이 양개들이 멸망한 양덕고개라우」
「예 ! 고맙습니다」
깜둥이 양개들이 땅에다키쓰하며 발버둥친다
달리자 달리자 나의자동차
처녀의 정성어린 장갑을 솜옷을 , 전선으로

3. 달도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리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뚝 세우고
여기가 어데인가 물었더니
「네 ! 여기는월가의 상인들이 막녹아난 유명한
신고산 벌판이예요」 「오냐고맙다」
월가의 상인들이 주머니밑빠졌다 조선전쟁에
달리자 달리자 나의자동차
길아닌 길을찾아 포탄을 실은차를 전선으로

달려라전선으로

김제하 시
김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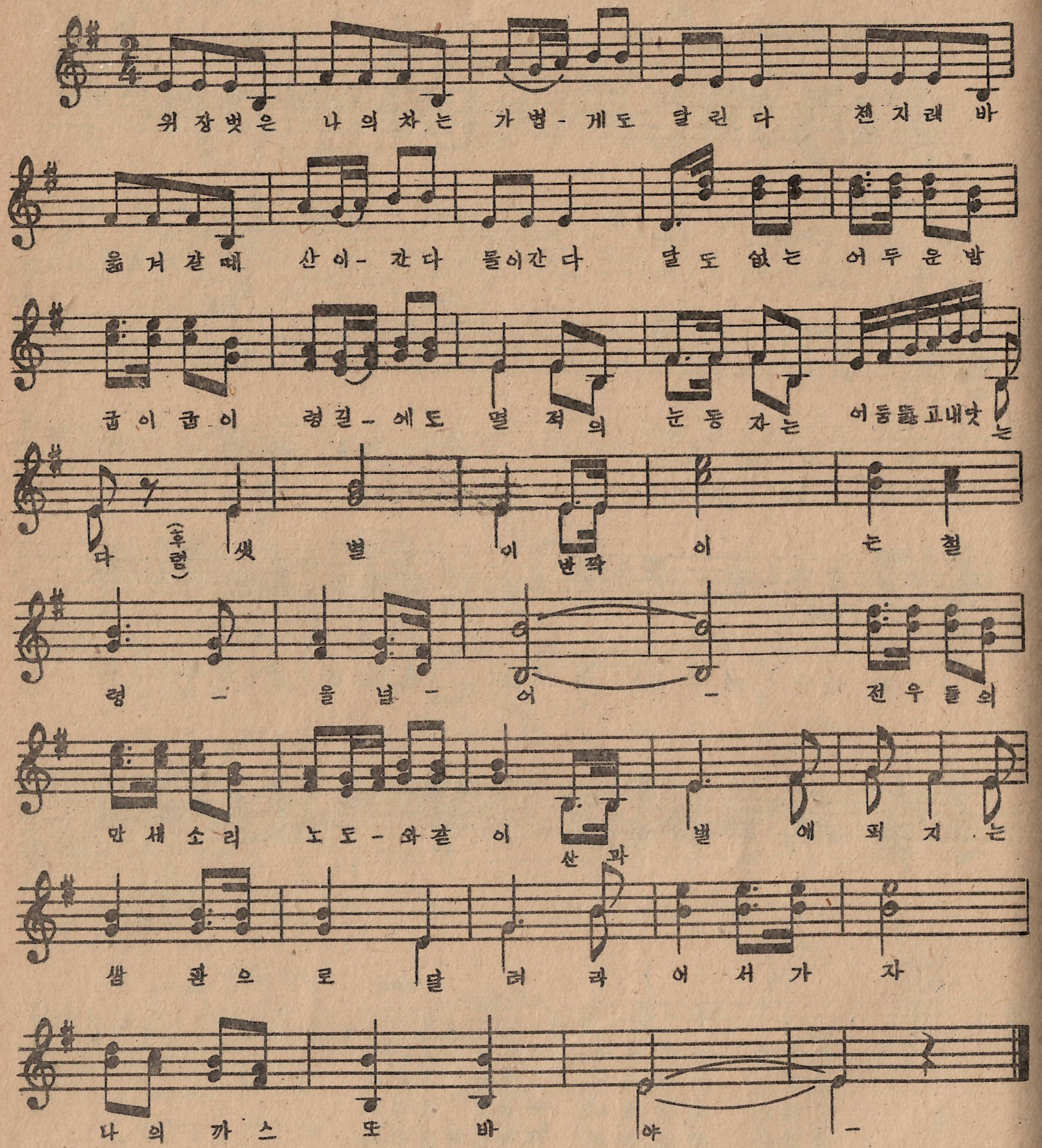


2. 조명탄 불빛아래 시한탄 터져도
전우는 기다린다 질풍같이 달려라
길없는 길을찾아 핸들을 돌리며
이밤도 무사고로 계획넘쳐 달리자

3. 천리길 굽이굽이 지축을 울리며
줄기찬 기관소리 속도계는 오른다
승리의노래높이 전선으로 달리자
우리는 빛나는 공화국의 운수대

운전사의노래

김 상 기 시
박 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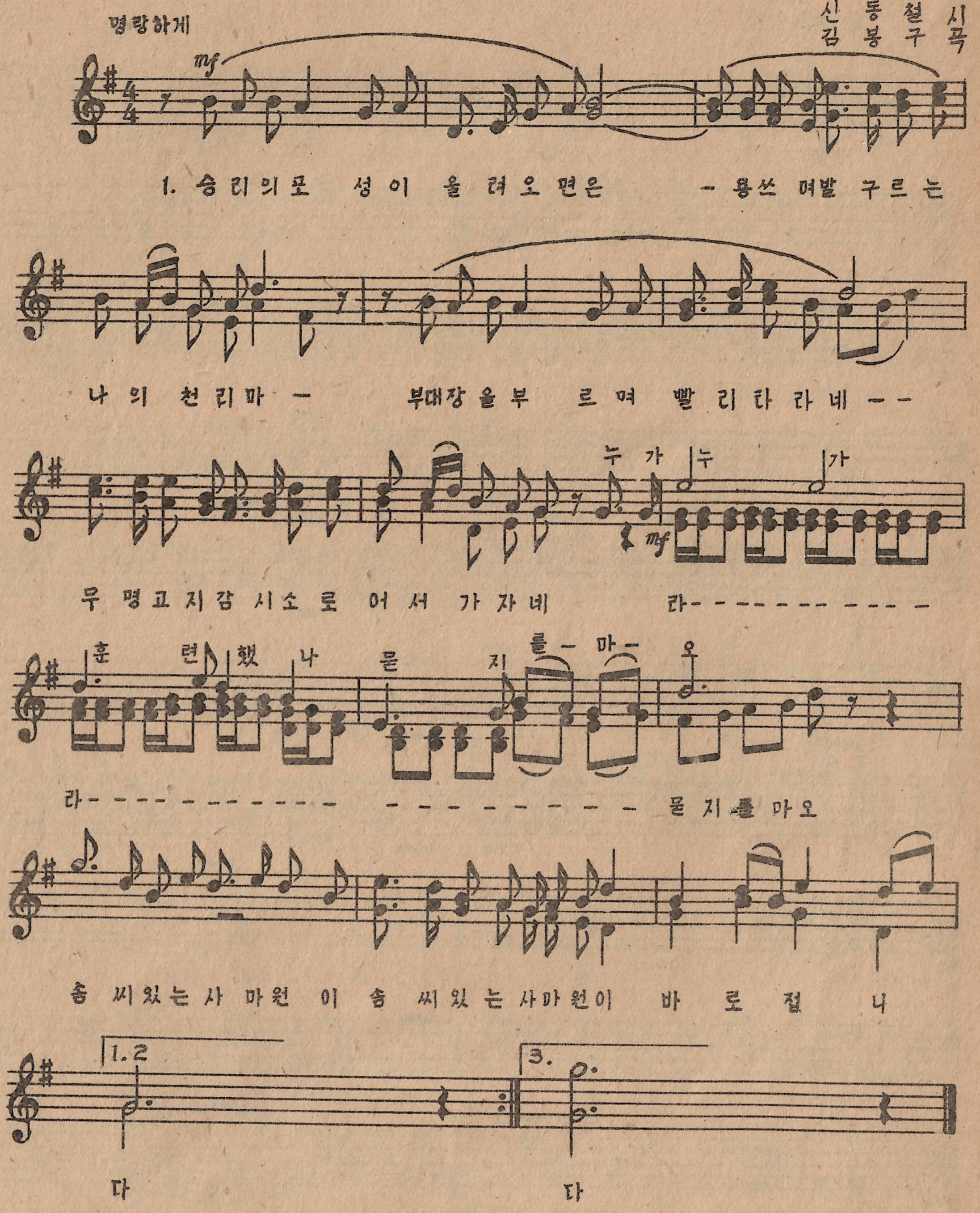


2. 공중비적 날강도가 조명탄을 걸어도
악쎄래타 밟으니 별이돈다 달이돈다
안개낀 령 칼을 톺으로 치달리는
승리의 포탄차는 쉬지않고 달려간다
— 후렴 —

3. 구락숑이 운다울어 찌스까스 어거갈때
수고하오 씽구메유 친선의말 꽃이핀다
조중친선 단결의길 막을자가 그누구냐
정의의 싸움터로 어서가자 달려가자
— 후렴 —

사마원의노래

신 동 철 시
김 봉 구 곡



2. 어둔밤 숲속을 몰고가다가
원쑤의 정찰병 만나 잡긴했으나
부상으로한주일 입원 했더니
천리마는 슬금슬금 찾아 왔다네
말못하고 글모른다 얕보지 마오
쉬잇! 눈치빠른 나의말은 인정꾸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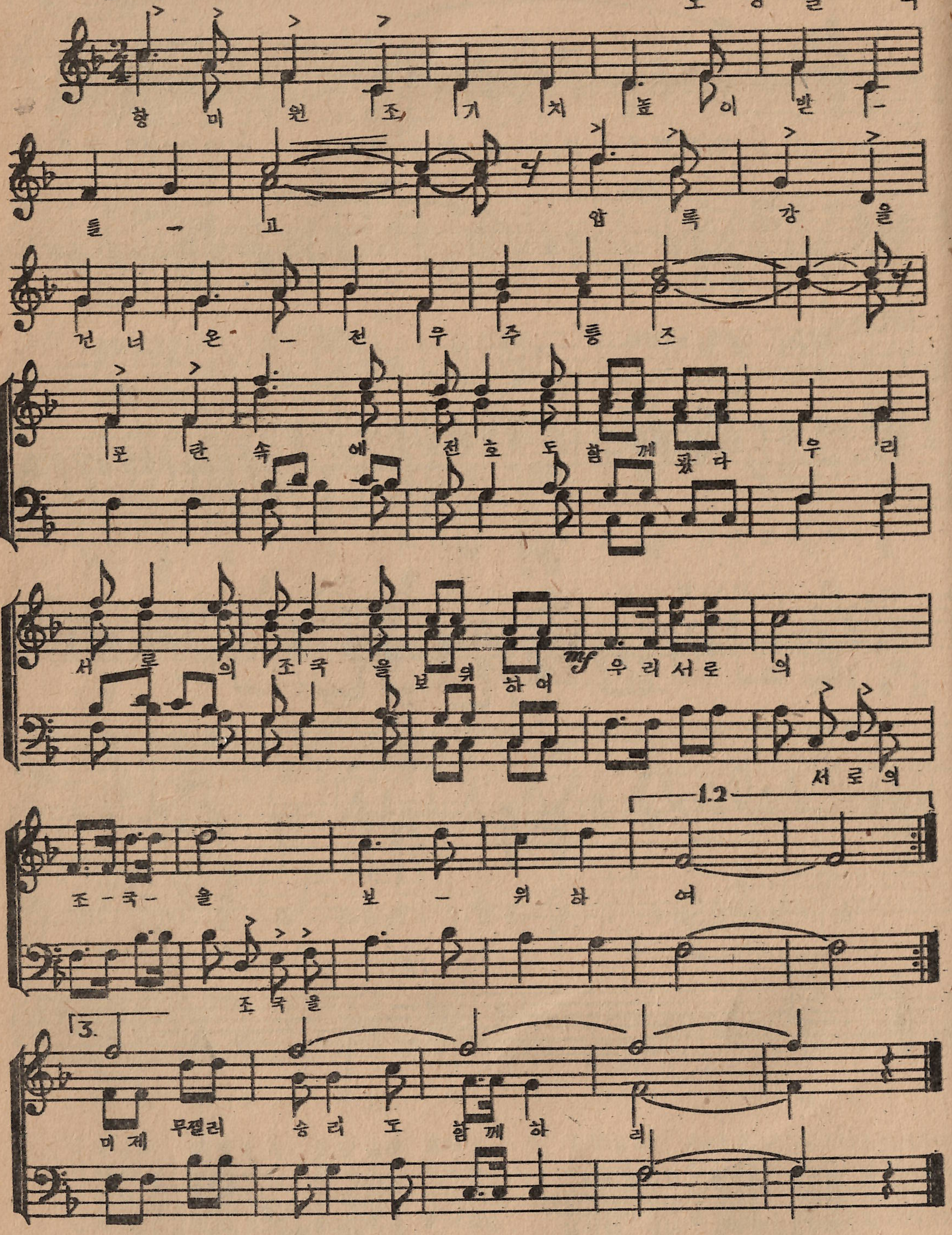
3. 천리마 밤마다 꿈을꾼다네
승리의 열병장을 달려보는꿈
콧잔등과 긴목을 만져 주면은
버릇없이 앞발들고 히롱 하자네
우리들은 모든고난 겪어내면서
화선천리 달려달려 싸워간다네

전우주룽즈

(남성중창)

리선을 시
모영일 곡

좀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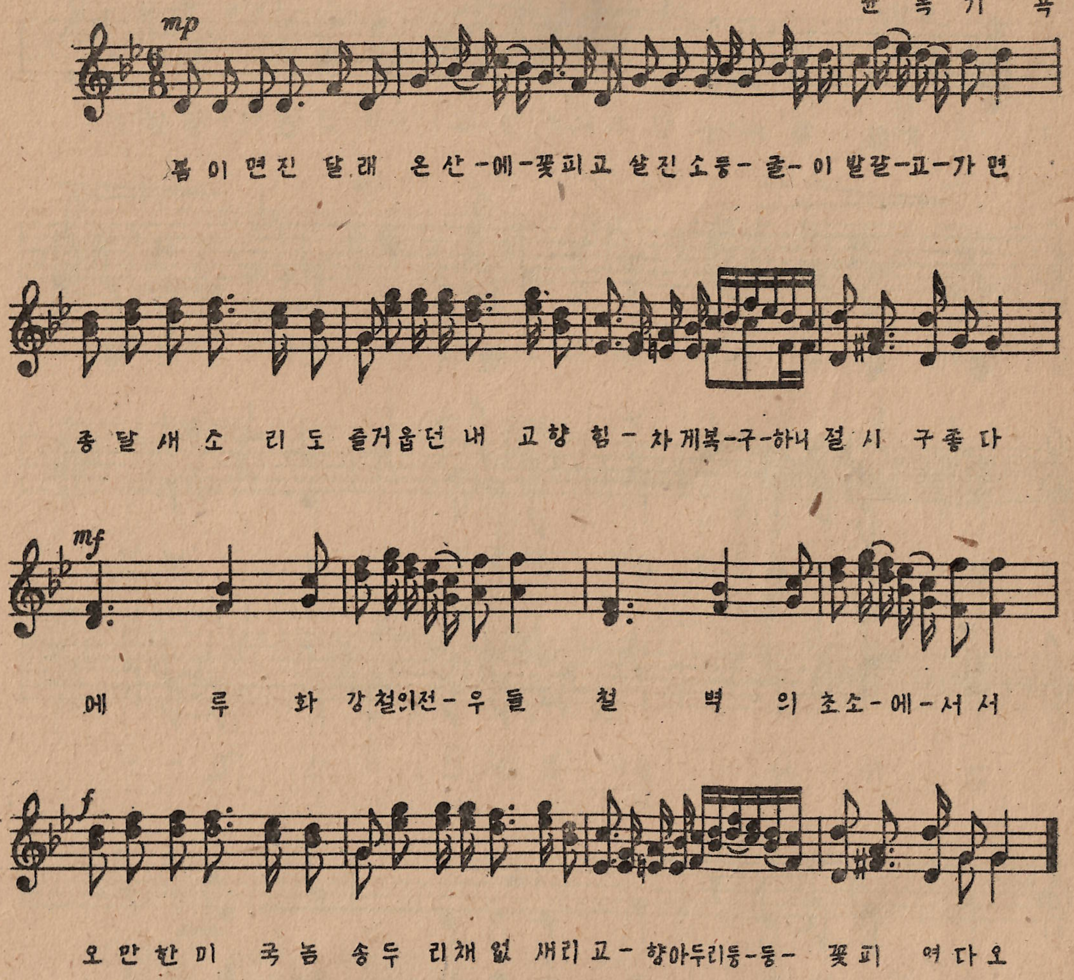
2 적의땅크 단숨으로 까부시고
진격로를 보장한 전우주룽즈
철조망품어 화점도 함께쳤다
우리서로의 원쑤를 갚기위해

3 자유 평화깃발 높이날리여
서로의 조국을 지켜선 전우주룽즈
미제 무찔러 승리도 함께하리
우리서로의 청춘을 자랑하며

고향의노래

보통속도로 즐거웁게

신동철 시
윤복기 곡



2. 해풍에 설레는 보리밭 긴이랑
회망의 노래를 부르고 가면
청춘의 태양도 아름답던내고향
빛나게 세운다니 절시구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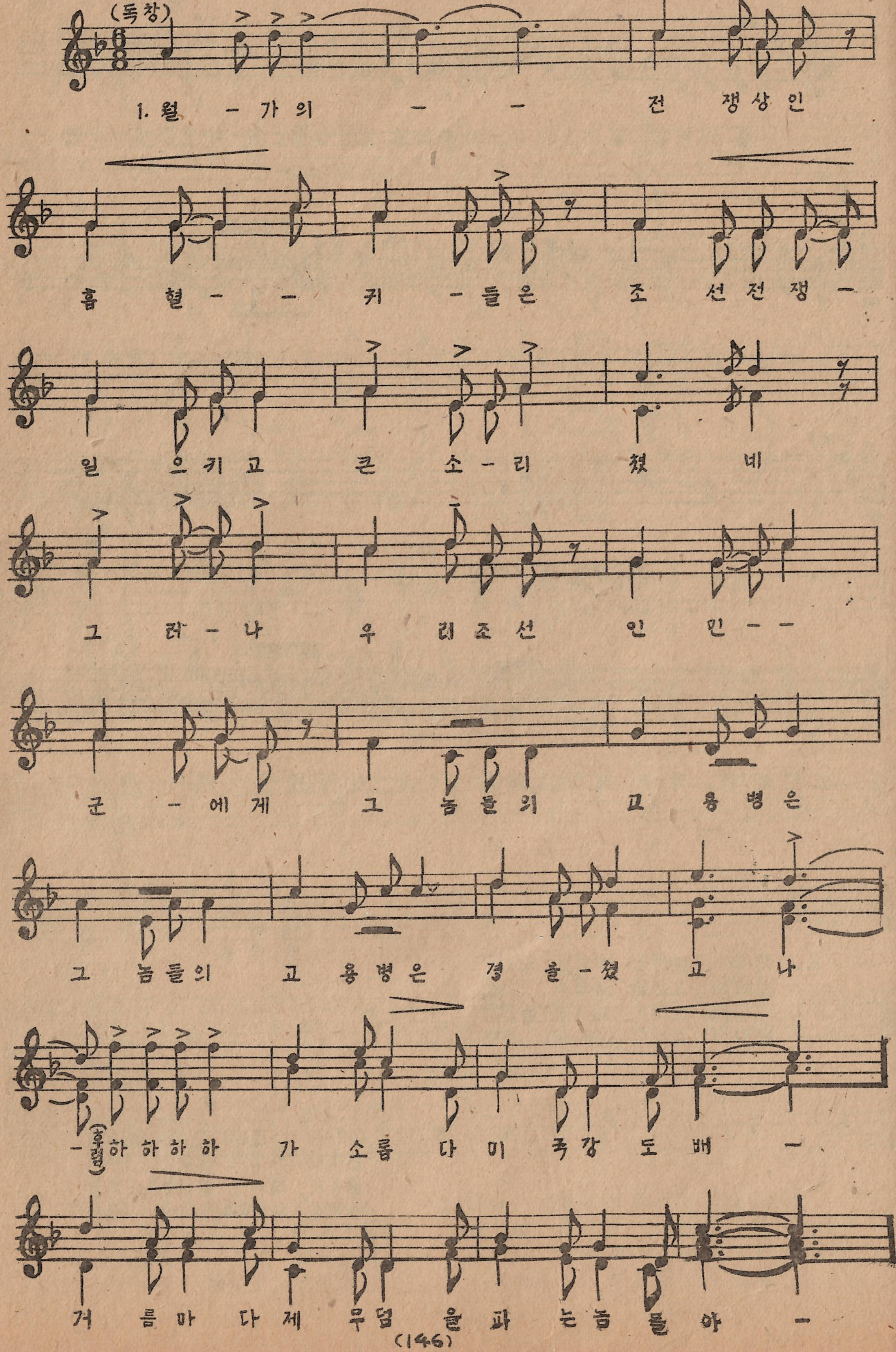
3. 온마을 다토아 타작이 끝나면
헌물세 싣고서 춤추고 가니
원등의 경사난 살기좋은내고향
증산을 자랑하니절시구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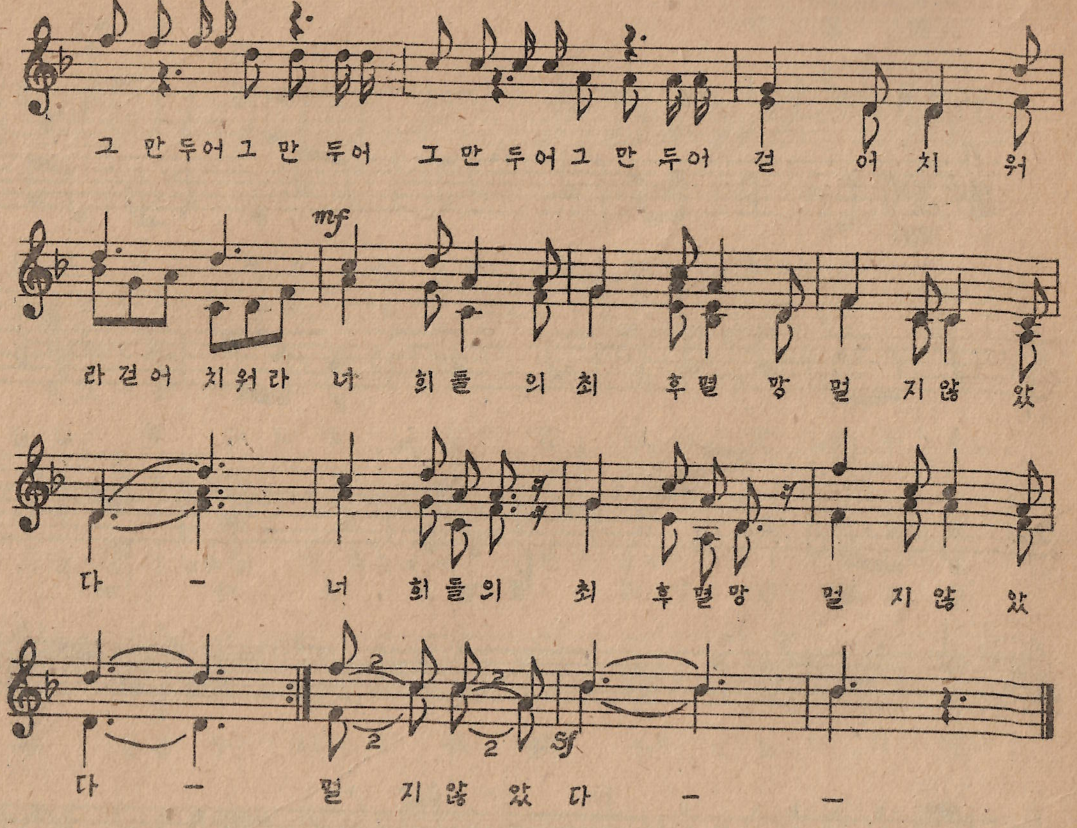
미 국 강 도 배

(남성중창곡)

조 령 출 시
모 영 일 곡

풍자적으로





2. 페스트 코레라의 세균탄으로
우리조선 정복하려 발악했으나
그것도 수치스런 놈들의참패
트르멘도 손을들고 물러났고나
——(후 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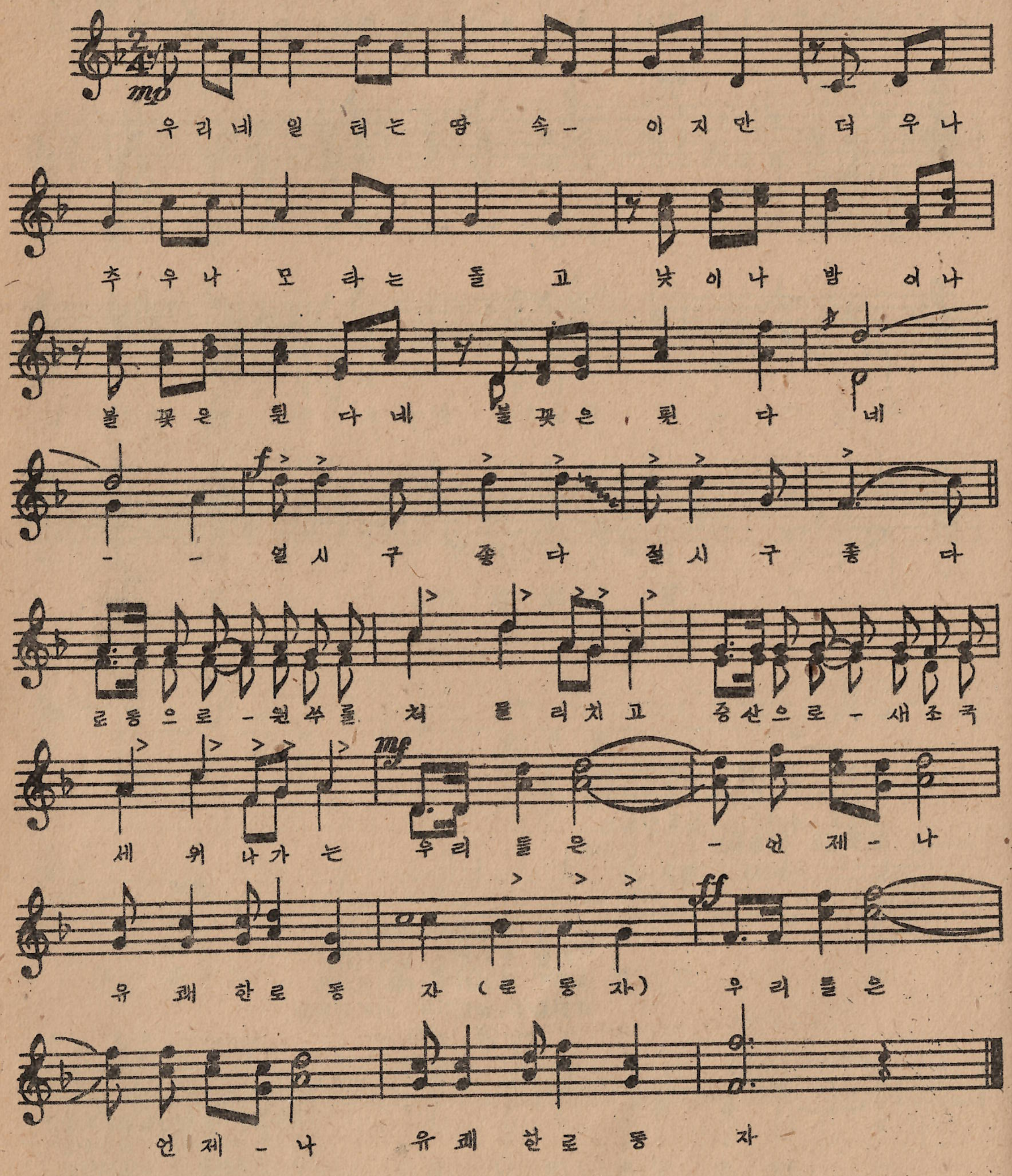
3. 자유를 떠들면서 착취와억압
평화를 말하면서 침략의불길
새전쟁 방화자야 어디로가랴
너희죄상 백일하에 어이감추랴
——(후 렴)——

4. 력사의 돌아가는 수레바퀴에
제국주의 강도들은 없어질뿐건
그래도 세계제패 꿈을못잊어
아이젠하워를 또내세웠네
——(후 렴)——

유쾌한로동자

김홍 시
김혁 곡

명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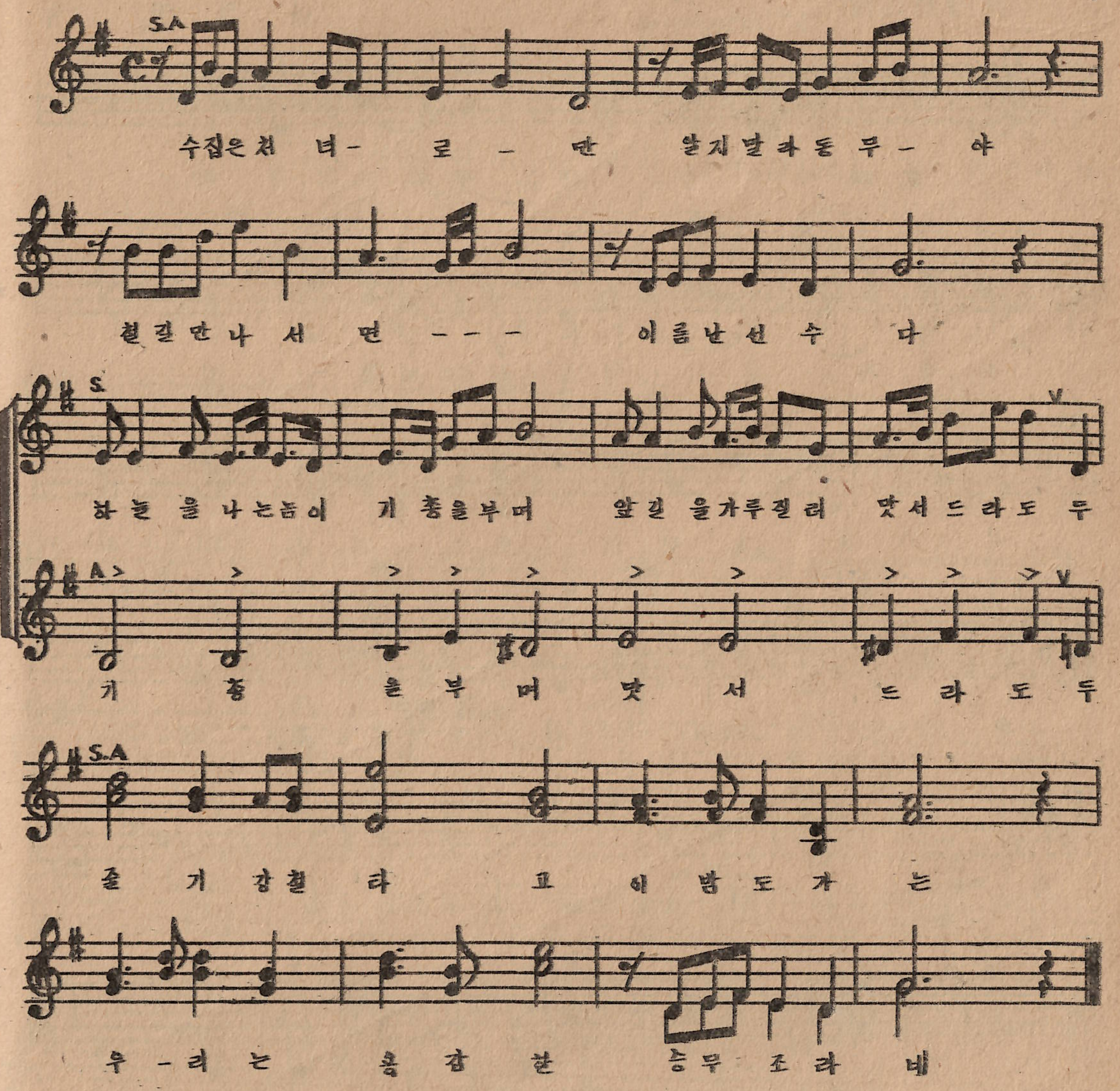
2. 우리네 일터는 우슴과 노래
되대나 소리에 장단을 맞추어
망치로 북치듯 철판을 친다네
—— 후렴 ——

3. 우리네 일터는 자랑도 많다
가슴에 금별단 증산의 영웅들
오늘도 전파는 승리로빛나네
—— 후렴 ——

녀성승무조의노래

고석상 시
박용필 곡

경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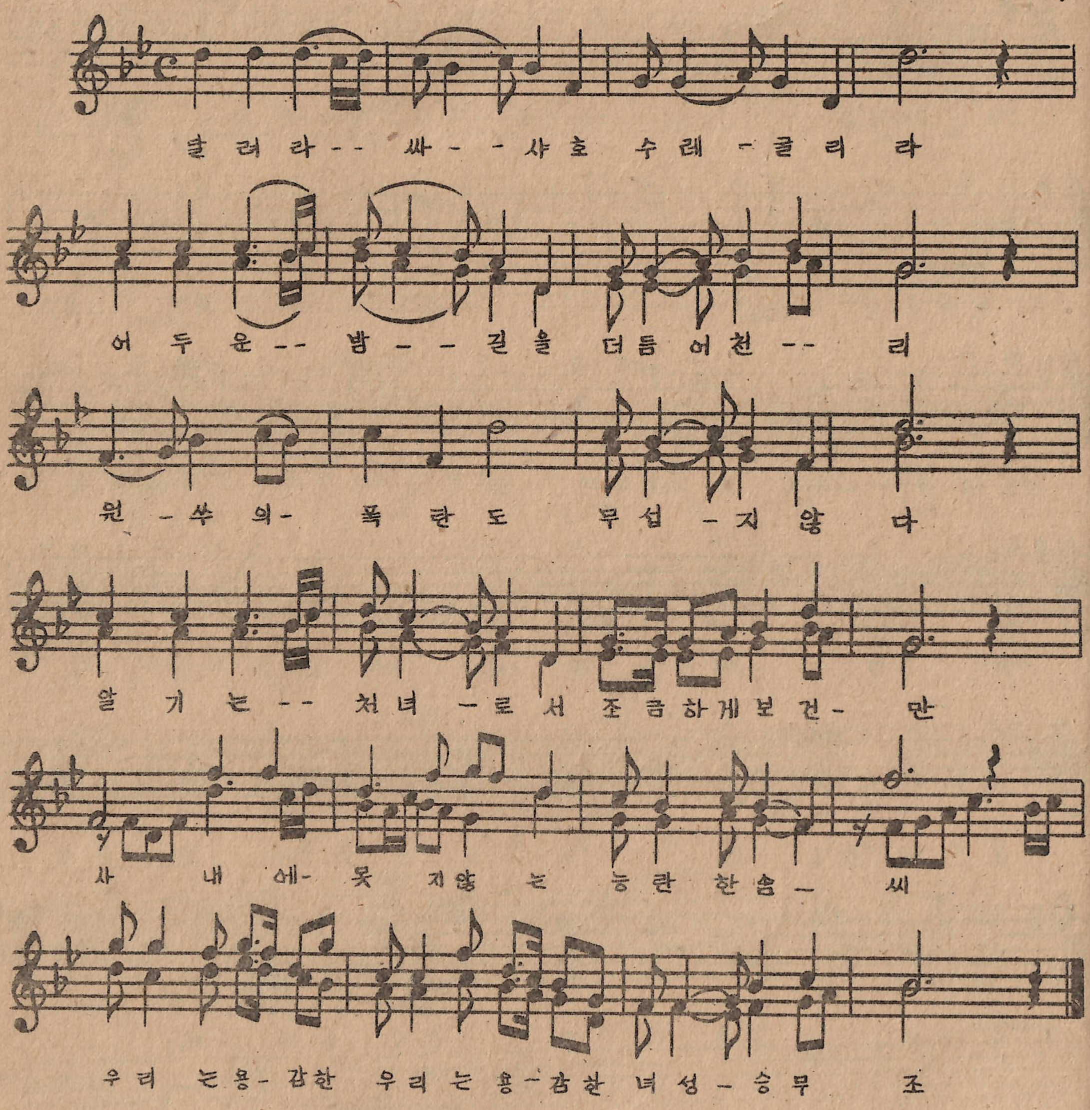
2. 성급한 동무동무 그런줄은 몰랐네
아무리 험한길도 손쉽게갈줄
중송의 용맹떨쳐 달리는철길
원쑤의 총탄알 비오듯해도
철길을 바로잡아 곧장나가는
초록색 신호등 불빛은곱다

3. 푸른등 바로보면 내가슴이 뛰는데
날보면 동무들이 왜그리상화나
서로가 돌보면서 다만 앞으로
청춘의 그사랑 조국을 위한
무사고 초과수행 신참에 넘는
쉬일줄 모르는 승무조 라네

싸-샤녀성호의노래

고 석 상 시
리 정 언 곡

명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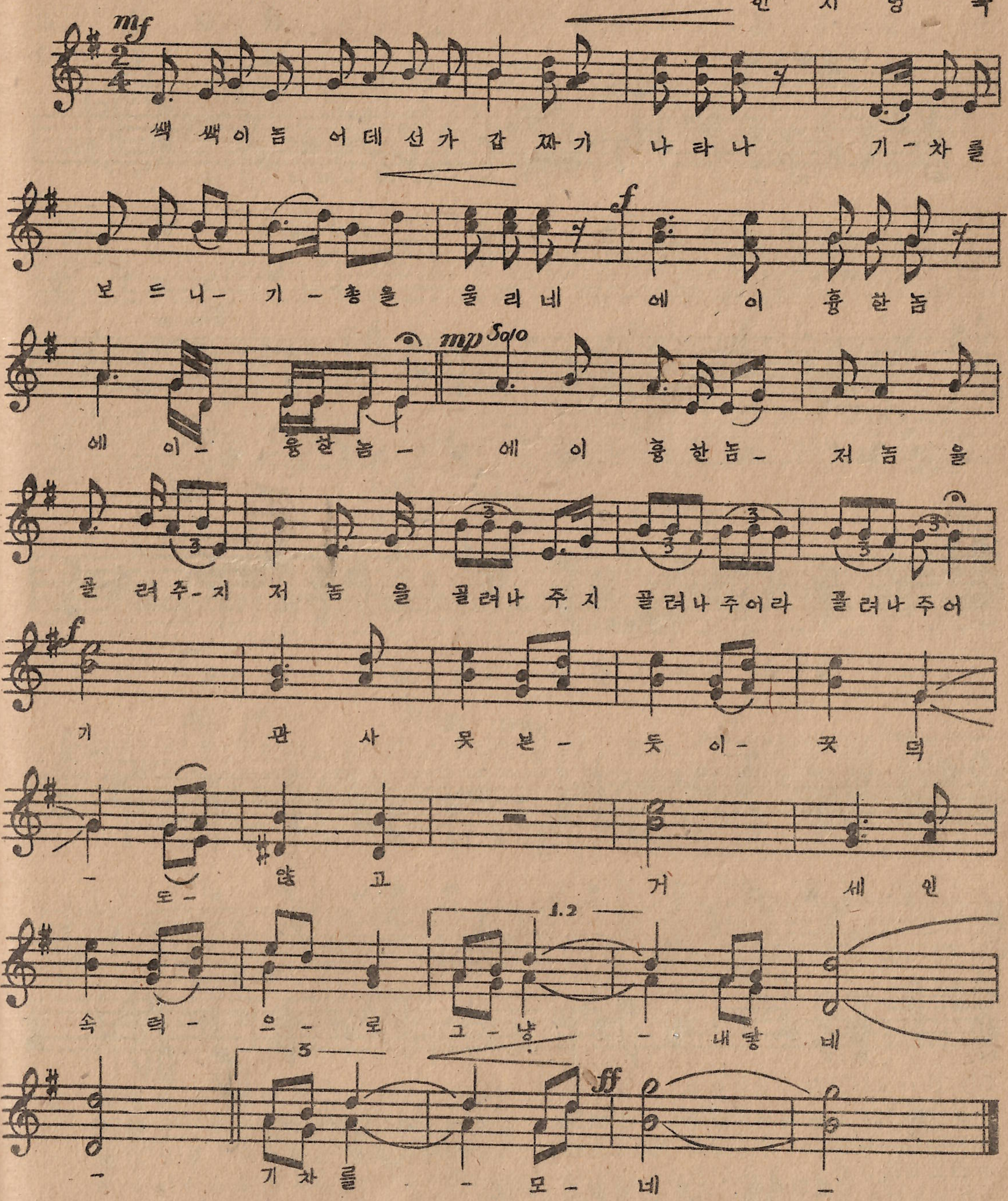
2. 달려라 싸-샤호 고동놀여라
포화속 운전으로 싸-샤와같이
어떠한 위험도 쓸데가없다
원쑤를 때려부실 총알만은언제나
분초가 지체된적 한번도없다
우리는 용감한 우리는 용감한
녀성승무조

3. 달려라 싸-샤호 지축울리라
무사고 주행을 달려서왕복
이전만은 원쑤도 끊지못한다
앞길을 가로질러 맞서오는놈
지상의 기술로써 싸움해이긴
우리는 용감한 우리는용감한
녀성승무조

씩씩이와기관사

최 창 섭 시
한 시 형 곡

빠르고 씩씩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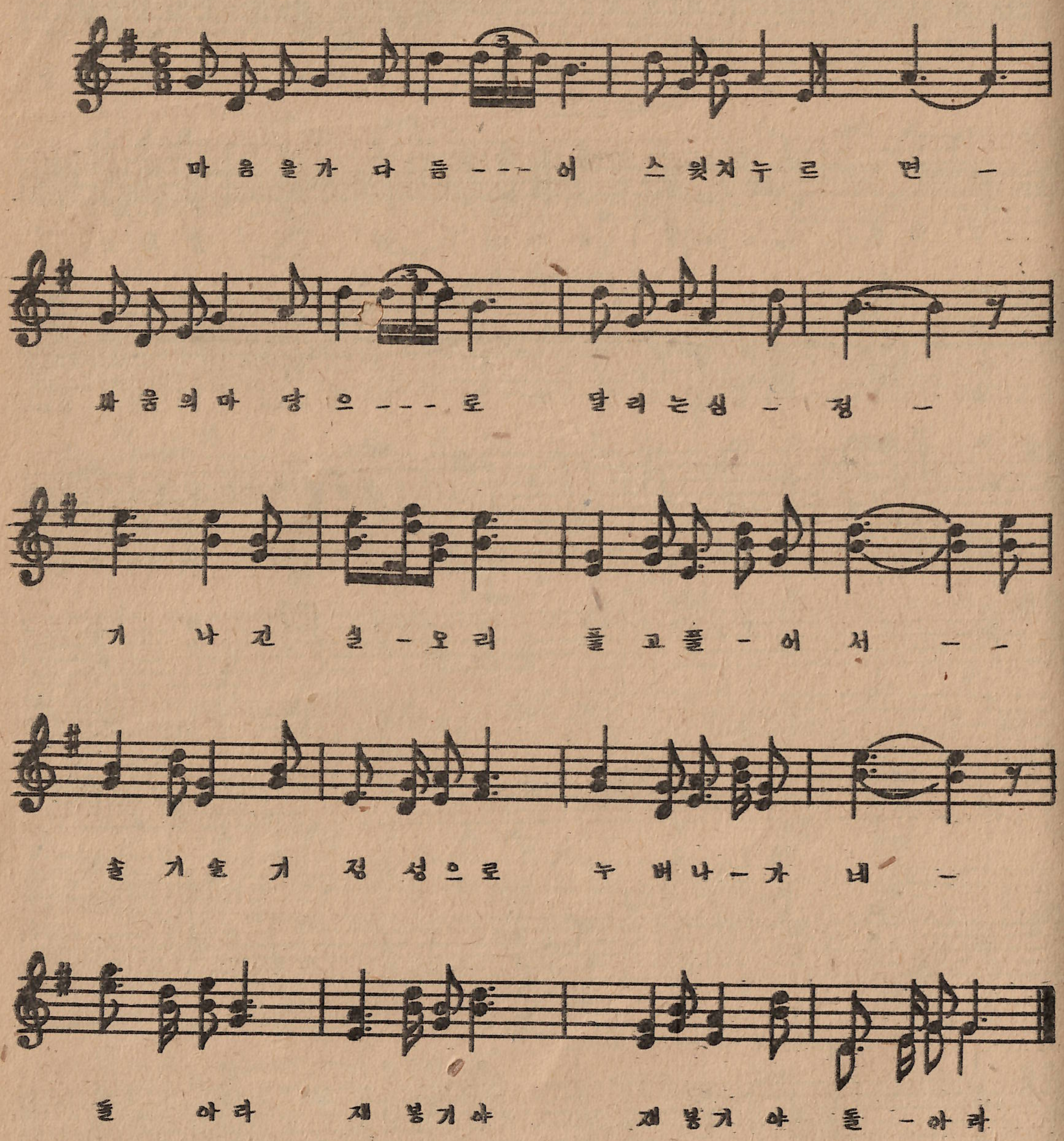
2. 씩씩이놈 분한듯이 다시금 떠들어
로케트 포화를 내려 번지네
에이 바보놈 에이 바보놈
에이 바보놈 어디로를갈기나
어디로를 갈기나 어디로를갈기나
기관사 부레-키를 힘주어 잡고
쏜살같이 굴을향해 리바를 당겼네

3. 씩씩이놈 미칠듯이 쏜살로 내려꽂다
전선줄에 코박고 산산히 깨졌네
에이 청맹간이 에이 청맹간이
에이 청맹간이 골탕을 먹었구나
골탕을 먹었구나 골탕을 먹었구나
기관사 번개같이 두름을 잡아
오늘도 무사고로 기차를 모네

돌아라 재봉기야

서 준 길 시
배 무 곡

보통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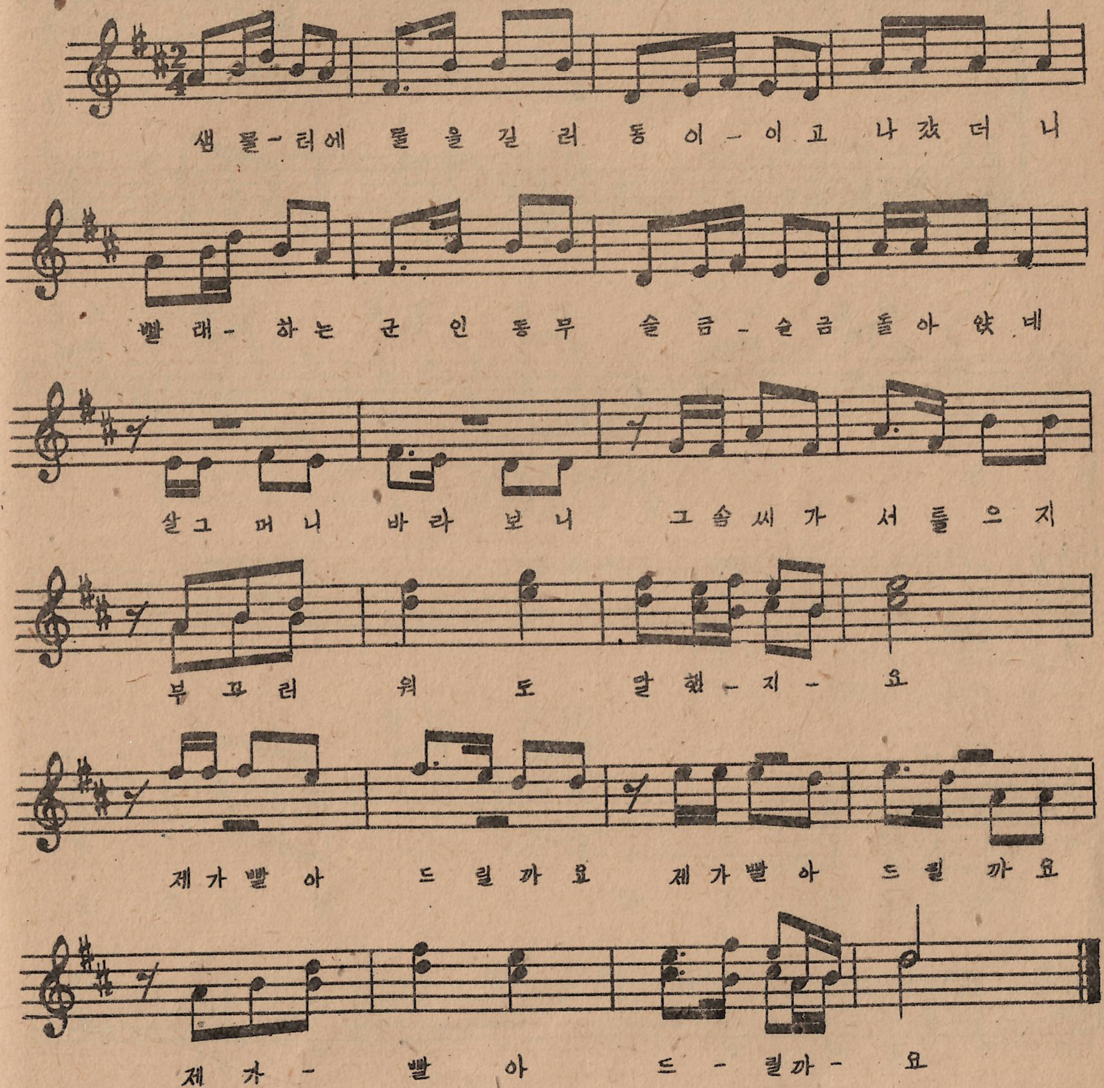
2. 알뜰히지은 군복 정성의 선물
싸우는 용사들께 보내드리면
얼마나 그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이들은 알아보리 우리의마음

3. 오늘도 책임량을 넘쳐누비는
우리가다 우리는 로력전사들
원호의 붉은마음 꽃으로피는
즐거워라 우리공장 우리의열려

샘물터에서

(녀성중창)

최 로 사 시
윤 승 진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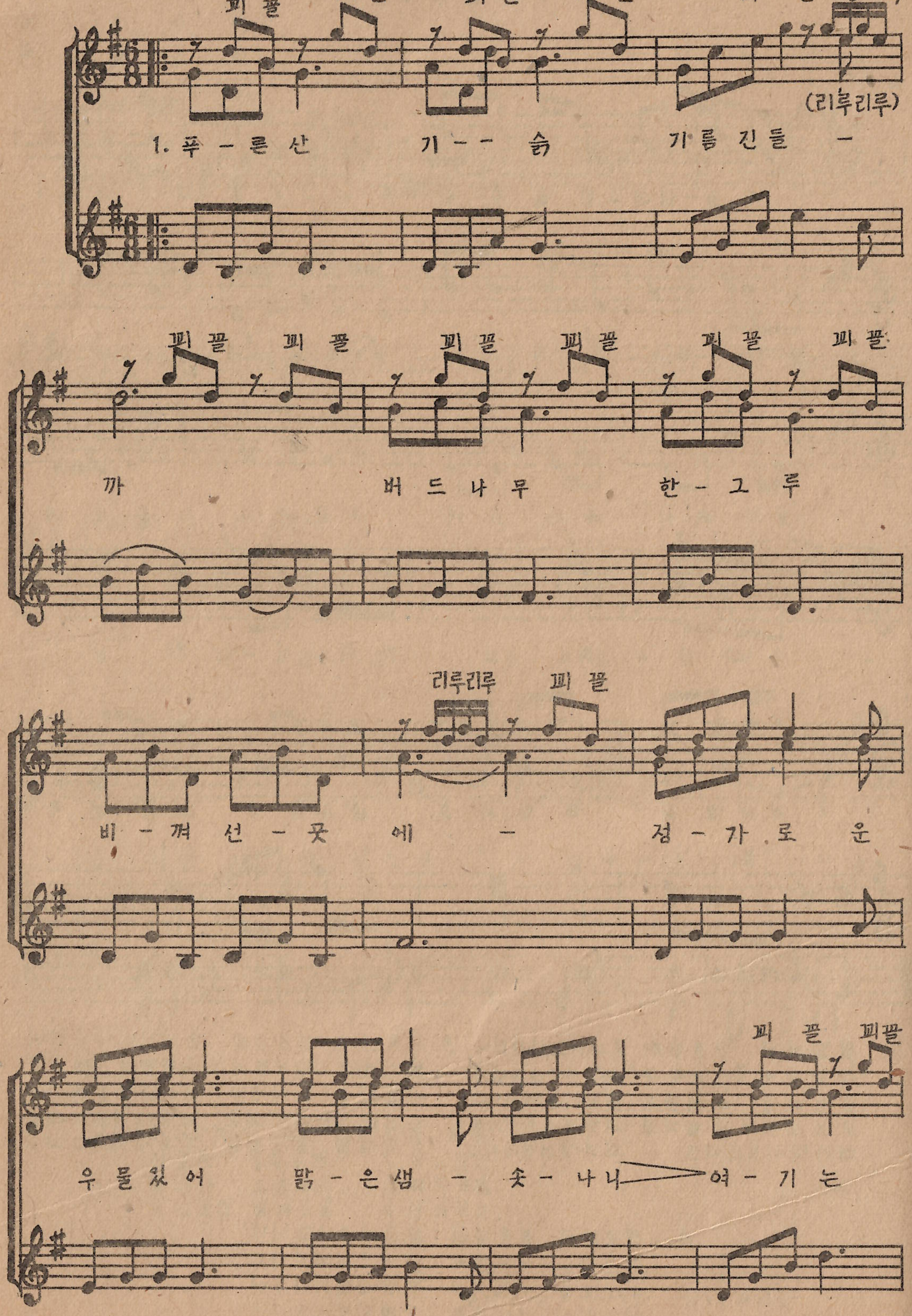
2. 샘물터에 물을길러 동이이고나갔더니
식사당번 군인동무 쌀씻으로나왔겠지
물동이를 내려놓고 쌀함지를빼았으며
부끄러워도 말했지요 제가씻어드리지요
제가씻어드리지요 제가씻어드리지요

3. 샘물터에 물을길러 동이이고나갔더니
낯이익은 동무들이 나를둘러 싸겠지요
아름다운 처녀동무 노래하나불러주오
부끄러워도 불렀지요 노들강변봄노래를
노들강변 봄노래를 노들강변봄노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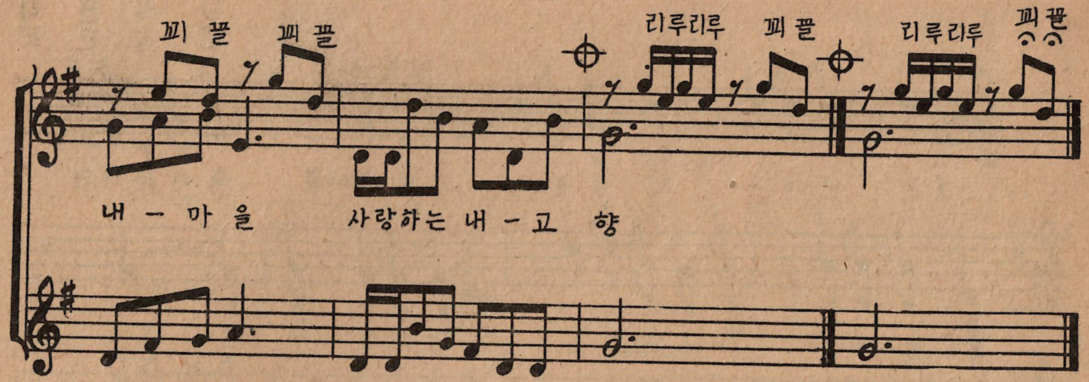
4. 샘물터에 물을길러 동이이고나갔더니
정들은 동무들이 전선으로떠난다죠
허둥지둥 우물가에 진달래꽃꺾어주며
거듭하여 부탁했죠 승리의날또오세요
승리의날 또오세요 승리의날또오세요

봄 노래

리 서 향 시
리 면 상 곡



(154)



2. 이끼덮인 바위틈에 샘솟는이물
그옛날 을지장군 싸움터에가시다
마른목 축이시고 이우물을파셨나니
여기는 내마을 사랑하는 내고향

3. 옛이야기 자랑스런 이우물가에서
마을을 이여가고 젊은이는자랐고
오늘은 그이도 싸움터에가셨나니
우리도 물긷고 밭갈이 어서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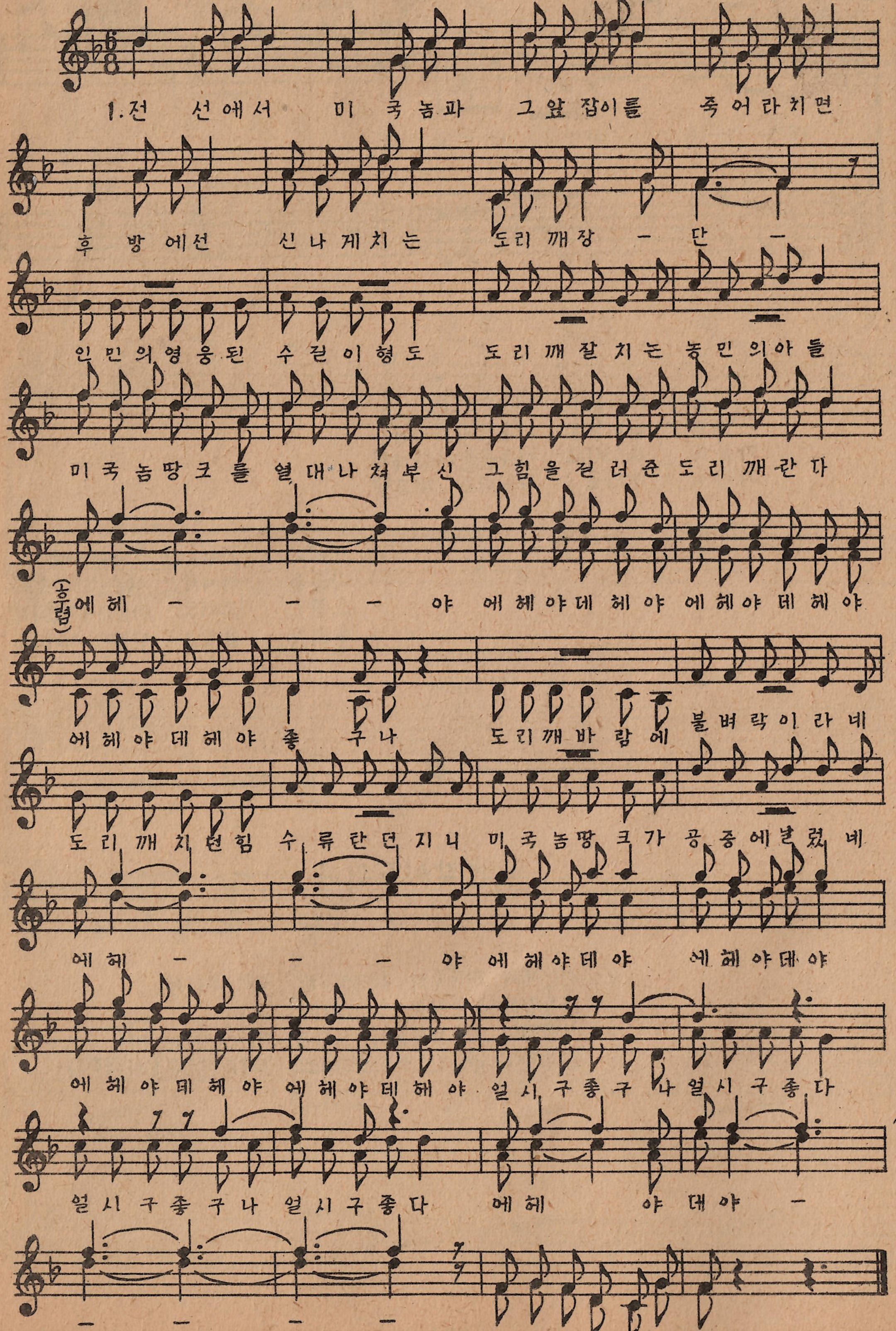
풍년맞이도리깨

2. 전선에서 제국주의 침략의무리 때려부시면
자유평화 부르짖는 도리깨가락
이땅의 많은낟알들이 도리깨거쳐야 식량이된다
원쑤를 몰아친 인민군부대의 군량을만드는도리깨란다

(155)

풍년맞이도리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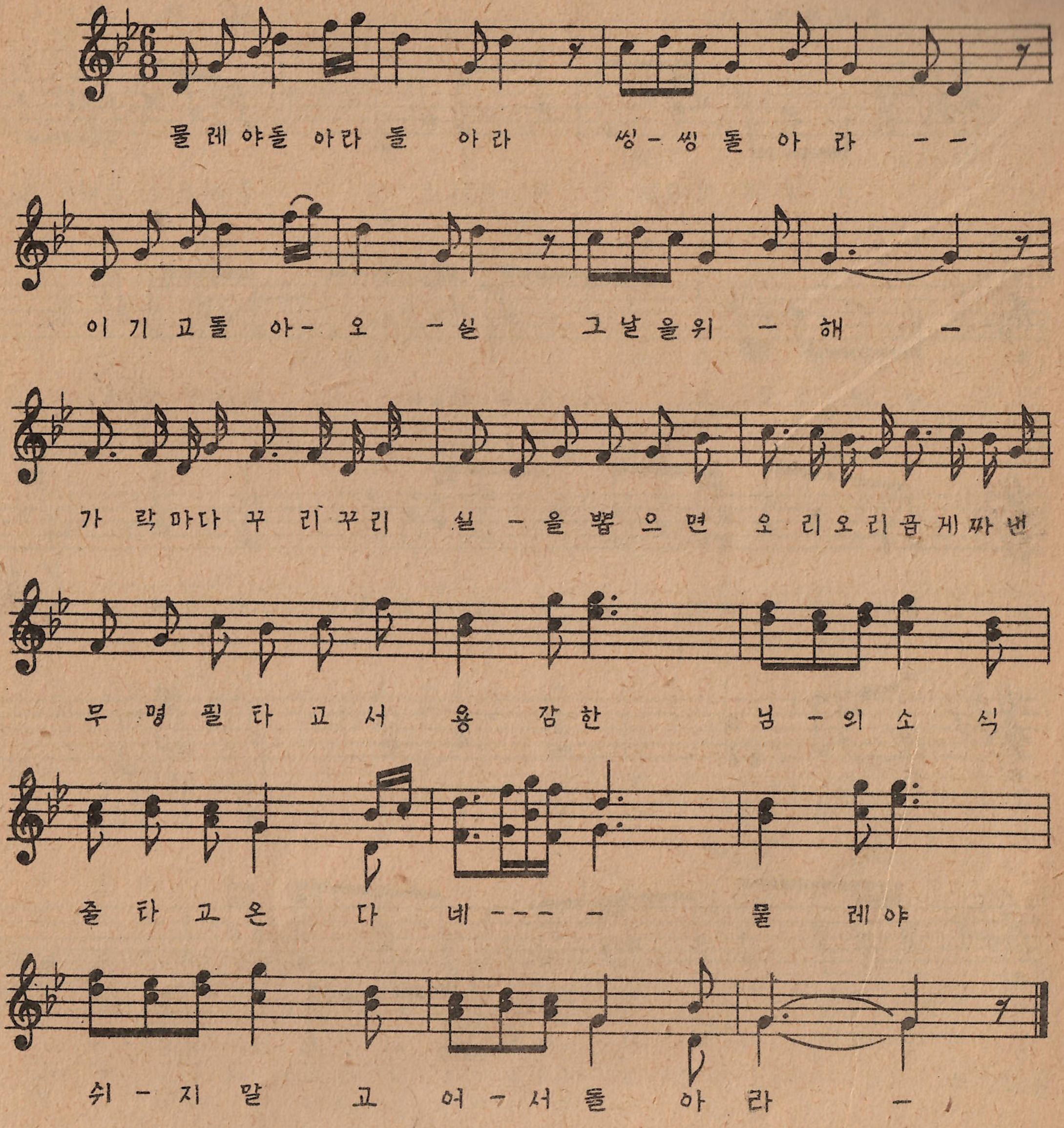
김 광 현 시
윤 승 진 곡



물레야돌아라

석 팔 봉 시
김 영 규 곡

느리지않게 흥겹게



2. 물레야 돌아라돌아라 씽씽돌아라
피여나는 행복을 가슴에안고
승리의날 생각하며 실을뽑으면
오리오리 곱게짜낸 무명필타고서
뜨거운 내마음도 전선으로간다네
물레야 쉬지말고 어서돌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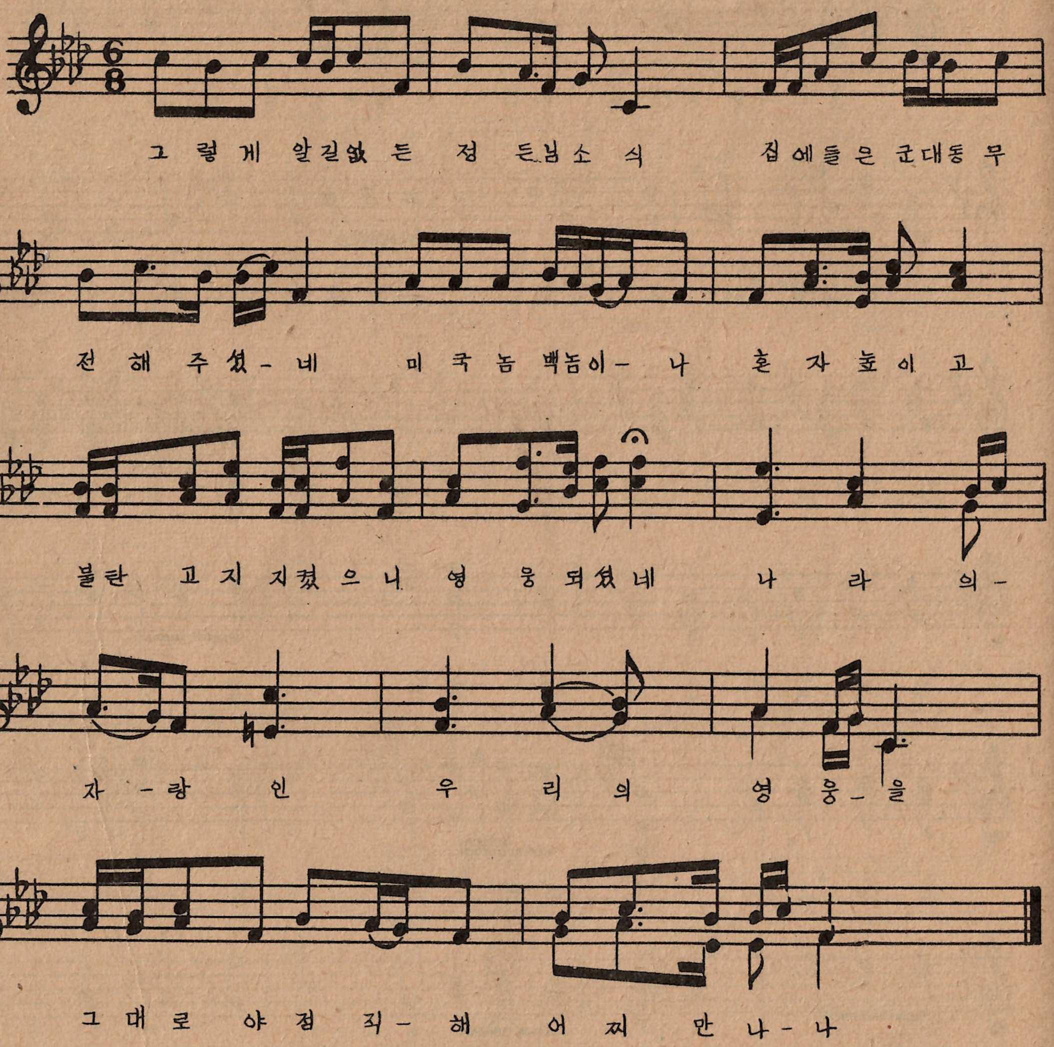
3. 물레야 돌아라돌아라 씽씽돌아라
밤새워 깜빡이는 등잔밑에서
복쑤에 타는가슴 실을뽑으면
화선의 용사들도 고향을위하여
돌격하는 총창에서 불꽃이튄다네
물레야 쉬지말고 어서돌아라

우리님영웅되셨네

(녀성중창)

박 상 규 시
정 진 옥 곡

표정을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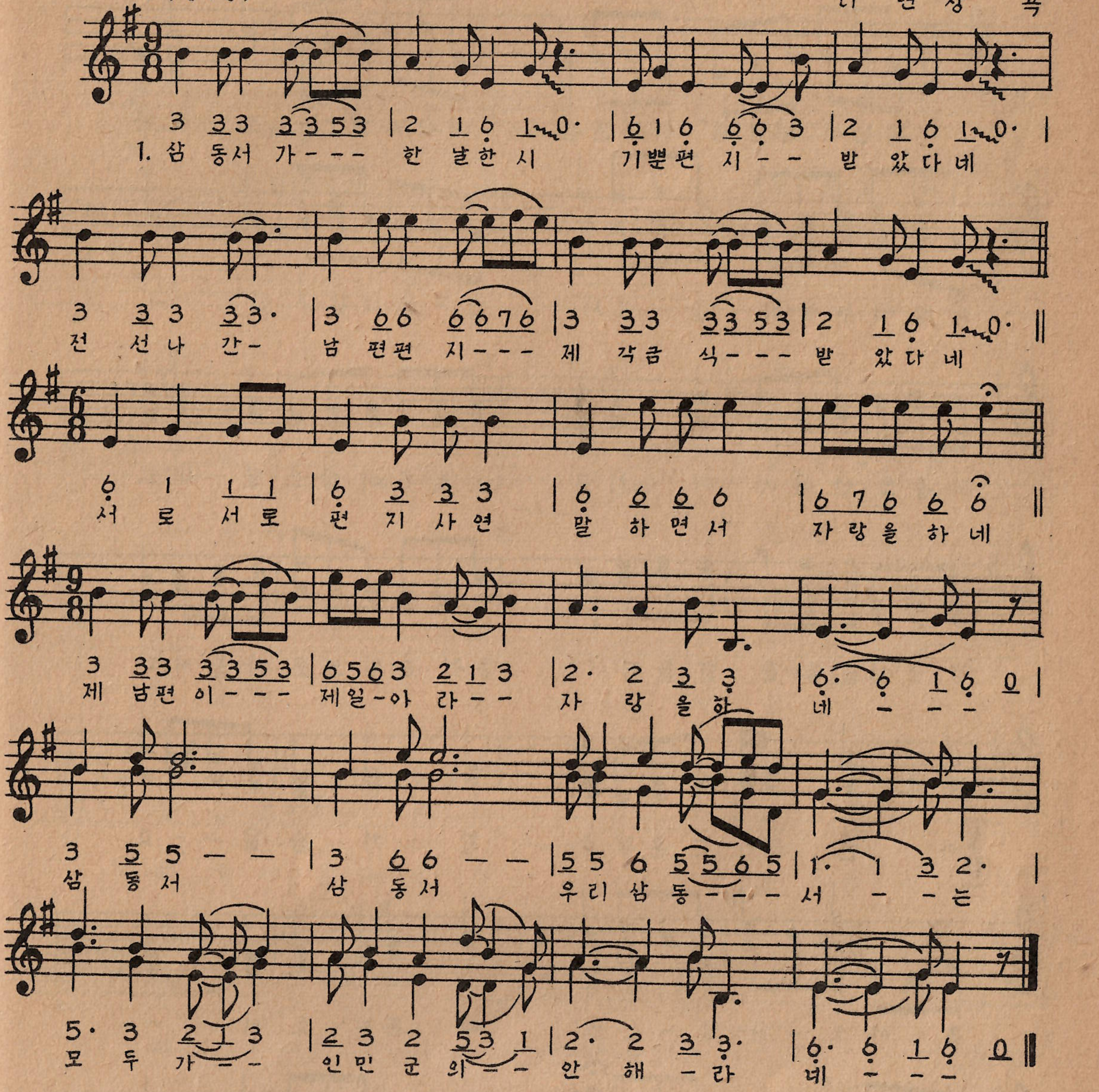
2. 그대가 집에없든 지난봄에도
춘기파종 먼저하러 바빴드랬네
원쑤의 폭탄자리 메운곳에도
탐스럽게 조이삭이 패어났어요

3. 가슴이 훤하도록 훈장찼다고
우리님아 자랑만은 하지마세요
미제를 쳐부시는 불타는내맘
일잘하고 글배우니 바쁘답니다

삼 동 서

(녀성중창)

전 동 혁 시
리 면 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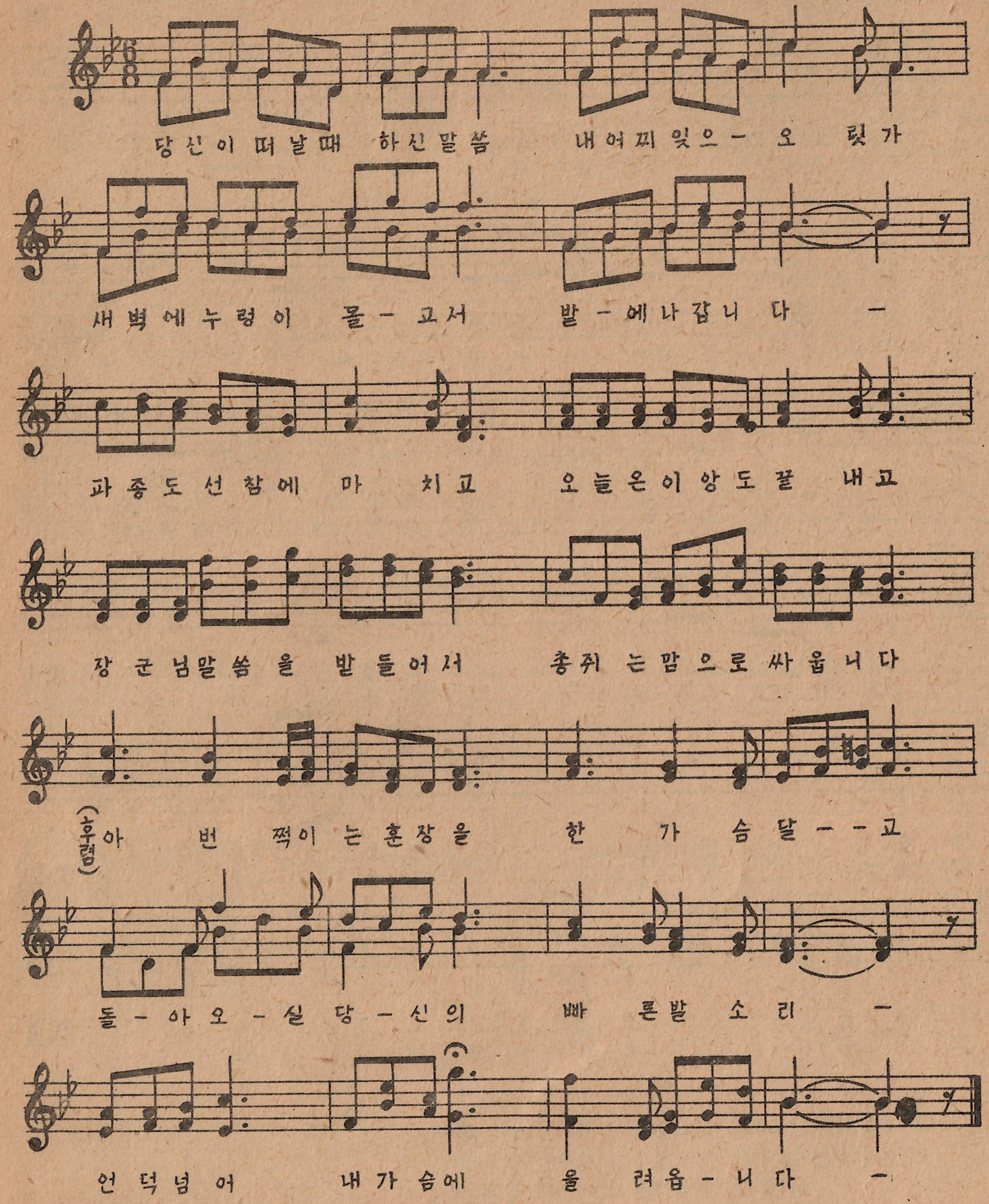
2. (합창) 맏동서가 나서면서 자랑하며 하는말이
(맏동서독창) 우리남편 땅크병은 저지난번 전투에서
적의화점 일곱개를 단꺼번에 무찔렀다오
부대에서 그이가 으뜸이 라나
(합창) 맏동서 맏동서 우리맏동서는 용감한 땅크병의 안해라네

3. (합창) 둘째동서 나서면서 자랑하며 하는말이
(둘째동서독창) 우리남편 해안포수 저지난번 전투에서
미국함선 다섯척을 보기좋게 깔앉혔다오
부대에서 그이가 으뜸이라나
(합창) 둘째동서 둘째동서 우리 둘째동선
용감한 해안포수 안해라네

4. (합창) 세째동서 나서면서 자랑하며 하는말이
(세째동서독창) 우리남편 비행사는 저지난번 전투에서
쌕쌕이를 두놈이나 벼락같이 떨어쳤다오
부대에서 그이가 으뜸이라나
(합창) 세째동서 세째동서 우리 세째동선
용감한 비행사의 안해라네

당신이떠날때하신말씀

박 태 영 시
김 복 윤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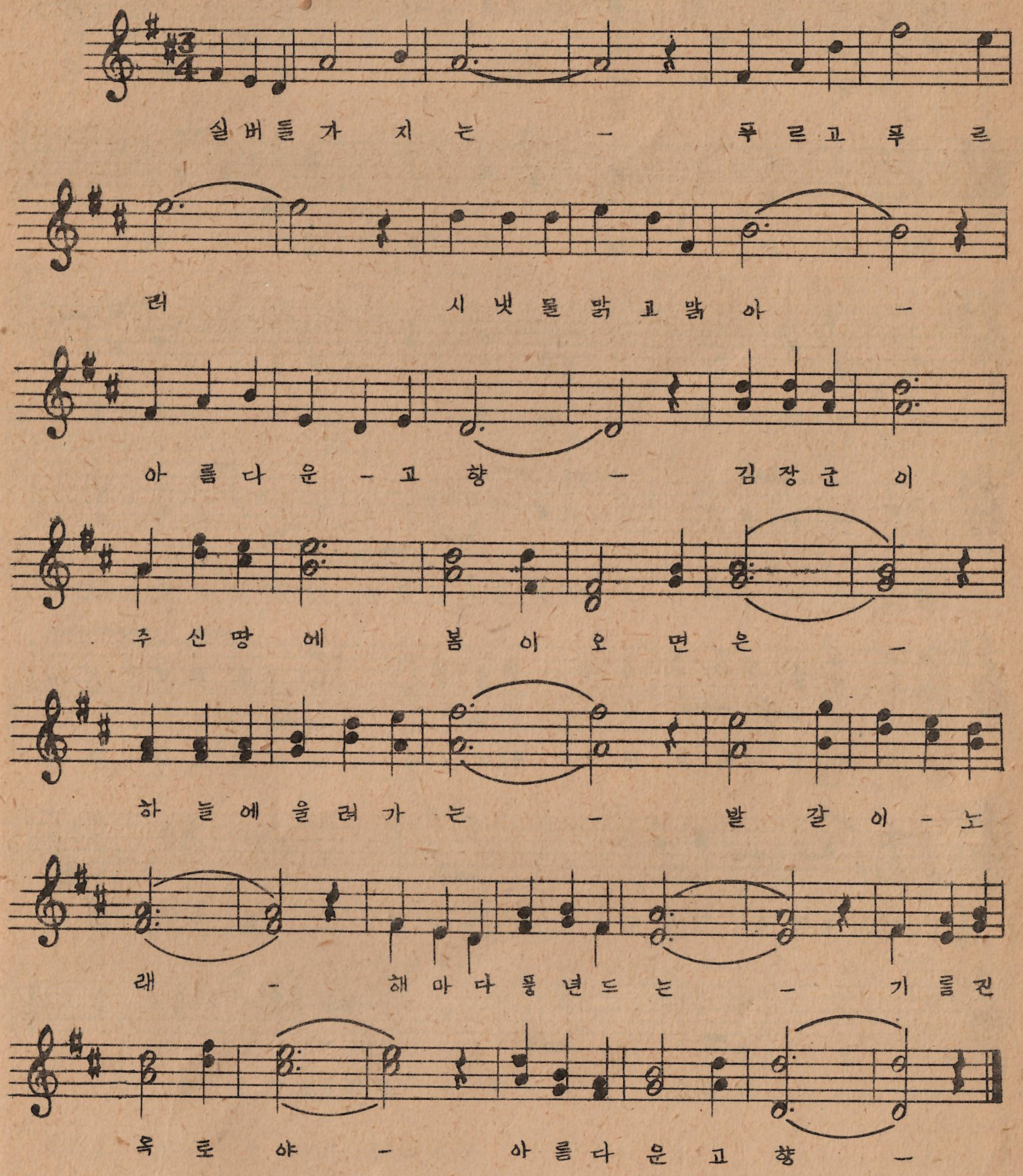


2. 당신이 떠날때 하신말씀
내어찌 잊으오릿가
해질때 전선을 생각하며 돌아옵니다
학습과 로력동원에도 언제나모범이되면서
올해도 현물세 선참바쳐
전선에 보내오리다
──(후 렴)──

아름다운고향

(녀성중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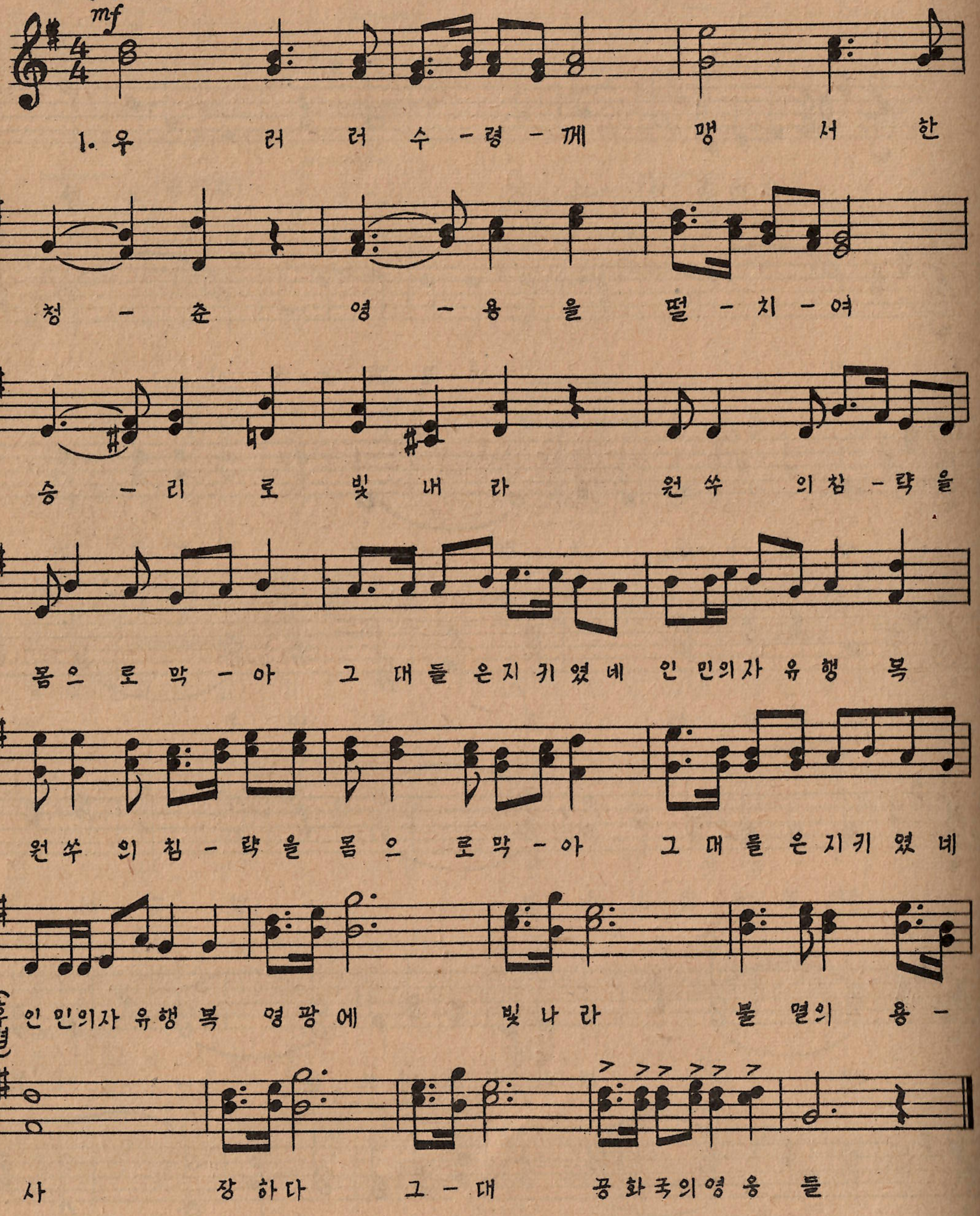
박 태 영 시
김 복 윤 곡



2. 조국을 지키며 원쑤를 부시는
용사들 자라난곳 아름다운 고향
김 장군이 주신땅에 가을이 오면
하늘에 울려가는 풍년의 노래
승리를 믿으면서 싸우는마을아
아름다운 고향

영 웅 찬 가

김 북 원 시
김 길 학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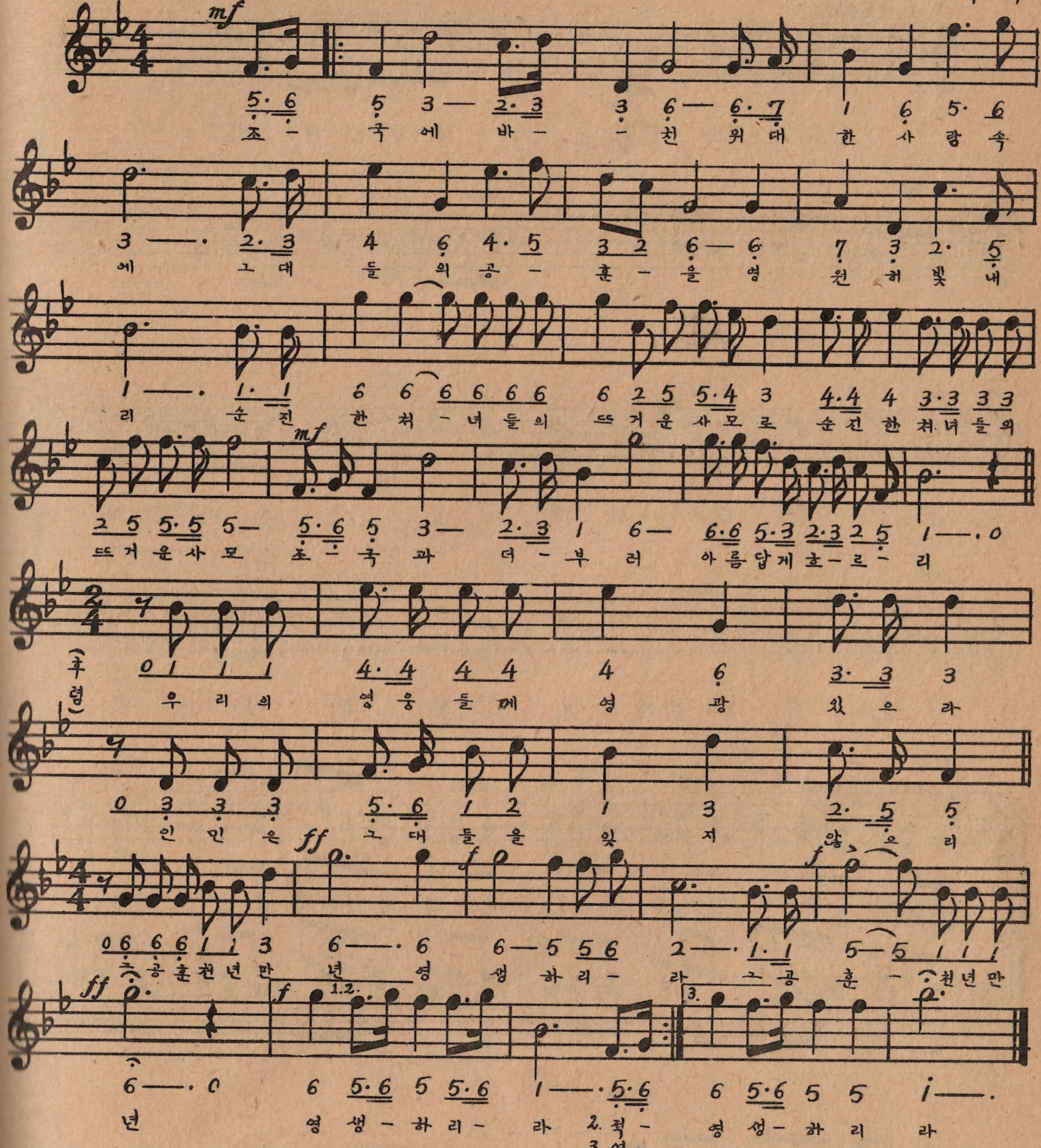


2. 하늘과 땅에서 바다우에서
원쑤를 무찌른 그위훈높아
‖:형제의 소원을 복쑤의불길로
그대들은 원쑤에게 무리죽엄을주였네:‖
——(후 렴)——

3. 조국의 부름에 충성을다해
피끓는 가슴에 빛나는금별
‖:세계의 갈망을 한몸에안고
그대들은 싸운다 항구한평화위해:‖
——(후 렴)——

영웅들에게 영광이있으라

리 무 시
정 진 옥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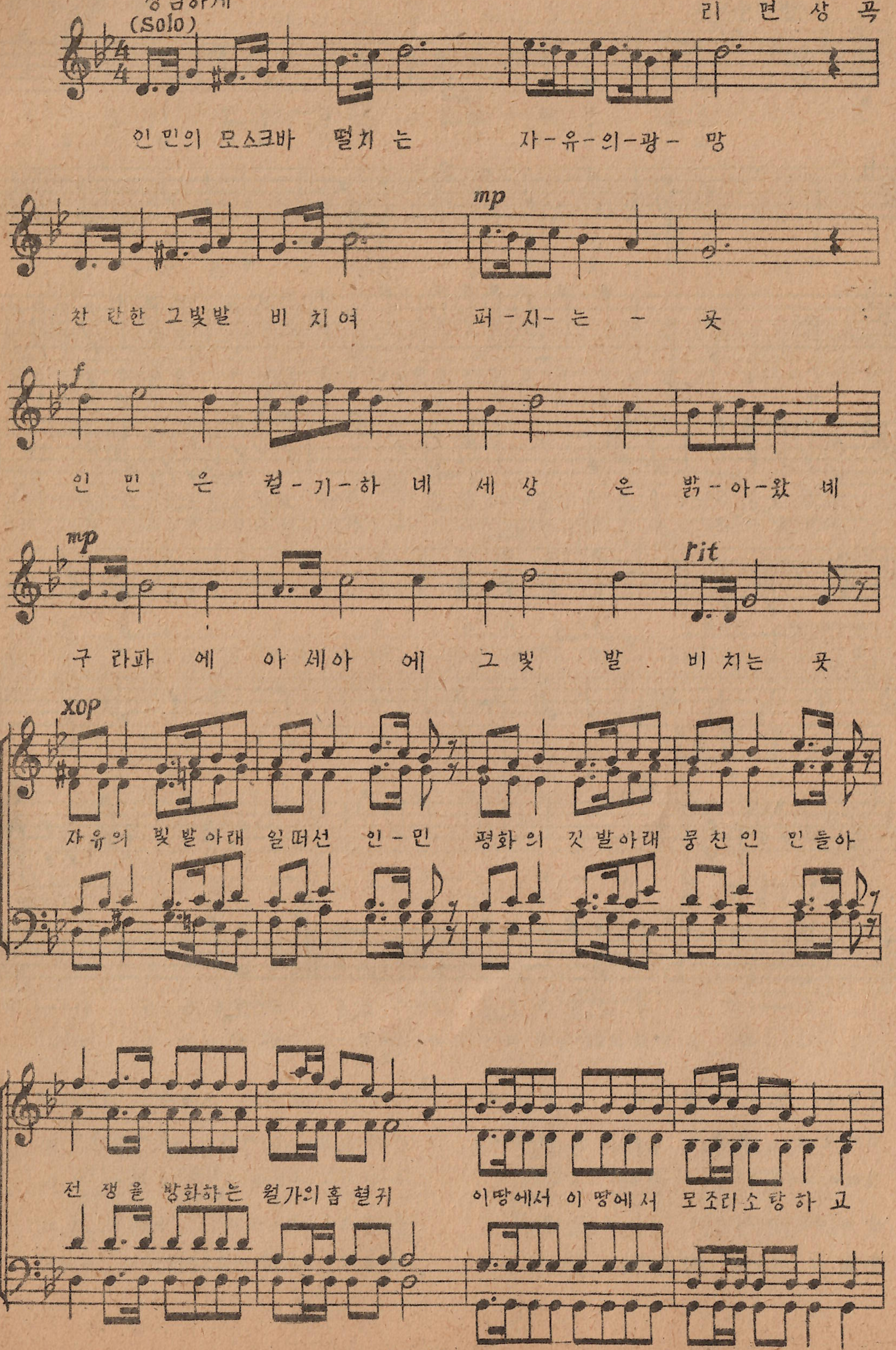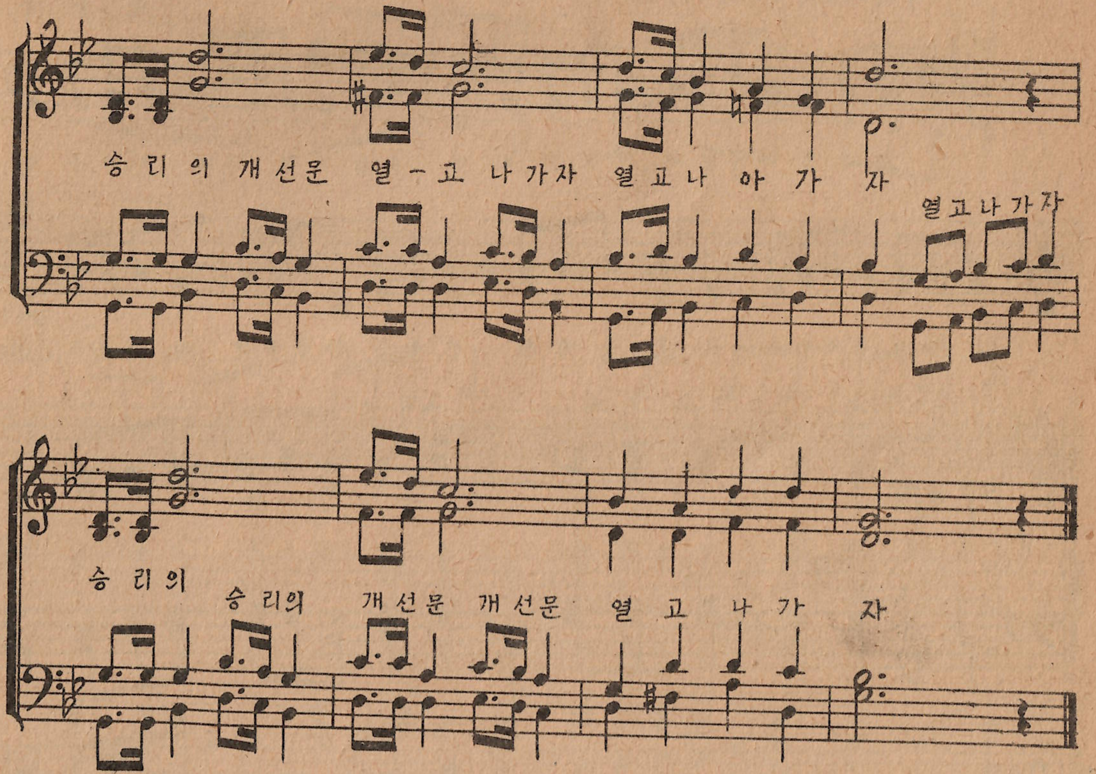


2.
적탄을 뚫고 범같이 돌진하여
원수들의 심장에 죽엄을 퍼부어
장하다그대들의 고귀한 충성은
장하다 그대들의 고귀한 충성
동천에 떠오른 햇발처럼 찬란해

3.
영웅과 함께 우리는 나가싸워
자유독립 지켜서 일어선우리들
수령이 가르친길 승리의 길로
수령이 가르친길 승리의 길로
영웅을 본받아 용감하게 나가리

모스크바의별빛아래

김 북 원 시
리 면 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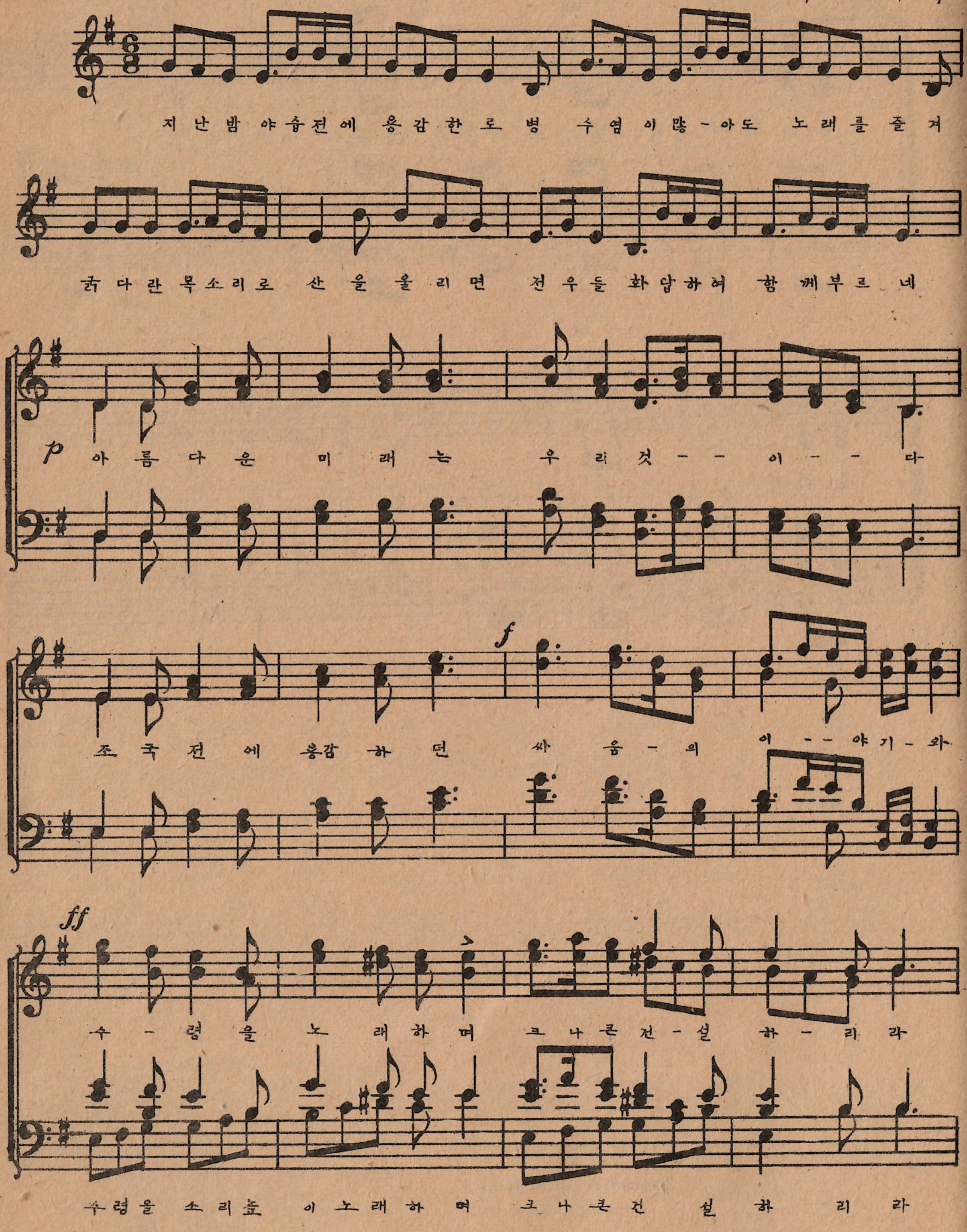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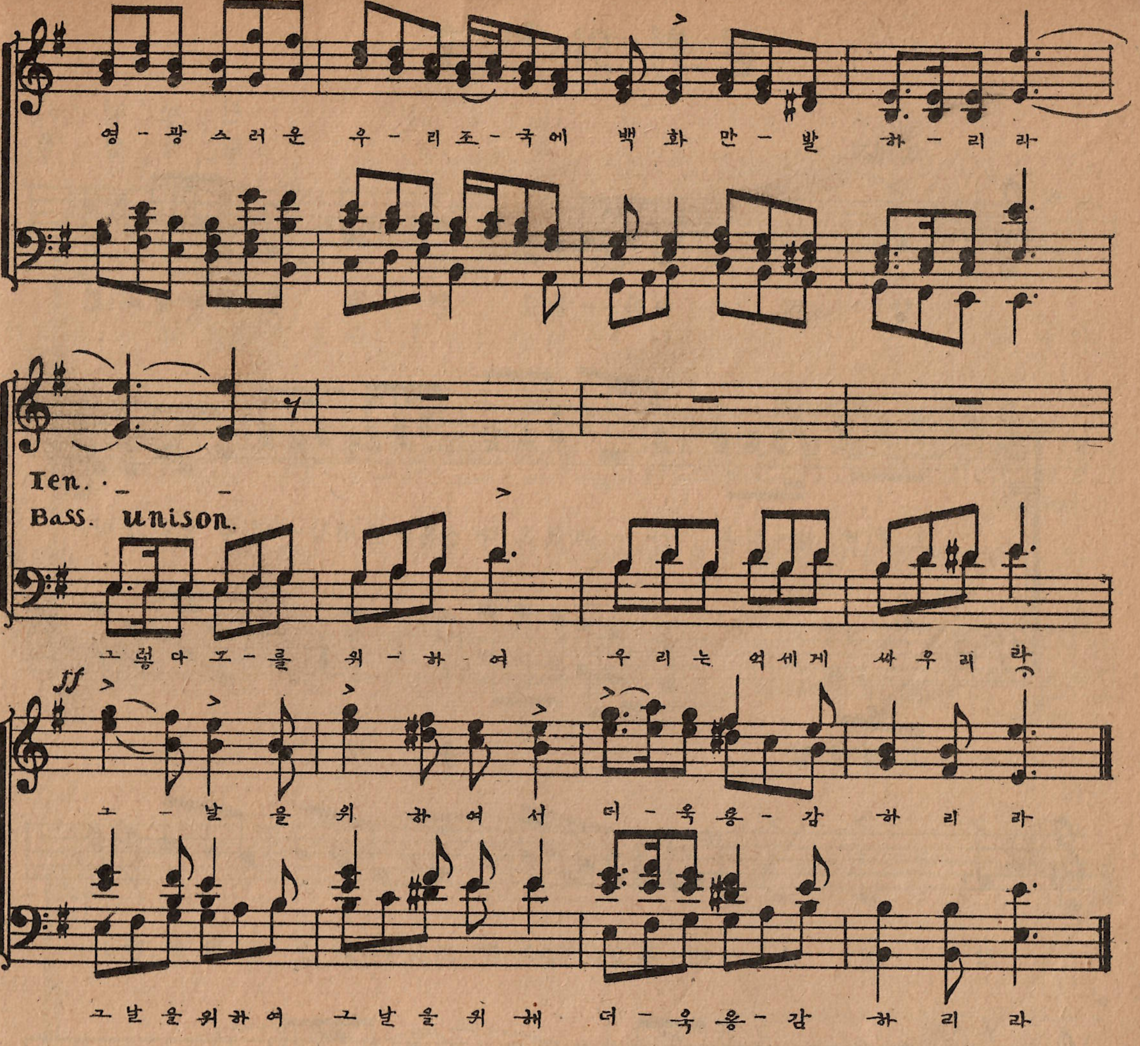


아름다운미래를 위하여

신 동 철 시
박 한 규 곡

약간빠르게 (즐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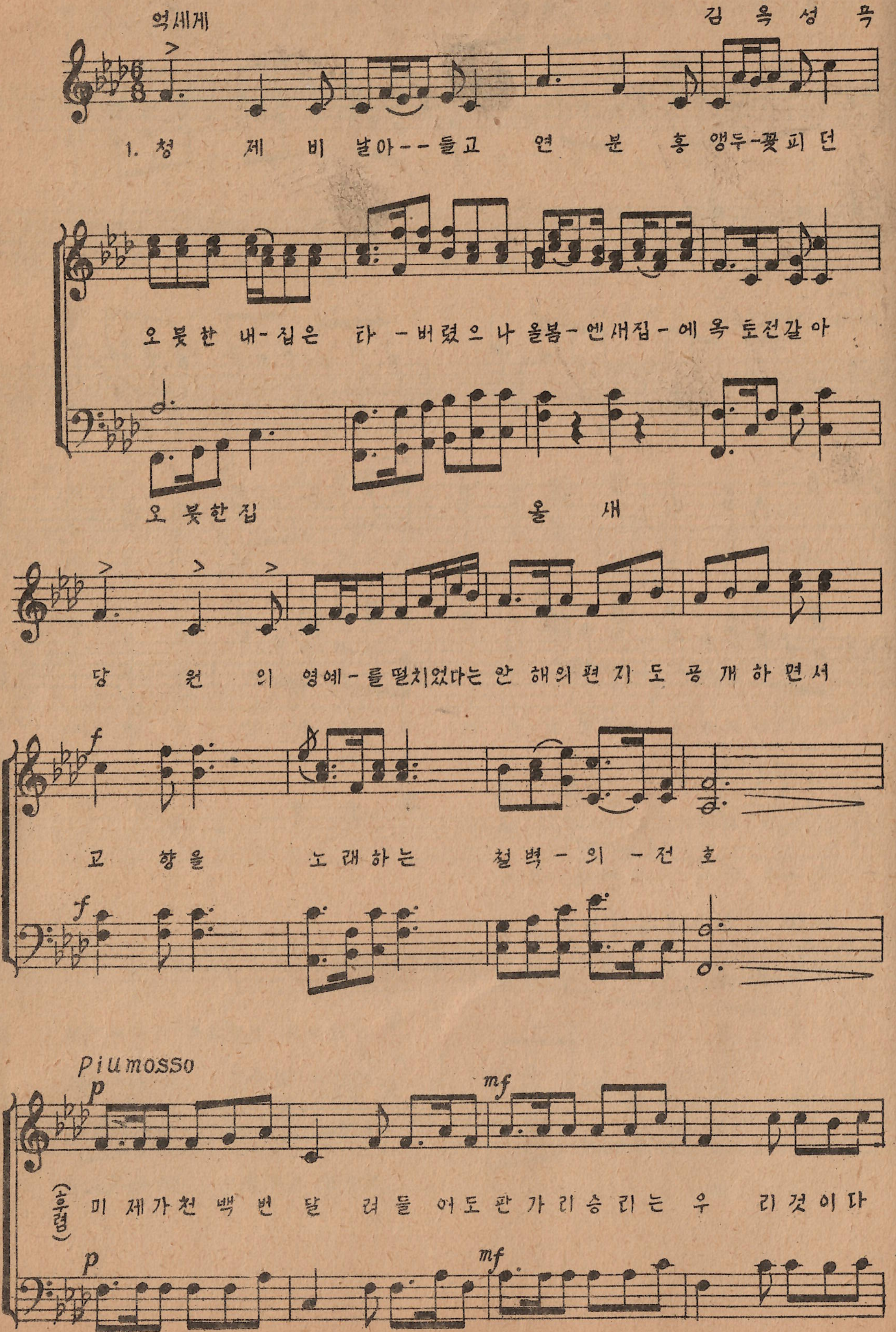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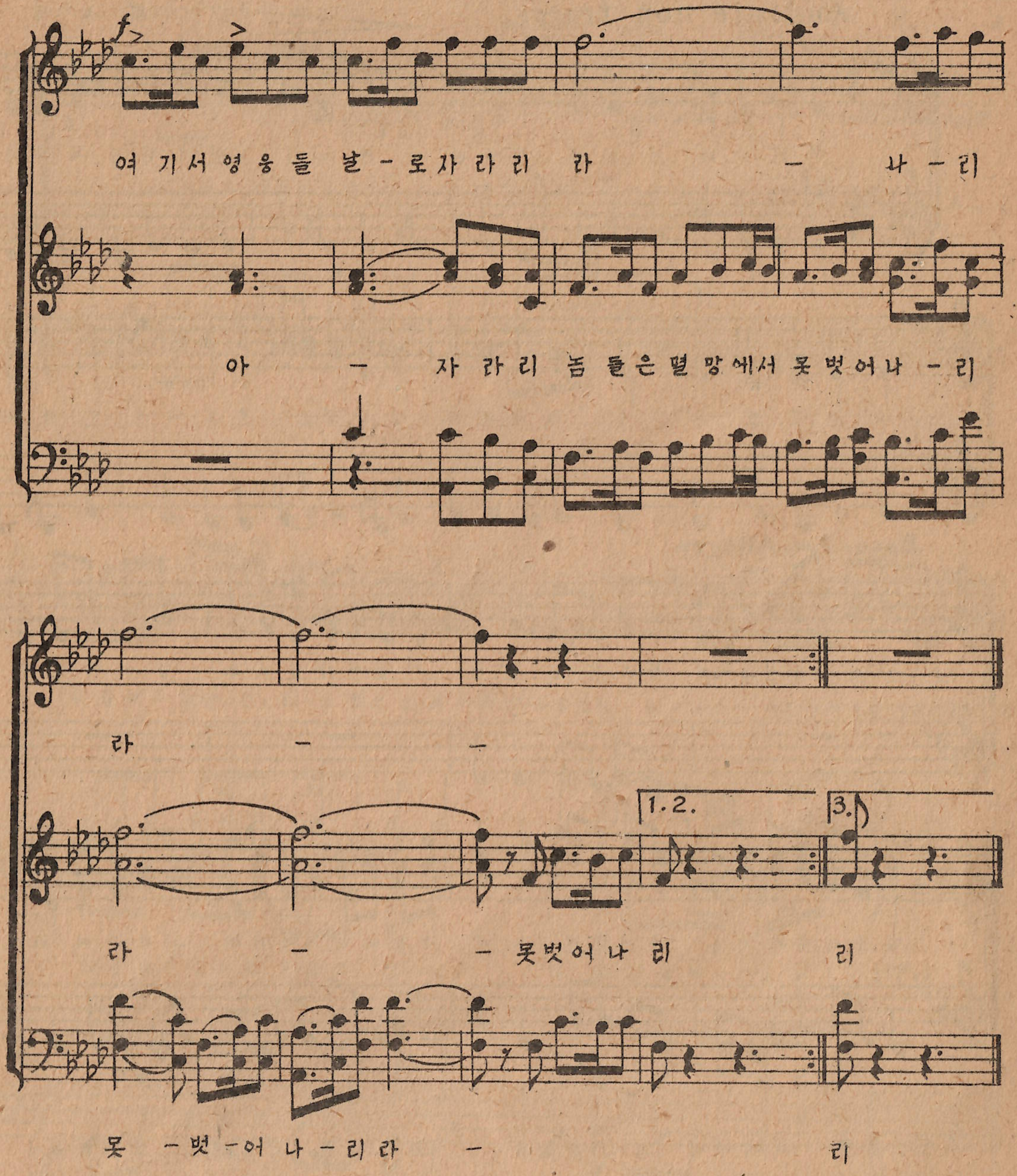
2. 이름난 저격수는 재주도 많아
손으로 맨든 피리를 불어
고향의 옛노래를 가락 맞추면
전우들 흥에겨워 모두 부르네

3. 대담하고 인정많은 우리소대장
조선의 청춘을 자랑하라고
훈장속에 끼여앉아 노래부르면
전우들 소리높이 따라부르네

철벽의전호

신 동 철 시
김 옥 성 곡





2\. 평화의 비둘기와 당홍빛 꽃다발그린
레닌 공청의 편지도 왔고
승리의 구호를 수놓은 수건
중국인민의 선물도 받아
전우들 목피에 편지도 쓰며
친선을 노래하는 철벽의 전호

—(후 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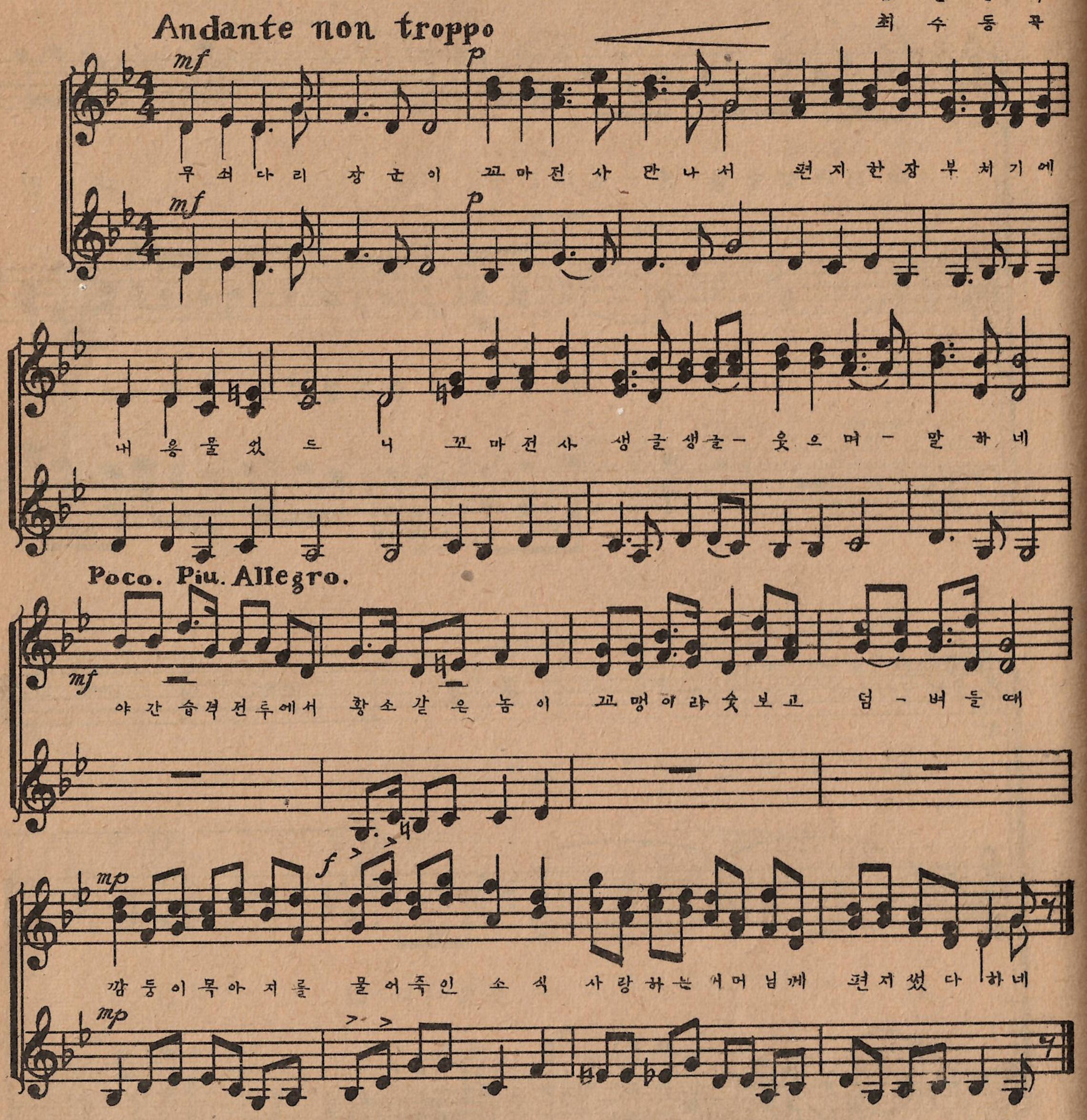
3\. 청춘을 바쳐싸운 영광의 조국의고지
빛나는 군공의 훈장도 받고
영예와 용맹을 더욱 떨치라
장군님 축하문 또받았으니
감격의 이아침 평양을 향해
수령을 노래하는 철벽의 전호

—(후 렴)—

야전우편수와 꼬마전사

녀성三부 합창

김 현 갑 시
최 수 동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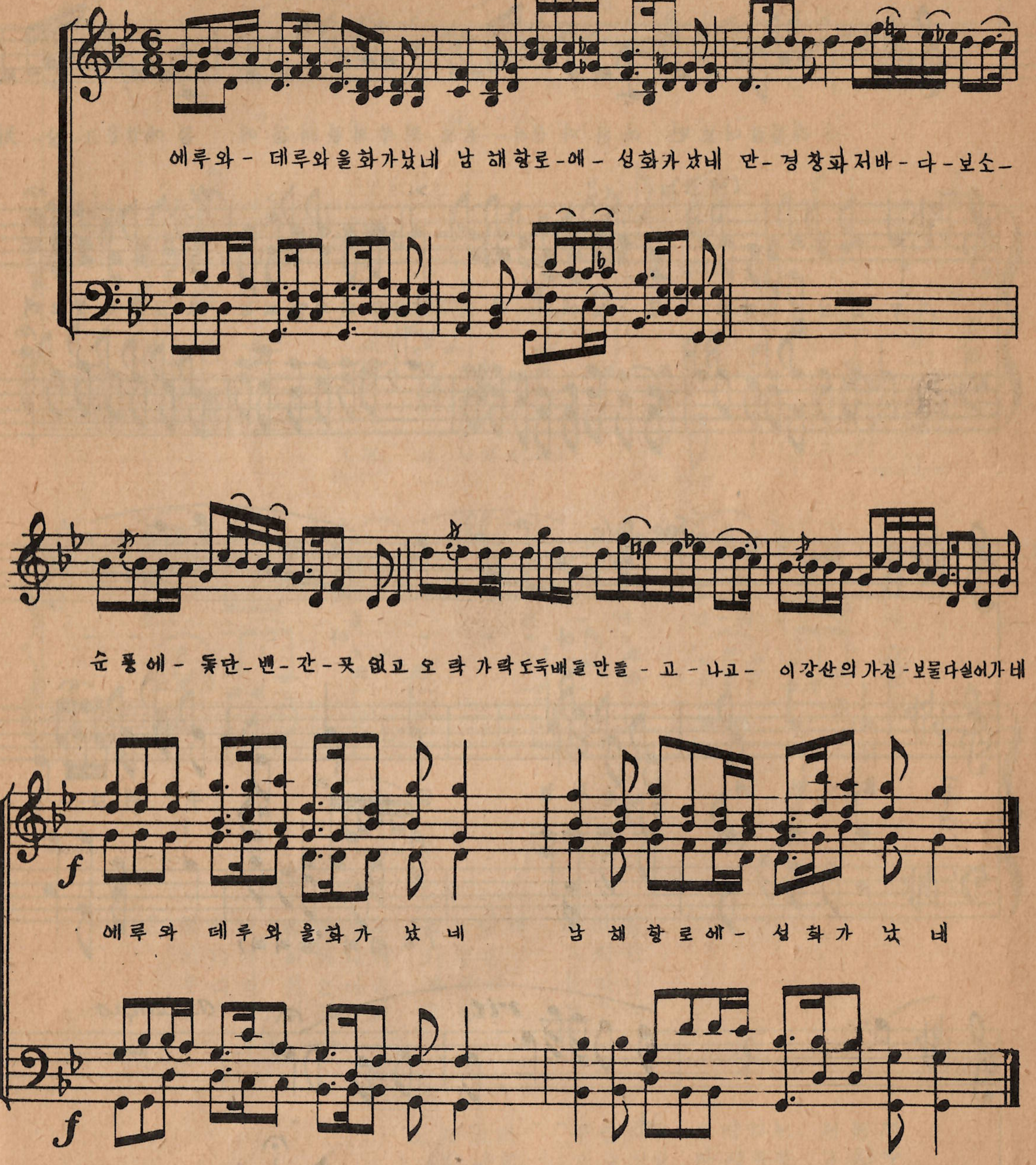
2. 양구북쪽 고지에서 토이기한놈이
꼬맹이라 숫보고 붙잡으렬 때
그놈의 뱃때기를 질러잡은 소식
사랑하는 어머님께 편지썼다 하네

3. 화력정찰 전투에서 양캐한놈이
꼬맹이라 숫보고 깔깔웃을때
날세게 받아넘겨 꽁꽁묶은 소식
사랑하는 어머님께 편지썼다하네

남해항로

박 세 영 시
최 수 동 곡

느리게민요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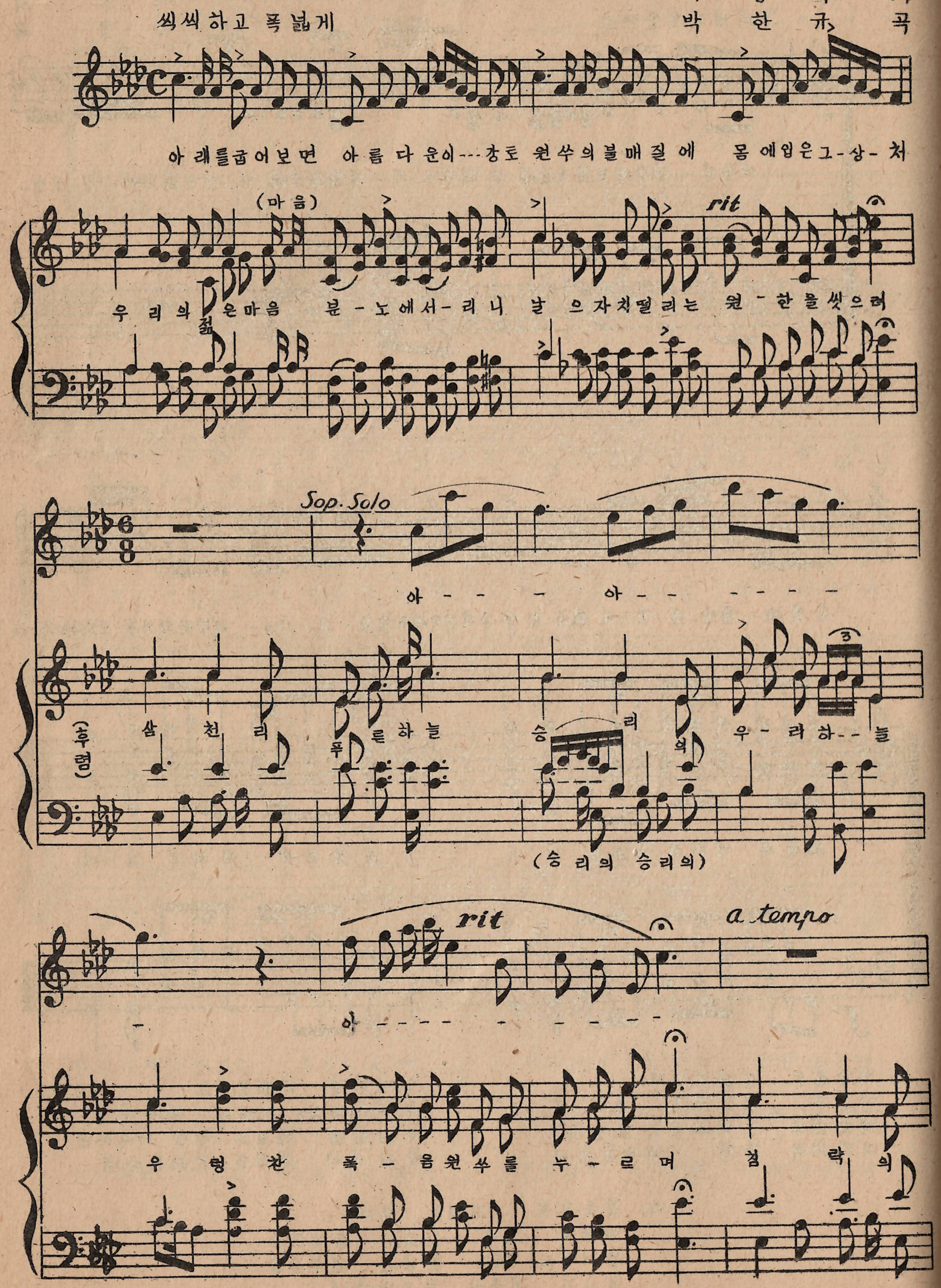
2. 먹장같은 저연기봐라
저놈의 검은뱃장 다터는듯
백파만장 노한파도는 앞을막고
이리저리 탕탕 뱃전을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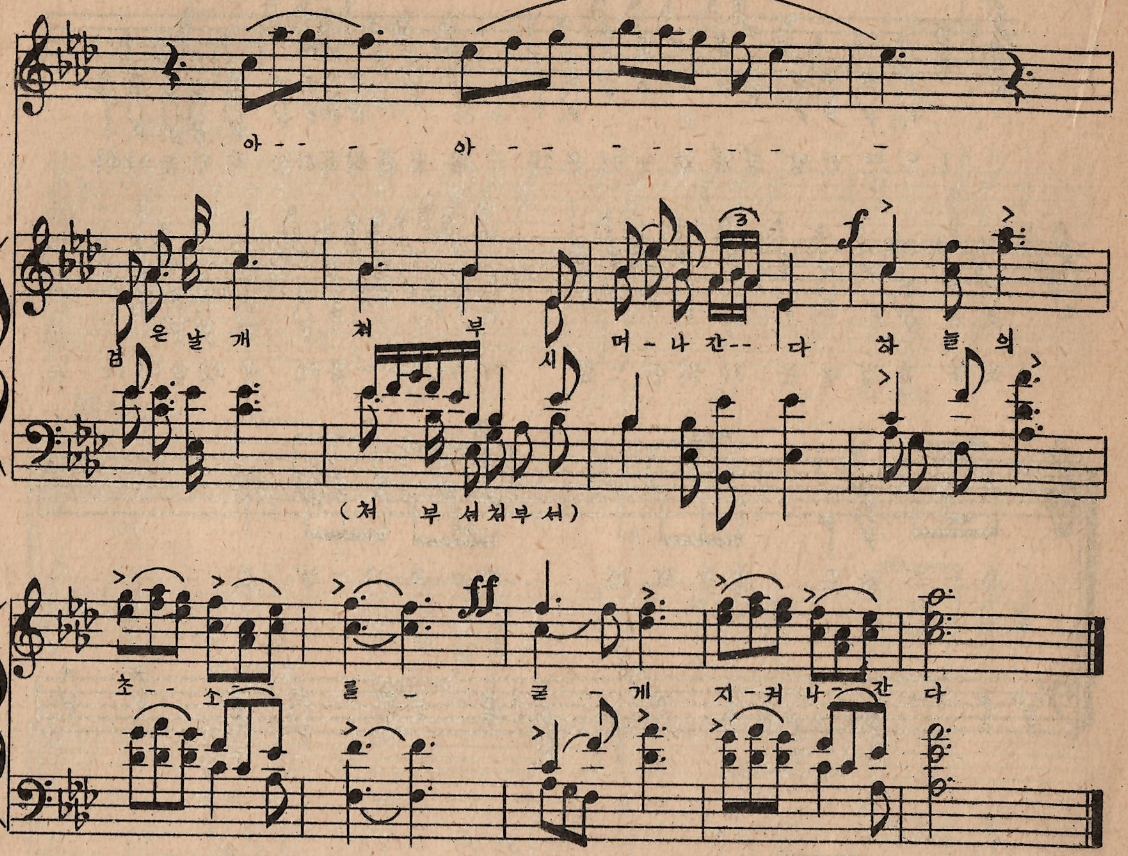
3. 김제만경 저벌을보소
우리의피와 기름이 얽힌땅
금파만경 하늘과 맞단 저곡식을
실어실어 원쑤놈 길러준다네

4. 감옷감옷 저배를 봐라
떼도둑 가득 싣고서 들어온다
들어와도 씨도 안남는 원쑤놈들
물고기 밥들이 되고만다네

날으자 저하늘로

석 광 히 시
박 한 규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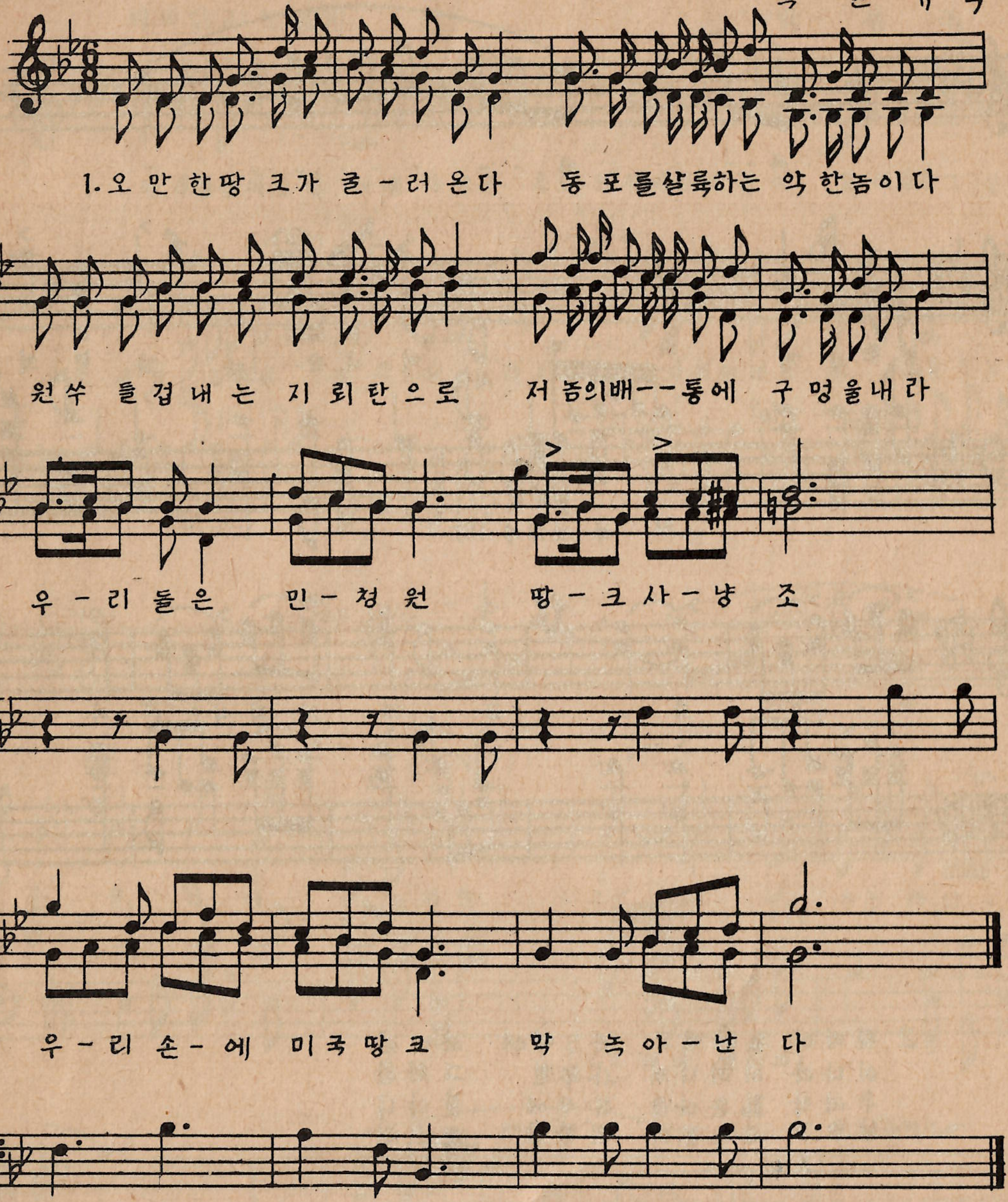


2. 젖먹이 품에안고 논두렁에 쓰러진
이나라 어머니의 사무친 그원한
우리의 젊은마음 복쑤에 불타니
날으자 피눈물의 원한을 씻으려
—— 후렴 ——

3. 저기저 구름새로 도망치는 저놈이
빛나는 민주건설 마사놓은 그원쑤
우리의 젊은심장 증오에 소치니
날으자 삼천만의 원한을 씻으려
—— 후렴 ——

우리들은민청원땅크사냥조

석 광 희 시
박 한 규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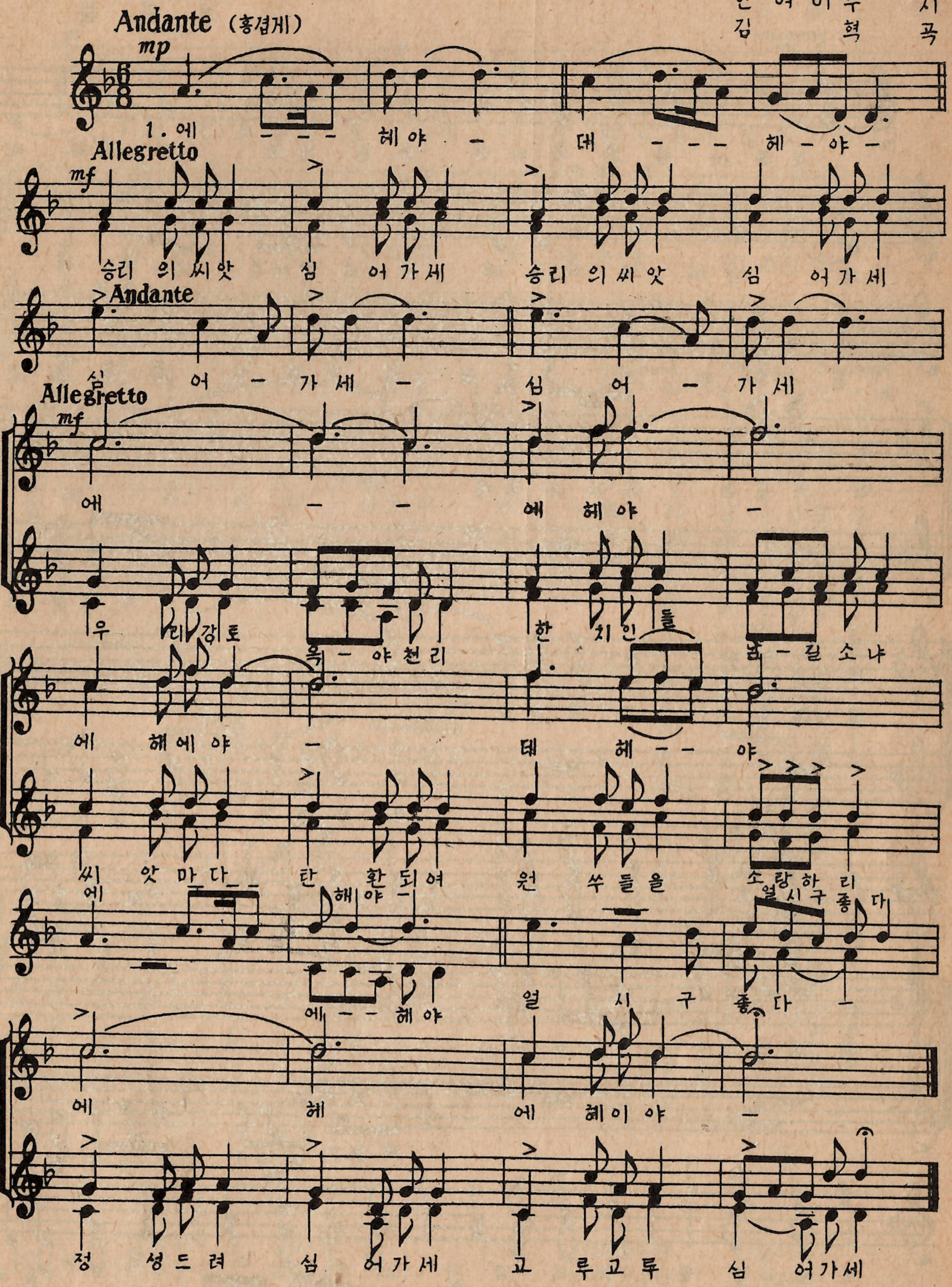


2. 오만한 땅크가 굴러온다
전우를 노려보는 원수놈이다
복수에 떨리는 수류탄으로
저놈의 대갈통 때려눕히라

3. 오만한 땅크가 도망친다
죽엄엔 치를떠는 겁쟁이놈이다
분노의 불벼락 퍼부어대여
저놈의 알몸을 태워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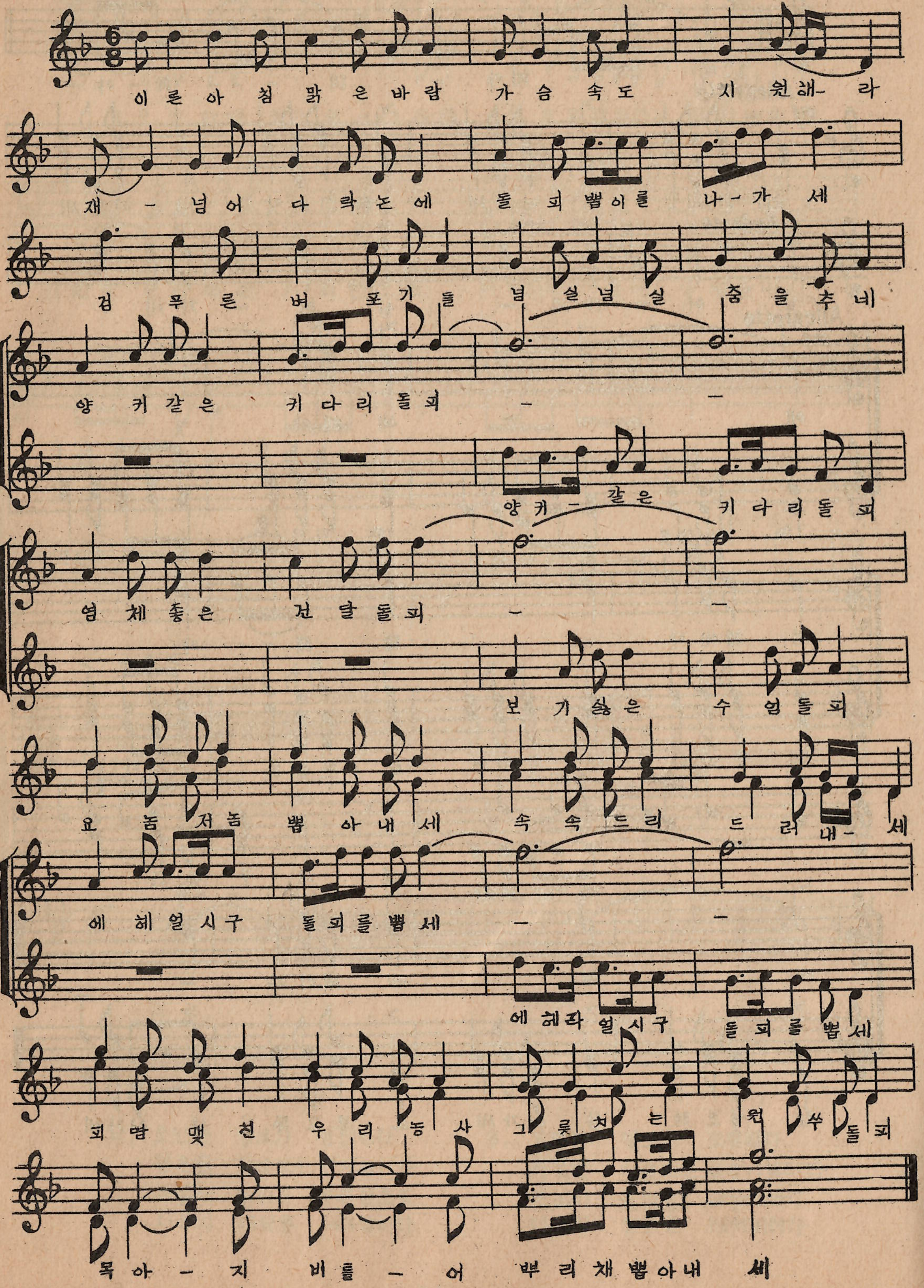
승리의씨앗

한 여 이 주 시
김 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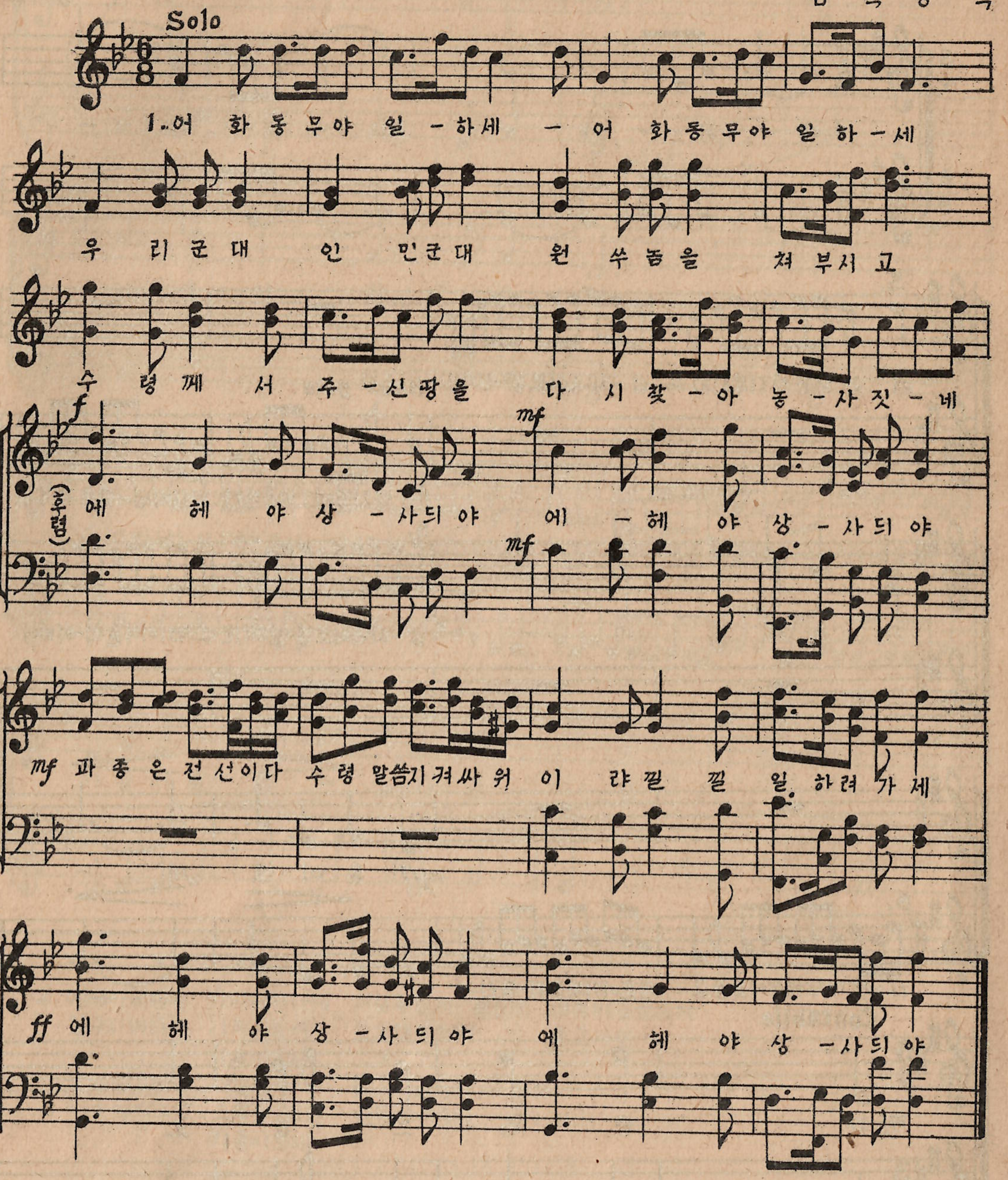
돌피뽑기노래

탁 진 시
김 길 학 곡



농민의노래

주 동 인 시
김 옥 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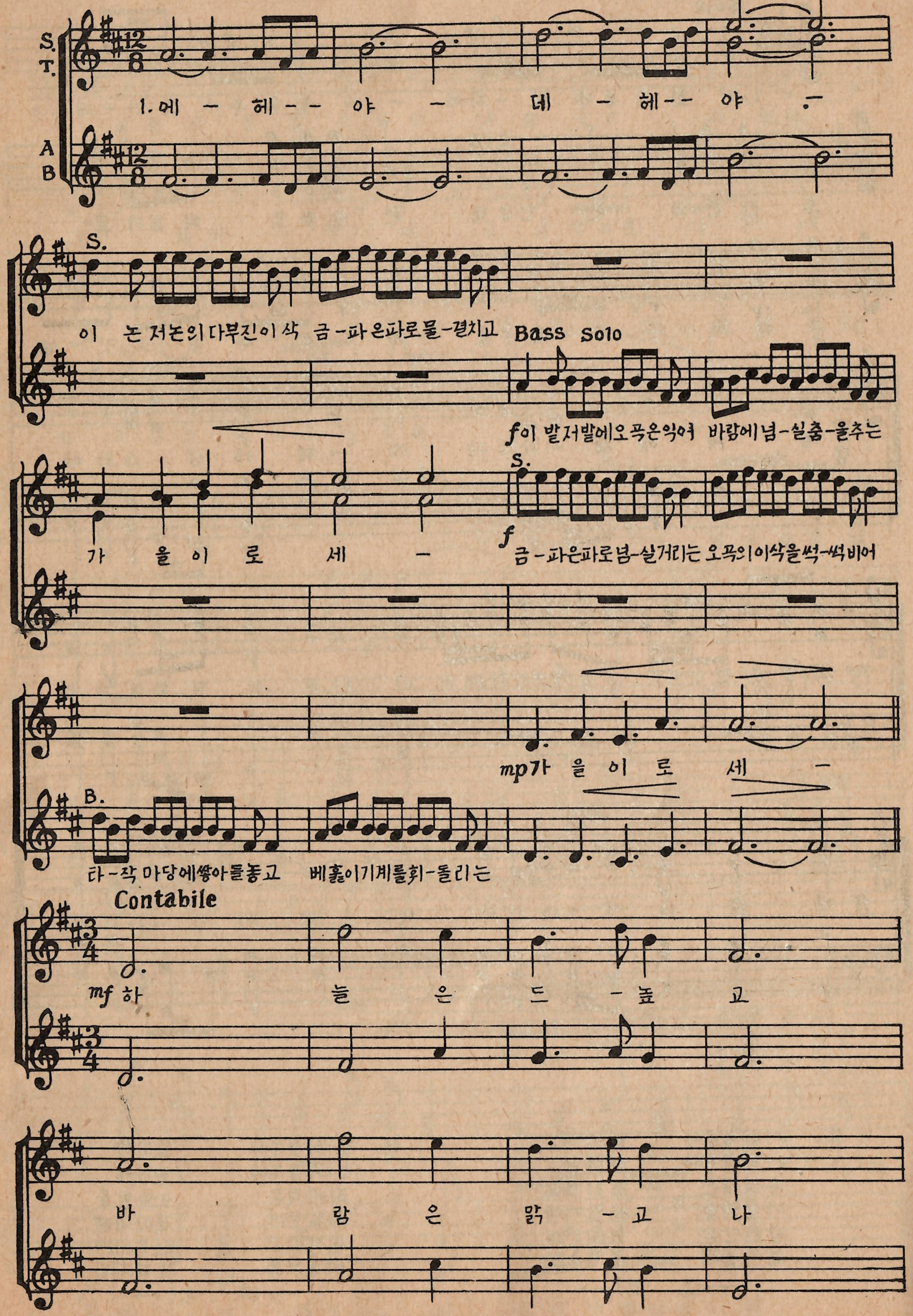


2.	어화동무야	일 하세	3.	어화동무야	일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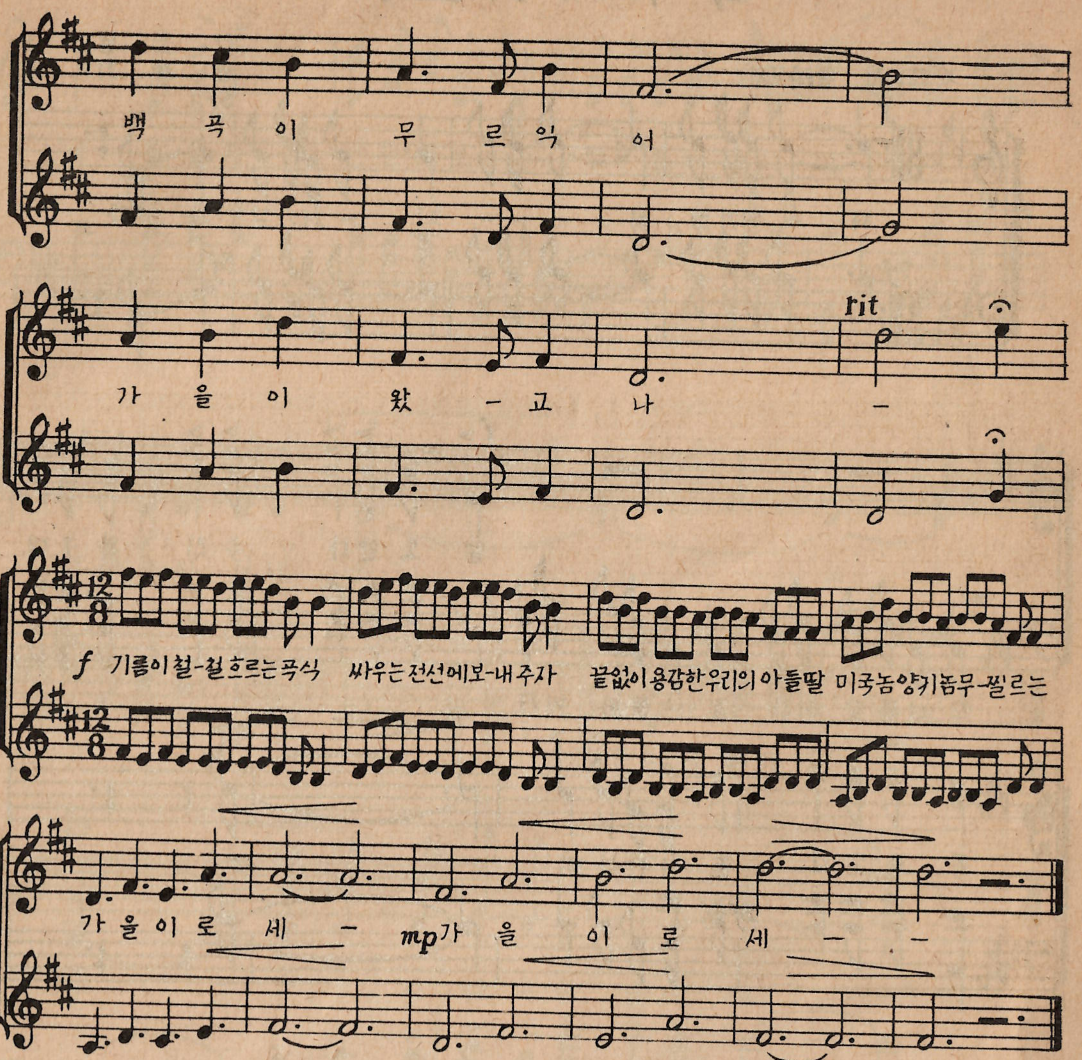
2\. 어화동무야 일 하세
어화동무야 일 하 세
우리강산 불 지 르고
아들딸을 죽인미제
삼천만은 백배 천배
원쑤놈께 멸망주리
—(후 렴)—

3\. 어화동무야 일하세
어화동무야 일하세
피에젖은 논과밭을
복쑤로서 갈아내어
씨뿌리고 걷우어서
싸움터로 보내자네
—(후 렴)—

가 을 이 로 세

조 령 출 시
리 면 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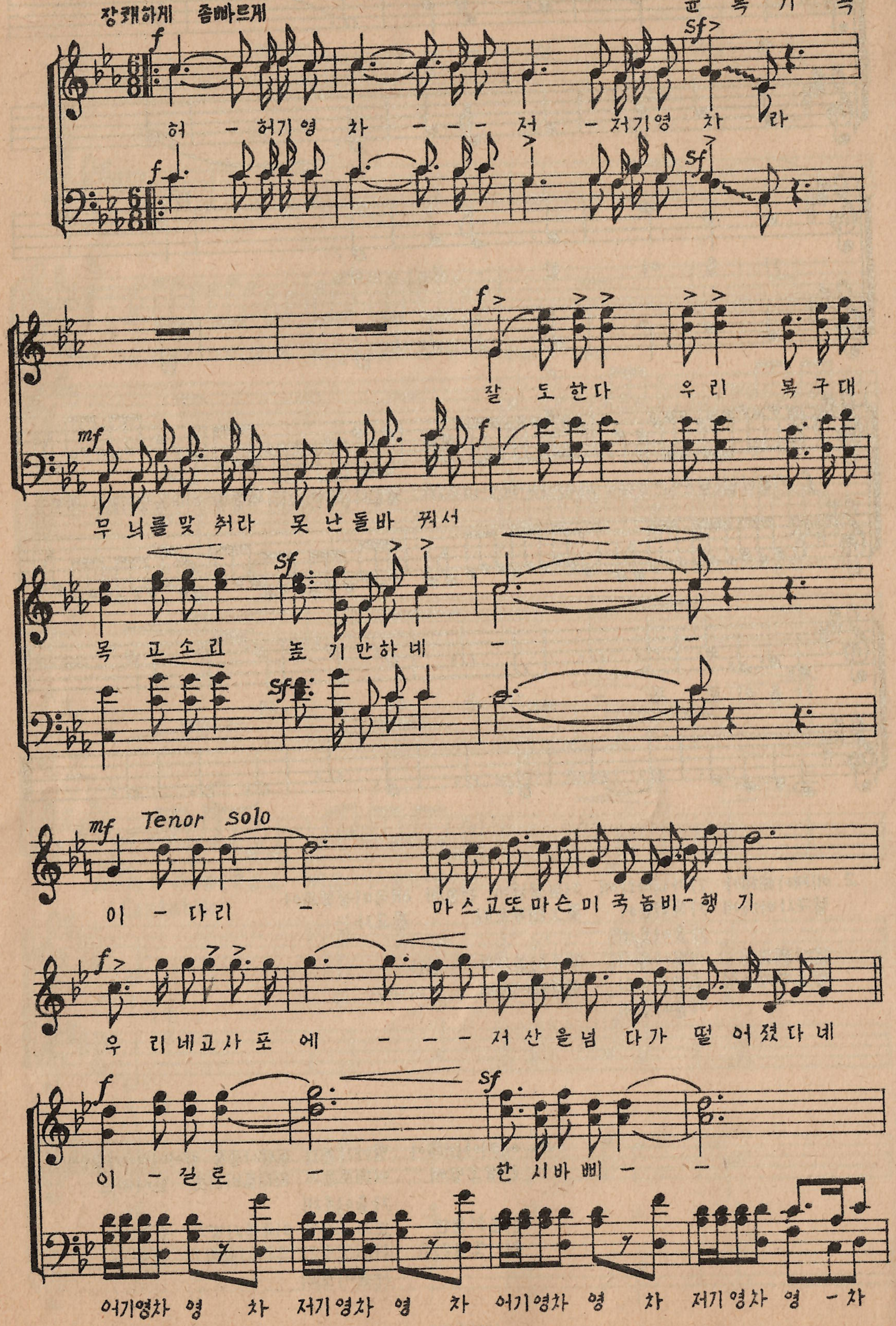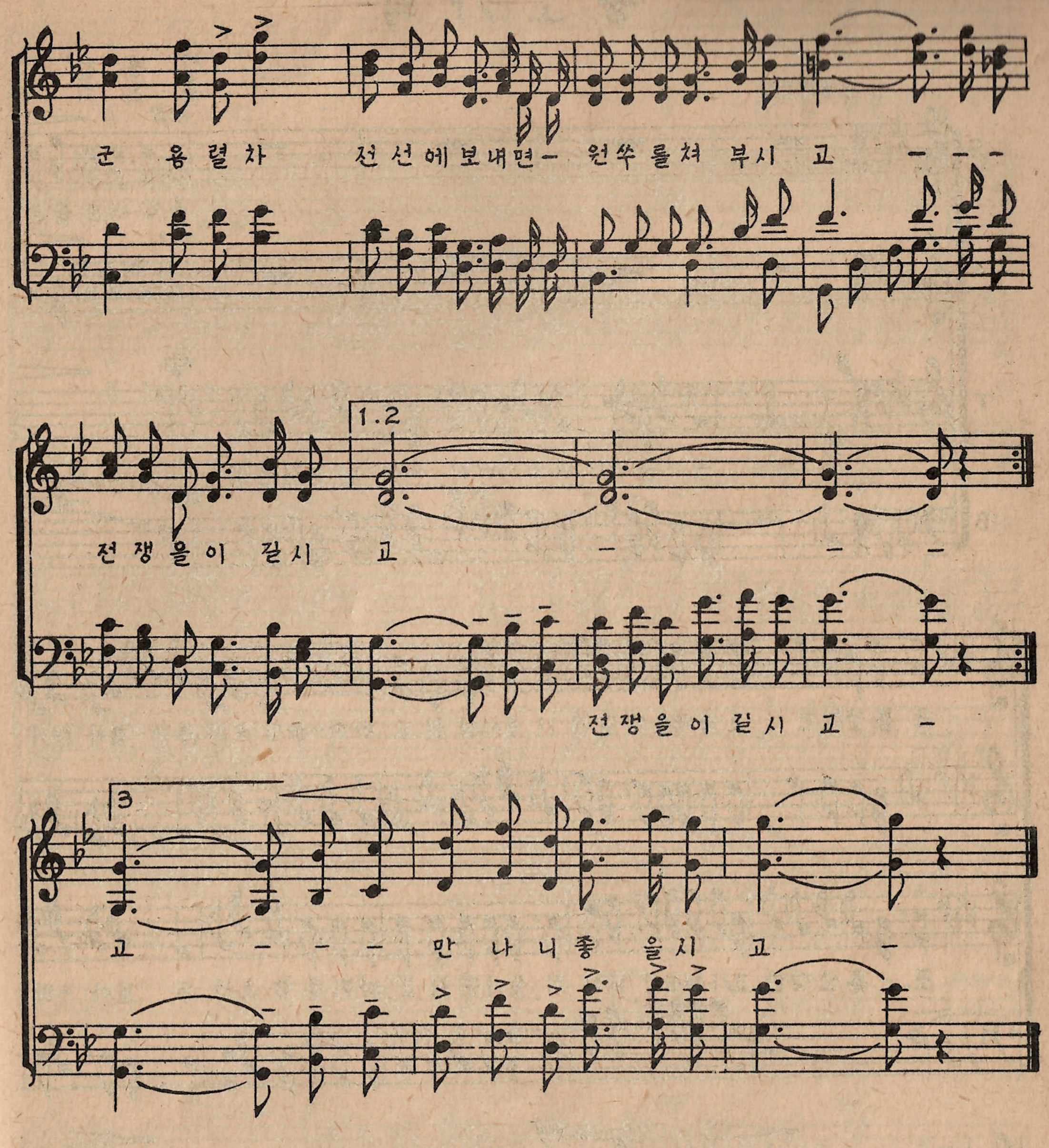




2. 에헤야데헤야 가마니마다에 처절철 넘게 현물세 애국미 꿍꿍 묶어
달구지마다에 가득히 실어 콧노래 부르며 몰고가는
가을이로세
달이 밝고나 저달이 좋아 달구지 몰기가 좋다
쩡그렁쩡그렁 소방울소리 현물세 애국미 실어내는
가을이로세

3. 에헤야데헤야 방아가 돈다 물방아 쿵쿵 쌀이며 밀이며 쿵쿵 찧어
전방후방에 어데로든지 바리로바리로 실어내는
가을이로세
맑은하늘엔 고사포 쿵쿵 미국놈 비행기 쿵쿵 부셔
여기도 승리요 저기도 승리 우리의 승리가 높아가는
가을이로세

복구대의노래

리호남 시
윤복기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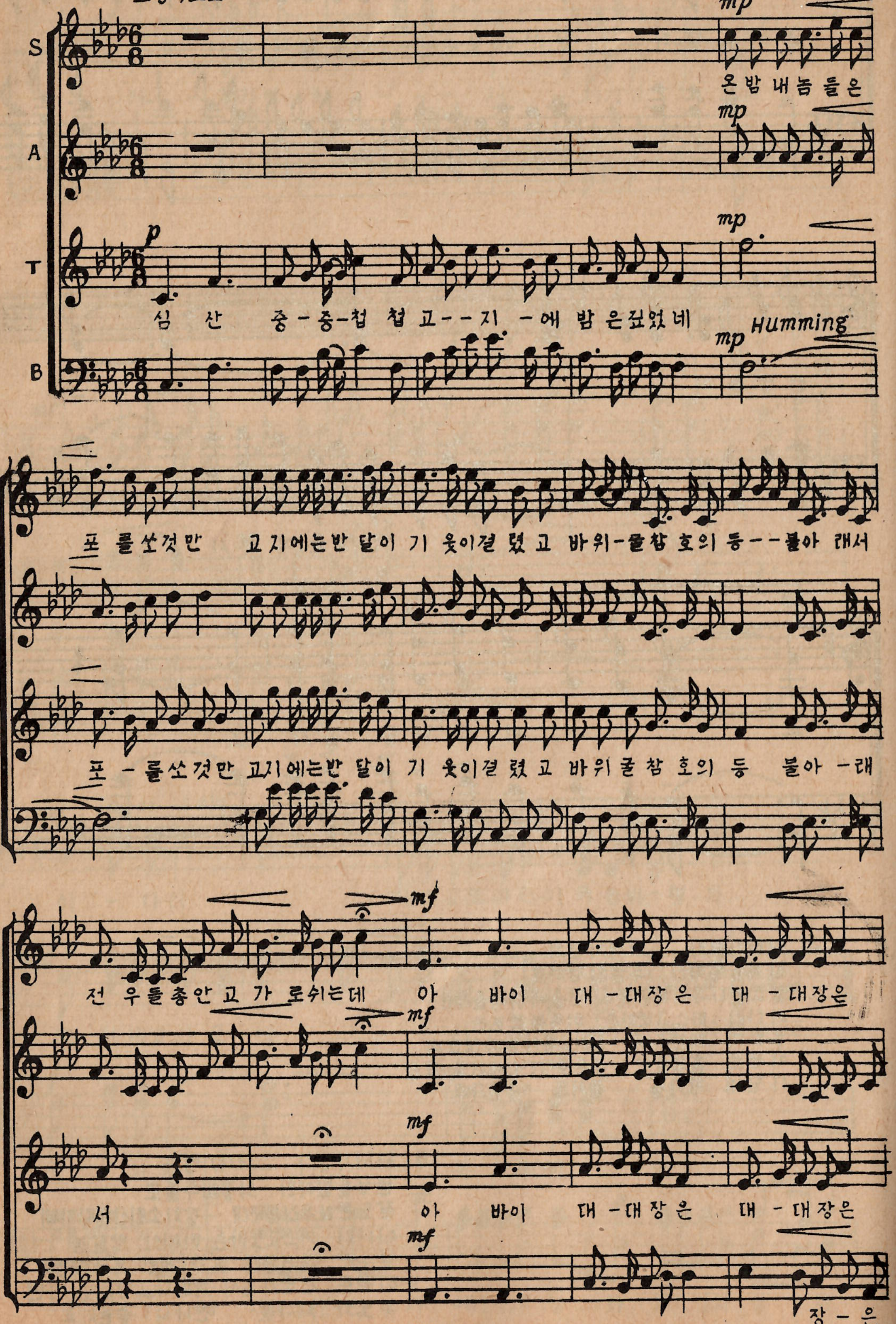
2. 허허기영차 저저기영차
침목을쌓아라 우물의정자로
잘도한다우리복구대 단숨에엮어올리네
이다리 마스고또마는 미국놈함포는
우리네 해안포에 십리도못가깔아앉았네
이길로 훈장을단 늙은총각전선에서 돌아오면
시집에 장가를 들어도 좋을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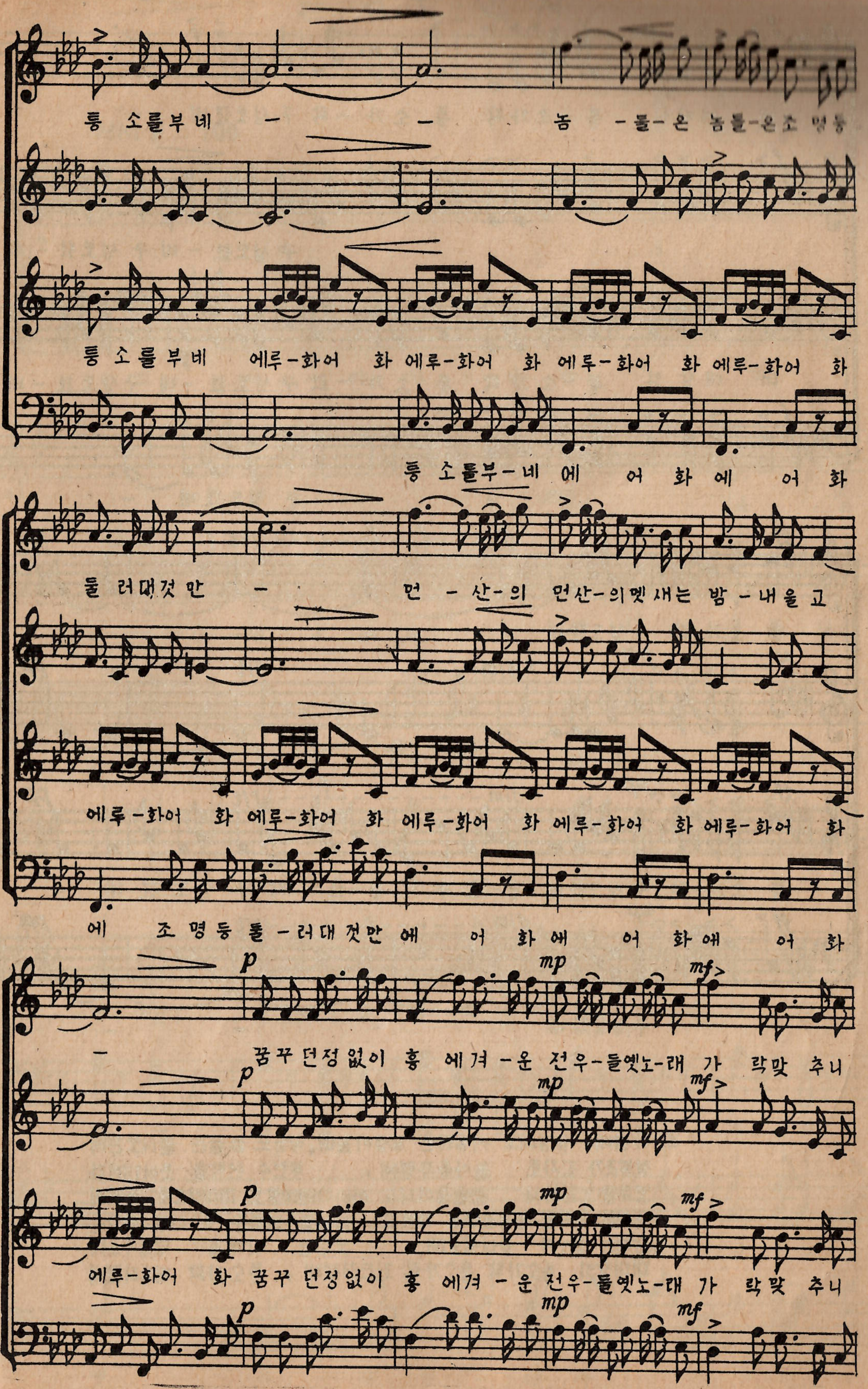
3. 허허기영차 저저기영차
철장을깔아라 의좋게두줄로
잘도한다우리복구대 망치소리산울림하네
이다리 마스고또마는 미제의 망할놈
열두번 긁어놓면 열하고세번 복구해놓네
이길로 전승가높이 저마다고향을찾어가면
부모와 처자를 만나니 좋을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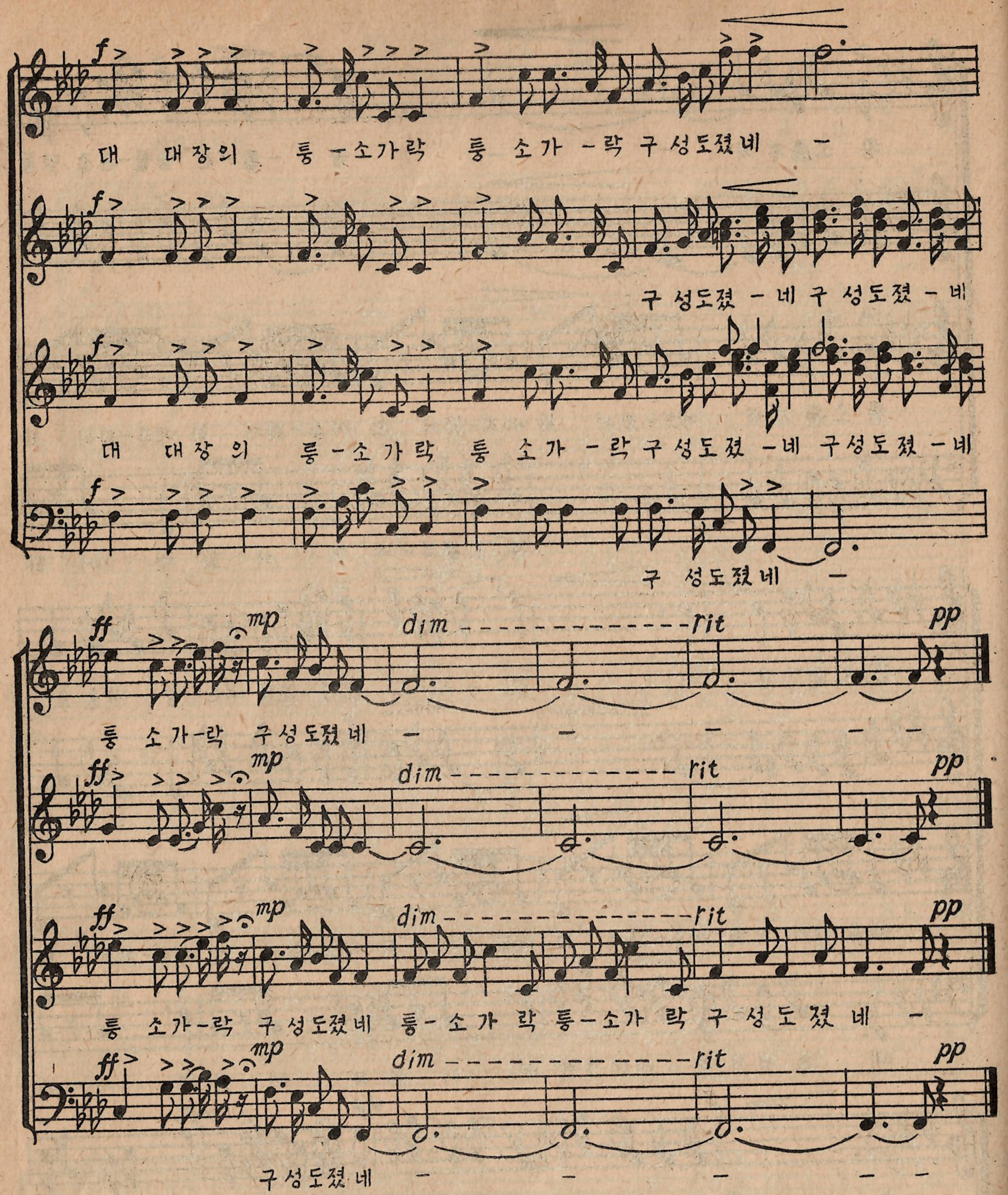
퉁 소 가 락

신 동 철 시
윤 복 기 곡

보통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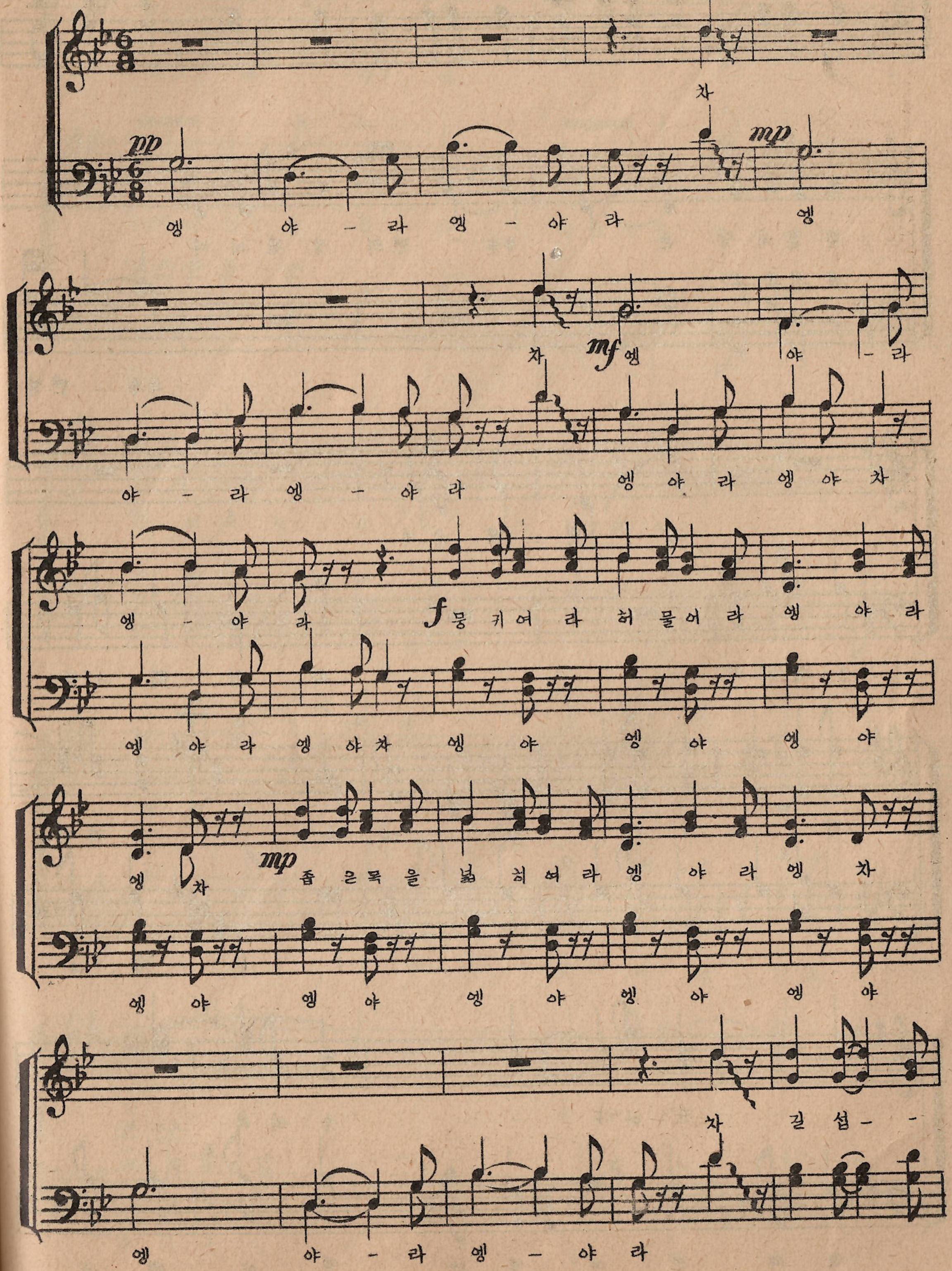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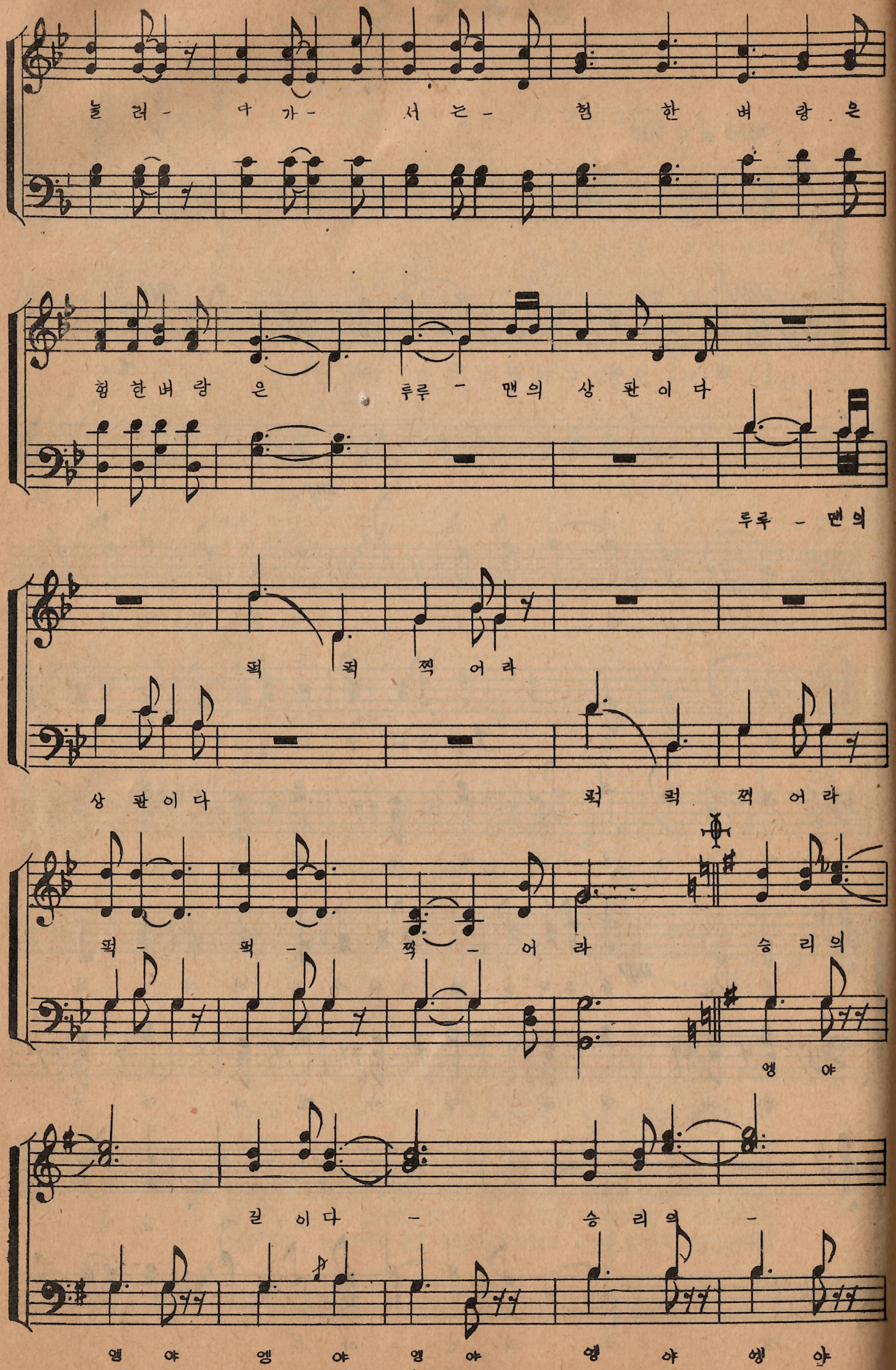
2. 야밤에 삼경에도 싸움터엔 포성이높네, 직일포 놈들은 눌러쌌는데
정찰조가 진지로 돌아올무렵에, 무전수 련락을 조여대이자
모두들 일어나 숨을죽이니, 아바이대대장도 대대장도퉁소를멎네
포위된 포위된 놈들을생포 하였고, 화점을 화점을 모조리부시였다는
감격의 통보가 들려왔을때, 모두들 어깨춤 덩실추는데
대대장의 퉁소가락 퉁소가락 건드러졌네, 퉁소가락 건드러졌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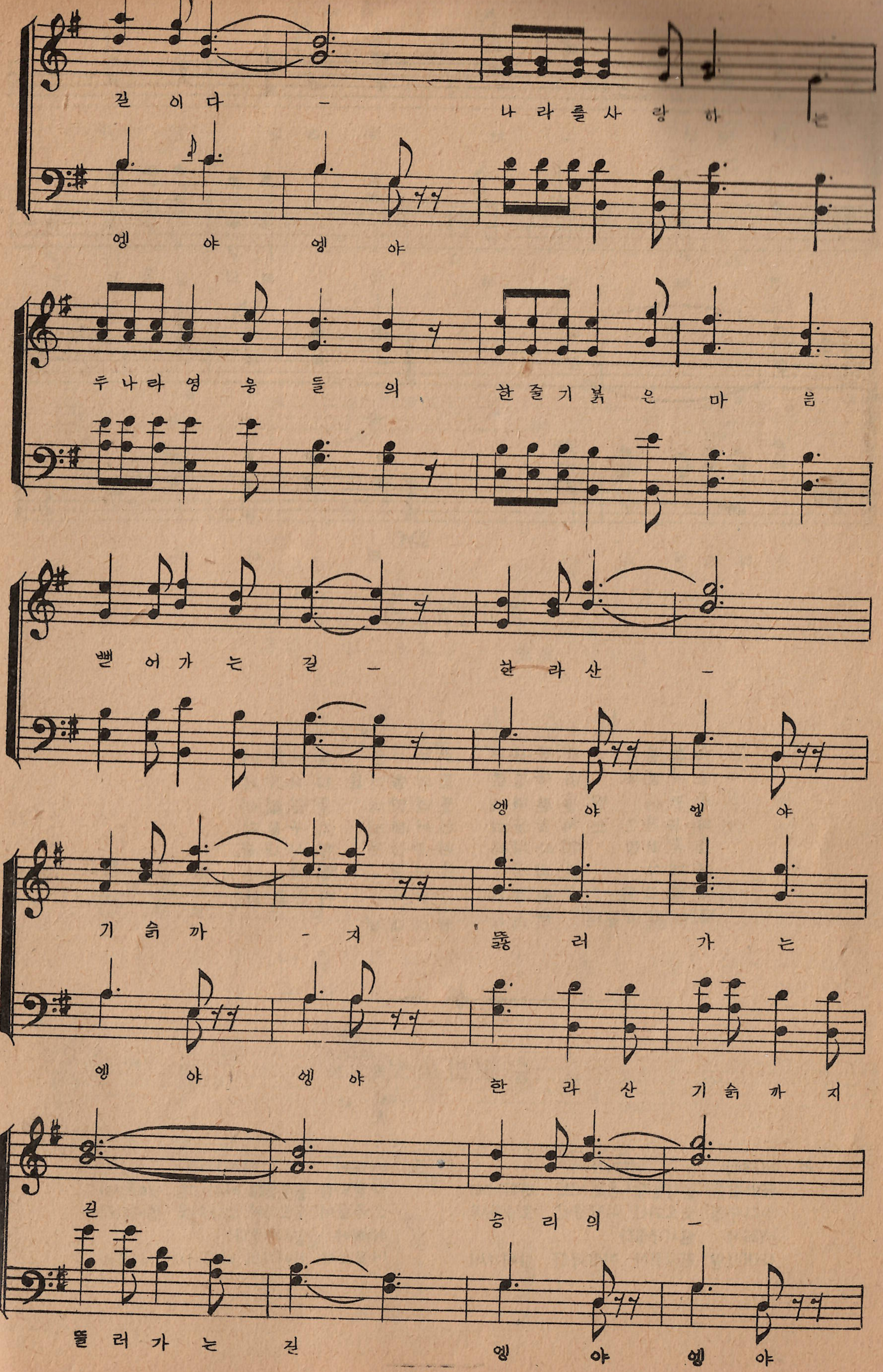
길닦는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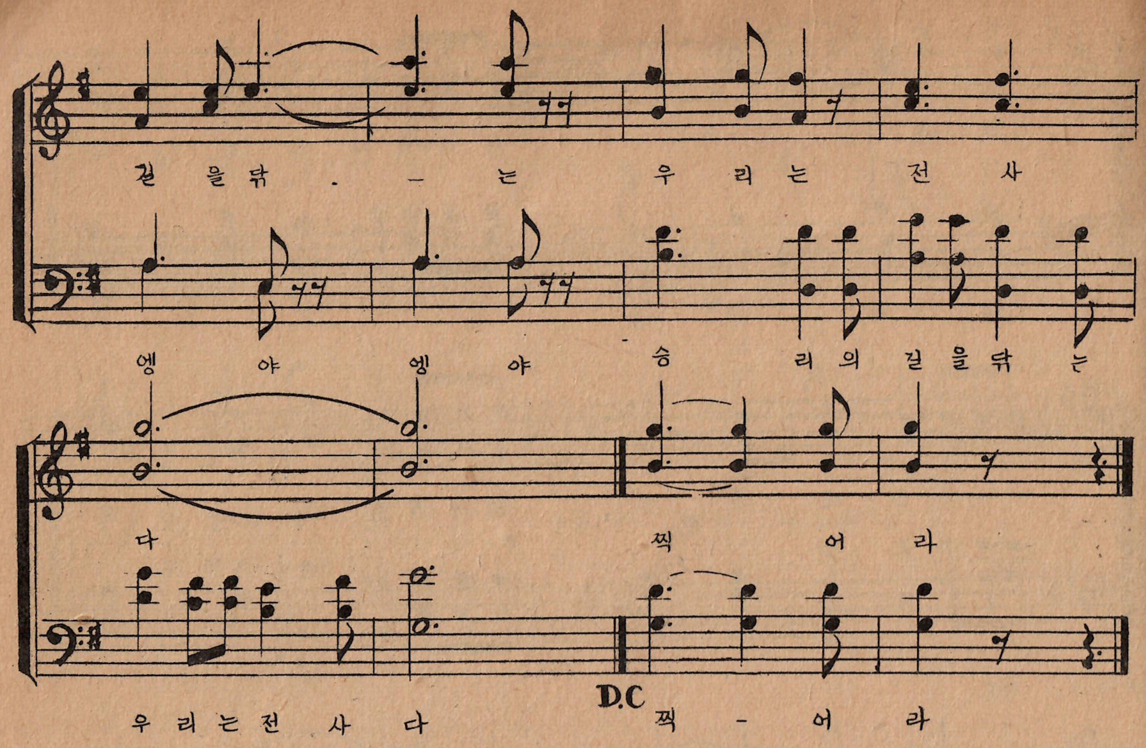
홍 종 린 시
리 면 상 곡

MM ♩ = 100




눌 러- 다 가- 서 는- 험 한 벼 랑 은
험 한 벼 랑 은 투 루 - 맨 의 상 판 이 다
투 루 - 맨 의
떡 떡 찍 어 라
상 판 이 다
떡 떡 찍 어 라
떡 - 떡 - 찍 - 어 라 승 리 의
엥 야
길 이 다 - 승 리 의 -
엥 야 엥 야 엥 야 엥 야 엥 야


길 이 다 - 나 라 를 사 랑 하 는
엥 야 엥 야
두 나 라 영 웅 들 의 한 줄 기 붉 은 마 음
뻗 어 가 는 길 - 한 라 산 -
엥 야 엥 야
기 슭 까 - 지 뚫 려 가 는
엥 야 엥 야 한 라 산 기 슭 까 지
길 승 리 의 -
뚫 려 가 는 길 엥 야 엥 야



돌쇠뽑기노래

2. 록음질은 채뚝길의 맑은이슬 걷어차며
동리앞에 바닥길로 돌쇠뽑기를 나아가세
올농사 땀흘린덕에 풍년맞이 틀림없어
미제같은 도적놈돌쇠 검어레레 자구돌쇠
요놈저놈 뽑아내세 원쑤잡듯 뽑아내세
에헤야 얼씨구 돌쇠를 뽑세
정성드린 우리농사 그릇치는 미운돌쇠
목아지비틀어 뿌리채 뽑아내세

승리의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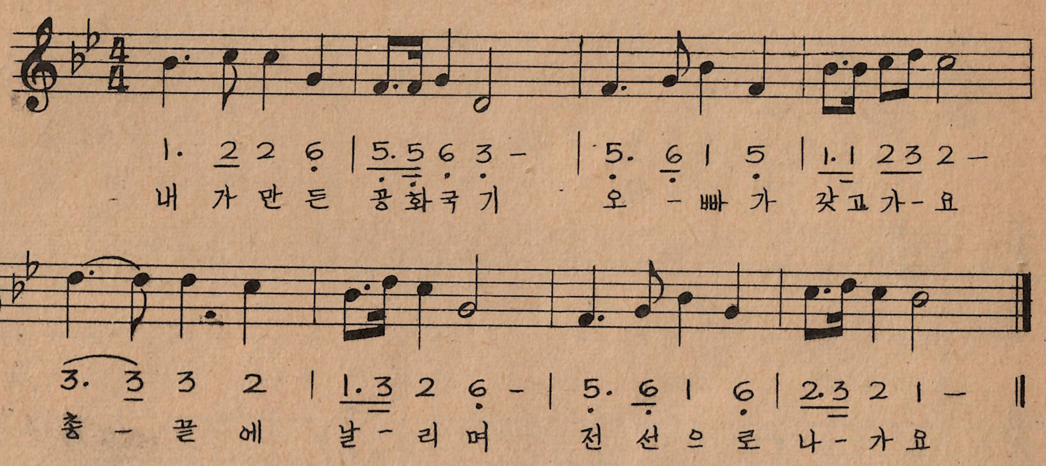
2. 에헤야 심어가세
봄바람은 살랑살랑 종달새는 비비배배
우리수령 호소하신 식량증산 호응하세
에헤야 얼시구좋다
사래긴밭 갈고갈아 이랑마다 심어가세

3. 에헤야 심어가세
가을바람 솔솔불때 이씨앗은 열매맺어
오곡들이 무르익어 노다지로 쏟아지리
에헤야 얼시구좋다
서로도아 심어가세 어서어서 심어가세

공화국기

김순서 시
김칠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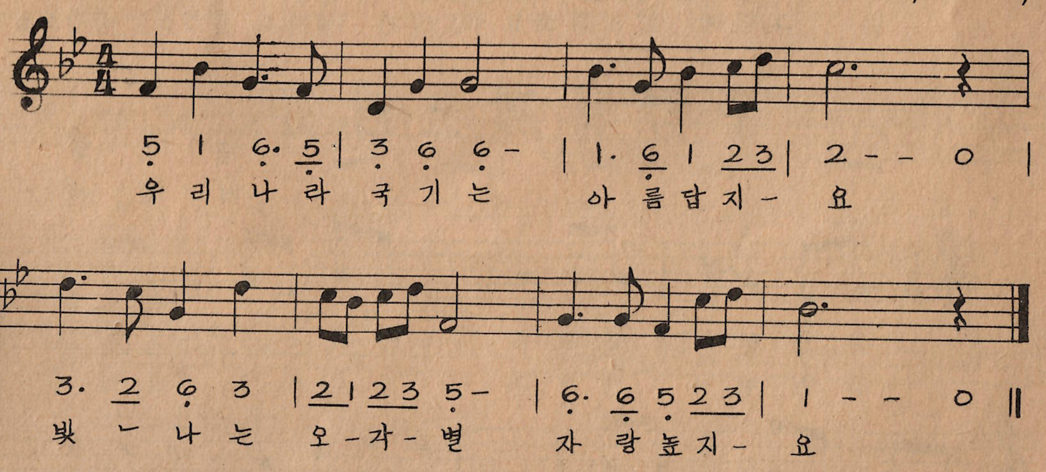
씩씩하게



2. 내가만든 공화국기 원쑤를 물리치며
강건너 들지나 앞장서서 나가라
3. 내가만든 공화국기 제주도끝까지
우리오빠 손에서 펄펄 날아라

우리나라국기

송창일 시
리천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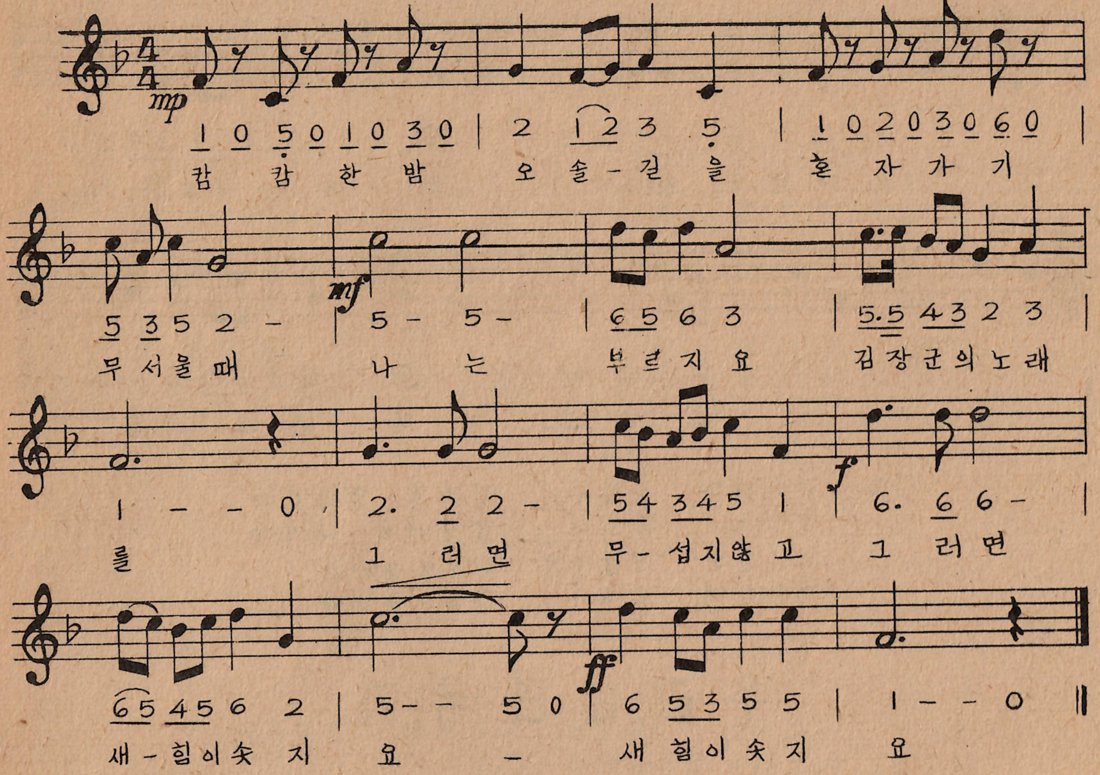


2. 우리나라 국기는
고마운 기죠
잘사는 조선의
공화국 기죠

새 힘 이 솟 지 요

보통속도로
힘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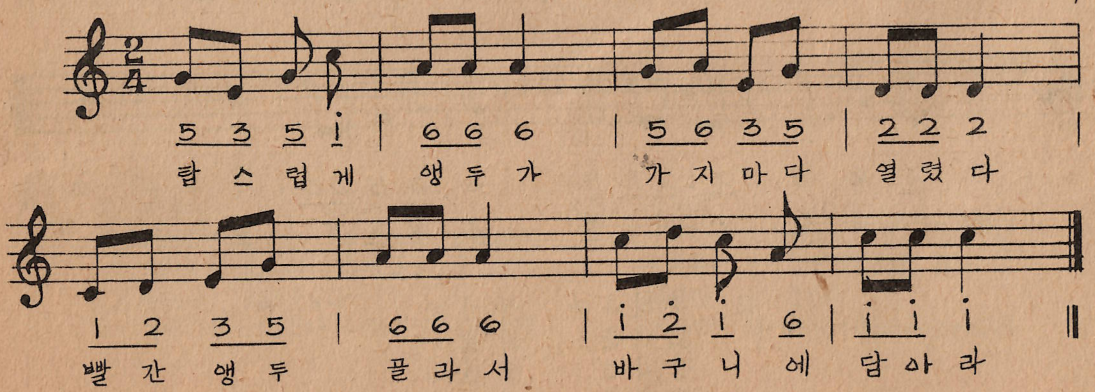
김 련 호 시
한 시 형 곡



2. 책을읽고 글을쓸때 힘든것만 튀여나면
나는 바라봐요 김장군의 사진을
그러면 앞이환하고 그러면 생각이 들지요 생각이들지요

수 령 님 께 드 리 자

송 창 일 시
리 천 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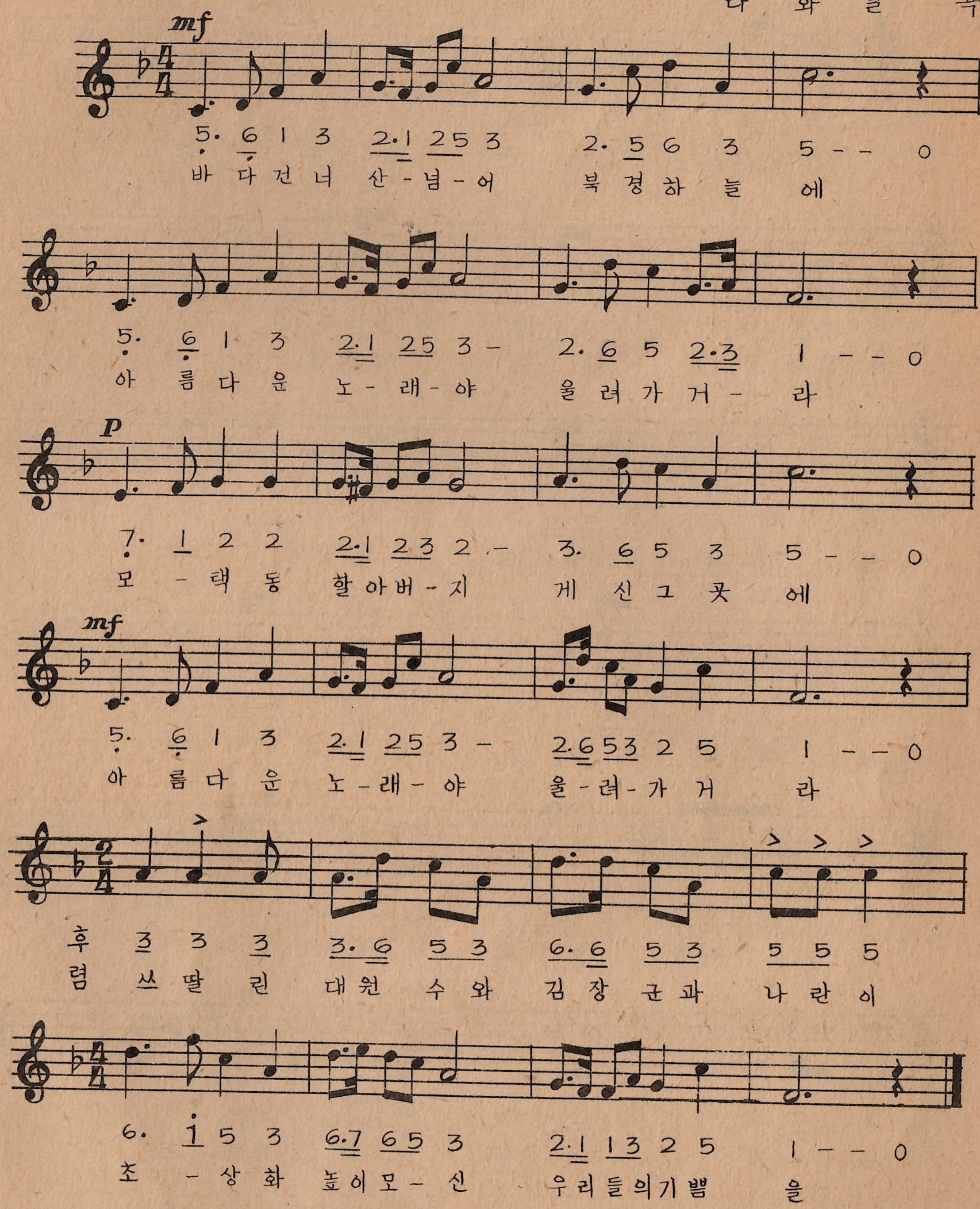


2. 선참으로 딴앵두 누구에게 드릴까
우리들을 사랑하는 수령님께 드리자

모택동할아버지

성의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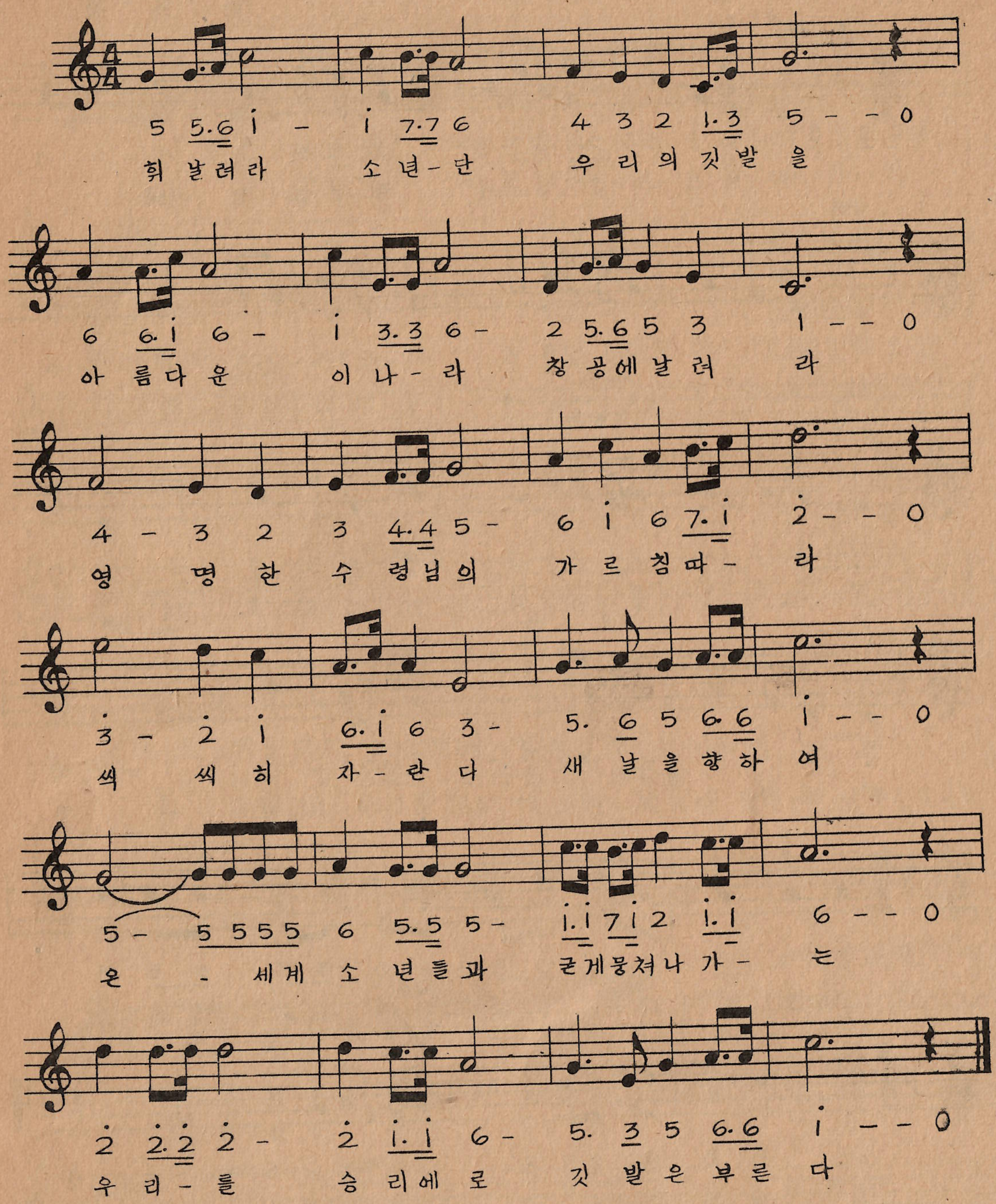
김 우 철 시
라 화 일 곡



2. 황해바다 물결아 노래불러라
만수산의 수풀아 춤을추어라
조선의 어린이들 올리는인사
할아버지 방안에 전하여다오

휘날려라 소년단깃발

김 순 석 시
윤 영 기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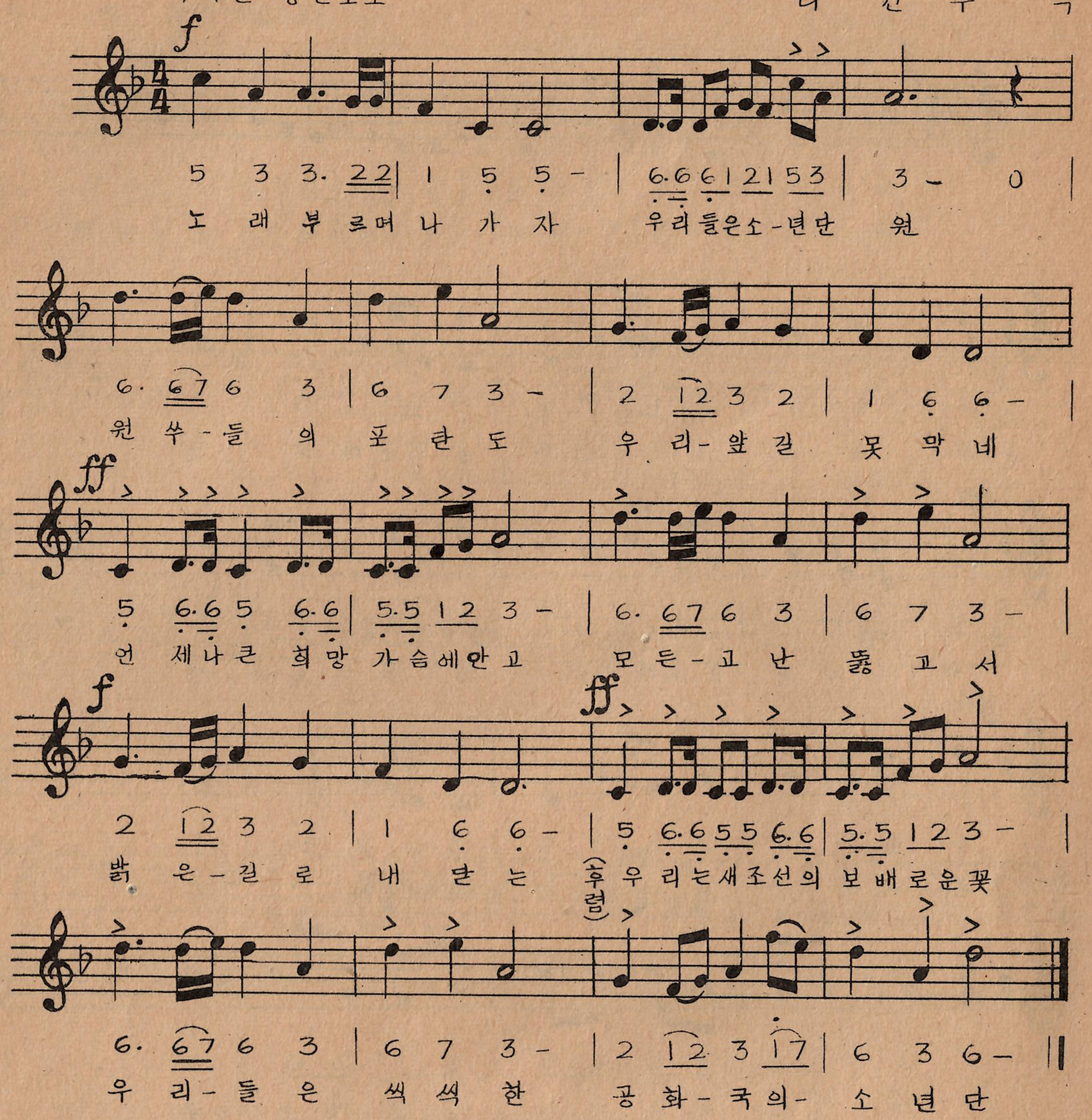


2. 높이여라 소년단 우리의깃발을
민주의 새나라 자랑을날리자
영용한 인민군대 모범받아서
힘차게 나간다 승리를향하여
온세계 소년들과 굳게뭉쳐나가는
우리를 승리에로 깃발은부른다

우리는새조선의소년단

김 춘 희 시
리 건 우 곡

씩씩한 행진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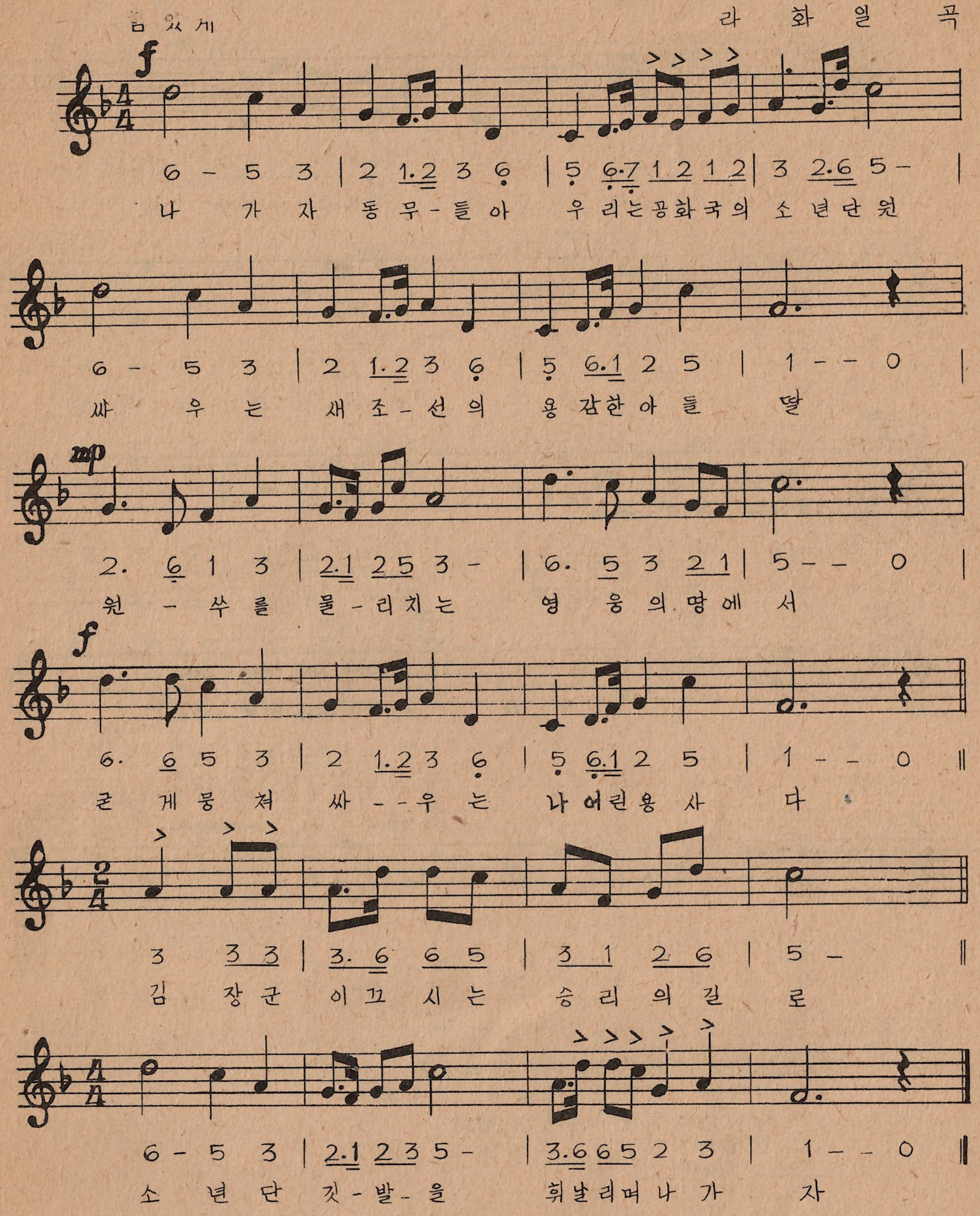


2. 깃발 날리며 나가자 우리들은 소년단
아침햇발 찬란한 승리의 광장에
수령의 따뜻한 사랑과함께
드린맹세 언제나 잊지않고 내닫는
── 후렴 ──

3. 어깨겯고서 나가자 우리들은 소년단
단결의 굳센힘 무서운것 없으며
평화론 미래는 우리들의것
온세계벗들과 한데뭉쳐 내닫는
── 후렴 ──

소년단원의 노래

박 세 영 시
라 화 일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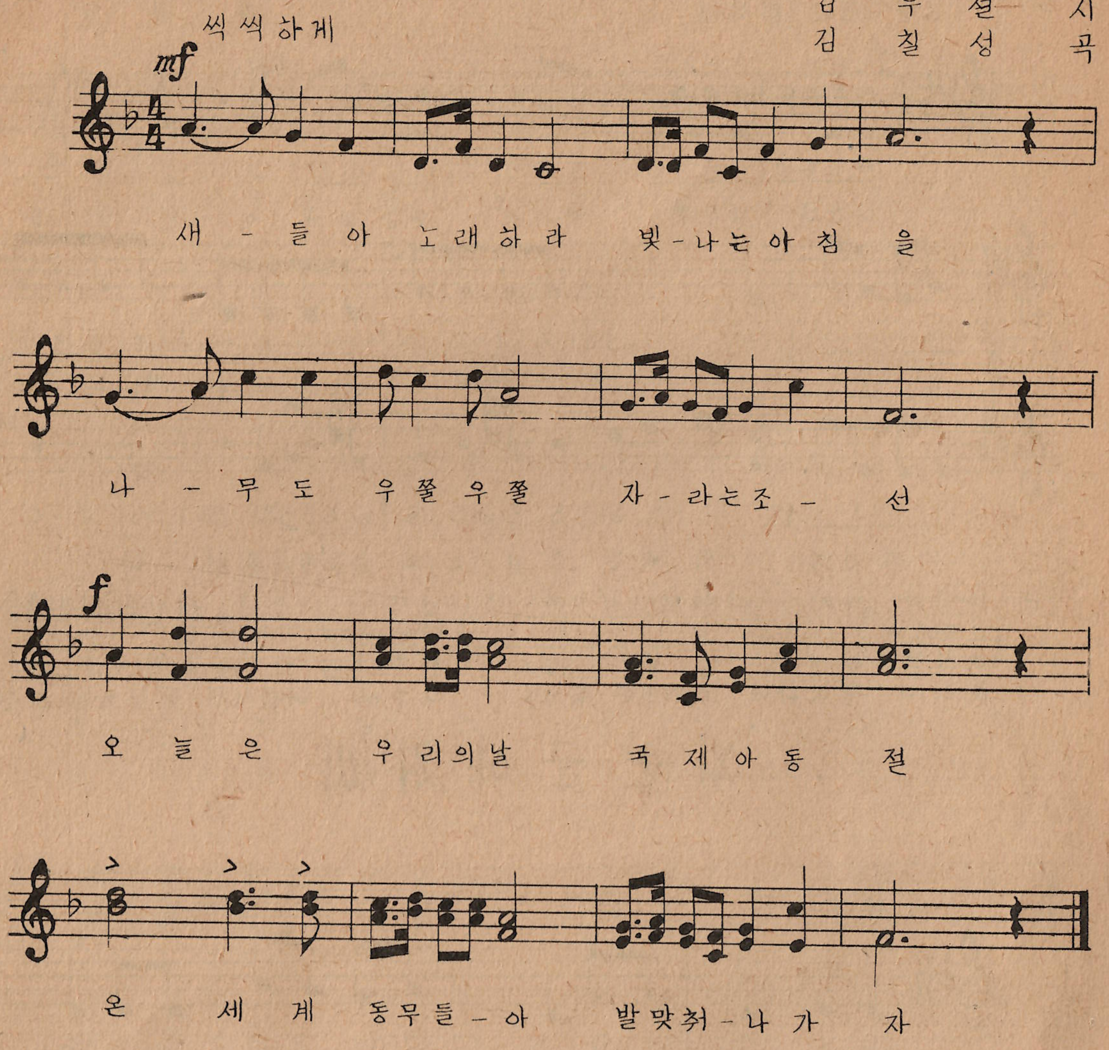


2. 용감한 동무들아 우리는 공화국의
소년단원
승리한 새조선의 귀여운 아들딸
불에탄 고향에서도 배우며 일하니
굴치않는 마음이 복쑤로 불탄다

3. 씩씩한 동무들아 우리는 공화국의
소년단원
빛나는 새조선의 행복한 아들딸
용감한 민청원들의 뒤따라가며
아름다운 우리조국 빛내며 나가자

오늘은 우리의 날

김 우 철 시
김 칠 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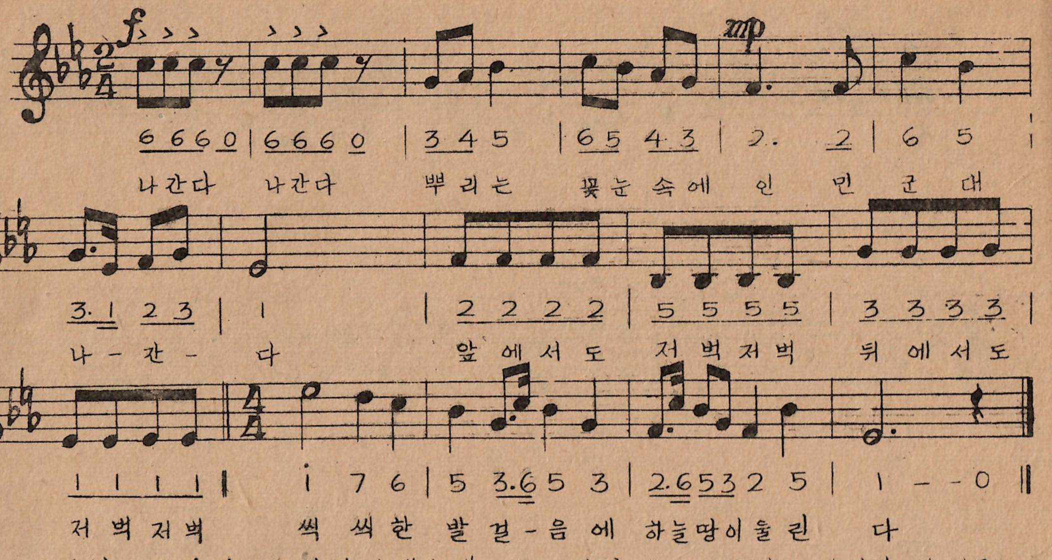
2. 깃발을 높이여라 소년단 깃발을
우리는 영웅나라 나어린 용사

3. 미제를 무찌르는 정의의 싸움을
온세계 우리동무 모두다 돕는다

모두모두형인걸

박 세 영 시
라 화 윤 곡

행진조로 힘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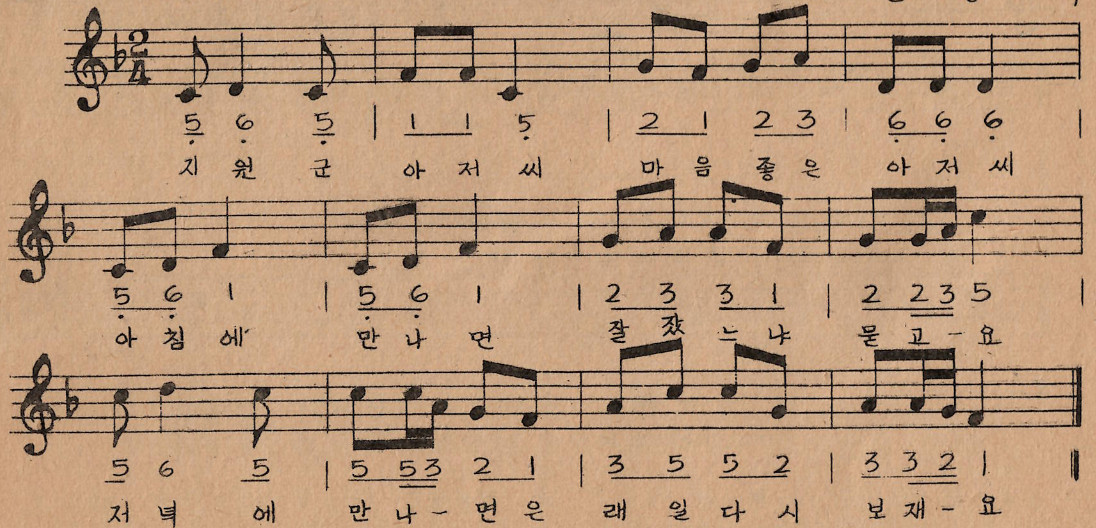
2. 나간다 나간다 우렁찬만세속에
인민군대 나간다
우리형님 어데가나 암만봐도 모르겠네
찾아서 무엇하나 모두모두 형인걸

3. 나간다 나간다 새나라 지켜주는
인민군대 나간다
김장군님 뒤를따라 힘차게도 나가누나
나두야 어서커서 형님처럼 되련다

지 원 군 아 저 씨

송 창 일 시
김 칠 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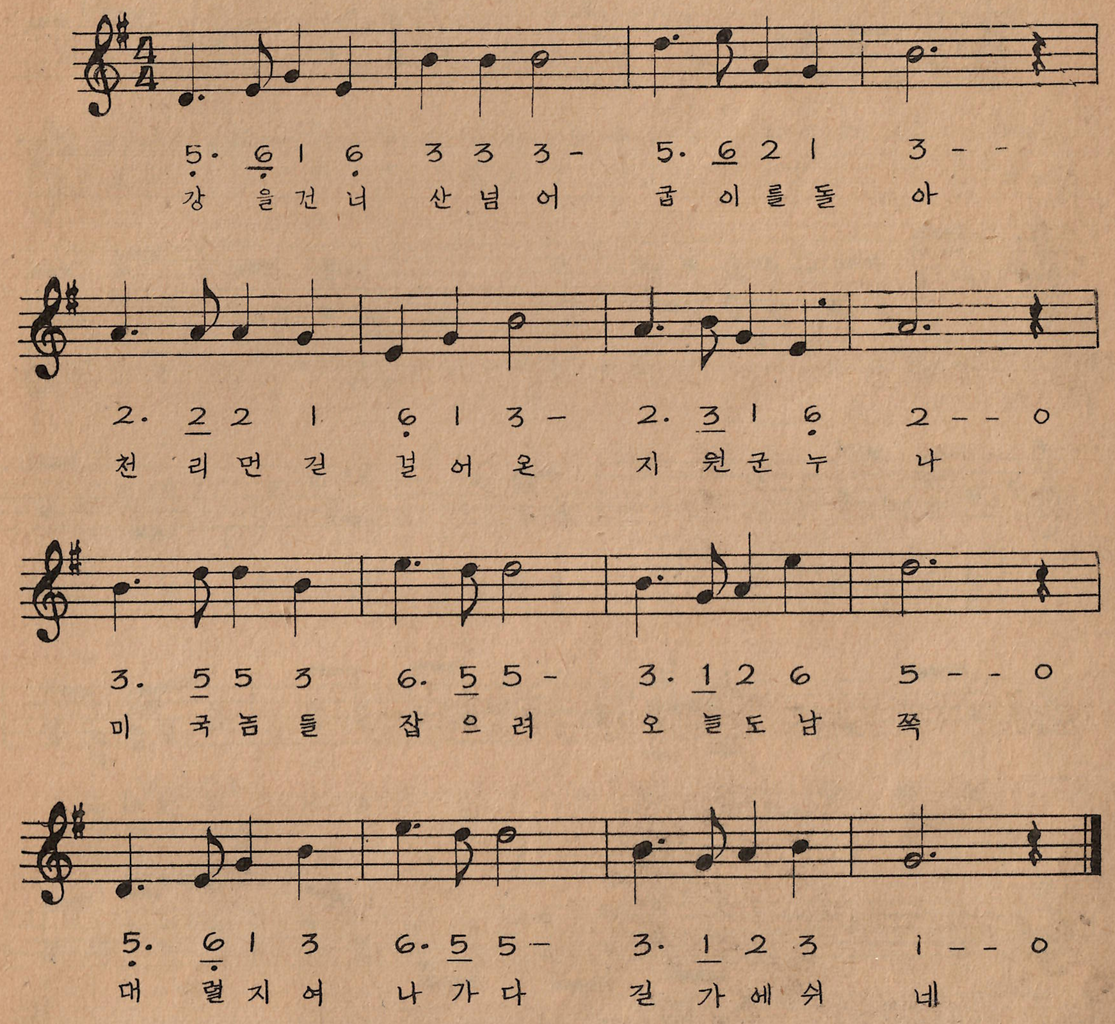
다정하게



2. 지원군 아저씨 고마운 아저씨
원쑤갚는 싸움에 인민군대 도우려고
고향떠나 머나먼길 우리나라 오셨네

지 원 군 누 나

임 원 호 시
김 원 균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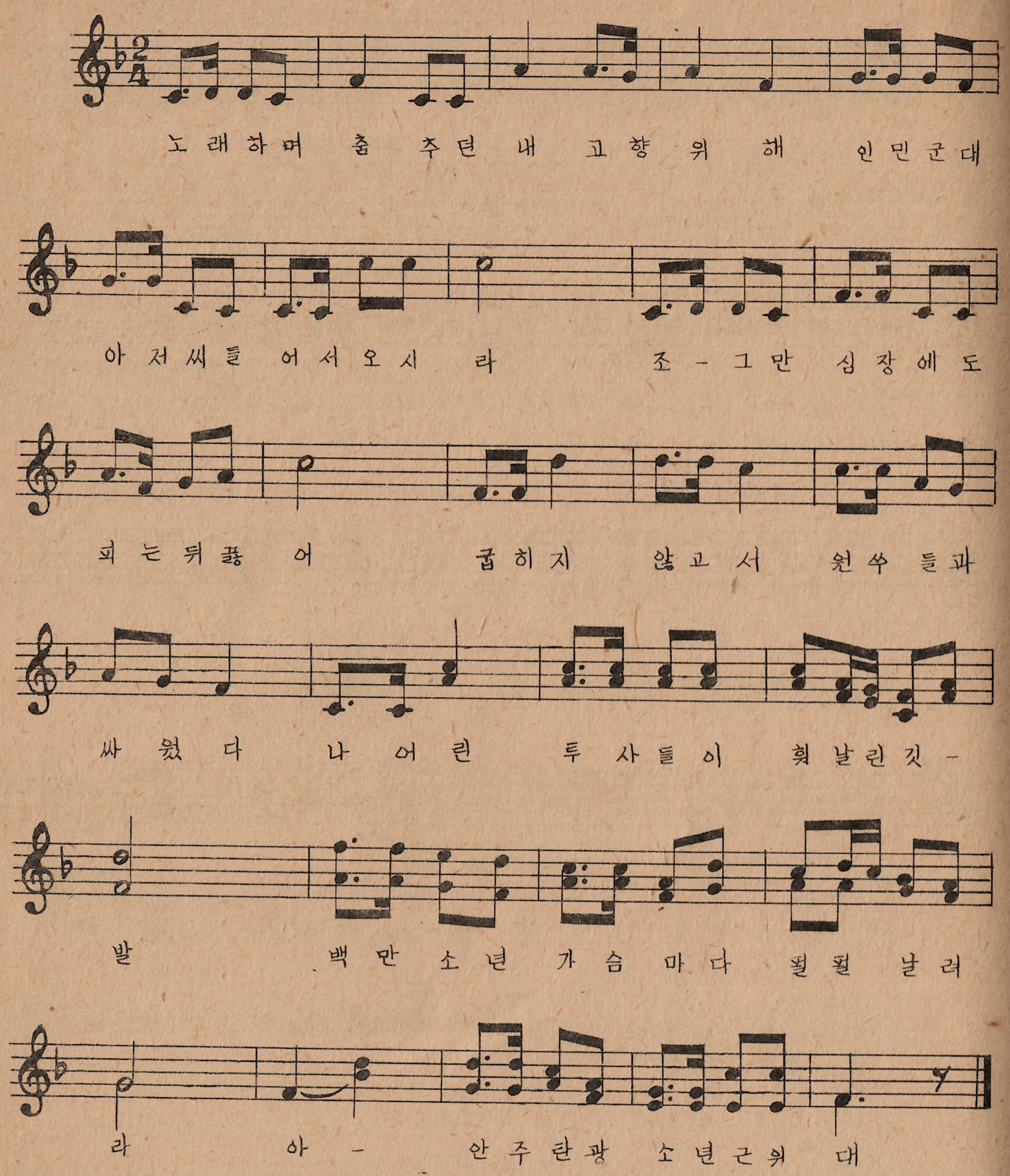
2. 거센바람 햇빛에 까맣게타고
방울방울 땀방울 얼룩진얼굴
무어라 말하나 고마운인사
나는그냥 반가이 손내밀었네

3. 생글생글 웃으며 손잡아주며
머리를 쓰다듬는 지원군누나
원쑤를 갚자는 그런말인가
배낭지고 떠나며 뒤돌아보네

안주탄광소년근위대

씩씩하게

리 원 우 시
김 칠 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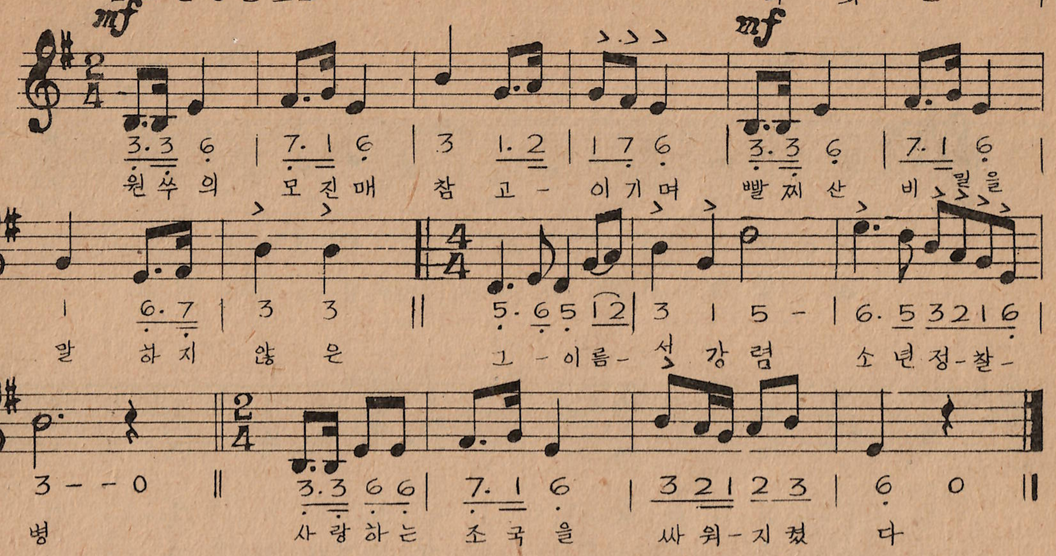


2\. 기쁘뛰며 노래할 내고향위해
일어나서 싸우자고 크게쓴삐라
이골목 저골목에 훨훨 뿌리며
미국말이 오고가는 통신선을 끊었다

3\. 걸음마다 정이든 내고향길로
부모형제 학살하려 달려오는차
산산히 부서지라 양못판깔고
적 비행기 밤눈인 조명등을 뺌았다

서강렴소년

숭 찬 일 시
라 화 일 곡

좀느린행진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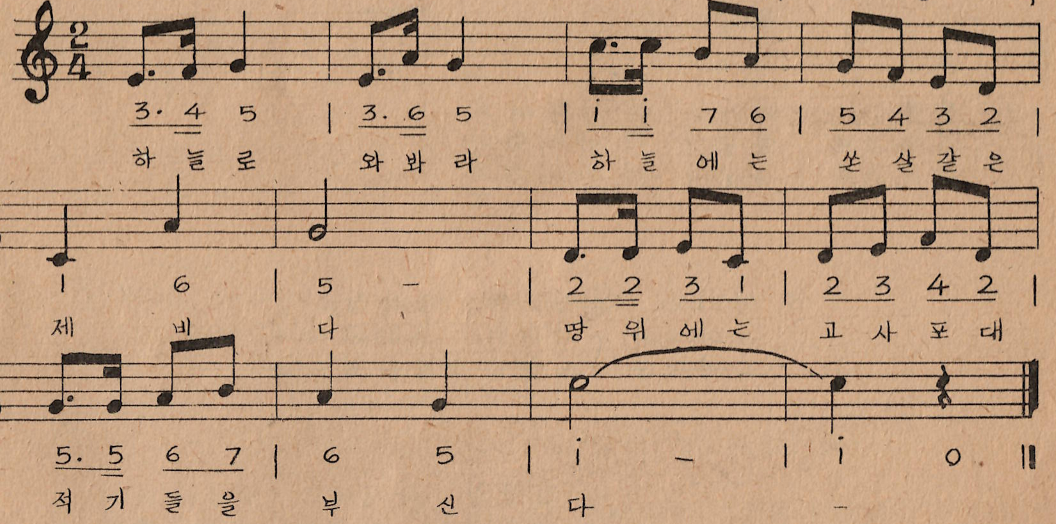


2\. 덕지강 어름도 쩡쩡울리게
원쑤의 총앞에 웨치며싸운
그이름 서강렴 고원빨찌산
사랑하는 조국을 싸워지켰다

3\. 샛하얀 모래를 피로물들여
고귀한 최후를 빛내인소년
그이름 빛나라 서강렴소년
사랑하는조국을 싸워지켰네

어디라도와봐라

박 세 영 시
리 조 영 곡

행진조로



2\. 고지에 와봐라 나의고지 철벽같이 지키는
용감한 인민군대 네놈들을 잡는다

3\. 산으로 와봐라 산에는 적기잡는 명사수
사냥꾼조 용사들이 명중탄을 퍼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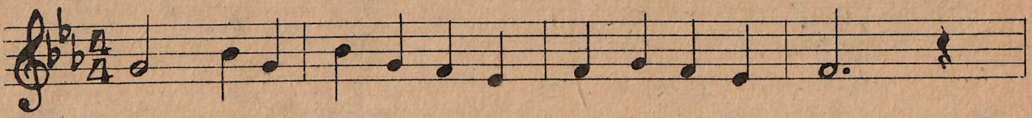
4\. 바다에 와봐라 바다에는 적함깨는 해병들
백발백중 맞쳐내는 해안포병 지킨다

5\. 큰길로와봐라 큰길에는 땅크잡는 용사들
반땅크 수류탄의 불벼락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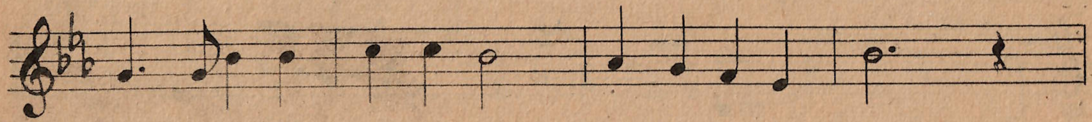
김창궐아저씨

박 응 호 시
리 조 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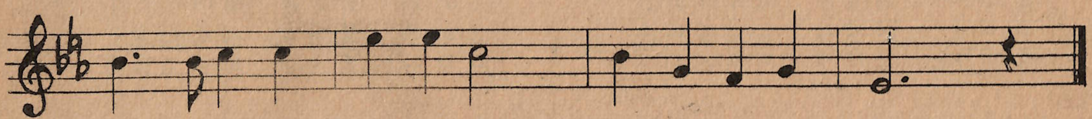
느라지 않게



3 - 5 3 5 3 2 1 2 3 2 1 2 - - 0
김 창 궐 아 저 씨 는 영 웅 아 저 씨



3. 3 5 5 6 6 5 - 4 3 2 1 5 - - 0
노 래 노 래 불 러 서 길 이 전 하 자



5. 5 6 6 1̇ 1̇ 6 - 5 3 2 3 1 - - 0
노 래 노 래 불 러 서 길 이 전 하 자

2. 불붙는 토치카로 뛰여들어가
가슴으로 불구멍 막아버렸지
가슴으로 불구멍 막아버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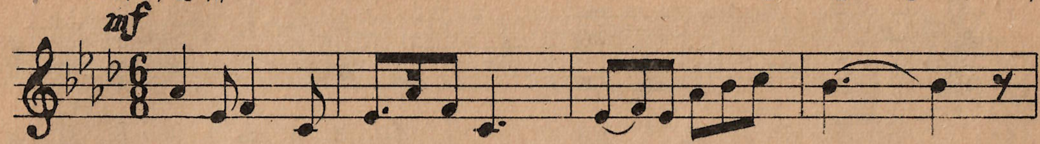
3. 아저씬 헐벗고산 농사집아들
꼬마꼬마 시절도 용감했다네
꼬마꼬마 시절도 용감했다네

4. 김창궐 아저씨는 영웅아저씨
우리우리 다같이 따라들가자
우리우리 다같이 따라들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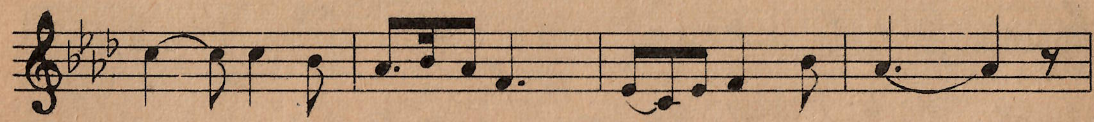
조국의바다

리 맥 시
김 칠 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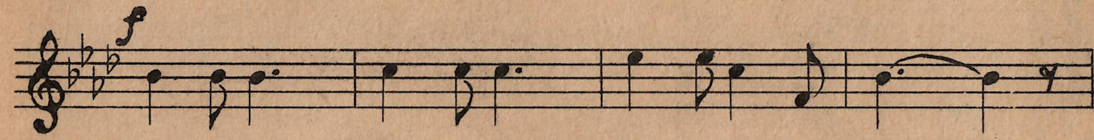
느리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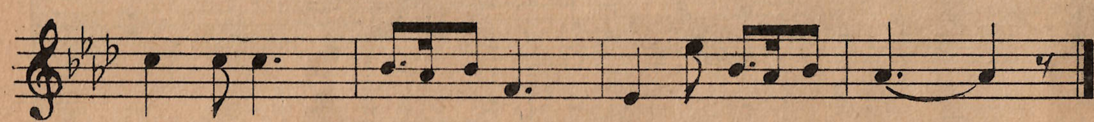


1 5 6 3 | 5· 1 6 3· | 5 6 5 1 2 3 | 2· 2 |
바 다 바 다 푸 른 바 다 조 - 국 의 - 바 다 -



3 3 3 2 | 1· 2 1 6· | 5 3 5 6 2 | 1· 1 |
원 - 쑤 를 물 리 치 는 영 - 웅 의 바 다 -



2 2 2· | 3 3 3· | 5 5 3 6 | 2· 2 |
산 같 은 큰 파 도 일 어 번 지 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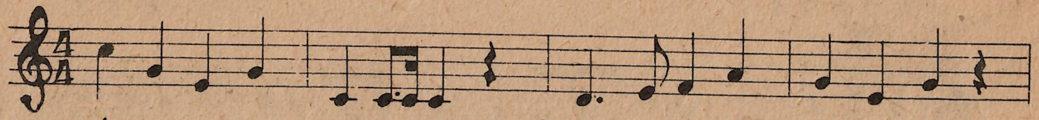


3 3 3· | 2· 1 2 6· | 5 5 2· 1 2 | 1· 1 ‖
바 다 의 강 도 배 들 얼 신 못 - 하 게 -

2. 바다 바다 넓은바다 조국의바다
리순신장군이 싸우신 바다
산같은 큰파도 일어번지라
다시는 강도배들 오지못하게

3. 바다 바다 거센바다 조국의 바다
우리의 형제들이 지키는 바다
산같은 큰파도 일어번지라
어떠한 원쑤들도 살아못납게

매야매야

리맥 시
김원균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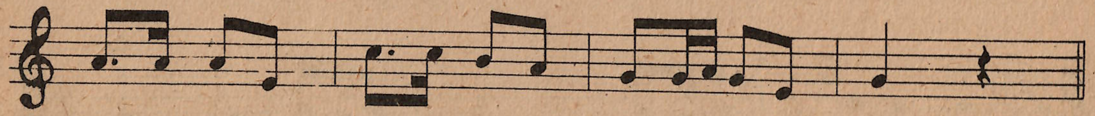


i 5 3 5 | 1 1.1 i | 2. 3 4 6 | 5 3 5 0 |
매야매야 용감-한 공-화국 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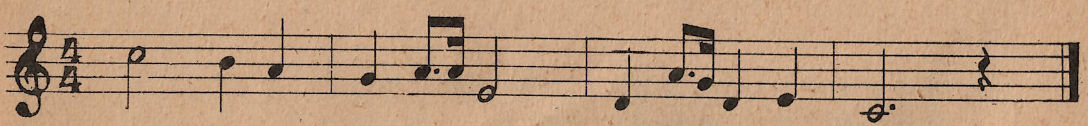
6 3 6 i | 7 5.6 3 - | 2 6 5 2.3 | 1 - - 0 ‖
키에익은 네소-리 하-얀날-개



2 2. 3 | 4. 2 3 | 4 4. 5 | 6. 3 5 |
오늘은 어디서 원쑤를 부셨나



6. 6 6 3 | i. i 7 6 | 5 5 6 5 3 | 5 - ‖
큰-날개 펴-고서 하늘로떠돌 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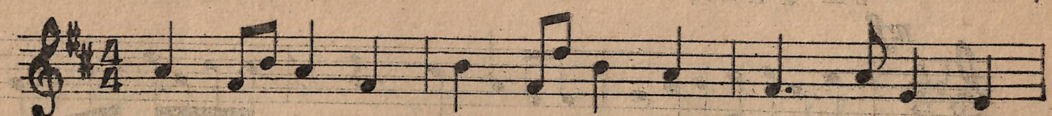


i - 7 6 | 5 6.6 3 - | 2 6.5 2 2 | 1 - - 0 ‖
미국놈 비행-기 몇대나부셨 나

2. 매야 매야 용감한 우리의매야
제비같이 생긴 낮익은네모양
쳐다만 보아도 힘이솟누나
우리학교 우리집에 포탄을뿌리는
원쑤를 더많이 쳐부셔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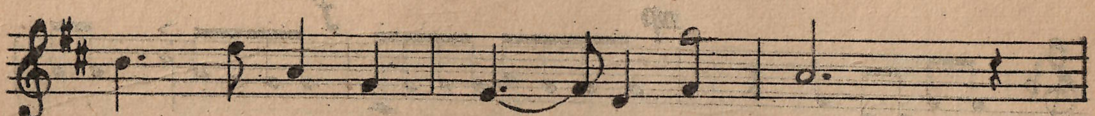
영웅누나날아가는밤

명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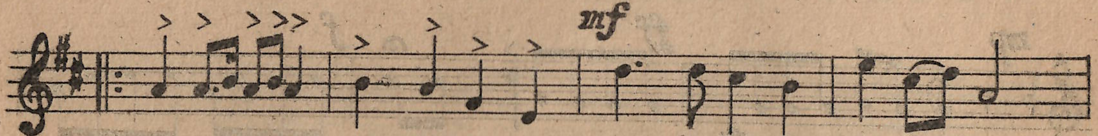
리원우 시
김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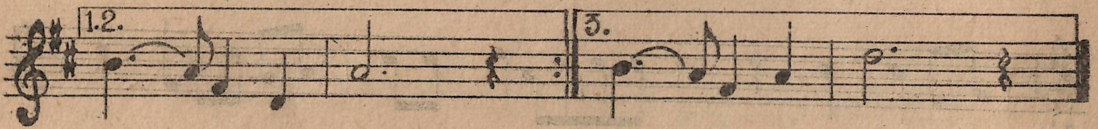


5 3 6 5 3 6 3 i 6 5 3. 5 2 1
큰 나랫속에 큰 폭탄품고 우리우리



6. i 5 3 2. 3 1 3 5 - - 0
영웅누나 날-아간 다



5 5.6 5 6 5 6 5 3 1 1. i 7 6 2 7 i 5 -
우르릉우르릉 우뢰소리 밤하늘을 헤치-며



6. 5 3 1 5 - - 0 6. 5 3 5 i - - 0
날-아간 다 날-아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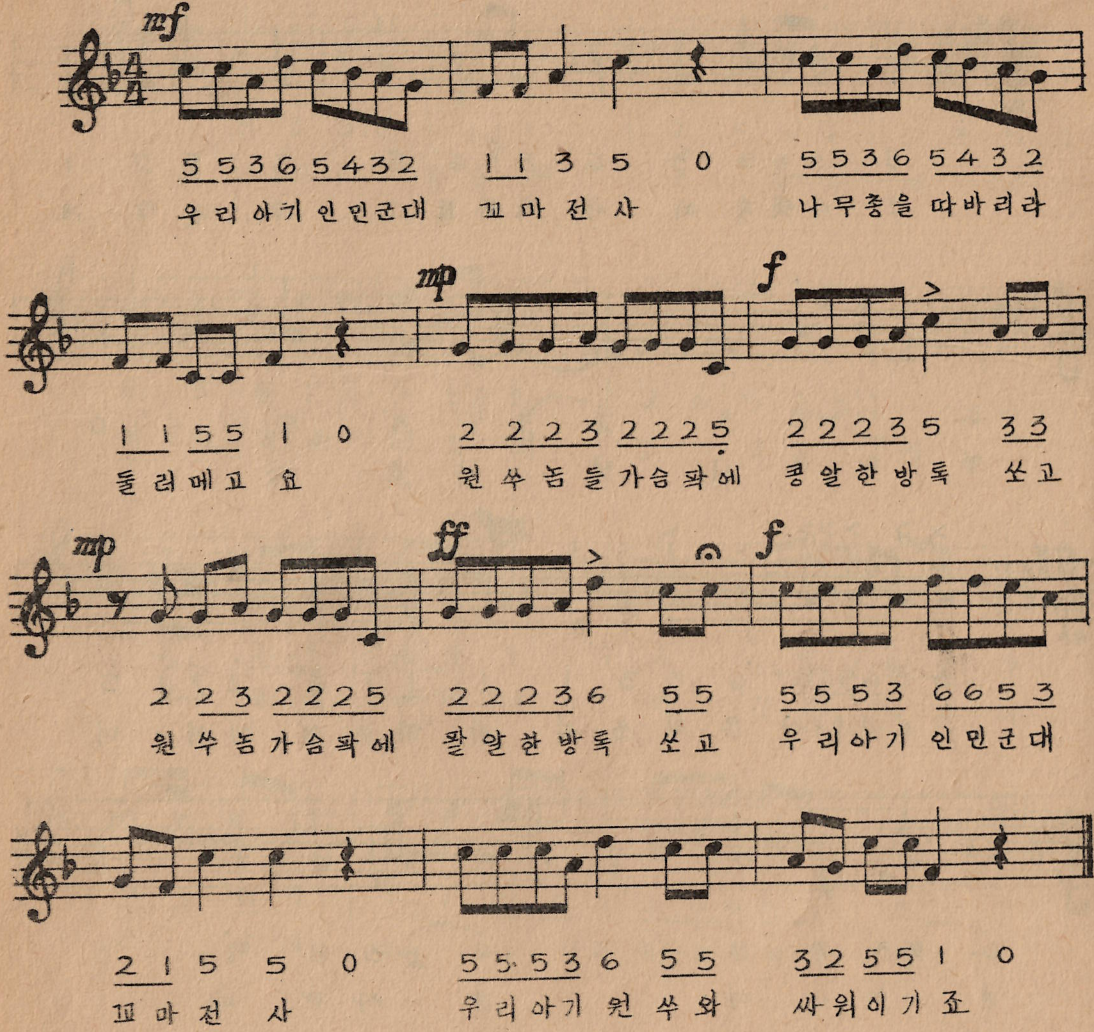
2. 큰가슴속에 큰결심품고
비행사된 우리누나 날아간다
우르릉 우르릉 우뢰소리
원쑤놈들 치려고 날아간다

3. 큰날개타고 날아간누나
어젯밤엔 미국군함 부시고왔네
우르릉 우르릉 우뢰소리
오늘밤도 미국군함 치려간다

우리아기인민군대꼬마전사다

윤 복 진 시
한 시 형 곡

가볍고 활발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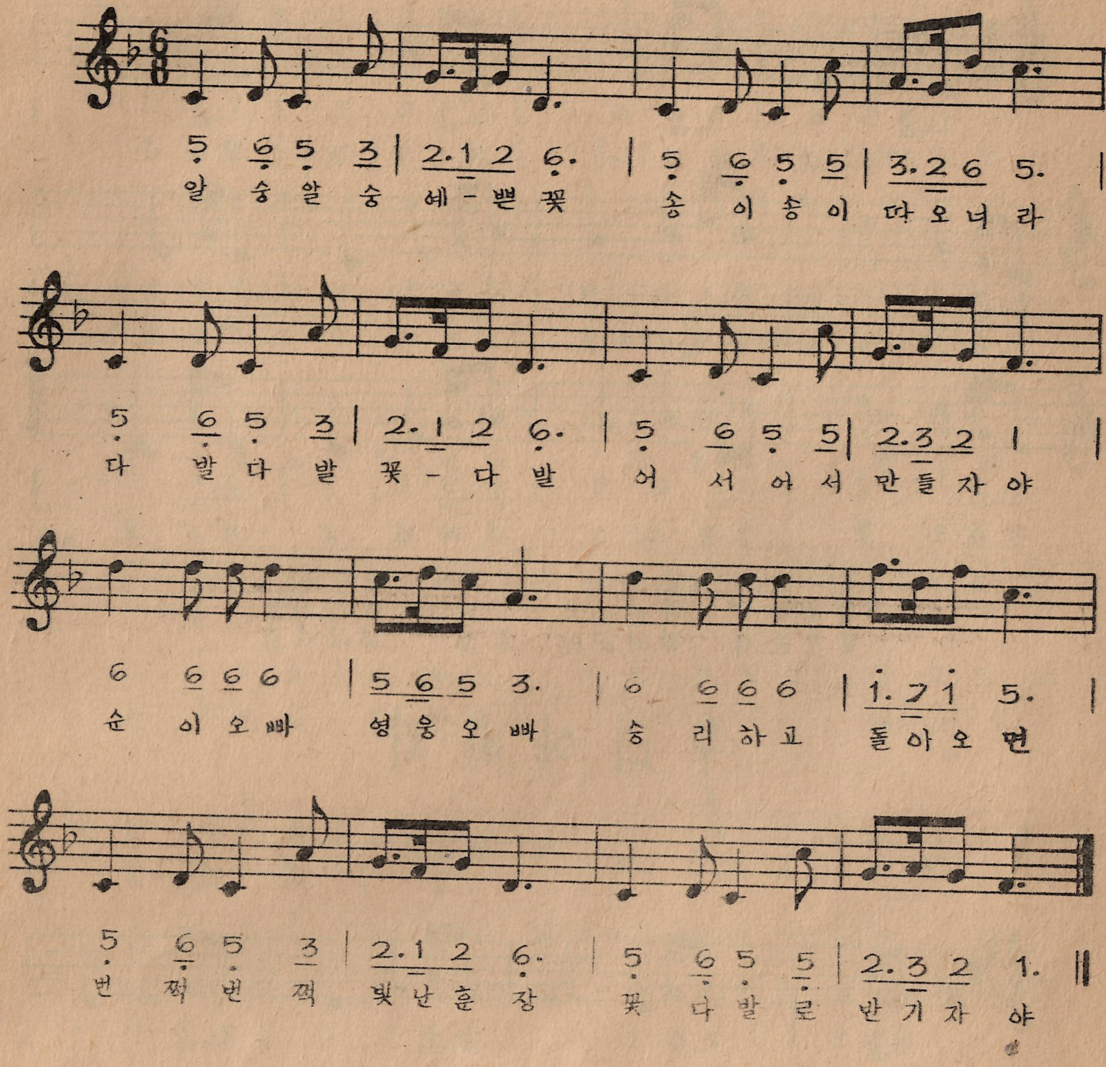


2. 우리아기 인민군대 꼬마전사
나무총을 따바리라 둘러메고요
인민군대 아저씨들 웃지들마세요
지원군 아저씨들 웃지들마세요
우리아기 인민군대 꼬마전사
우리아기 원쑤와 싸워이기죠

꽃다발을드리자

김 련 호 시
김 칠 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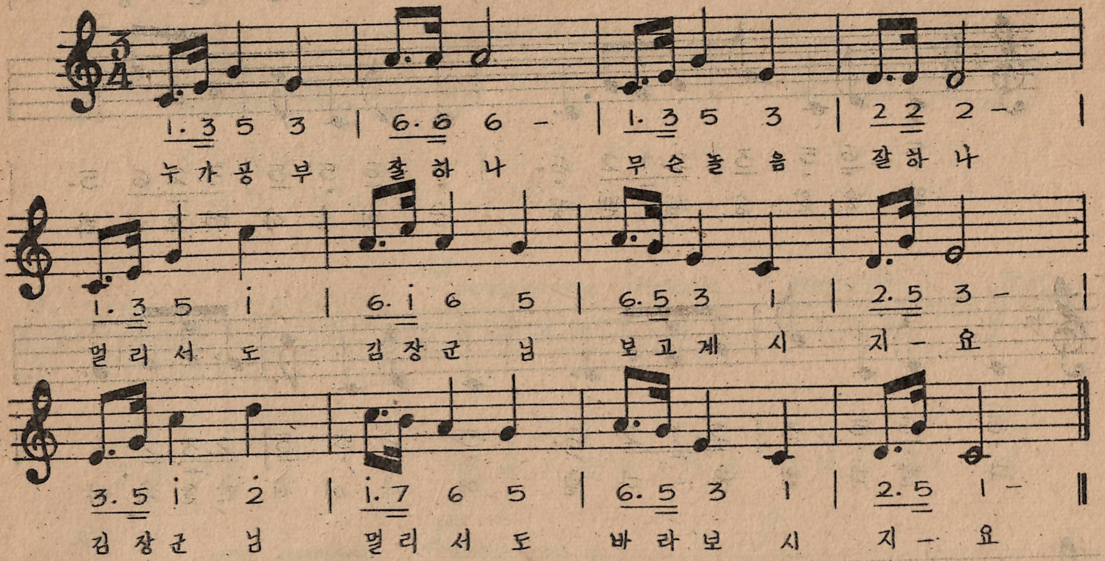
민요풍으로



2. 알송알송 예쁜꽃 송이송이 따오너라
다발다발 꽃다발 곱게곱게 만들자야
산골작이 풀숲에 원쑤부신 이야기
모두모두 들어보자 우리들도 따라야지

다아신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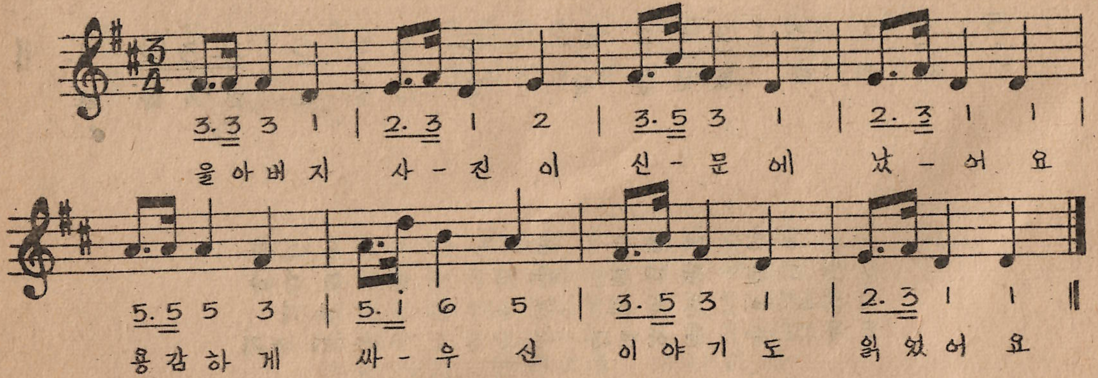
홍종린 시
박용필 곡



2. 누가노래 잘하나 무슨노래 잘하나
김장군님 멀리서도 다듣고 계시지요
김장군님 멀리서도 듣고 계시지요

우리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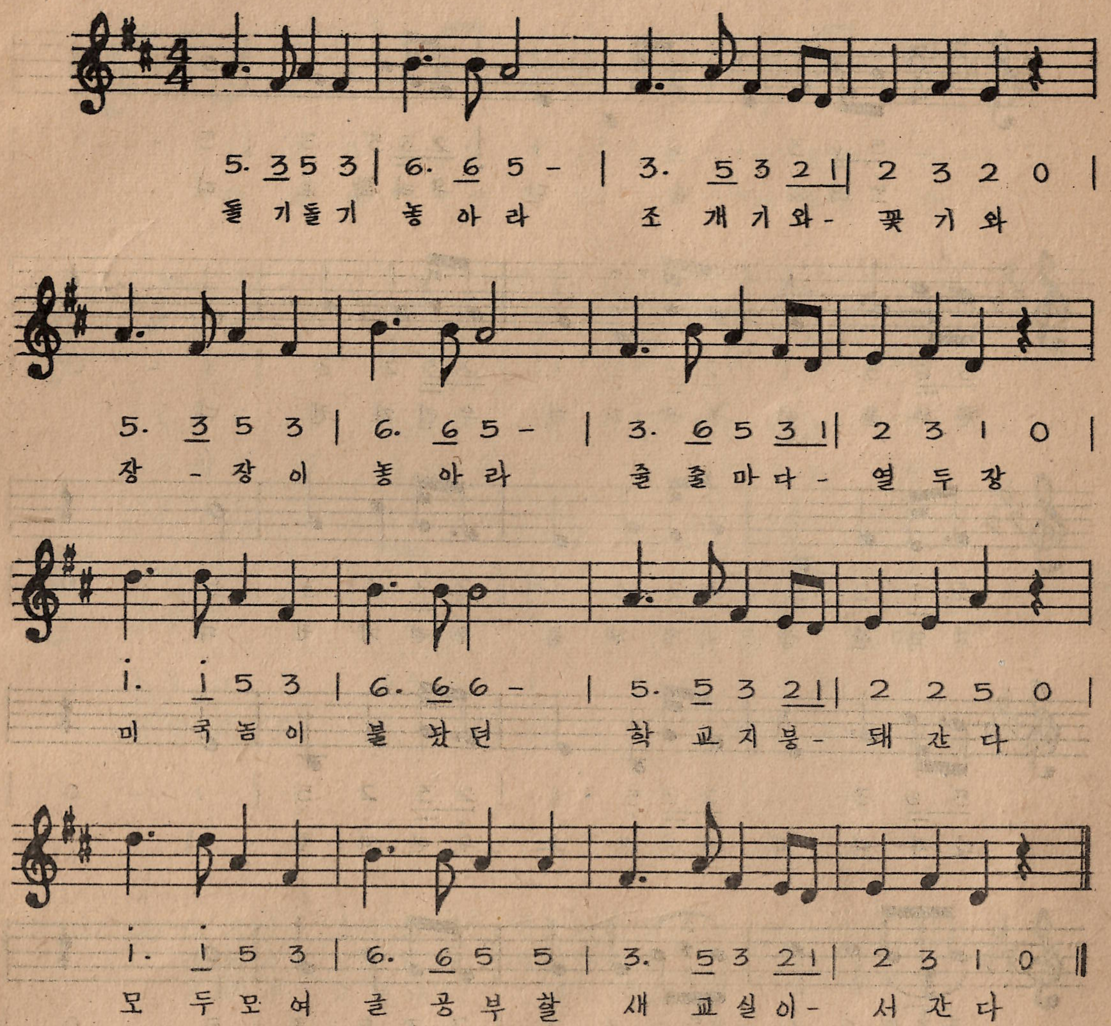
송창일 시
리면상 곡



2. 나는 편지 썼어요
용감하신 아버지께
남은원쑤 없애고
어서빨리 오시라고

학교놀이

리원우 시
리정언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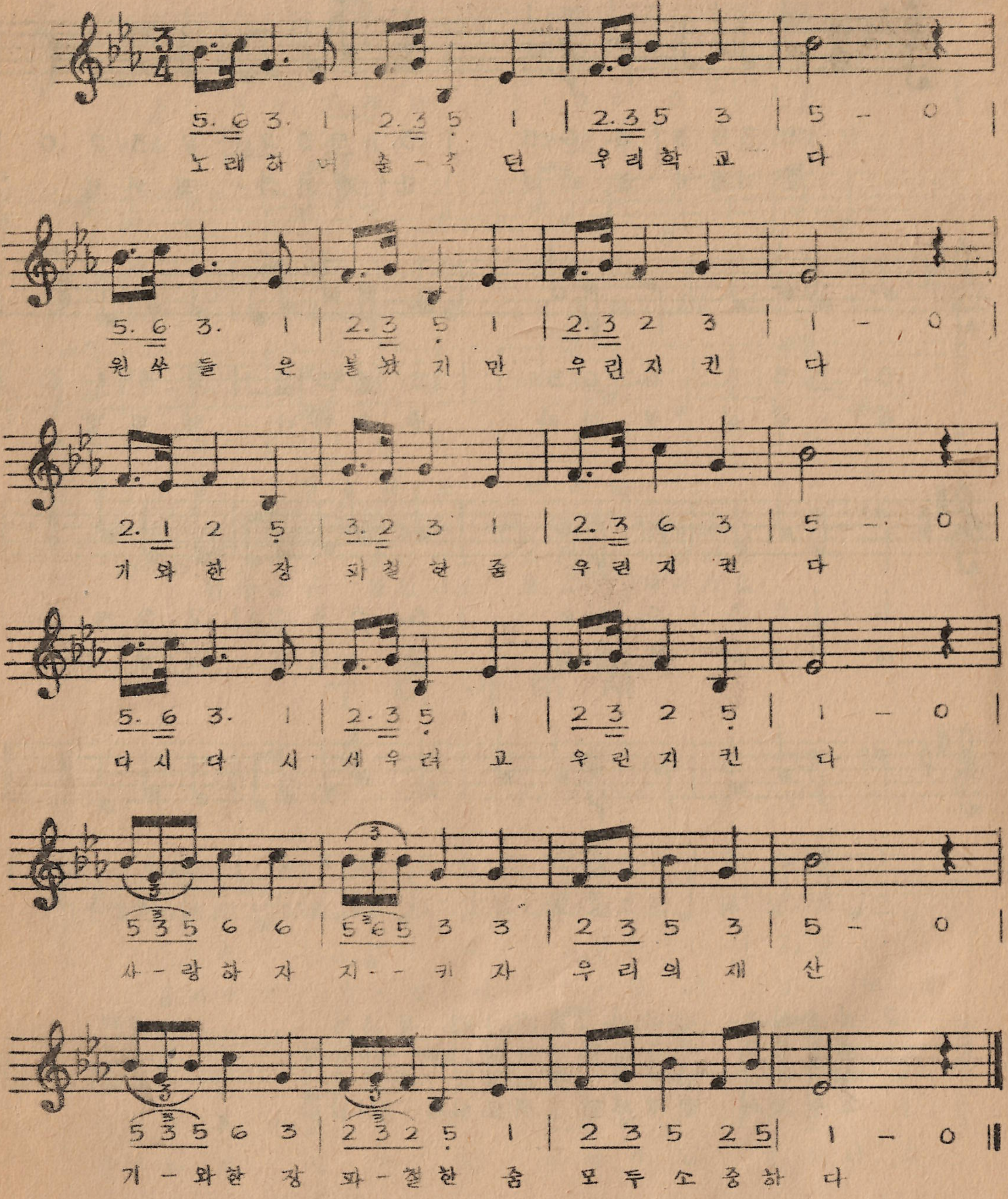
2. 차근차근 놓아라 조개기와 꽃기와
세줄놓고 두줄놓면 기와기와 예순장
미국놈이 불놨던 학교지붕 돼간다
모두모여 글공부할 새교실이 서간다

3. 비늘처럼 놓아라 비늘기와 꽃기와
다섯줄식 곱노면 백장하고 수므장
미국놈이 불놨던 학교지붕 돼간다
모두모여 글공부할 새교실이 서간다

사랑하자지키자

리원우 시
김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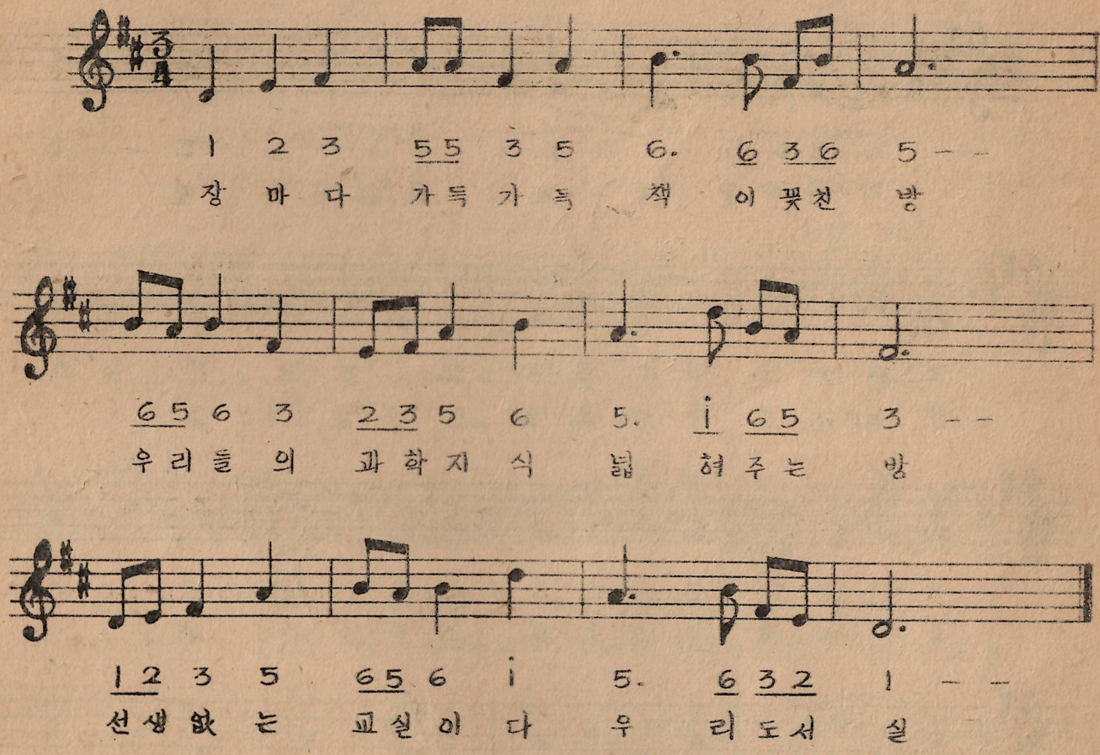
활발하게



도서실공부

송창일 시
김칠성 곡

유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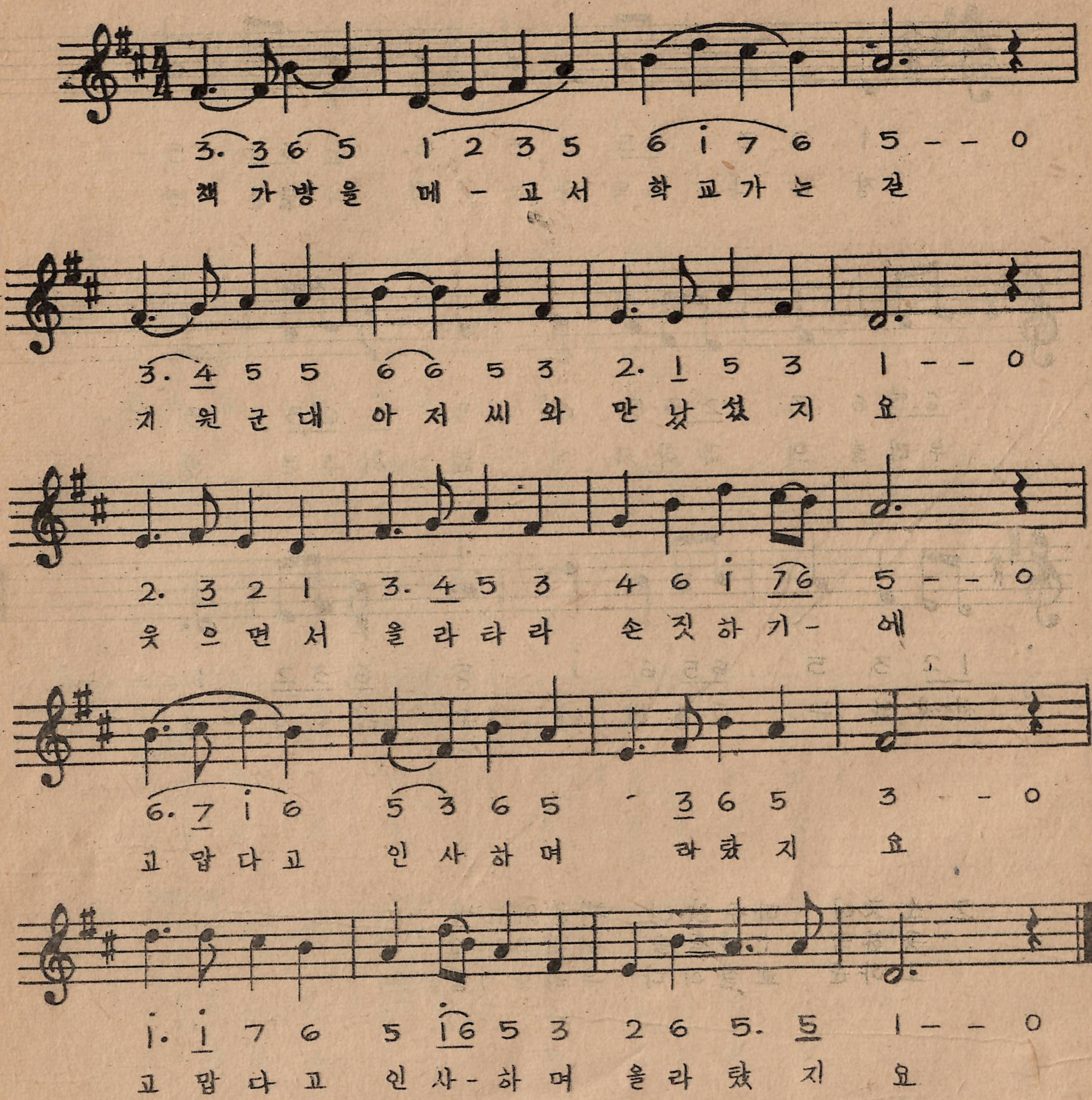
2. 소곳이 마주앉어 책을읽는방
공화국 소년들을 키워주는방
고마운 교실이다 우리도서실

3. 누구가 더욱많이 새책을읽나
말없이도 날마다 경쟁하는방
모두다 앞서가자 우리도서실

학교가는길

우봉준 시
김제선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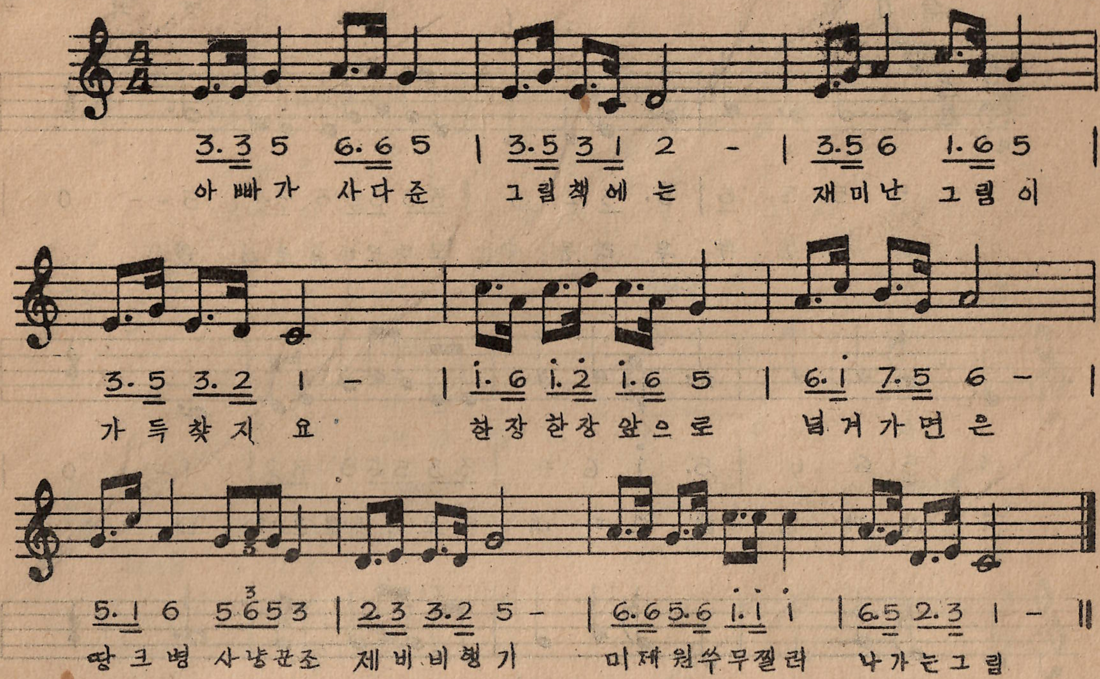
보통속도로



2. 지원군 아저씨 고삐 채면서
날더러 노래를 부르라시죠
김장군 노래를 불렀더니만
아저씨도 곧잘따라 부르셨지요
아저씨도 곧잘따라 부르셨지요

그림책

송창일 시
리천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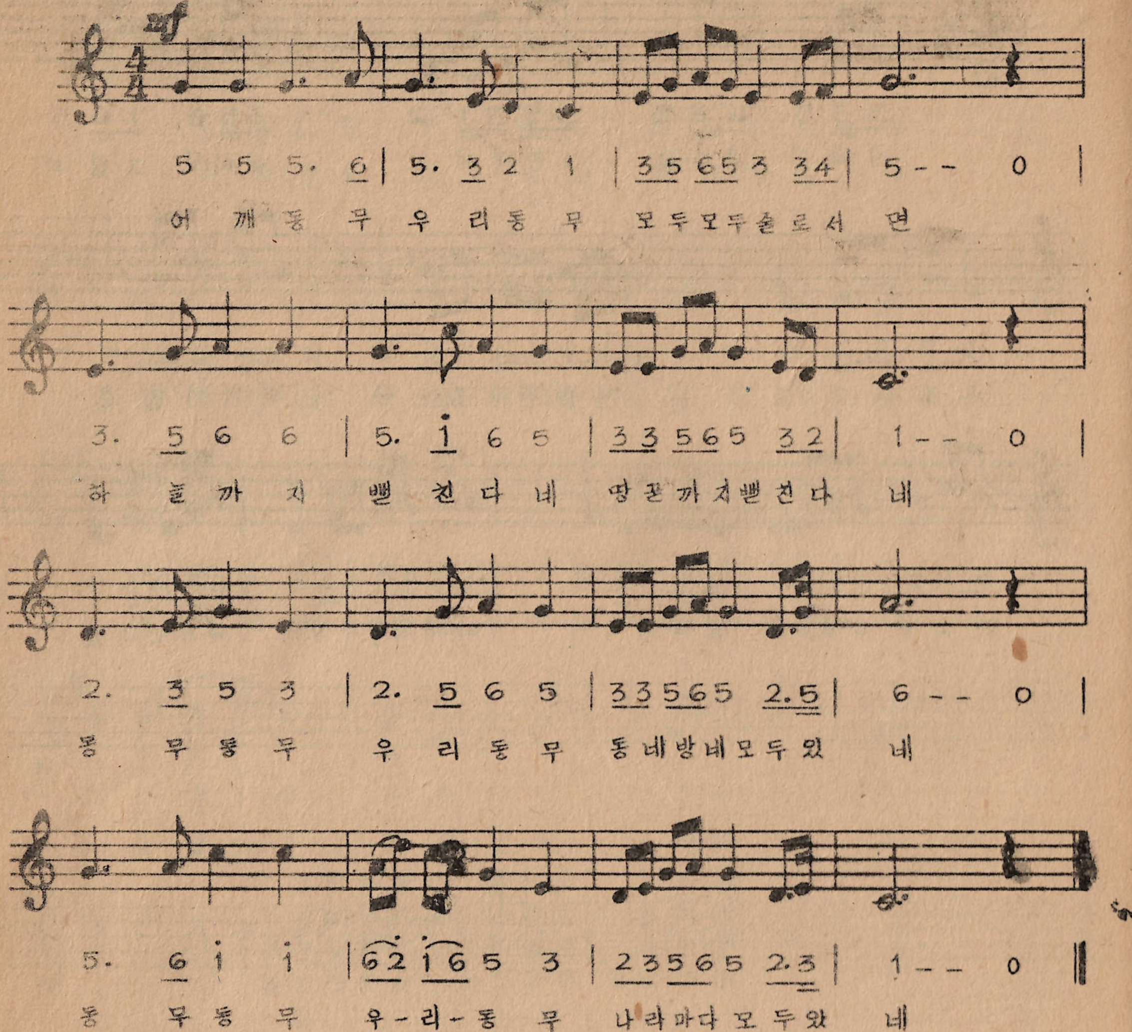


2. 엄마가 사다준 그림책에는
재미난 그림이 가득찼지요
쌀포대 포탄상자 가득실은차
전선으로 전선으로 나가는그림

어깨동무우리동무

윤 복 진 시

즐겁게　　　송 병 혁 곡



2. 어깨동무　우리동무　모두모두　손잡으면
바다라도　에워싸네　지구라도　에워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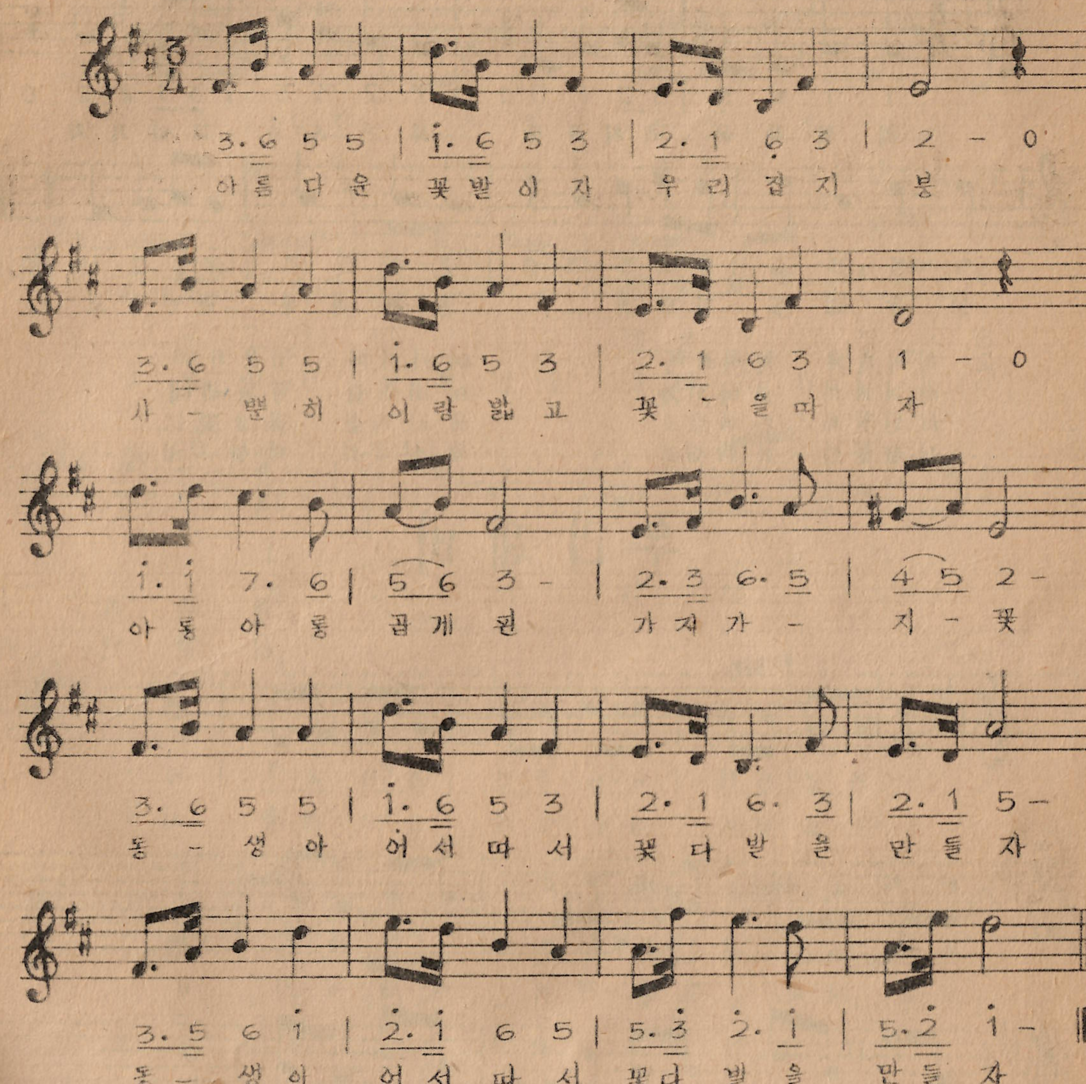
3. 어깨동무　우리동무　모두모두　노래하면
하늘까지　들린다네　땅끝까지　들린다네

4. 어깨동무　우리동무　모두모두　춤을추면
온나라는　꽃밭되네　온세상은　꽃밭되네

해와함께이고살꽃

리 원 우 시

아름답게　　　김 혁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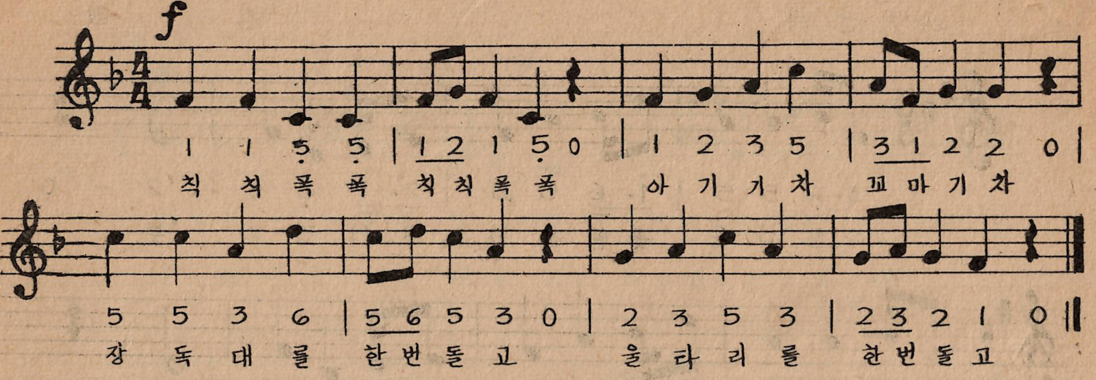
2. 원쑤는　우리집을　허물었어도
향내를　떨치며　올해도　핀꽃
한아름씩　따서　가슴에안고
모란봉　해방탑에　드리러가자

3. 땅집은　한낮에도　컴컴하지만
원쑤치고　아버지　오실때까지
어머님　모시고　웃는얼굴로
해와함께　이고살　아름다운　우리꽃

아 기 기 차

윤 복 진 시
한 시 형 곡

재미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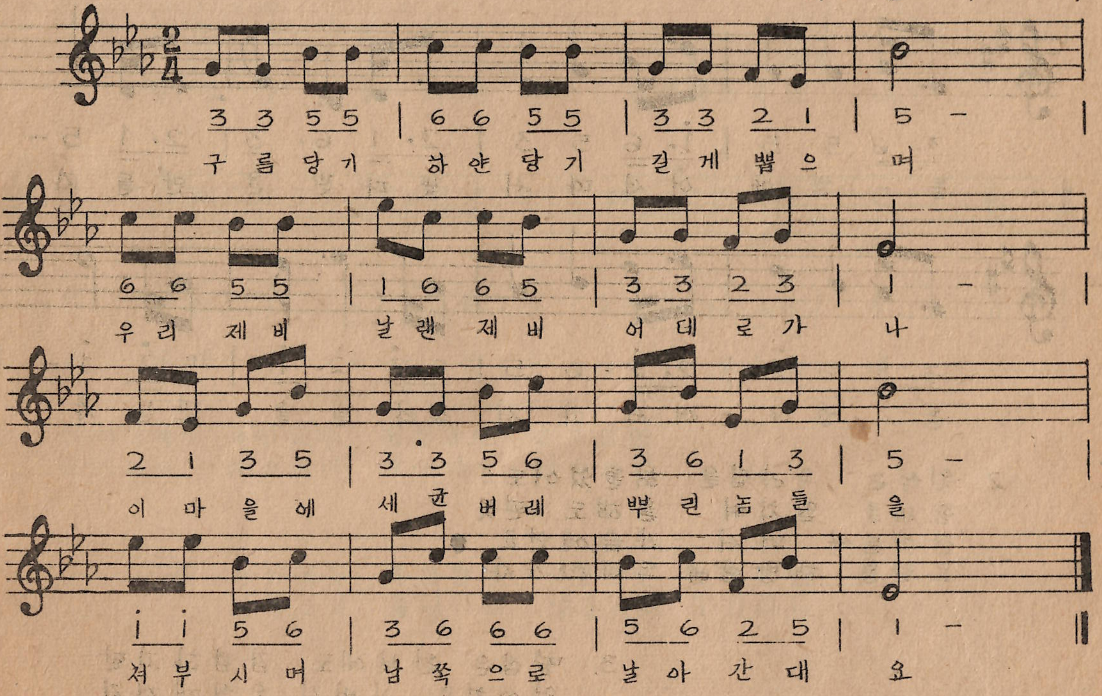


2. 칙칙폭폭 칙칙폭폭
아기기차 꼬마기차
폭탄한차 가득싣고
식량한차 가득싣고

3. 아기기차 영웅기차
제비처럼 막달리네
폭탄속을 뚫고뚫고
전선으로 막달리네

우 리 제 비

홍 종 린 시
리 천 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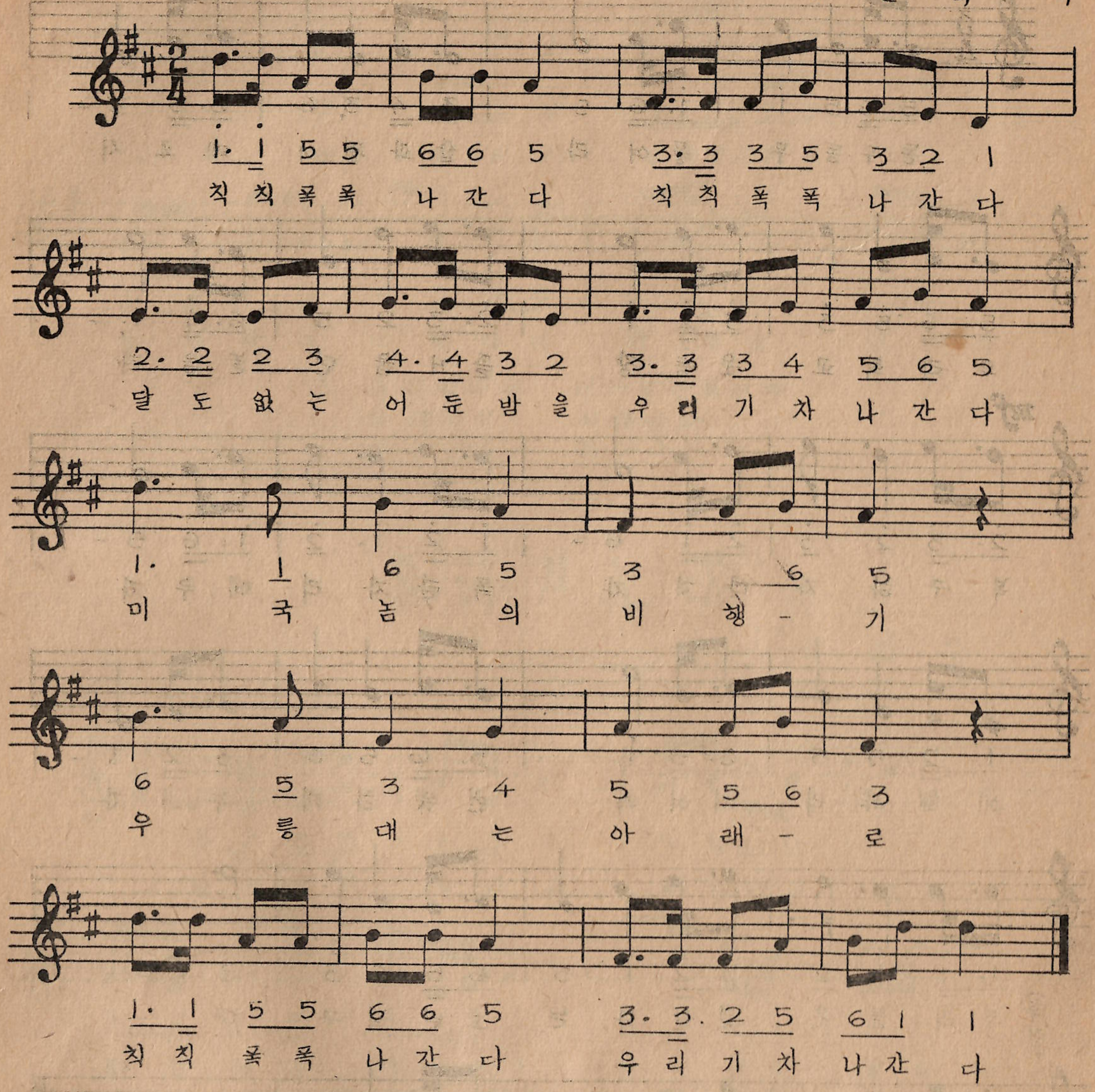


2. 붉은노을 피여나는 새벽하늘에
우리오빠 타신제비 어데로가나
싸롱싸롱 힘찬소리 하늘울리며
우리엄마 죽인원쑤 갚으려가요

3. 넷씩넷씩 짝을지여 하얀제비가
삽시간에 우리마을 지내가면은
논밭에서 농민들이 손을흔들어
잘싸우고 돌아오라 부탁하지요

우 리 기 차

최 석 숭 시
김 길 학 곡

보통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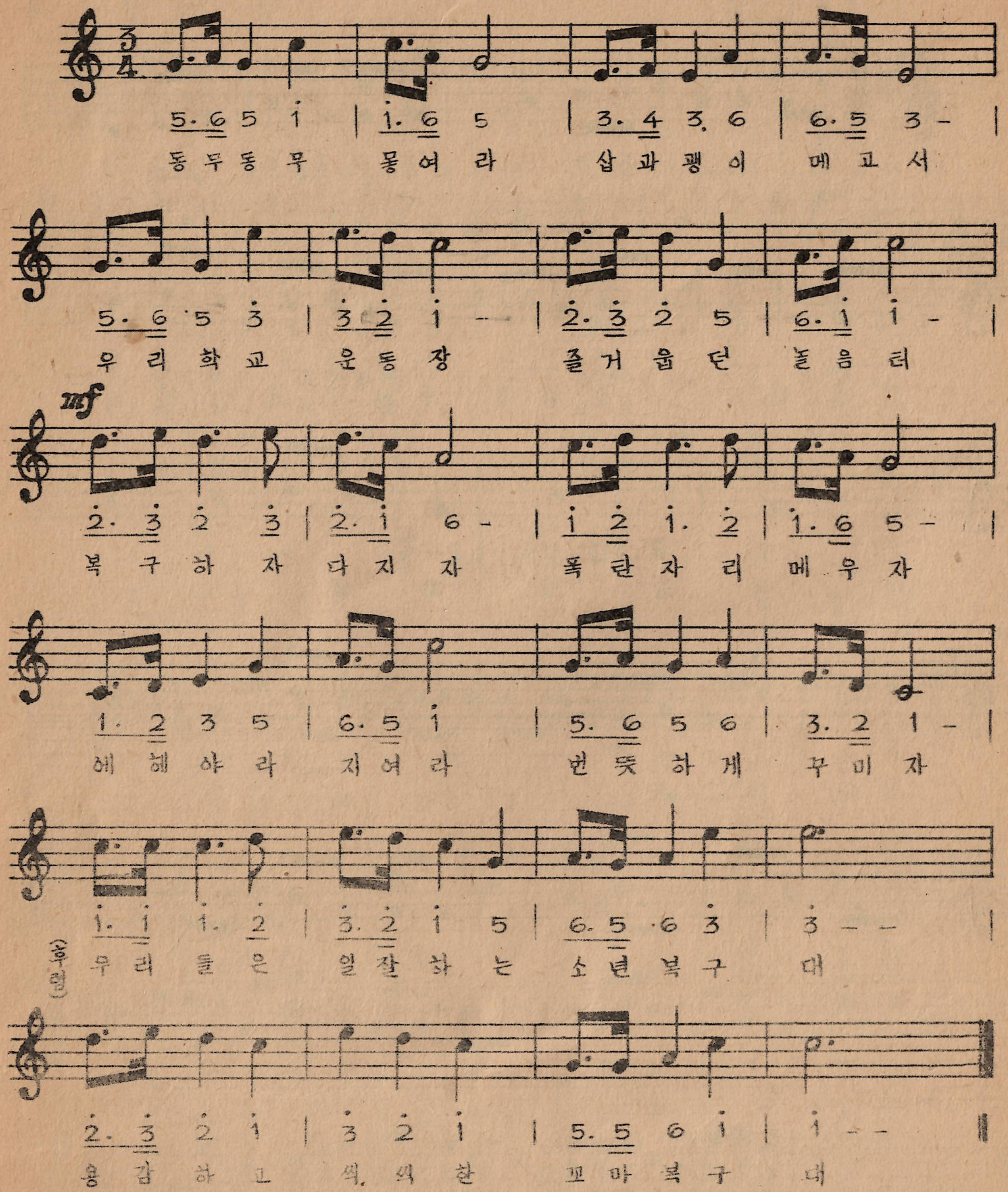


2. 칙칙폭폭 나간다 칙칙폭폭 나간다
차간마다 포탄싣고 우리기차나간다
미국놈을 무찌르는 싸움터로 향하여
칙칙폭폭 나간다 우리기차 나간다

일잘하는복구대

유 충 록 시
리 면 상 곡

유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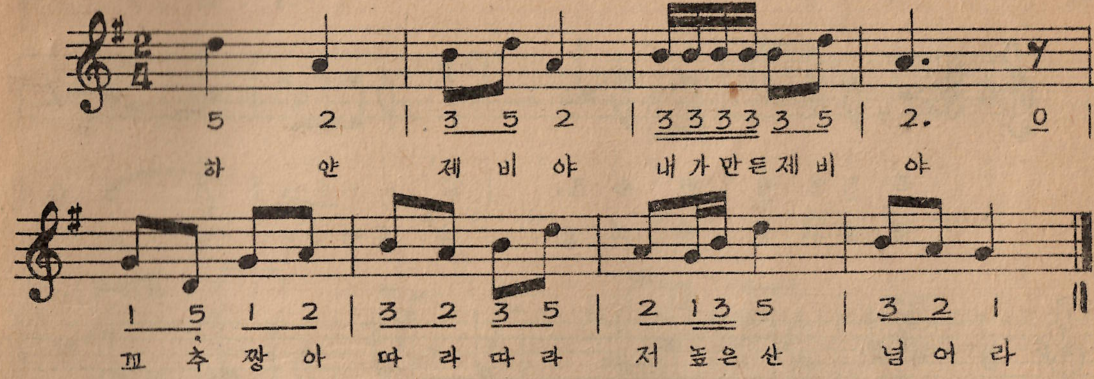
2. 동무동무 모여라
노래노래 부르며
도로수리 갈수리
전선으로 닿은길
어서빨리 고치자
조약돌로 다지여
에헤야차 지여자
승리의길 다지자

3. 동무동무 모여라
소년단기 날리며
미국놈의 폭탄이
뒤집어논 네거리
네거리에 더큰집
우리들의 손으로
어서어서 세우자
꽃나무도 심으자

종이제비

김 련 호 시
김 칠 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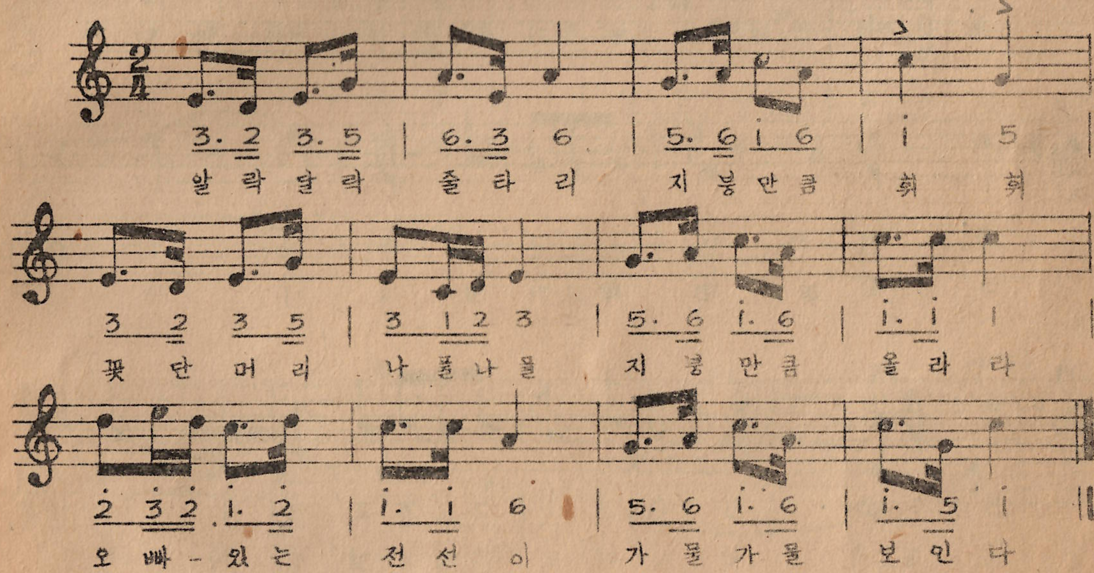
귀여웁게



2. 하얀제비야 내가날린제비야
아빠제비 따라따라
싸움터로 가거라

줄다기노래

리 원 우 시
리 천 백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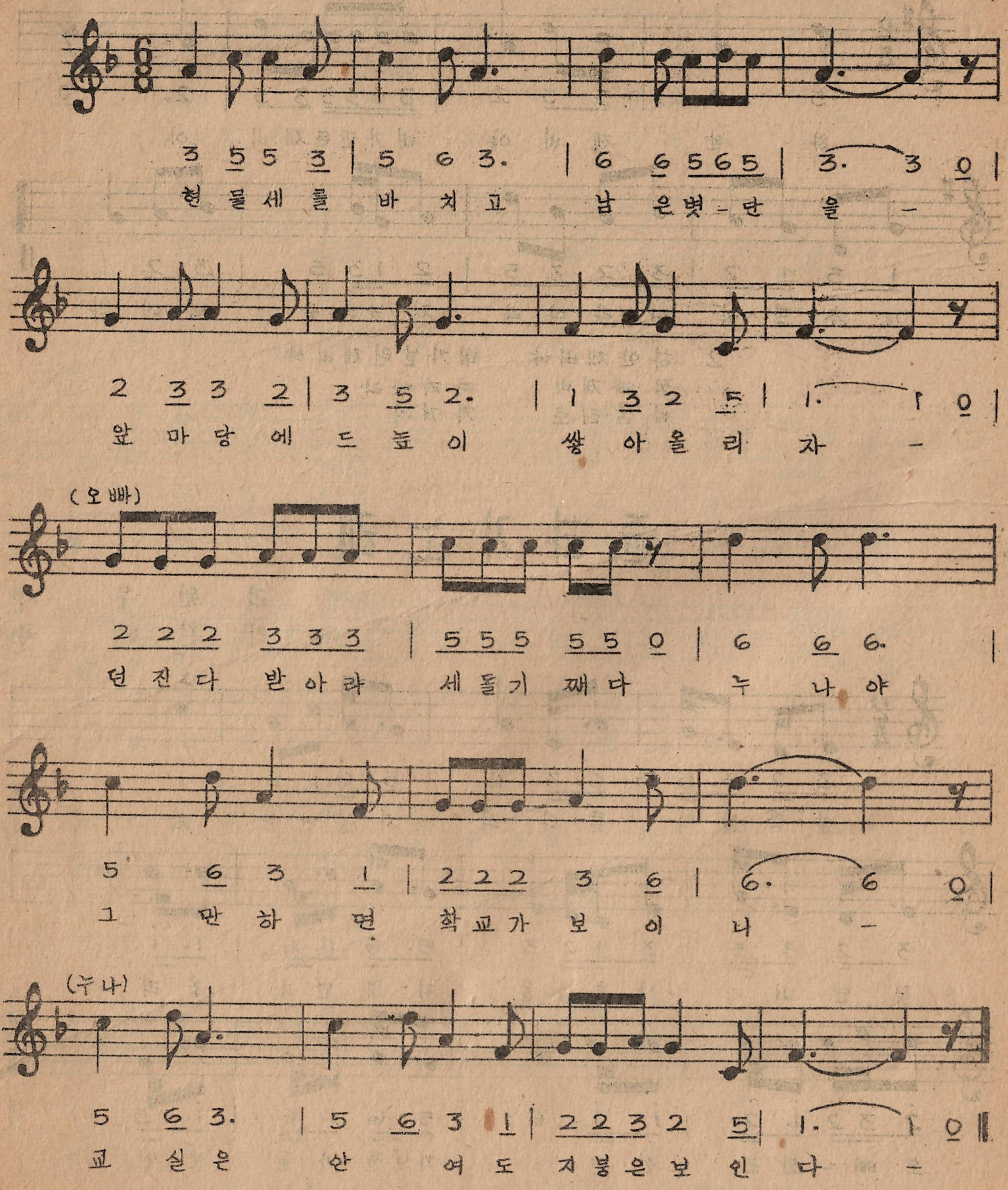


2. 고무다리 줄다리 앞산만큼 훠훠
꺼떡꺼떡 앞산만큼 올라라
원쑤잡는 아버지 가물가물 보인다

3. 다리다리 줄다리 구름만큼 훠훠
조개공패 반짝반짝 구름만큼올라라
땅크잡는 영웅형님 가물가물보인다

벼낟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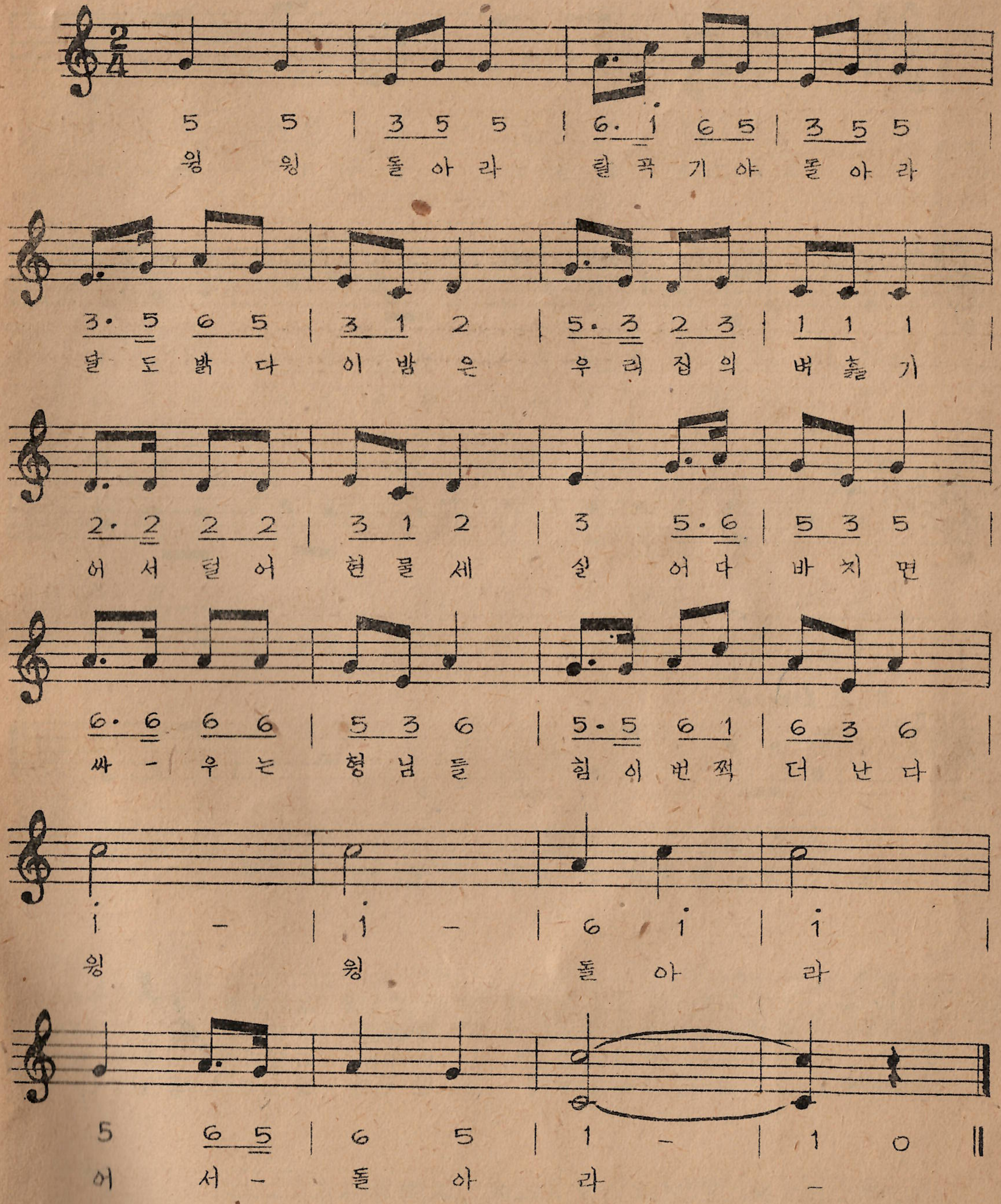
김우철 시
리면상 곡



2. 아빠 앞논에서 갈갈이하고
엄마 뒷밭에서 목화를따다
어 차 받아라 여섯돌기다
누 야 그만하면 거리가보이니
거리는 안보여도 굴뚝은보인다

윙윙돌아라

남응손 시
김원균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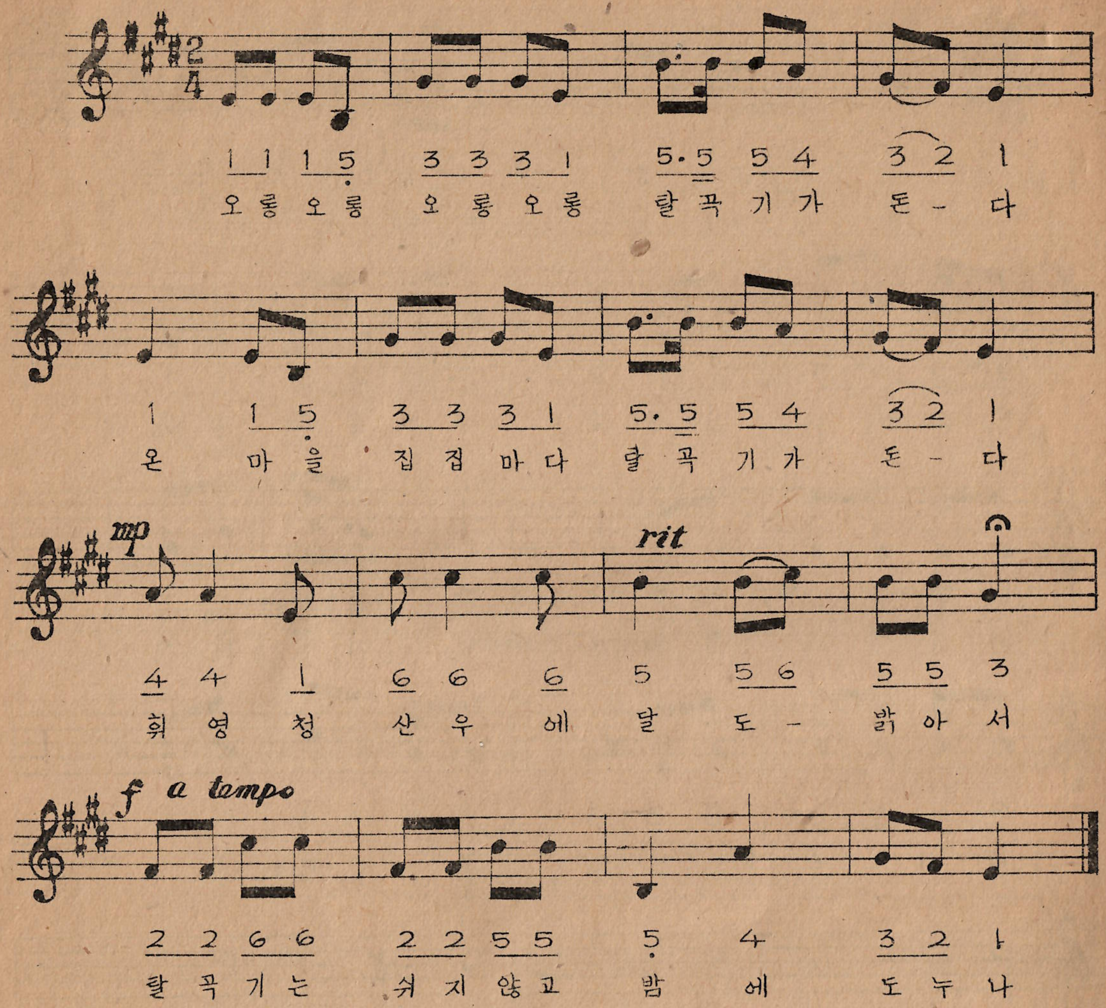


2 윙윙 돌아라 탈곡기야 돌아라
달밝은밤 벼훑기 나도신이 나누나
나도털어 보낸쌀 차타고 가면
싸워이긴 형님들 머지않아 오신다
윙윙돌아라 어서돌아라

돌아라 탈곡기

정 서 촌 시
한 시 형 곡

빠르고명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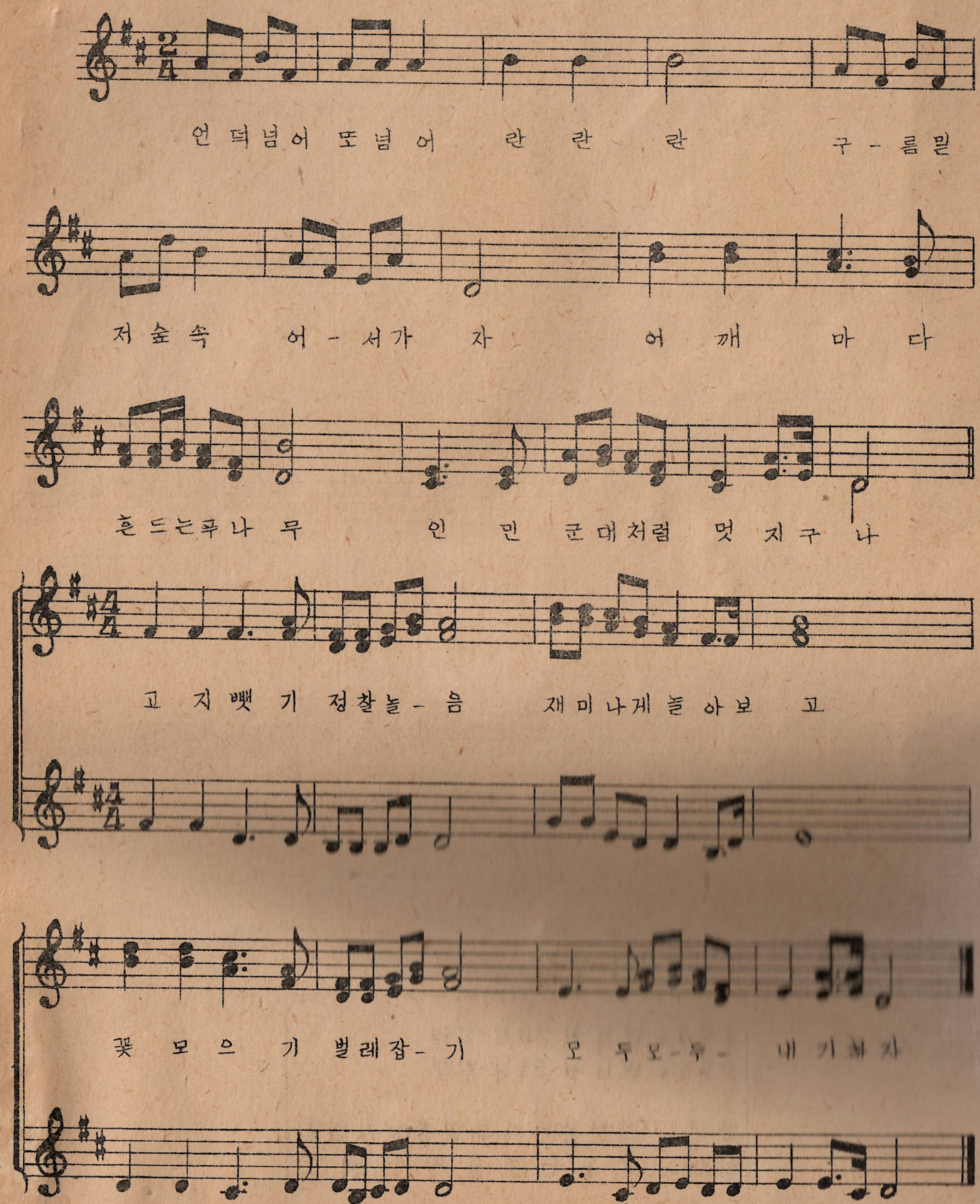
2. 오롱오롱 오롱오롱 탈곡기가돈다
온마을 집집마다 탈곡기가돈다
엄마도 누나도 떨어나오고
검둥이도 꼬리치며 바빠서두네

3. 오롱오롱 오롱오롱 탈곡기가돈다
온마을 집집마다 탈곡기가돈다
미국놈 비행기야 떠돌건 말건
탈곡기 잘도돈다 잘도돈다

4. 한여름 땀흘리며 지은곡식을
탈곡기도 땀흘리며 훑어주누나
알알이 여문곡식 산처럼 싸이면
전선계신 아저씨도 마음놓고싸운다

언덕넘어냇물건너

김 련 호 시
라 화 일 곡



2. 냇물건너 또건너 란란란 이마을 저마을 돌아보자
씩씩하신 아저씨와 누나들 아름다운 고향 지켜섰다
싸워이긴 그 이야기 빠짐없이 들어두고 우리들도 뒤를따라
우리고향 지켜가자

200곡집

1954년 9월 20일 인쇄
1954년 9월 25일 발행

발행소 조선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ㄱ-50298 값 400원 부수 10.000